

이 자료집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2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

속초 도시변천사 Ⅲ

청학동 · 교동 · 청호동 · 노학동



속 초 문 화 원

속초 도시변천사 Ⅲ

청학동 · 교동 · 청호동 · 노학동

발 간 사

‘도시변천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속초문화원에서 관심과 열정을 다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점차 변해가는 우리 지역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시간 속에 묻혀있는 옛것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단절성은 연속성으로 다시 우리 곁을 채워줍니다.

2022년 도시변천사 발간사업은 2020년 『속초 도시변천사 I, 영랑동·장사동』과 2021년 『속초 도시변천사 II, 동명동·중앙동·금호동』에 이어 연간·연차 사업으로 이번에는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청초호와 청초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사, 6·25전쟁과 속초시 승격 이후 지역의 변천과 인구 변화가 이루어진 배경이 담겨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속초 도시변천사 III,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은 향후 속초문화원에서 도시변천사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최영택,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분들과 김창섭, 박명선 선생님 그리고 박경심, 김선희 보조연구원분들의 기획, 연구, 조사, 집필 전 과정 등이 땀과 열정으로 『속초 도시변천사 III,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 편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우리 지역 도시변천사 연구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머 리 말

동해 바다와 설악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속초는 산촌, 농촌, 어촌의 문화가 융합되고 6·25전쟁으로 인해 피란민 문화가 유입되어 결합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속초시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속해 있다가 1937년 속초리로 행정 중심이 이전되고 1942년 속초읍이 된 후 1963년에 속초시로 승격한 사실로 볼 때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간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에서는 이런 속초의 도시 변천사를 기록하기 위해 집필진을 구성하여 2020년에 『속초 도시변천사Ⅰ-영랑동, 장사동』을 발간하고, 2021년에 『속초 도시변천사Ⅱ-동명동, 중앙동, 금호동』를 간행하였다. 2022년에는 세 번째 작업으로 『속초 도시변천사Ⅲ-청학동, 교동, 청호동, 노학동』을 발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변천사를 통하여 청호동을 중심으로 정착한 북한 음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향민의 애환을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청호동을 배경으로 한 극과 드라마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갯배의 유래와 실향민들이 월남할 때 타고 온 창이배가 존재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조선소 영업의 성쇠 과정을 통해서는 선박 제작의 변천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의 변모 양상도 살필 수 있었다. 산업 분야를 살피는 과정에서 보를 관리하는 직업이 ‘보관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미시령이나 청초호와 관련한 옛 문학 작품을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이번 발간에서도 예전과 같이 관련 문헌의 부족, 증언하실 분들을 찾기 어려움, 옛 사진 및 자료의 희소함 등이 집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작업을 물심으로 지원해 주신 김계남 문화원장님, 미시령과 청초호 관련 한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고성군 향토사연구원 김광섭님, 사진 자료와 인터뷰를 담당해주신 박경심님, 김선희님, 그 외 여러 증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집필이 속초의 도시변천사를 집대성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속초 도시변천사 IV-조양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으로 이어져 속초 도시변천사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 12.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목 차

발간사

머리말

I · 자연·인문 환경

13 / 조사지역

20 / 자연환경의 특색과 인문환경의 변화

53 / 교통의 변화

II · 역사

59 / 마을의 형성

69 / 전근대의 역사

86 / 일제강점기

94 / 현대

158 / 기념물

168 / 문화재

171 / 주요기관 및 시설

190 / 지명

III · 산업

217 / 속초 발전의 조력자 조선업

229 / 청호동의 수산물 가공업

237 / 최대 농업지역 노학동

242 / 속초 성장의 핵심 관광업

IV · 문화예술

- 253 / 문학 속의 청호동과 실향민의 삶, 청초호, 미시령
- 253 / 청호동 배경의 극 및 드라마
- 259 / 문학 속의 미시령과 청호동
- 289 / 구비전승 설화
- 302 / 어업민요

V · 삶과 민속

- 307 / 세시풍속
- 309 / 민속신앙
- 311 / 식생활
- 319 / 민속극과 놀이

- 326 【부록1】 연표
- 330 【부록2】 증언 기록
- 377 【부록3】 추억을 간직한 거리

참고문헌

I. 자연·인문 환경



1960년대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 항공사진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1. 조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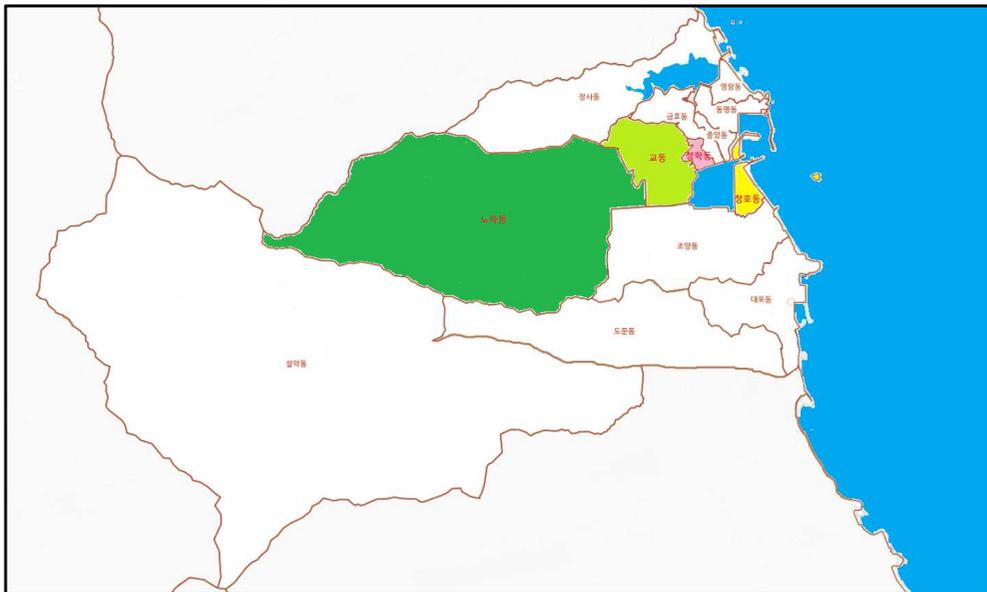
가. 조사지역 개요

〈표 1〉 조사지역 개요(법정동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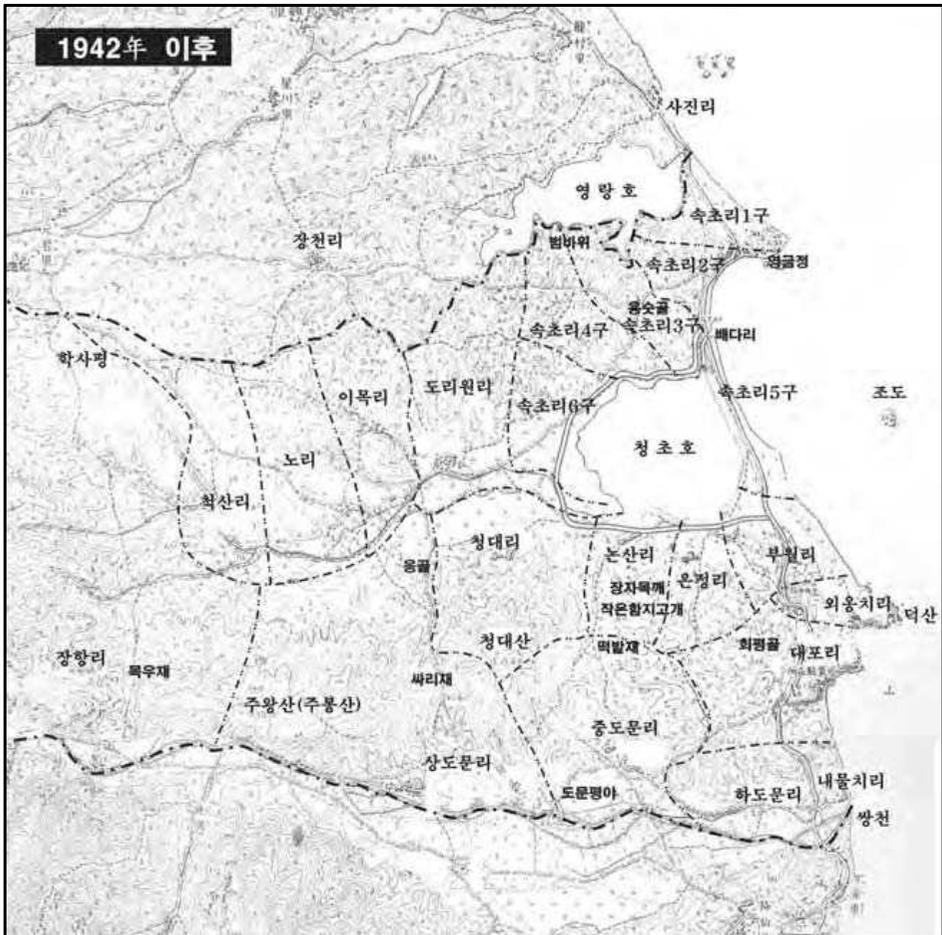
동	인구	면적	소속 행정동	법정동 통수
청학동	1,499명 (1.90%)	0.27km ² (0.26%)	교동	11
교 동	27,109명 (33.76%)	2.50km ² (2.35%)	교동 / 노학동	67
청호동	3,449명 (5.63%)	0.62km ² (0.58%)	조양동 / 청호동	12
노학동	2,343명 (26.47%)	20.3km ² (19.20%)	교동 / 노학동	9
속초시	82,665명 (100%)	105.76km ² (100%)	8개	238

출처 : 『2020년 속초시 통계연보』

나. 조사지역 지도



〈그림 1〉 조사지역 (청학동 · 교동 · 청호동 · 노학동)



<그림 2> 1942년 이후 속초시 행정구역

다. 조사지역 요약

1) 교동(校洞)

교동은 속초리 6구에 속했던 지역으로 1966년 동제(洞制)가 실시되면서 ‘교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보통은 향교(鄕校)가 있던 지역을 교동이라 칭하지만, 속초는 과거 중심지가 아니었기에 향교가 없었다. 다만 당시 속초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속초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이같이 이름하였다.

교동은 동해대로, 교동로, 번영로, 미시령로, 수복로 등을 접한 시내 중심가에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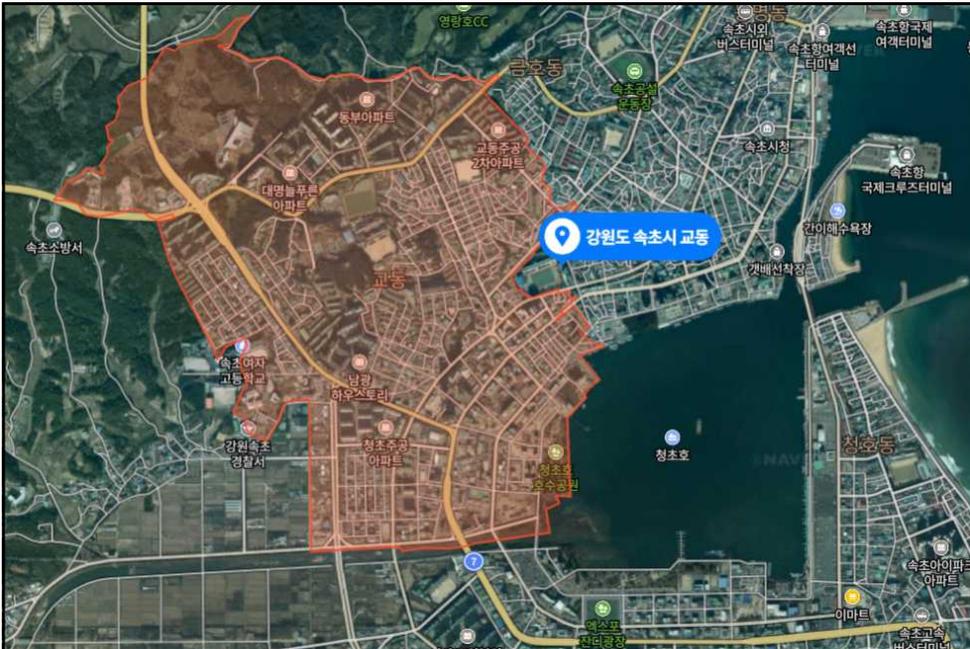
치한 지역으로 1998년 교동로를 중심으로 교동과 청학동이 통합한 동이다. 면적은 동명동, 금호동, 청호동에 이어 4번째로 작다. 면적 중 전·답·임야의 비중이 매우 낮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주택 밀집 지역이 있어 대지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교동은 속초시에서 인구밀도(2020년 기준 12,038.5명/k㎡)가 가장 높은 동이다. 도로변에는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상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속초의 대표적인 상권(商圈)인 먹거리 단지도 있다. 동쪽은 금호동, 서쪽은 노학동, 남쪽은 조양동과 청초호, 북쪽은 영랑동과 접한다.

<표 2> 교동의 토지이용

단위:k㎡

구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합계
교동	0.07 (2.81%)	0.05 (2.01%)	0.01 (0.40%)	0.30 (12.05%)	1.19 (47.79%)	0.49 (19.68%)	2.49 (100%)

출처: 『2020년 속초시 통계연보』



<그림 3> 교동 위성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2) 청학동(靑鶴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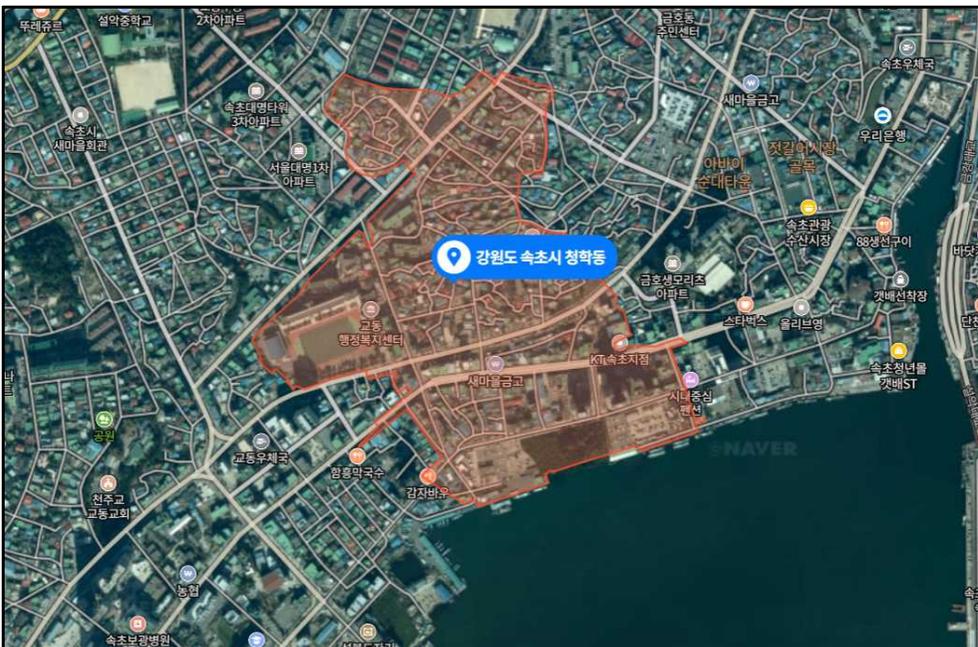
청학동은 동제(洞制) 실시 전에는 교동과 함께 속초리 6구였으며, 동이름은 ‘청초호가 정말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간다’ 고 하여 붙여졌다. 1998년 행정동(行政洞) 기준으로 교동(校洞)이 되었다.

청학동은 면적이 가장 작은(속초시 면적의 0.26%) 동으로 대부분이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로인 수복로(收復路) 기준 북쪽은 밀집 주택 지역이 있고 동(洞)을 가로지르는 변영로, 수복로, 중앙로 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동쪽은 금호동, 북서쪽은 교동, 남쪽은 청초호와 접해 있다.

〈표 3〉 청학동의 토지이용 단위:km²

구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합계
청학동	0 (0%)	0 (0%)	0 (0%)	0 (0%)	0.15 (57.69%)	0.05 (19.23%)	0.26 (100%)

출처: 『2020년 속초시 통계연보』



〈그림 4〉 청학동 위성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3) 청호동(靑湖洞)

청호동은 동계 실시 전 속초리 5구로, 청초호(靑草湖)의 이름을 따서 청호동이 되었다. 6·25전쟁 이후 이곳의 피란민 중에서도 특히 중장년층 남자들이 많이 살아 아버지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에서 유래한 ‘아바이 마을’로도 통용되고 있다.

1998년 행정동 기준 청호동과 조양동(朝陽洞) 일부(새마을)가 청호동으로 통합되었다. 청호동은 사주(砂洲)와 사빈(砂濱) 위에 형성된 전형적인 실향민 정착마을로 동·서·북쪽의 세 면이 바다와 석호(潟湖)로 둘러싸인 소반도(小半島) 형태이고, 남쪽만 육지로 조양동과 붙어 있다. 동쪽은 동해와 접하며 조도(鳥島)라는 섬이 있고, 서쪽은 청초호, 북쪽은 속초항이 있다. 신수로 개설 후 2003년 설악대교, 2012년 금강대교가 개통되면서 속초의 새로운 교통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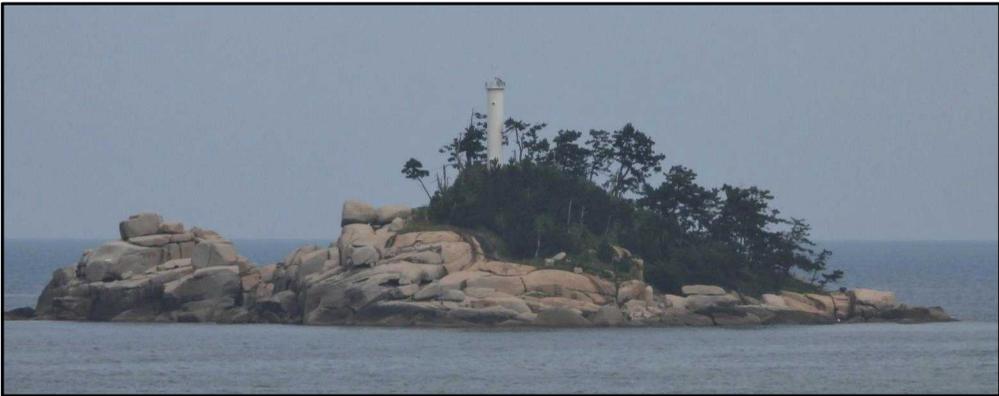
아바이 마을은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전·담·과수원이 전혀 없지만 수산물 가공업 공장들이 있어 공장용지가 대포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과거에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표 4〉 청호동의 토지이용

단위: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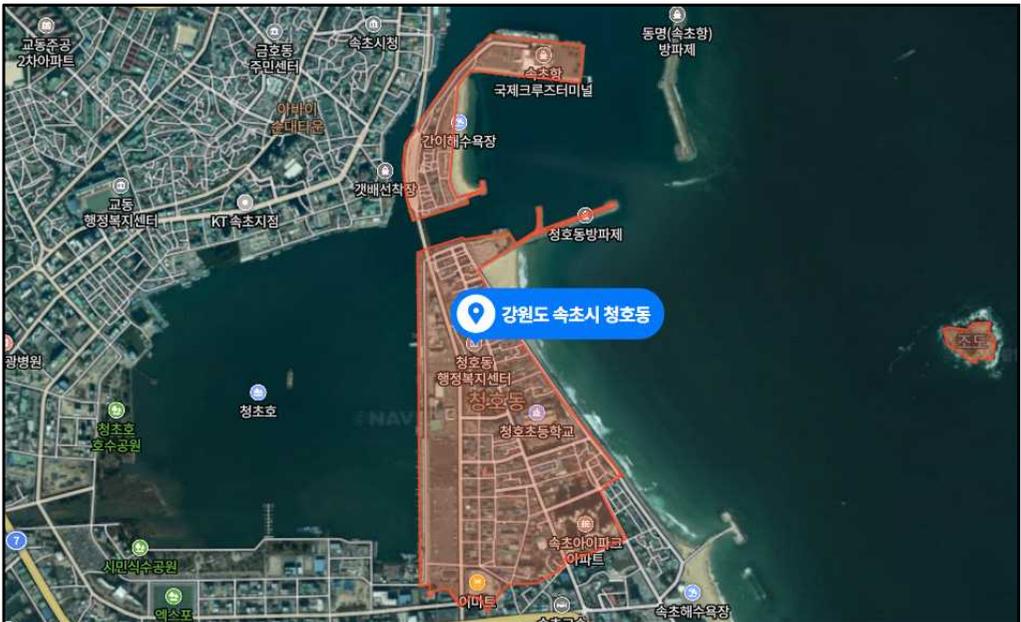
구분	전	담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합계
청호동	0 (0%)	0 (0%)	0 (0%)	0.01 (1.64%)	0.22 (36.07%)	0.05 (8.20%)	0.61 (100%)

출처: 『2020년 속초시 통계연보』



〈사진 1〉 조도 전경

조도(鳥島)는 강원도 속초시의 동쪽 청호동 속초해변 앞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속초의 해안에는 섬이 많지 않아 유일하게 눈에 띄는 섬이 바로 조도이다. 조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새가 많이 앉아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진다. 한때 강원도지사 이용(李龍)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속초(혹은 풀)의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 불렀기 때문에 용초도(龍草島)라고도 했다. 또 풀과 소나무가 무성해 초도(草島)라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정자가 헐리고 그 자리에 1984년에 세워진 무인등대가 있다. 1999년에 속초시민들의 공모에 의해 속초팔경에 선정되었으며 속초해변의 백사장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¹⁾



<그림 5> 청호동 위성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37쪽.

4) 노학동(蘆鶴洞)

노학동은 동계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 노학동이 되었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 자와 학사평(鶴沙坪)의 ‘학’ 자를 딴 것이다. 그 후 1998년 교동로를 중심으로 서쪽의 교동 일부가 행정동인 노학동으로 통합되었다. 노학동은 속초 시내의 배후지이며 근교 농촌의 특징이 나타난다.

설악산의 높고 험준한 산줄기와 청초천 주변으로 넓은 논과 밭 그리고 전통 마을들이 있다. 노학동은 청초천 대부분의 하계(河系)가 지나가며 도리원 앞버덩, 노리 뒷버덩, 학사평, 도평리 주변 넓은 평야와 수많은 구릉지에서 논·밭농사가 발달한 속초 농업의 핵심지역이다. 또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과 콘도 등의 상권이 발달하고 콘도, 연수원, 온천장,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이 밀집하며, 학사평 순두부 마을, 응골 딸기마을, 척산 토종닭마을 등의 테마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 면적은 속초시에서 설악동 다음으로 크며, 전·답·과수원의 비율이 모두 가장 높다. 동쪽은 교동과 조양동, 서쪽은 고성군 토성면, 남쪽은 대포동, 북쪽은 영랑동과 접해 있다.

〈표 5〉 노학동의 토지이용

단위:km²

구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합계
노학동	1.02 (5.02%)	1.40 (6.89%)	0.14 (0.69%)	14.24 (70.11%)	1.08 (5.32%)	1.07 (5.27%)	20.31 (100%)

출처: 『2020년 속초시 통계연보』



〈그림 6〉 노학동 위성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2) 강의 분류와 지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자연환경의 특색과 인문환경의 변화

가. 지형도 분석

1) 1918년도 지형도



〈그림 7〉 1918년 지형도

1918년 지형도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측량기법으로 제작된 최초의 지형도로 개발 이전의 속초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고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³⁾

교동은 해발 30~70m 이하의 구릉성 산지와 구릉지부터 청초호 호안까지 석호(瀾湖)의 가장자리가 자연적으로 매립되어 형성된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평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며, 청초호 호안까지 이어진다. 청초호 호안에는 사빈(砂濱)⁴⁾이 나타난다. 구릉지에는 화강암 암괴(巖塊)⁵⁾가 드문드문 노출되어 있으며, 침엽수림이 분포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은 없다.

청학동의 지형 특색은 교동과 매우 유사하다. 교동보다 해발고도가 낮고 호안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한다는 점 이외에는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청호동은 청초호를 석호로 만든 사주(砂洲)⁶⁾ 위에 위치한다. 이 사주는 최대 해발 고도가 20m를 넘지 않는 매우 평탄한 모래톱 지형이다. 사주 위로 원산~양양 구간 지방도로가 지나가며 오늘날 갯배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다리가 있지만, 일제

3)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박명선 공저, 『속초도시변천사Ⅱ』 속초문화원, 2021, 14쪽.

4) 모래가 많이 퇴적한 해안 지형으로 모래 해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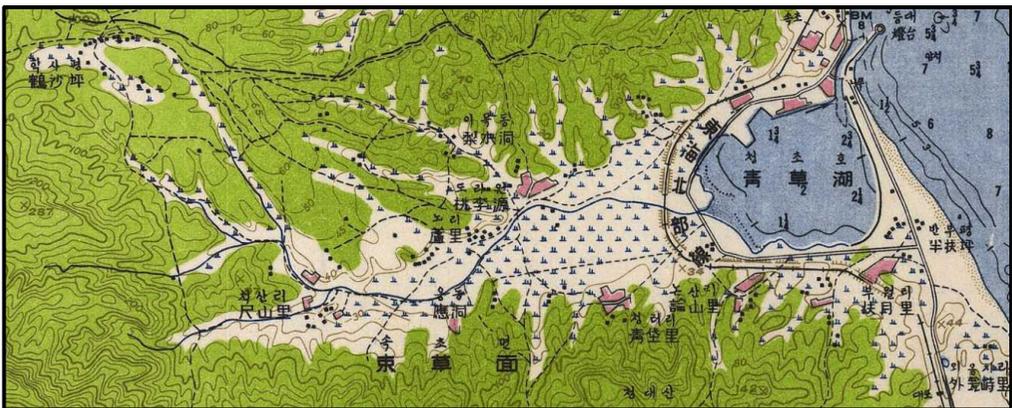
5) 바위 덩어리를 말한다.

6) 파도와 연안류의 작용으로 해안에 연이어 형성된 모래더미이다.

의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개발이 금지되어 사람이 사는 마을은 없다. 당시 청초호의 면적은 오늘날 청초호의 면적보다 약 2배 넓다. 그 이유는 본래 자연 상태의 석호는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퇴적물질과 사빈과 사주, 사구(모래언덕)에서 바람에 의해 날아온 모래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속초의 시가지 확장 과정에서 부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초호를 매립하였다. 특히, 1999년 강원국제관광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대대적으로 청초호 호안을 매립했다.

노학동은 태백산맥이 동해로 향하는 산줄기의 연속성 높은 산지와 그 완사면, 해안 충적평야(沖積平野)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달마봉(631.8m), 주봉산(337.8m)이 이어지는 능선이 설악동, 도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지에는 침엽수림이 주로 형성되어 있고, 경사를 따라 올라가면서 해발고도 300m 부근까지 밭이 있다. 청초천의 여러 지류와 본류가 흐르며 하천 주변의 구릉지에는 노리, 척산리, 이목동, 도리원 등의 마을이 들어섰으며, 충적평야에서는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노리를 시작으로 구릉지 개척이 시작되었으며 여러 마을들이 개척된 논과 청초천을 따라 형성되어 갔다. 학사평 일대는 지금과 다르게 습지(濕地)가 형성되어 있었다. 도리원과 노리를 지나서 청초천을 따라 활엽수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하천 침식을 방지하고 하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했다.

2) 1940년대 초 지형도



<그림 8> 1940년대 초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에 기록된 1956년 발행 속초 지형도이다. 하지만 지도 하단에 속초면(東草面)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해북부선과 철로가 뚜렷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아

1956년 속초 지형도로 보기 어렵다.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하였으므로 이 지도는 6·25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지도를 토대로 일본어를 삭제하고 우리말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1918년 지형도와 비교하여 확연히 달라진 점은 동해북부선 철도와 청초호 호안을 따라 건설된 우회도로이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1937년 12월 1일 안변(安邊)에서 양양(襄陽)까지 개통되어 운행되었고, 속초의 기차역은 동명동(東明洞)과 대포동(大浦洞)에 있었다. 청초호 호안 도로는 1939년 착공하여 1940년에 준공되었다. 철도역과 도로가 개통되고 어항으로서 속초항의 위상이 올라가며 청초호 북쪽이 일부 매립되어 도시적 경관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과 청학동의 호안에서 볼 수 있던 사빈이 사라지며 시가지가 확장되었고, 구릉지 쪽으로도 마을이 점차 확대되었다.



〈사진 2〉 1950년대 동해북부선 철도와 청초호 외곽도로

철도와 도로뿐만 아니라 속초항의 개발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속초항은 내항(수심 4~5m)과 외항(수심 8~9m) 두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바다에서 호수로 통하는 곳에 방파제를 수축하여 외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수문을 통하여 내항인 호수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호수 준설공사를 함께 실시했다. 최초의 속초항 수축공사는 당시 총공사비 39만원을 들여 1932년 11월 6일 시작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1937년 3월 30일 공사를 종료하였다. 이처럼 속초의 어업 경기 활황으로 속초항이 건설되고 청호동에는 방파제와 등대가 건설되었다. 또한 청초호가 어항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면서 청초호 안쪽의 사빈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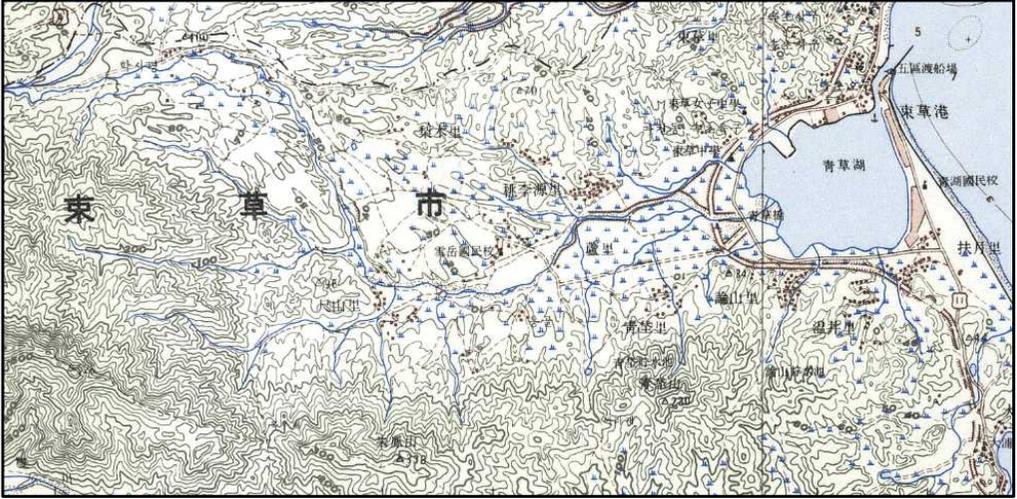
노학동의 학사평 일대는 습지가 논으로 개간됨에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 일제강

7)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박명선 공저, 앞의 책, 15쪽 참조.

점기에 들어와 습지대의 개발과 층적 평야의 개척으로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노리는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로 나뉘었다.

3) 1965년 지형도



〈그림 9〉 1965년 지형도

1965년 지형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66년 속초시 동제 실시 직전으로 1942년 속초읍 당시의 행정구역인 구(區)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1942년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읍(邑)의 중심지역은 1구(영랑동), 2구(동명동), 3구(중앙동), 4구(금호동)로 분리되었다. 1951년 수복 이후 군정기를 거쳐 1954년 민정 이양 이후 5구(청호동), 6구(청학동·교동)가 추가되어 지도와 같은 6구 체제가 갖추어졌다.

1940년대 초 지형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은 공식적으로 1967년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6·25전쟁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철도길로 바뀌어 시민들의 주요 교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철로 주변으로는 밀집된 주거지역이 나타나고 있다.⁸⁾ 또한 청초천 하안(河岸)⁹⁾에 제방이 건설되며 도리원리를 지나는 구간은 직선화되어 물길이 바뀌었다. 여름철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청초천은 잦은 범람을 했기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건설했다.

8)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박명선 공저, 앞의 책, 16-17쪽 참조.

9) 하천 주위의 언덕이나 모래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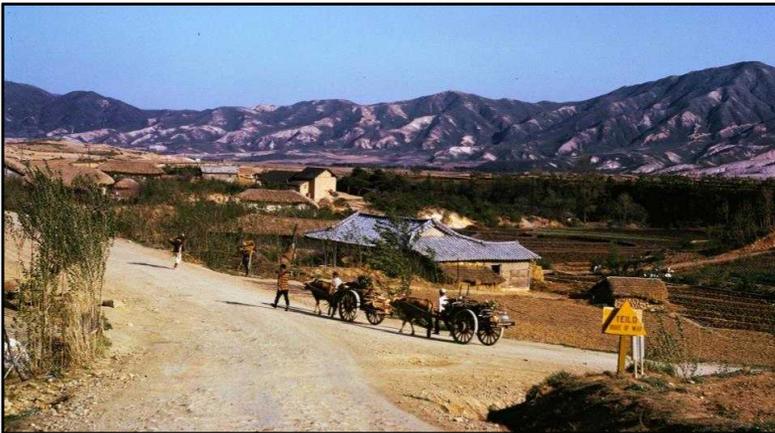
교동과 청학동은 철독길과 도로를 따라 주택이 더욱 밀집되어 주민 수가 늘었고, 구릉지가 점차 개발되어 논과 마을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초등학교 1951년, 속초중학교 1951년, 속초고등학교 1952년, 속초여중이 1955년에 차례로 개교하였다.

청호동은 실향민들이 몰려들어 도로를 따라 판자촌이 빼곡히 지어지면서 마을이 크게 확대되며 1957년 청호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에 따라 청호동은 남한 최대의 실향민 마을로 자리매김하였다. 갯배는 청호동 주민들이 속초 시내를 드나들기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며 지도에는 5구도선장(五區渡船場)으로 표시되어 있다.

노학동은 기존의 마을이 형성되었던 노리, 도리원리, 척산리가 중심이 되어 주변 구릉지를 개간하면서 마을이 점차 확대되었다. 온정초등학교의 전신인 설악국민학교 노리 분교는 1951년에 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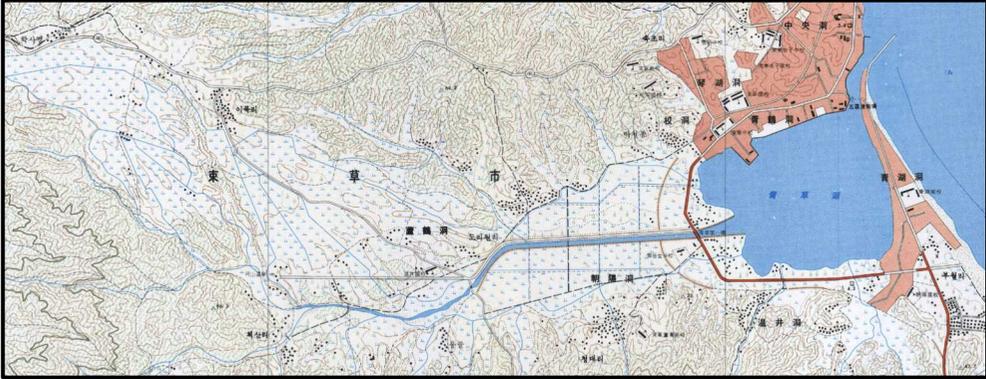


<사진 3> 1964년 청학동 선착장 일대



<사진 4> 1960년대 학사평(현재, 순두부 마을 일대 모습)¹⁰⁾

4) 1974년 지형도



〈그림 10〉 1974년 지형도

1966년 통제 실시 이후의 지도로 교동, 청학동, 청호동, 노학동의 지명 표기를 볼 수 있다. 중앙동(中央洞)에서 시작된 시가지의 확장은 청학동과 교동의 구릉지까지 크게 확대되었고, 영랑동-동명동-중앙동-금호동-청학동-교동을 연결하는 연속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특히, 새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미시로(시외버스정류장~고성군 경계, 약 4.2km), 온천로(청초교~목우재, 약 2.1km), 중앙가로(국민은행 앞~공설운동장, 약 0.6km), 교동로(옛 속초교육청~미시로, 약 1km), 번영로(교동로~영랑교, 약 3km), 관광로(온천장~한화설악리조트, 약 1.7km) 등 크고 작은 도로들이 생기며 시가지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청초천은 노리 구간부터 청초호와 만나는 하구까지 제방을 쌓으며 본류(本流) 대부분의 구간이 직선화되었다. 충적평야(沖積平野)를 흐르는 지류(支流) 하천들도 모두 직선화되며 농지 구획이 정리되며 농지 면적이 크게 넓어졌다.

교동은 중앙동에서 시작된 시가지 확장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구릉지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설악중학교가 1966년, 교동초등학교가 1969년에 개교하고 1979년 12월에는 속초 최초의 아파트인 주공 1차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시가지 뒤편의 구릉지에는 밭과 과수원이 많으며 주택 건설에 따른 시가지 확장의 가능성이 보인다. 청학동은 전부 시가지화 되어 오늘날의 토지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호동은 1965년 지형도보다 더욱 시가지가 확대되어 부월리(扶月里) 쪽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주의 대부분이 대지(집터) 및 공장용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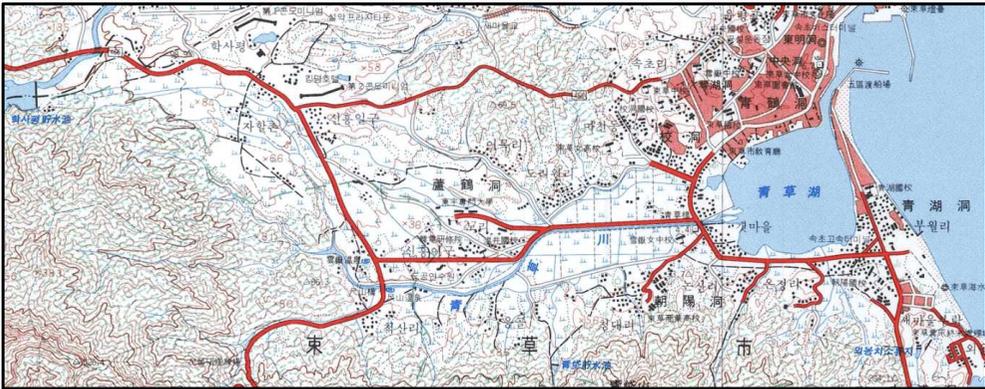
10) 사진의 오른쪽 주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마을은 6·25전쟁 이후 이주한 가옥 몇채가 있었고, 가운데 검은 지붕에 흰색 벽돌집은 정미소(방앗간)이다.(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기증사진 No.2013-313, 1964년 촬영.)

노학동은 온천로와 관광로의 개통으로 도로 사정이 크게 나아져 속초 시내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이목리와 학사평 마을이 확대되었으며, 학사평은 습지의 개간이 많이 이루어져 논 면적이 늘어났다. 척산리와 응골에는 산록완사면(山麓緩斜面)을 따라 과수원이 많이 분포한다.



<사진 5> 만천로와 주공1차 아파트(1985년)

5) 1989년 지형도



<그림 11> 1989년 지형도

1989년에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시가지 면적은 1970년대와 거의 일치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산업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수도권, 남동 임해 공업 지역들의 도시들과 대비되며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속초 지역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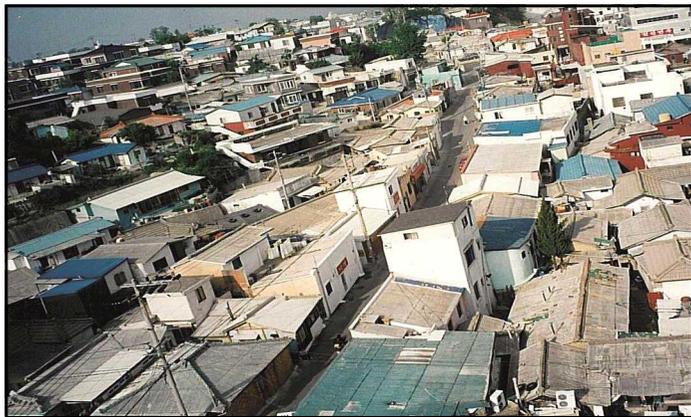
에서 소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80년대 초반 당시까지만 해도 7번 국도를 제외하고 속초시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비포장이었다. 다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속초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속초항 북방파제 공사가 계속 추진되어 1994년 완공되었다. 총연장 933m로 남북방향으로 건설된 북방파제는 동해 외해(外海)의 거센 파도와 태풍으로 인한 풍랑을 완벽히 차단하여 속초발전의 큰 전기가 되었다. 어선 전용부두가 완공되어 속초항은 내항(청초항), 외항(동명항) 체제를 갖추어 종합항으로써 기반이 조성되었다.¹¹⁾

교동은 전통 취락인 만천동 쪽 구릉지 및 청초천 하구 충적지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청학동은 교동, 금호동, 중앙동의 사이에 있는 입지적 조건으로 큰 변화 없이 시가지 면적이 유지되었다. 청학동의 6구시장은 속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앙시장과 함께 속초 상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청호동은 더 이상 시가지가 확대될 부지가 마땅치 않아 해변 가까이에 마을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러한 마을들이 해일 피해를 자주 입어 해안가로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개설되었다. 청호동의 시가지 확장은 부월리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노학동은 관광로가 새로 개통되어 미시령을 넘어온 관광객들이 속초 시내를 가기 위한 길목이 되며 상권이 발달하였다. 관광로와 연결된 온천로를 따라 노리와 도평리 일대에 마을이 확대되고 1983년 동우대학이 개교하며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에는 설악프라자타운, 1987년 설악컨트리클럽 등이 개장하였다.



<사진 6> 청학동 철독길 주변 주거공간¹²⁾

11) 김정환 · 한정규 · 정종천 · 최영택 · 박명선 공저, 앞의 책, 19~20쪽 참조.

12) 청학동 철길을 따라 수복로가 개설됨. 수복로 개설을 위해 집들이 철거되고 옹벽을 따라 청학동 40계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6) 2006년 지형도



<그림 12> 2006년 지형도

2006년 지형도를 보면 1990년과 비교하여 시가지가 확장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으며, 도로가 확장되고 간선 도로망도 확충되었다. 특히, 1999년 개최된 강원국제관광 엑스포를 계기로 도로망이 대폭 정비되었다. 우선 속초 시내를 관통하던 7번 국도가 교동을 거쳐 장사동(章沙洞)을 지나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56번 지방도는 4·6차선으로 대폭 확장되었고 영랑호 순환도로, 영금정 해안도로, 청호로, 수복로, 번영로 등 주요 도로망이 확·포장 되었다.¹³⁾ 또한 청초호변 일대가 관광 엑스포 부지로 활용되기 위해 매립이 이루어지며 청초호의 호안선(湖岸線)이 인위적으로 직선화되고 청초호의 면적이 축소되었다.



<사진 7> 청초호 청호동 쪽 매립공사 현장

13) 김정환 · 한정규 · 정종천 · 최영택 · 박명선 공저, 앞의 책, 20쪽 참조.

교동은 7번 국도의 새로운 노선을 따라 상권이 확대되고 교동 주공 2단지(1990년, 590세대), 현대 1차(1991년, 445세대), 속초 삼환(1994년, 644세대), 동부(1997년 668세대), 청초대우(1998년, 535세대), 대명늘푸른(2000년, 817세대) 등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교동의 인구와 인구밀도가 급증하고 상권이 형성되었다. 또한 2010년대까지 당시 속초 최고층 건물이었던 아남프라자(지상 20층)가 1994년에 완공되었다.

청학동은 기존의 밀집 주택지가 있는 마을들이 유지되고 새로 건설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없이 1980년대와 비슷한 성격의 시가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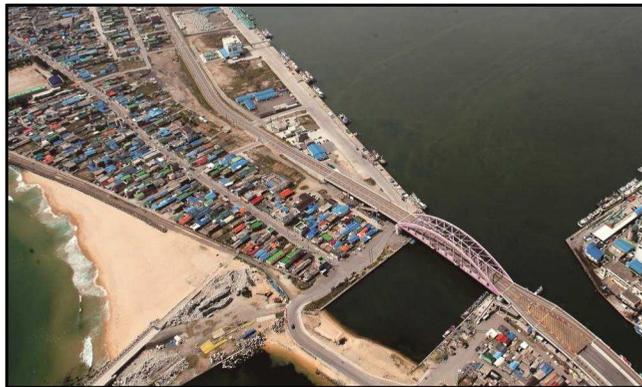
〈사진 8〉 교동의 현대아파트 단지 일대(1991년)

청호동은 강원국제관광 엑스포를 위해 청초호 호안이 매립되며 면적이 늘어났다. 또한 청초호의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청초호 신수로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청호동 주택 1백 28가구를 철거하고 청초호 매립지인 미리내마을로 이주하였고, 2003년 청호대교(현 설악대교)가 개통되었다. 또한 2003년에 이마트 속초점이 개점하여 유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노학동은 미시령 도로의 확장과 함께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콘도와 연수원들이 많이 들어섰다. 지형도에서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대단위 콘도인 한화리조트설악, 설악파인리조트, 한전연수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콘도와 연수원으로 향하는 도로들이 개통되면서 도시적 경관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자연스레 논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면적이 감소하였다. 1994년에는 속초시 종합운동장이 개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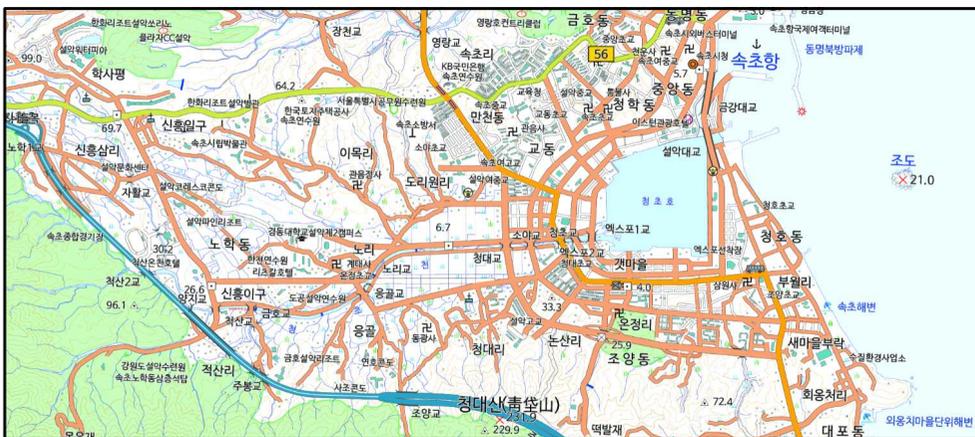


〈사진 9〉 신수로 개설 전 이주 대상 마을 전경



〈사진 10〉 신수로 개설 공사14)

7) 2016년 지형도



〈그림 13〉 2016년 지형도

14) 신수로 공사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청호동 1세대들이 미리내마을 등으로 이주함.

2016년 지형도를 보면 2006년과 비교하여 시가지가 확장되고 녹청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건물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도로가 확장되고 간선 도로망도 확충되었다. 특히, 신수로가 개설되어 청호동이 양분되면서 양쪽을 연결하는 설악대교(구 청호대교)와 2012년 구수로를 지나는 금강대교가 건설되면서 대포동 - 조양동 - 청호동 - 동명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청호로-설악금강대교로)가 개통되었다. 또한 이곳에 설치된 두 개의 다리는 속초의 랜드마크가 되었다.¹⁵⁾



〈사진 11〉 금강대교와 설악대교

교동과 청학동은 2006년 지형도와 비교하여 시가지의 면적과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속초 최초 아파트인 주공1차 아파트가 2011년 재건축이 완공되어 하우스토리 아파트로 바뀌었다.

청호동은 2012년 신수로 개통과 더불어 청호초 매립 지역에 2015년 속초 수산물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준공되었다. 속초수협이 이전하여 수산물 위탁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회센터가 들어서면서 속초 수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또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2016년 4월 착공되어 국비 373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9,984㎡, 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준공되었다.

노학동은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구간이 눈에 띄는 변화이며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속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5) 김정환 · 한정규 · 정종천 · 최영택 · 박명선 공저, 앞의 책, 22쪽 참조.



〈사진 12〉 하우스토리 아파트 공사 모습

나. 주요 지형 경관

1) 거주 환경을 제공한 구릉성 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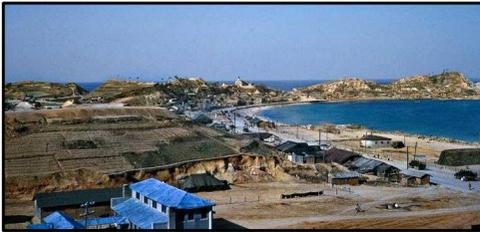
산지보다 규모가 작고 평지보다 침식이 덜 되어 완만한 지형을 구릉(丘陵) 또는 구릉성 산지(丘陵性山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약 70%이지만, 이 산지들은 오랫동안 침식작용을 받아 산지와 평지의 중간 단계로서 구릉성 산지가 크게 발달하였다.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 산지들은 백두대간을 축으로 일부 발달했다.

지질구조, 기후, 고도, 침식 발달 정도에 따라 구릉지의 형태와 분포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릉지는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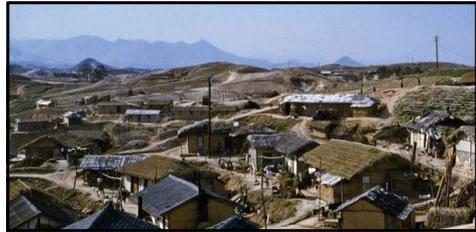
예로부터 구릉지와 평지가 만나는 구릉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가옥과 마을이 주로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구릉지의 삼림에서 땀감이나 식재료를 구하기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배산임수형(背山臨水型)의 가옥이 구릉지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농사와 영세적 목축지역으로 구릉지를 개간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구릉지에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를 건설하거나 골프장, 레

저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속초 역시 시가지가 크게 확장했던 60년대부터 구릉성 산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하고, 집을 지어 마을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 교동, 청학동, 중앙동, 금호동 등의 구릉성 산지는 해안가와 청초호 주변의 땅들이 부족하게 되자 시가지를 확장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기에 지금의 속초 시가지는 대부분 구릉성 산지 위를 개간하여 건설하였다.



1950년대 동명동과 영금정 전경¹⁶⁾



1950년대 중앙동 언덕의 서쪽 전경¹⁷⁾

〈사진 13〉 구릉지의 이용 변화

청학동과 인접한 금호동 40계단은 속초가 구릉지를 이용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금호동 40계단 주변 마을은 아바이마을과 함께 속초의 대표적인 실향민촌으로, 도로 부근에서 시작하여 산 위로 올라가면서 집을 지었다. 이 마을의 입구에는 40계단이라는 산 위 판자촌을 오르내리던 작은 오솔길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자 오르내리기 편하게 흙은 다져 40계단을 만들었다. 40계단은 이 마을 사람들의 애환의 길이다. 여름철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겨울철에는 연탄배달 리어카나 생선과 어구를 실은 리어카가 40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여 7-8명이 리어카를 통째로 들어서 수송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곳이다.

40계단과 비슷한 마을로는 소위 노가리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모두가 살기 힘든 시절 온 동네가 명태, 오징어를 건조하여 살아가던 동네로 금호동과 청학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동네도 앞의 40계단과 같이 산을 다져 집터를 만들고 가마니를 둘러 임시거처를 마련했다가 점차 판자집, 브로크집으로 발전해 갔던 동네이다.

16) 초기에는 해안가의 평지에 마을이 들어서고 구릉지는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함.

17) 인구가 유입되면서 구릉지를 더욱 개간하여 마을들이 입지함.



〈사진 14〉 청학동 노가리촌의 현재 모습

2) 해안 충적 평야가 발달한 노학동 일대

충적(沖積)이란 흐르는 물에 의해 흙이 운반되어 쌓인다는 의미로, 충적평야(沖積平野)는 하천의 운반 및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평야를 말한다. 충적평야에는 하천이 운반한 유기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비옥하며, 또 인근에 하천이 있어 농경에 유리한 곳이 많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동해안의 평야 발달이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된 해안 평야가 소규모로 분포한다. 해안과 가까운 태백산지로부터 많은 퇴적물을 공급받는 하천들에 의한 충적평야들이 해안을 따라 비교적 좁은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¹⁸⁾ 고성 남천 하류 동호평야, 양양 남대천 하류 조산리 남쪽 평야, 속초 청초천 소야평야 등이 영북지방 동해안의 대표적인 평야이다.

속초 지역의 해안평야는 노학동 일대에 넓게 분포한다. 속초 지역 해안평야의 형성과정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노학동의 이목리, 노리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상류인 척산리 일부까지 해침(海浸)¹⁹⁾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로 바다가 되었다. 해안선의 변화가 안정된 후 청초천이 배후 산지에서 공급된 퇴적물

18) 두산백과 참조.

19)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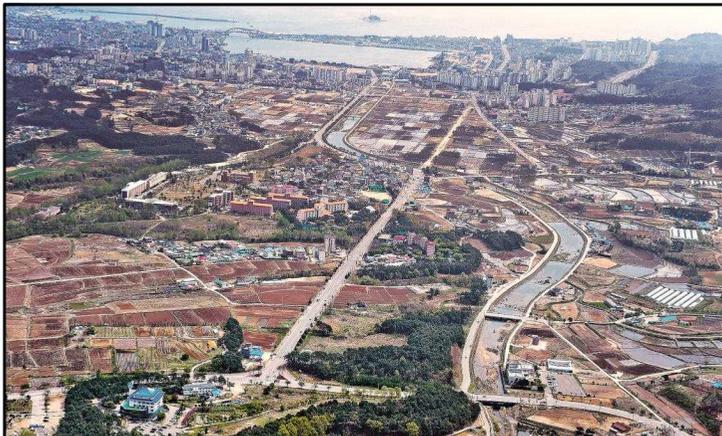
질을 운반하고 하구에 퇴적시키며 서서히 층적지를 형성함에 따라 해안 평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만입부(灣入部)가 현재의 청호동이 위치한 사주로 막히면서 석호인 청초호가 형성되었고, 만입부가 사주로 막힌 영향으로 청초천의 퇴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며 지금의 노학동 일대의 해안 평야가 형성되었다.



〈사진 15〉 청초천 주변의 평야지대

학사평에 형성된 습지의 경우 기존의 청초천의 유로(물길)가 확장되면서 학사평에서 청초천으로 유입되는 지류가 본류의 퇴적물질에 유로가 막히면서 습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학사평 일대의 습지는 개간을 통해 농경지와 시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석호인 청초호는 청초천이 배후산지로부터 운반해온 퇴적물과 사빈과 사주, 사구에서 바람에 날려온 퇴적물이 자연적으로 축소해오고 있으며, 매립 등 인위적인 요인과 함께 더욱더 빠르게 축소해져 지금에 이르렀다.



〈사진 16〉 2013년 청초천과 주변 평야 항공사진

3) 사주와 사취의 발달로 형성된 영랑호, 청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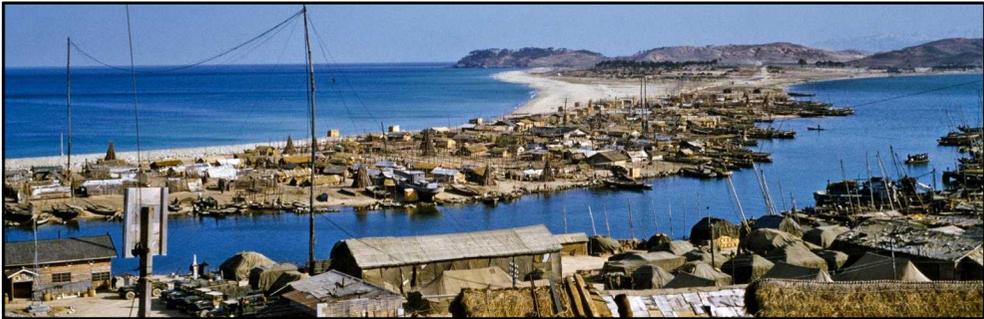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것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형성된 이후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하곡(河谷, 계곡)을 침수시켜 마치 톱니 모양의 해안선을 형성시켰다. 그 후 해수면이 안정됨에 따라 하곡에 생긴 만(灣)은 하천의 운반물질로 메워지고, 곳(串)은 파도에 깎여 현재와 같은 단조로운 해안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안에는 배후지의 화강암산지에서 운반되는 백사(흰 모래)가 퇴적하여 연안류와 파랑(파도)의 퇴적 작용으로 사주와 사취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석호가 발달하였다. 석호는 북으로부터 광포(함남 정평 13.3km²), 소동정호(강원 통천, 4.9km²), 강동포(통천, 2.8km²), 감호(고성, 0.3km²), 화진포(고성, 2.3km²), 송지호(고성, 0.6km²), 영랑호(속초, 1.19km²), 청초호(속초, 1.4km²), 경포(강릉, 1.7km²)등이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나란히 발달해 있다.

석호의 생성은 후빙기의 해면이 상승함에 따라 해안에 침수 현상이 일어나 골짜기가 만으로 변하였고 그 입구가 사취 또는 사주로 가로막혀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곡에 발달하였는데, 작은 하천의 경우 토사 운반량이 적기 때문에 석호가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고 있다. 큰 하천의 하류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호가 생길 수 없었다.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도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대부분 사주에 의하여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게 유지되며 좁은 수로를 통하여 바다로 유출된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사빈의 확장으로 수로의 입구가 막혀버리며 석호의 수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에만 주기적으로 수로가 열린다. 석호의 수로가 열려 바닷물과 석호 내부의 물이 섞이는 현상을 갯터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해안 석호의 대부분은 염분농도가 담수호에 비하여 높고 해수보다는 낮은 기수호(汽水湖)²⁰⁾이다. 이로 인해 석호의 물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어렵다.

속초시에 소재하는 석호는 영랑호와 청초호가 있다. 영랑호와 청초호는 관광 개발과 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매립, 준설, 호안 공사 등으로 원래의 자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자료(속초시, 1991)와 비교하면 영랑호는 준설작업과 호안 공사를 하여 그 면적은 1,190,000m²에서 1,024,000m²로 호수 둘레는 약 8km에서 7.7km로 줄었으며, 청초호는 매립이 이루어져 그 면적은 1,362,000m²에서 879,863m²로, 둘레는

20) 바다와 연결되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호수를 말한다.

약 7km에서 4.276km로 줄었다.²¹⁾



〈사진 17〉 사주 위에 발달한 마을 청호동

다. 인구의 변화

1) 개요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동쪽사면이 해안까지 임박하여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짧고 하구 부근에 약간의 충적평야가 발달하게 된다. 이 충적지는 연안류를 따라 이동하는 모래가 바다 쪽으로 가로막음으로써 형성된 석호 부근에 잘 나타난다. 그래서 동해안은 산지, 구릉지, 충적지, 모래언덕,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 이른바 사빈해안(砂濱海岸)²²⁾이 태백산지에서 해안 쪽으로 차례대로 전개된다.²³⁾

속초의 지형적 특성은 태백산지와 연계된 구릉지가 해안 근처까지 다다르고, 영랑호와 청초호로 유입하는 하천 부근에 소규모의 충적지가 분포한다는 점이다. 장사동 갯바위, 동명동 영금정, 대포 외옹치에는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암석해안 사이에는 2개의 사빈해안(등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동해안의 취락 형성 및 인구 분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어업 활동에 유리한 충적지나 해안에 취락이 발생한 후 구릉지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견게 된다.²⁴⁾

일제강점 초기까지 속초는 양양군의 속한 속초리(束草里)라는 반농반어촌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다. 반면 양양읍은 동해로 유입되는 남대천이 이루어 놓은 넓은 충적평야 상에 위치하는 강원도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지역 중심지였다. 강릉(강릉남대

21)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上)』, 2005, 158~159쪽.

22)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과도로 해안에 밀려온 것으로 해안사구가 발달한다.

23)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27쪽.

24)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76쪽.

천), 삼척(오십천), 고성(남강), 통천(광교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속초 지역의 대표적 하천인 장천천, 청초천, 쌍천은 주변 지역에 비해 평야의 규모가 작아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불리하였다. 그러나 속초리가 오늘날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와 함께 영동 북부 지방의 중심 도시인 속초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위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6·25전쟁이라는 정치적 요인, 풍어와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청학동·교동·청호동 지역은 6·25전쟁 때 월남한 피란민과, 1950년대~60년대 연안 어장 풍어로 각지에서 몰려든 유입민들과 원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가지에 인구가 분포하게 되었다. 이후 흥어로 인한 어업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산물 제조 공장의 도산과 이전, 이촌향도 현상, 1990년대 이후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관내 이동, 도로 개설 등으로 청학동과 청호동 인구는 급감하였다. 반면 아파트가 밀집한 교동 인구는 급증하였다.

현재 청학동 인구는 2019년 1,576명으로 50년 전 1969년 8,697명에 비해 7,000여명 급감하였고, 교동의 인구는 2019년 27,965명으로 1963년 시승격 당시 5,948명에 비해 급증하였다. 청호동의 인구는 2019년 3,060명으로 1968년 7,526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다.

노학동 지역은 18세기 이전까지 극소수의 주민이 거주하였고, 이후 농업기술의 발전과 인구 이동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이후 점차 인구가 증가하였다. 6·25전쟁 후 일시적으로 난민촌을 이루며 거주하였고, 이후 1960년대에 정부의 정책적 이주에 의해 신흥리와 자활촌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동우대학이 개교하면서 노리 인구가 확장되어 도평리라는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3년 시승격 이후 속초시에서 가장 인구 변동이 적은 곳으로 3,000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표 6〉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리별 인구

단위 : 명

연도/리별	장항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웅치	부월	논산	노리	속초리	속진리	장천리	사진리	합계
1785	호수	20	20	-	35	18	34	78	18	20	-	144	15	18	420
	인구수	49	66	-	126	52	104	107	86	97	-	447	59	70	1,263
1925	호수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	6,219

출처 : 『여지도서』, 『면세일반』

청학동·교동 지역의 구체적인 인구 통계에 관한 최초 기록은 1785년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속초리(束草里)와 속진리(束津里)를 합쳐 144호 447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면세일반(面勢一班)』에는 189호 1,05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청학동, 교동 동별 인구는 산출할 수 없다.

노학동에 해당하는 노리의 인구는 1725년 『여지도서』에는 미거주지로 되어 있고 1925년 『면세일반』에는 73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도리원, 이목, 척산, 학사평에 거주하는 인구의 합이다.

청호동이 속해있던 부월리의 인구는 1725년 『여지도서』에 86명, 1925년 『면세일반』에 47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부월리(扶月里)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불리기도 했으며 현재 기준으로 청호동과 조양동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청호동의 인구만을 산출할 수는 없다.

〈표 7〉 1962년 속초읍 인구

단위 : 명

리별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 교동	도리원 부근	청대 부근	부월 부근	대포 부근	중도문 부근	합계
인구	5,082	5,570	6,255	7,044	6,852	5,043	2,531	2,095	5,927	2,450	1,854	50,703
비율	10.0	11.0	12.4	13.9	13.6	9.9	5.0	4.1	11.7	4.8	3.6	100.0

출처 : 『1963년 속초시 통계연보』

수복 후인 1954년 청학동과 교동이 양양군 속초읍 6구로 편입되었으며, 1962년 당시 인구는 5,043명으로 속초읍 전체의 9.9%를 차지하였다. 주로 영랑동 - 동명동 - 중앙동 - 금호동과 연결된 구 7번 국도와 청초호 연안에 주로 거주하였으며, 구체적인 청학동, 교동 동별 인구는 산출할 수 없다.

노학동에 해당하는 도리원 부근의 인구는 2,531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노리, 이목, 척산, 학사평에 거주하는 인구의 합으로 대부분 농촌 지역이었다.

함경도 피란민들이 대거 정착한 청호동이 부월리와 분리되어 1954년 속초읍 5구로 편입되었으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갯배 선착장에 이르는 사주(沙洲)에 연속적인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1962년 당시 인구는 6,852명으로 속초읍 전체의 13.6%를 차지하였다.

2) 청학동 인구 통계 분석

〈표 8〉 청학동 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도	속 초 시			청학동			비 고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10.7	5,948	3,070	2,848	속초 6구(교동포함)
1968	71,033	35,741	35,292	12.1	8,563	4,357	4,206	
1969	73,023	36,911	36,112	11.9	8,697	4,456	4,241	청학동 최대인구
1973	75,968	38,450	37,518	10.3	7,787	3,944	3,843	
1978	71,737	36,209	35,528	10.6	7,592	3,827	3,765	
1983	72,324	36,279	36,045	8.9	6,443	3,229	3,214	
1988	72,006	35,795	36,211	7.4	5,311	2,676	2,635	
1993	76,646	38,140	38,506	6.0	4,609	2,287	2,322	
1998	86,923	43,167	43,756	3.0	2,620	1,302	1,318	8개 행정동 출범
2001	90,231	44,630	45,601	2.9	2,614	1,300	1,314	속초시 최대인구
2003	89,047	44,040	45,007	2.6	2,307	1,165	1,142	
2008	84,599	41,676	42,923	2.8	2,327	1,179	1,148	
2013	83,109	40,929	42,180	2.2	1,850	892	958	
2020	82,665	40,965	41,700	1.8	1,499	716	783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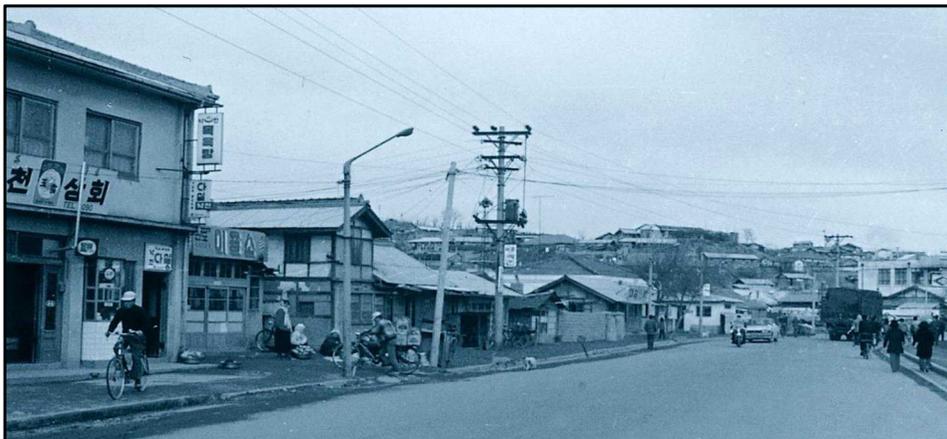
청학동은 북동쪽에 금호동, 서쪽에 교동, 남쪽으로 청초호와 접하며, 속초 시내의 주도로인 중앙로, 수복로, 번영로가 지난다. 면적은 0.27km²로 속초시의 전체 면적 105.76km²의 0.26%를 차지하며 13개 법정동 중에서 가장 작다. 인구 분포를 보면 6·25전쟁 이후 피란민의 정착과 1960년대~70년대 속초 어업 전성기를 맞아 속초 내향인 청초항에 인접한 지역에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3구(중앙동), 4구(금호동), 6구(청학동·교동)와 연속된 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청학시장(6구 시장)과 청학 4거리 부근, 속초초등학교 앞 철독길 주변이 인구밀도가 매우 높았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청학동은 교동과 함께 속초 6구로 인구는 5,948명으로 속초시 전체인구 55,619명의 10.7%를 차지하였다. 1969년 속초시 전체인구는 73,023명이었는데 당시 청학동은 11.9%인 8,697명 거주하여 청학동 최대인구를 기록하였다. 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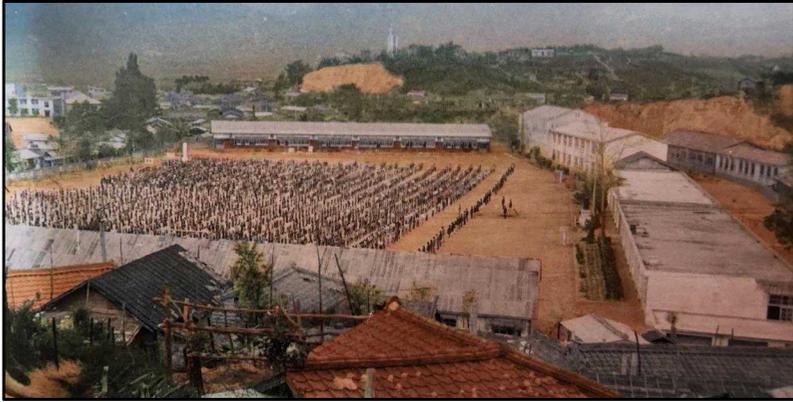
대~70년대 초반 당시 청학동은 연안 어장의 호황, 구 7번 국도의 활성화, 6구시장(청학시장)의 번성이 인구 유입 요인의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어획량 감소로 90년대 초반 점차 인구가 4,000명대로 감소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조양동, 교동 지역 아파트 단지로의 관내 유출, 청학시장의 폐장(2000년), 번영로와 수복로가 확장되면서 수백 가구의 가옥이 철거되면서 인구는 급감하였다. 2020년 현재 속초시 전체 인구 82,665명의 1.8%, 1969년 청학동 최대인구의 8,697명의 17.2%인 1,499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14> 청학동 범위(법정동) 출처: 네이버 지도



<사진 18> 청학동 낙천상회 앞 국도(1960년대)



<사진 19> 속초초등학교 아침 조회(1975년) 사진제공: 이기홍 속초국민학교 22회



<사진 20> 청학 사거리



<사진 21> 청학동 철독길 유흥주점 이전 전경

3) 교동 인구 통계 분석

〈표 9〉 교동 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도	속 초 시			교 동			비 고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10.7	5,948	3,070	2,848	속초 6구(청학동포함)
1968	71,033	35,741	35,292	12.1	8,593	4,434	4,159	
1973	75,968	38,450	37,518	13.2	10,020	5,196	4,824	
1978	71,737	36,209	35,528	15.0	10,782	5,523	5,259	
1983	72,324	36,279	36,045	16.9	12,239	6,185	6,054	
1988	72,006	35,795	36,211	18.6	13,409	6,733	6,676	
1993	76,646	38,140	38,506	31.4	24,084	11,923	12,161	
1998	86,923	43,167	43,756	35.2	30,578	15,102	15,476	8개 행정동 출범
2001	90,231	44,630	45,601	35.4	31,974	15,720	16,254	속초시, 교동 최대인구
2003	89,047	44,040	45,007	35.2	31,389	15,353	16,036	
2008	84,599	41,676	42,923	37.2	31,463	15,312	16,151	최대 비율인구
2013	83,109	40,929	42,180	36.3	30,174	14,656	15,518	
2020	82,665	40,965	41,700	32.8	27,109	13,301	13,808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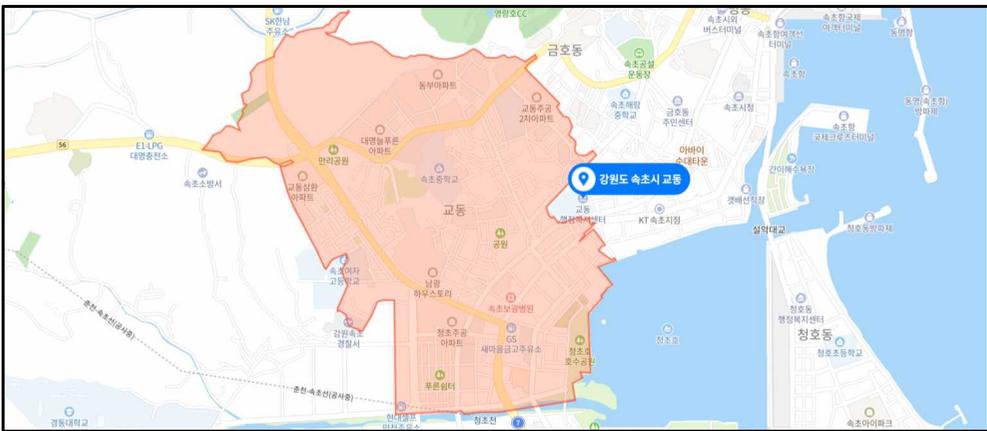
교동은 동쪽에 금호동·청학동·청초호, 서쪽에 노학동, 남쪽에 청초천을 경계로 조양동, 북쪽으로 장사동과 접한다. 속초 시내의 주도로인 7번 국도와 56번 지방도가 지나고, 면적은 2.5km²로 속초시의 전체 면적 105.76km²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피란민의 정착과 속초 어업 전성기를 맞아 속초 내항인 청초항에 인접한 지역에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중앙동-금호동-청학동-교동과 연속된 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0년 이전에는 구 속중 앞, 현 속초여고 앞 만천동, 현 속중과 교동로 사이에 68해일로 입주한 재해주택(교동주택) 부근의 인구밀도가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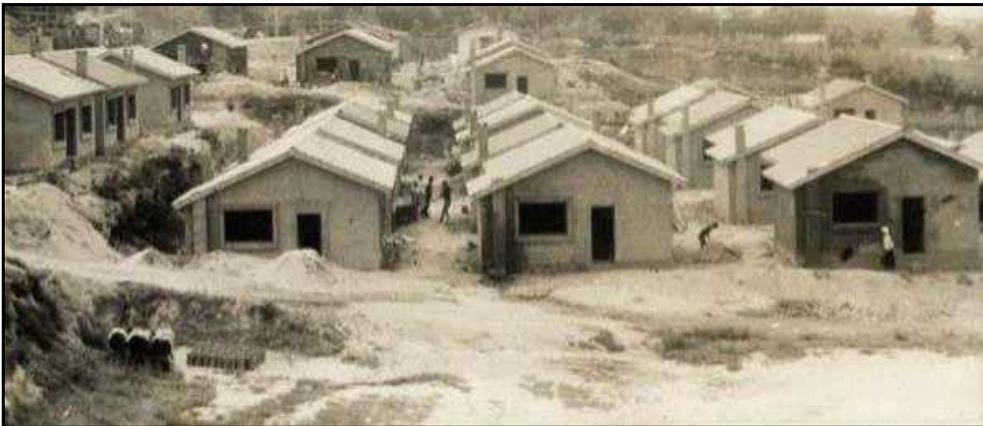
1963년 시 승격 당시 교동은 청학동과 함께 속초 6구로 인구는 5,948명이 거주하여 속초시 전체인구 55,619명의 10.7%를 차지하였다. 1979년에는 속초 최초로 교동주공 1단지 아파트에 40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1983년에는 인구 12,000명을 돌파하였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속초 인구는 주공 2차(1990), 현대 1차(1991), 럭키설악(1991), 서울 대명1차(1991), 현대 2차(1992), 설악현대(1992), 럭키 설악타운(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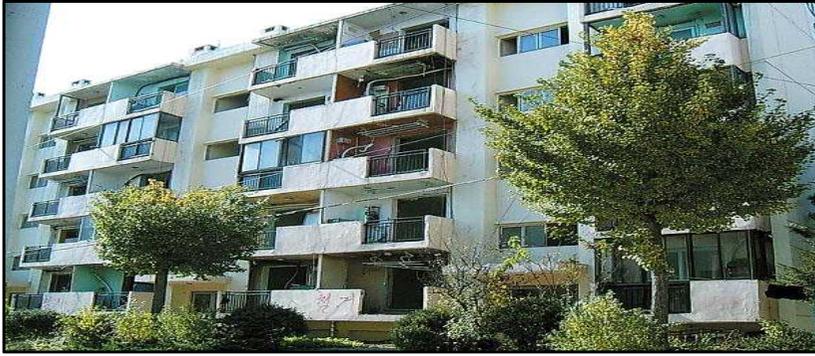
주공 3차(1993), 나하나 1차(1993)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1993년에는 1988년에 비하여 2배 가량 증가한 24,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삼환(1994), 나하나 2차(1995), 삼호(1995), 동부(1997), 협성(1997), 청초대우(1998), 현대 3차(1998)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1998년에는 30,000명을 돌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대명늘푸른(2000), 석미모닝파크(2005), 명지미래힐(2006), 하우스토리(2011), 시티프라티움(2018), 블루핀(2019), 미소지움더뷰(2021)등이 차례로 준공되었고, 2001년에는 31,974명으로 속초시 최대인구가 상주하였고, 2008년에는 최대치인 속초시 전체인구의 37.2%가 거주하였다.



<그림 15> 교동 범위(법정동) 출처: 네이버 지도



<사진 22> 1968년 교동 재해 주택 건축 모습



<사진 23> 2000년대 초 교동주공 1단지 아파트



<사진 24> 교동 아남프라자



<사진 25> 미소지움 더뷰 아파트



<사진 26> 시티프라다움 아파트

4) 청호동 인구 통계 분석

〈표 10〉 청호동 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도	속 초 시			청 호 동			비 고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13.3	7,390	3,730	3,660	속초시 5구
1968	71,033	35,741	35,292	10.6	7,526	3,762	3,764	청호동 최대인구
1973	75,968	38,450	37,518	8.7	6,623	3,325	3,298	
1978	71,737	36,209	35,528	8.8	6,338	3,172	3,166	
1983	72,324	36,279	36,045	7.5	5,417	2,763	2,654	
1988	72,006	35,795	36,211	6.8	4,928	2,476	2,452	
1993	76,646	38,140	38,506	5.2	4,019	2,048	1,971	
1998	86,923	43,167	43,756	3.8	3,267	1,661	1,606	8개 행정동 출범
2001	90,231	44,630	45,601	3.3	2,964	1,548	1,416	속초시 최대인구
2003	89,047	44,040	45,007	3.4	2,985	1,530	1,455	
2008	84,599	41,676	42,923	3.1	2,588	1,332	1,256	
2013	83,109	40,929	42,180	2.7	2,229	1,142	1,087	
2015	81,992	40,337	41,615	2.5	2,054	1,046	1,008	청호동 최소인구
2020	82,665	40,965	41,700	4.2	3,499	1,761	1,668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 『속초시 통계연보』

청호동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청초호, 남쪽에는 조양동, 북서쪽으로는 구수로 를 경계로 금호동·중앙동과 접하고 있다. 3면이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교통이 불편하지만 구수로와 신수로 위에 건설된 금강대교와 설악대교를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면적은 0.62km²로 속초시의 전체 면적 105.76km²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청호동은 속초시에서 가장 어업이 번성했던 곳으로 아바이마을로 부르며 6·25전쟁 중 이북에서 내려온 실항민들이 모래땅에 임시로 정착하면서 만들어졌다.

실항민들은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신포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이원마을 등 집단촌을 형성하였다.

1954년 속초 5구로 승격되었으며, 1955년 『읍세일람』에 따르면 1,976명²⁵⁾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5) 속초읍, 『읍세일람』, 1955, 14쪽.

1963년 시 승격 당시 청호동 인구는 2,621명으로 속초시 전체인구 55,619명의 13.3%를 차지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연안 어장의 호황으로 6,000명이 넘는 인구가 대부분 수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갯배 선착장까지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거주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어획량 감소,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 어선들의 남북과 대규모 해난사고로 인한 어업의 불안정성, 시내 아파트 단지로의 관내 유출 등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속초의 최대인구였던 2001년에는 전체인구 90,231명 중 3.4%인 2,964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5년 2,054명으로 간신히 2,000명대를 유지하던 중 2018년 청호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주로 3,000명을 회복하였고, 아바이마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상가 활성화로 최근에는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16> 청호동 범위(법정동) 출처: 네이버 지도



<사진 27> 청호동 최초의 청호아이파크 아파트



<사진 28> 2005년 신수로 구수로 사이의 신포마을 출처: 연합뉴스



<사진 29> 1997년 아바이 마을의 모습

5) 노학동 인구 통계 분석

〈표 11〉 노학동 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도	속 초 시			노 학 동			비 고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4.7	2,621	1,404	1,217	속초시 승격
1968	71,033	35,741	35,292	3.8	2,674	1,333	1,341	
1973	75,968	38,450	37,518	3.2	2,461	1,275	1,186	
1978	71,737	36,209	35,528	3.2	2,319	1,193	1,126	노학동 최소인구
1983	72,324	36,279	36,045	3.7	2,669	1,375	1,294	
1988	72,006	35,795	36,211	5.1	3,644	1,702	1,942	
1993	76,646	38,140	38,506	3.3	2,530	1,288	1,242	
1998	86,923	43,167	43,756	3.0	2,620	1,302	1,318	8개 행정동 출범
2001	90,231	44,630	45,601	4.3	3,844	1,905	1,939	속초시 최대인구
2004	87,933	43,413	44,520	4.6	4,031	2,006	2,025	노학동 최대인구
2005	87,124	43,003	44,121	3.2	2,771	1,406	1,365	
2008	84,599	41,676	42,923	3.2	2,688	1,369	1,319	
2013	83,109	40,929	42,180	3.1	2,556	1,354	1,202	
2020	82,665	40,965	41,700	2.8	2,343	1,309	1,034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속초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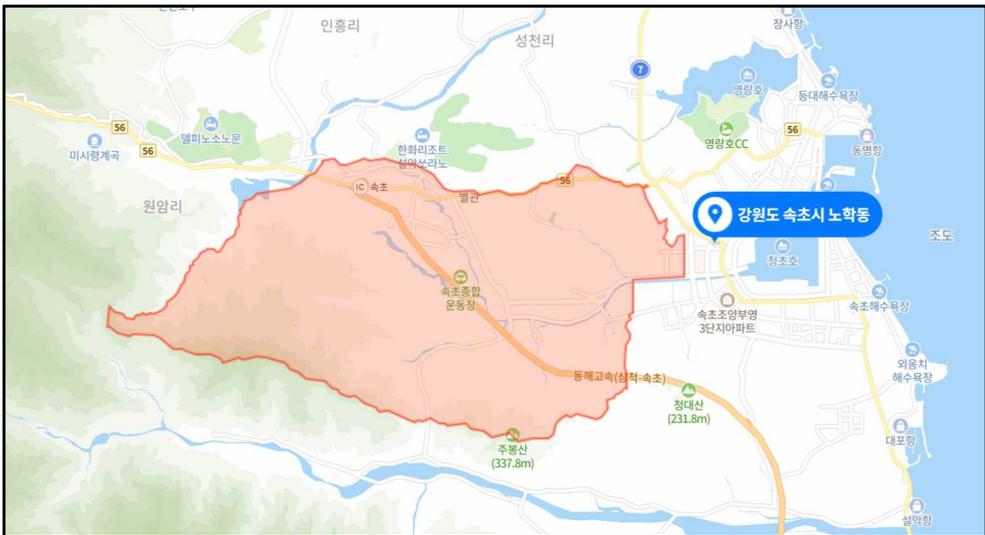
노학동은 동쪽에 교동·조양동, 서쪽에 설악동, 남쪽에 도문동, 북쪽으로 장사동·고성군 토성면과 접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가 중앙을 관통하고,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는 56번 지방도가 북쪽을 지나는 속초의 관문이다. 면적은 20.3km²로 속초시의 전체 면적 105.76km²의 19.2%를 차지하고 13개 법정동 중에서 설악동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노학동은 속초시에서 가장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부월리 - 논산리 - 청대리 - 노리로 이어지는 농업축의 발달로 인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인구 분포는 해발고도와 밀접하며 동(東)에서 서(西)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며, 도리원리 - 이목리 - 노리 -

도평리 - 척산리 - 신흥리 - 학사평리 - 자활촌을 거치면서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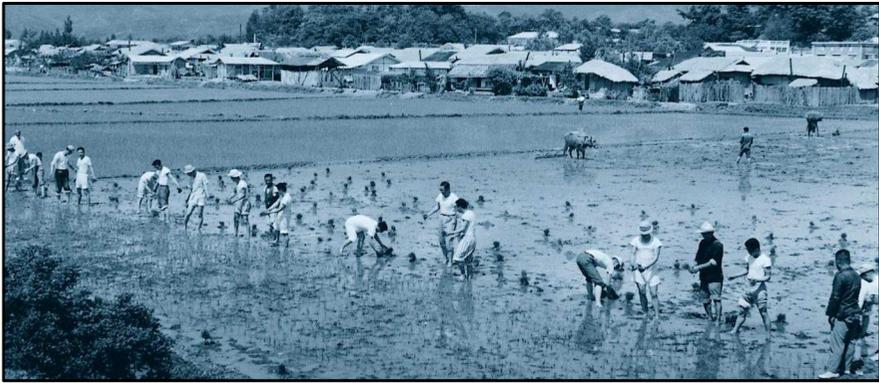
1963년 시 승격 당시 노학동 인구는 2,621명으로 속초시 전체인구 55,619명의 4.7%를 차지하였다. 이후 20여 년 동안 정체하던 인구는 1988년 3,644명으로 1983년에 비해 1,000명 정도 급증하는데, 당시 동우대학의 최전성기로 노리 및 도리원리에 학사촌 형성으로 다수의 빌라와 상가가 개장하였다. 동우대학 인근에 도평리 마을이 새롭게 조성된 것도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다시 2,500명대로 감소한 인구는 2001년 속초시 최대인구 당시 3,844명, 2004년 4,041명으로 노학동 최대인구를 기록하는데, 이는 통반 조정으로 과거 교동의 인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속초시 전체 인구 82,655명의 2.8%인 2,3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학동은 속초시 법정동 13개동 중에서 1963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변동폭이 278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 정체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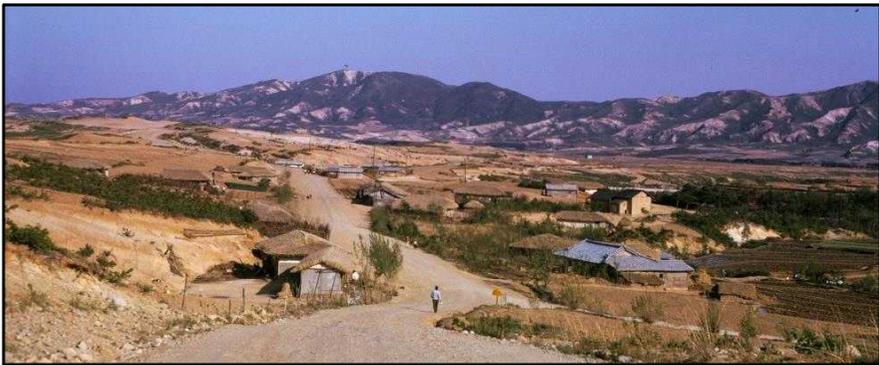


<그림 17> 노학동 범위(법정동)

출처: 네이버 지도



<사진 30> 노학동 도리원 마을 모내기(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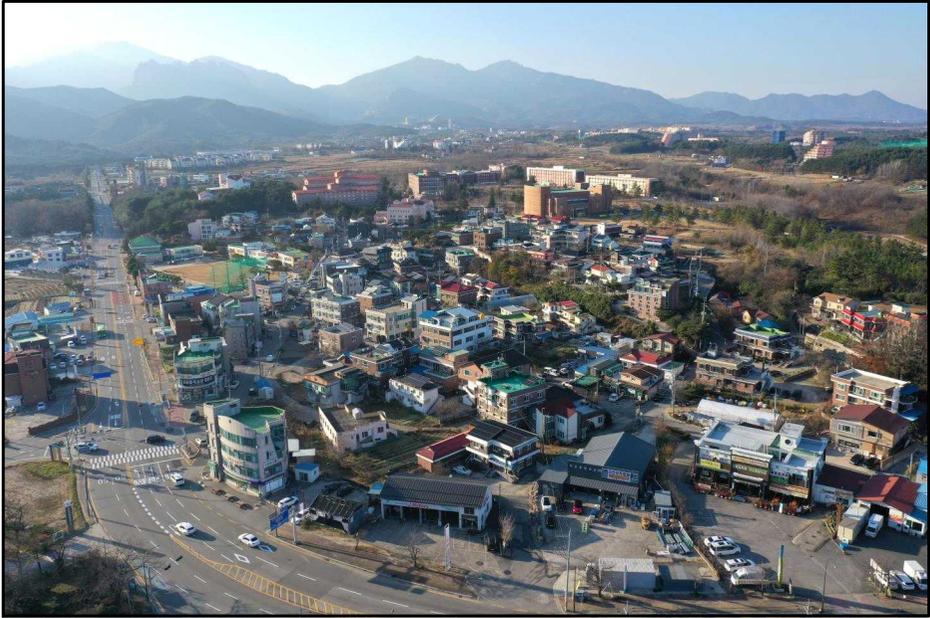


<사진 31> 노학동 학사평 마을(1964년)



<사진 32> 노학동 노리 마을 동우대 학사촌²⁶⁾

26) 노학동 동우대학 폐교로 지역 원룸 600실과 상가 20여 곳이 타격을 입는 등 연간 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33> 노리 학사촌 전경



<사진 34> 노학동 테르바움 고급빌라

3. 교통의 변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속초 지역의 근대도로 개통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속초의 도로는 태백산맥을 넘어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도로와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남북방향의 도로로 구분된다.²⁷⁾ 각 방향의 대표 간선도로는 남북 방향의 동해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의 56번 지방도(미시령 터널)가 있다.

가. 미시령 도로의 변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대 교차로부터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교차로까지의 도로로 56번 지방도에 속해있다. 주요 시설로는 3.69km의 2차로 쌍굴 터널, 교량 16개소, 교차로 5개소, 영업소 1개소 등이다.

미시령은 영동과 영서지방을 잇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미시과령’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길이 험하고 산세가 험해 이용되지 않다가 조선 성종 때부터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고개로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11월 근대적 도로로 처음 조성되었고, 6·25전쟁 당시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이 뚫리게 되면서 군 작전용 도로로 육군 공병단에 의해 관리되어 사용되다가 1989년 국제개발은행 차관으로 왕복 2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된 뒤 민간인이 오갈 수 있는 도로가 되었다.²⁸⁾



<사진 35> 1959년 개통식



<사진 36> 1960년대 미시령 도로 전경

27) 김정환 · 한정규 · 정종천 · 최영택 · 박명선 공저, 앞의 책, 39쪽.

28) 최재도 · 이수영 공저,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속초문화원, 2020, 102-103쪽.

미시령 고갯길은 56번 지방도의 일부로 인제군과 속초시, 고성군 간의 통행을 담당했다. 차량 통행량 증가, 폭설·폭우 시 도로 통제, 비좁은 굽잇길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2001년에 왕복 4차로 미시령 터널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개통했다. 미시령 터널 개통으로 기존의 고갯길 대비 거리 7km, 운행 시간 20분 이상 단축되었으며 기상 상황으로 인한 도로 통제 및 교통사고가 줄었다.

터널의 개통은 수도권 인구의 속초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일으켰다. 개통 10년 만에 터널 통행량 합계 약 4천만 대를 돌파하였고, 개통 후 매년 통행량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560만 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나들목에서 양양 분기점 구간이 개통되면서 미시령 터널의 이용객은 60% 이상 감소하여 이후 연간 200만 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에 미시령 상권인 인제군 용대리와 속초시 학사평의 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주)미시령관통도로는 2010년 지역주민(속초, 인제, 고성, 양양) 통행료 50% 감면, 2014년 하이패스 개통, 미시령 터널과 연결되는 국도 44호선 홍천-인제 구간에 속도 감응형 신호 설치, 2021년 지역주민(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천, 양구) 통행료 100% 감면 등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²⁹⁾

미시령 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른 손실보전을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용객 감소로 인해 2019년 강원도는 141억원을 지급하였고,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는 약 3,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존 협약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37> 미시령 도로(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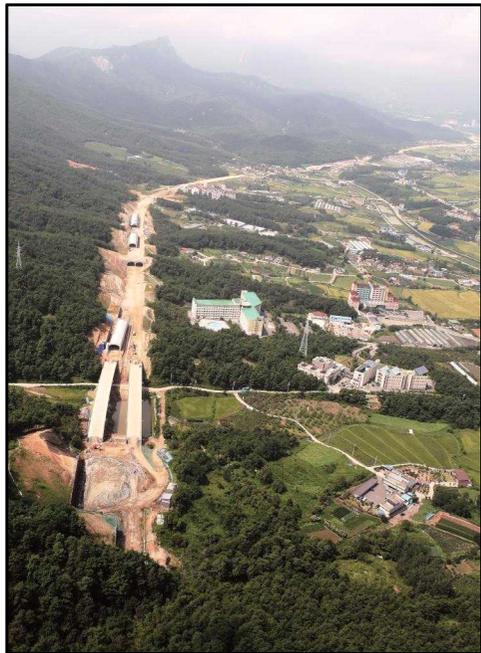
29)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홈페이지(<http://m.misiryong.kr/>) 참조.

나. 동해고속도로(東海高速道路)의 개통

동해고속도로는 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터 종점인 강원도 속초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길이 122.16km(삼척~속초), 100.9km(부산~포항)이다. 고속국도 제65선으로 강릉~옥계 탄전지대의 석탄수송을 위해 건설되었는데, 옥계~묵호의 해안이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현재는 관광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개통 전에는 서울에서 속초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미시령 터널 또는 동해고속도로 양양IC에서 나와 7번 국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속초 IC 개통 이후에는 고속도로만 이용하여(서울-양양 고속도로→동해 고속도로) 속초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어 거리는 6.6km, 시간은 30분 단축되었다. 이 구간 공사는 착공부터 개통까지 8년이 걸렸으며 5,596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9월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구간(18.6km)이 개통되어 삼척~속초 전 구간을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는 기존보다 거리는 9km, 시간은 50분 정도 단축하였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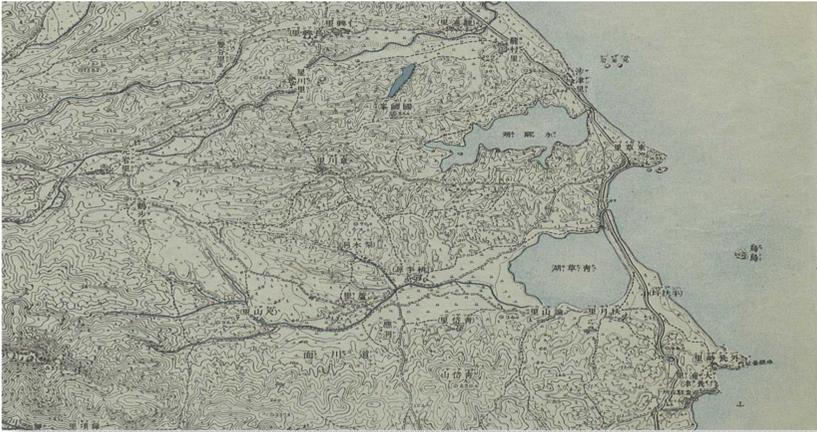
속초 IC의 일평균 통행량은 2016년 2,382대, 2017년 4,342대, 2018년 5,324대, 2019년 5,624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속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속초시가 조사한 유료 관광지 관광객 수는 속초 IC가 개통된 2016년 6,079,300명에서 2017년 9,333,649명, 2018년 10,134,095명으로 속초 IC 일평균 통행량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통행량의 증가로 주말과 여름 휴가철에 학사평 교차로 부근의 차량 정체가 심하며 속초 시내의 도로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사진 38〉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공사현장

30) 「연합뉴스」 기사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구간 개통, 동해안 발전 기대>, 2016. 11. 24일자.

II. 역사



청학동, 교동, 청호동, 조양동 일대 지형도(1918년)

1. 마을의 형성

가. 마을의 형성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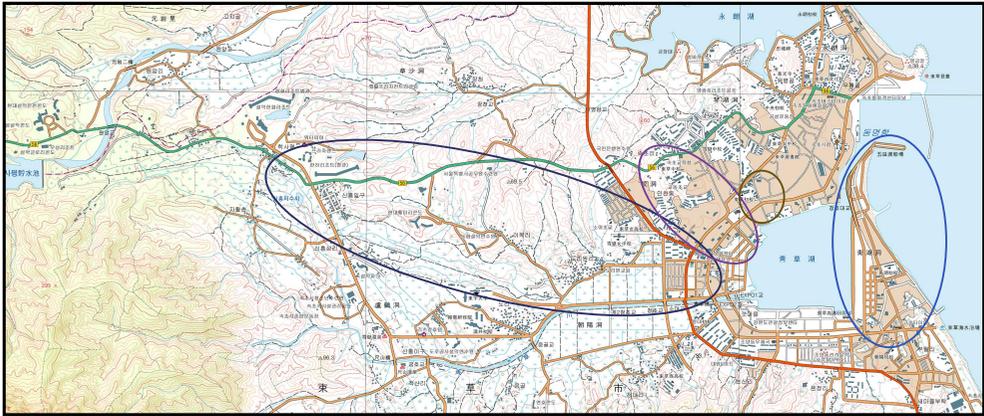
속초지역의 취락은 장천천, 청초천, 쌍천 주변의 4개 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즉 내물치리-하도문리-중도문리-상도문리를 잇는 선, 부월리-논산리-노리를 잇는 선, 장항리-토왕성리-정고리리를 잇는 선, 속진-속초를 잇는 선이 그것이다.

이번 조사지역인 청호동, 청학동, 교동, 노학동은 부월리-논산리-노리로 이어지는 농업지대 확장 축과 속초리에서 이어지는 어업지대 확장 축이 맞물리는 곳이어서 각각의 마을 성격은 많이 다르다.

노학동 지역의 전통 마을과 교동 지역 만천동은 농업지대 확장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그 외의 청호동과 청학동, 교동 일부는 6·25전쟁 이후 속초 어업지대의 확장 과정에서 생겨난 마을이다.

〈표 12〉 청호동 · 청학동 · 교동 · 노학동의 마을 형성 시기

법정동명	형성시기	마을명	위치	마을형성 당시 행정구역(행정구역 편입)
청호동	6·25전쟁 후	신포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앵고치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짜꼬치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신창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정평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홍원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단천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6·25전쟁 후	영흥마을	청호동 북쪽	속초리 5구
청학동	6·25전쟁 후	육구시장마을	청학사거리 부근	속초리 6구
교 동	1920년대	만천동	교동천주교회 앞	속초리
노학동	1960년대	신흥마을	학사평	척산리
	19세기 중반 (공식 1942)	척산리(尺山里)	척산온천장 부근	노리
	19세기 중반 (공식 1914)	노리(蘆里)	온정초등학교 부근	논산리
	19세기 후반 (공식 1942)	도리원리(桃李源里)	속초경찰서 부근	노리
	19세기 후반 (공식 1942)	이목리(梨木里)	도리원리 뒤쪽	노리



〈그림 18〉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의 마을 분포도(2006년 속초지도, 국토지리정보원)

나.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 마을 이름의 변천

조사지역의 법정동인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은 행정동으로는 청호동, 교동, 노학동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동으로의 청호동은 법정동 청호동과 조양동 일부를 포함하였다. 교동은 청학동을 포함한 교동가로 동쪽을 말하며, 교동가로 서쪽은 노학동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의 이곳은 모두 소천면(所川面)에 속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동별 성격은 모두 다르다. 청호동과 청학동의 경우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6·25전쟁 이후이다. 그러나 노학동의 경우 부월리-논산리로 이어지는 농업지대의 팽창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역사도 꽤 오래되었다.

노학동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150년 이상, 교동의 만천동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대의 특성상 인구 증가가 많지 않아 속초읍의 중심지가 되지는 못하였다.

청학동과 교동은 6·25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은 1942년 나뉜진 속초리가 6·25전쟁 이후에는 피란민의 증가와 타 지역민의 이주로 3구에서 5구, 4구에서 6구가 분리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지역의 행정구역 변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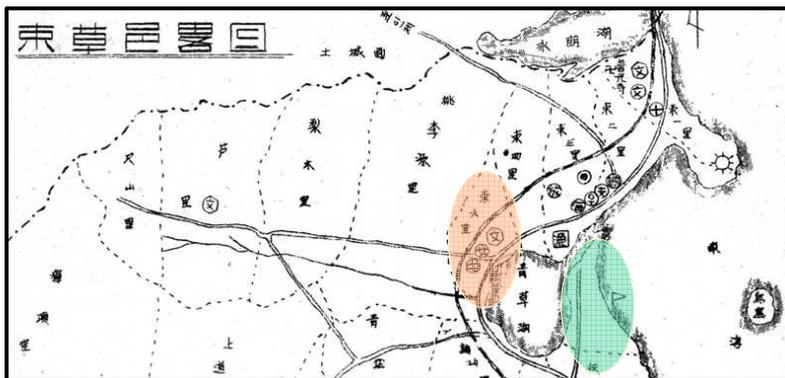
<표 13> 청호동 · 청학동 · 교동 · 노학동의 마을 이름 변천표

연도 동이름	조선 시대		1914		1938 (1937년사 무소이전)		1942	1945~ 1951	1951~ 1954	1954	1963 (1966 동계실시)	1998	
	청호동	소천 면	속초 리	도천 면	속초 리	속초 면	속초 리	속초읍	북한 소속	군정기	속초리 5구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 청호동
청학동	속초리 3구							북한 소속	군정기	속초리 6구	속초시 청학동	속초시 교동	
교동	속초리 4구							북한 소속	군정기	속초리 6구	속초시 교동		
노학동	소천 면	논산 리	도천 면	노 (동) 리	속초 면	노 (동) 리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북한 소속	군정기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속초시 노학동	속초시 노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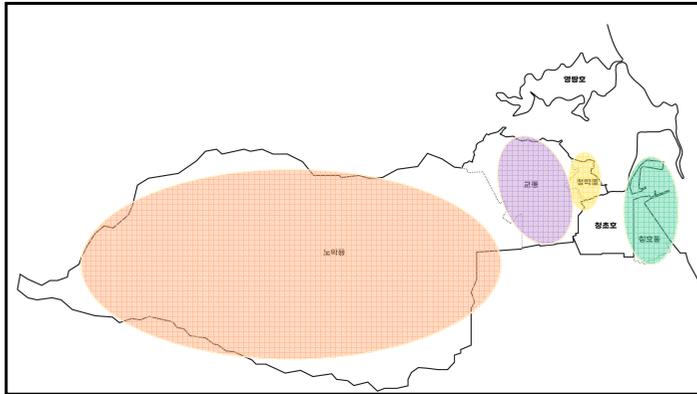
1963년 속초시의 승격 이후에도 행정구역은 1-6의 숫자를 붙여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동계(洞制)를 실시하면서 동(洞)의 이름을 만들었다. 이때 5구는 부월리 2구와 합쳐 청호동(靑湖洞)이 되었고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4개 마을은 합쳐져 노학동(蘆鶴洞)이 되었다. 6구의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아 분리하여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의 두 개 동이 되었다.

이후 1998년 행정동 조정을 하면서 청학동 · 교동 일부(교동가로 동쪽 교동)가 교동이 되고, 노학동 전역과 교동 일부(교동가로 서쪽 교동)가 합쳐져 노학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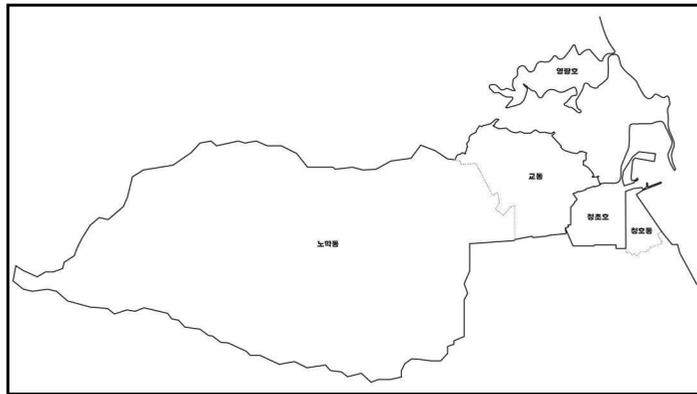
이 내용을 지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1942~1965년 5구, 6구의 범위 출처: 1959년 『읍세일람』



<그림 20> 1966년~1997년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의 범위



<그림 21> 1998년 동 통폐합 후 청호동·교동·노학동의 범위

다. 전통 마을의 형성

1) 노학동(蘆鶴洞)

노학동의 전통 마을은 농업지대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에 마을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논(畓)이었다. 노학동의 전통 마을들은 청초천과 실개천 주변의 좁은 평야 지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었다.

이렇게 농토에 맞춰 정착을 하다 보니 마을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 우선 척산에 있었던 수군만호침사유허지를 근거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수용한다면 이 마을은 정말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시대 후기에 남겨진 읍지이다. 그중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의 논산리의 호구수를 보면 당시 노리의 상황을 대강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 38 남 51구, 여 54구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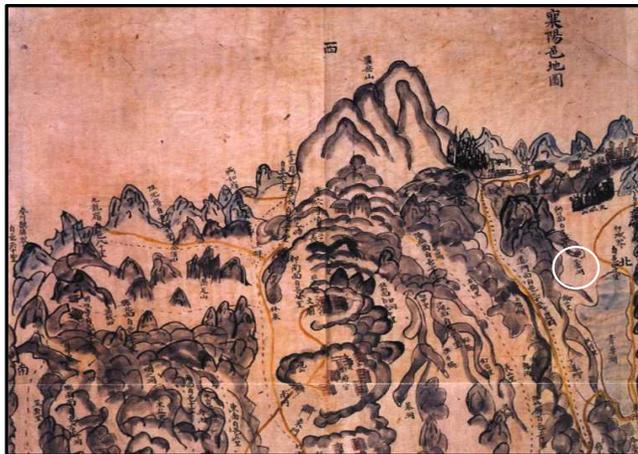
당시 논산리(論山里)에 노리가 포함되었다고 볼 때, 논산리가 큰 동네였으므로 노리의 인구는 20호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리는 청초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비교적 인구 유입이 순조로워 노학동에서 가장 먼저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후 이주한 사람들은 도리원리, 이목리에 정착하였다.

노학동에 마을이 형성된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청초천과 주변의 작은 하천을 이용한 한수전(旱水田) 농업을 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마을별로 어느 정도 농지의 경계선이 나뉘어져 있었다.

가) 노리(蘆里)

(1) 노리의 성립

노리는 온정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농업지대의 확장으로 형성된 마을로, 앞버덩과 뒷버덩을 기반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던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은 1850년 전후로 성립되었으며, 공식적인 자료에서 마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1872년에 제작된 ‘양양읍지도’이다.



<그림 22> 양양읍지도(1872)

31) 『관동읍지』, 양양 방리조.

<그림 22>의 ○안을 보면 노동(蘆洞)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이는 당시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리는 옛 기록에 노리(蘆里),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갈골이라고 했다. 조선 후기 이 마을은 동족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성씨는 연안 차씨, 전주 이씨, 초계 정씨이다. 이들 중에서도 이곳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연안 차씨인데,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연안 차씨(延安車氏)의 5대 조부는 1850년 전후로 장천리에서 이주하여 이곳에 터를 잡았다.³²⁾ 이후 초계 정씨(草溪鄭氏)가 양양 광산에서 이주하였고 전주 이씨(全州李氏), 창녕 김씨(昌寧金氏)까지 들어와 4개의 성씨를 가진 주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 경의 성씨 분포를 보면 연안 차씨 20여 가구, 전주 이씨 10여 가구, 초계 정씨 5-6가구가 살았다고 하니 이들의 집단 이주로 마을을 형성하고도 남음이 있다.³³⁾ 그러나 현재는 이들 성씨도 많이 축소된 상태이고, 마을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당시 노리에 이주한 사람들의 목적은 농경지 확보였다. 19세기경 농업지대는 부월리, 논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리 지역은 농경지가 크지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아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3성 씨는 이주 후 마을의 앞버덩(응골교 건너기 전 넓은 밭이 있는 곳)과 뒷버덩(마을 뒤편)을 기반으로 비교적 많은 땅을 개간하여 생활하였다.



<사진 39> 앞버덩



<사진 40> 뒷버덩(後坪)

하지만 이들이 노리를 처음부터 개척한 것은 아니었다. 연안 차씨가 이주할 때 이미 화전민처럼 살아가는 몇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 형태를 마을이

32) 차동준의 증언, 차동준은 56세로 연안 차씨(延安車氏) 집안 후손이며, 2022년 8월 5일 카페 휘림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33) 정군철의 증언, 정군철은 69세로 초계 정씨(草溪鄭氏) 집안 후손이며, 2022년 8월 5일 카페 휘림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마을의 형성은 연안 차씨 일가가 집단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한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노리고 부근에는 1982년에 세워진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 추념비’가 있다. 이 비에는 김창흡 선생이 ‘소야 8경’을 제정했다는 선행 연구의 기록이 적혀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을의 기원은 1700년대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김창흡 선생과 소야 8경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도리원리와 이목리의 형성은 노리가 만들어진 이후인 19세기 후반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노리는 이미 정착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은 도리원 앞버덩이 있는 도리원리와 이목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1918년 지형도를 보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행정구역으로 이 지역을 독립된 리(里)로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마을 규모는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노리부근 지형도(1918년)

다) 척산리(尺山里)

척산리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전기이다. 이때는 청초호의 범위가 지금보다 한참 위쪽이어서, 척산의 판봉에 수군만호첨사가 관장하는 부대가 있었다

고 한다. 그렇다면 판봉 주변에는 이와 관련된 민가도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확인할 수가 없다.

척산(尺山)이라는 지명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척산 지명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유래가 있는데,³⁴⁾ 이번 조사에서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만, 척산이라는 지명이 판봉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³⁵⁾

왜 척산이라고 짓냐 하면 이 척산 쪽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판봉이라는 데가 있어. 판봉이 왜 판봉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양짓마을이고, 온천장 너메 양지마을이고, 요건 중간마을은 큰 솔대(음지마을에 있는 소나무)가 있으니 큰 솔대가 있어. 거기를 중간마을이라고 했어. 판봉은 이제 이 지금 온천장인가 이쪽으로 너메로서 여관이 하나 있지. 개바닥에 여관 뒤로 올라가면 외판봉 있는 게 자 척(尺)같애. 그래서 거 자 척자 같다 그래 가지고서 그 자 척자를 써서 척산이라 한다. 지명을 그렇게 짓고 쪽 내려와요.

증언을 요약하면, 척산이란 지명은 판봉의 모양이 척(尺) 모양이라서 척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척산 지역에 사람들이 최초로 거주한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며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주민만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조선 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지명이 계속 불려져 왔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척산 지명의 유래들은 판봉이 아닌 양지마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 현재의 척산리는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 척산마을에 5대째 거주하는 이홍수의 증언에 의하면, 선생의 5대 조부가 양양에서 이사하여 정착하면서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시기는 1800년대 중반으로, 이주할 때는 주변에 화전민 몇 가구가 이미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큰 살림을 가지고 들어와 집안에 일꾼 2명을 두었을 정도로 비교적 큰 농사를 지었다.³⁶⁾ 당시 건축했던 양지마을의 가옥은 증언자가 철거하였는데, 철거 당시 형태는 돌기와집³⁷⁾ 지붕이었다. 이들에 의해 척산 앞버덩이 개간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주민들도 양지마을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음지마을(응달말), 판봉마

34) ‘지명’ 편을 참조할 것

35) 김종태의 증언(증언 당시 83세, 1999. 11. 25, 속초시 교동), 장정룡, 『속초민속 이야기마당』, 143쪽에서 재인용.

36) 이홍수의 증언. 이홍수는 86세로 척산에서 5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5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37) 결이 갈라지는 납작하면서도 큰 돌을 지붕재로 쓰는 집이다. 증언자에 의하면 고성에서 돌을 운반해 왔다고 한다. 속초 주변의 이 같은 형태의 집은 왕곡마을에 한 채가 남아 있다.

을이 만들어져 19세기 후반에는 마을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진 41〉 척산에 이주한 전주이씨 최초 집자리

2) 교동의 만천동(萬泉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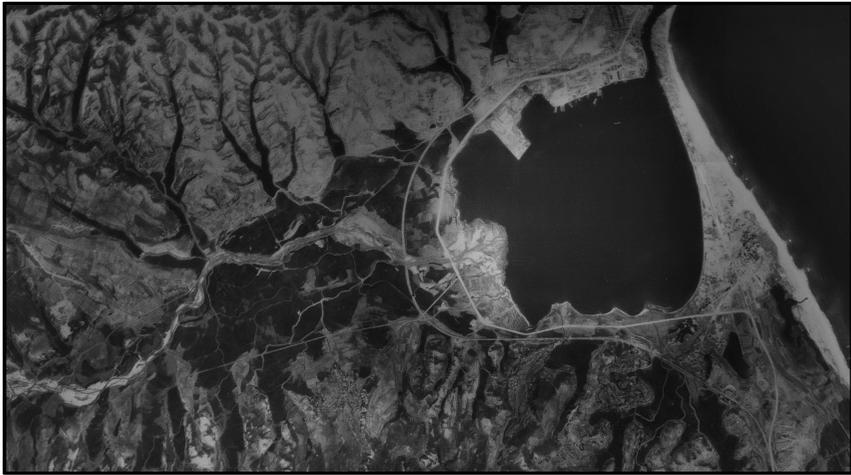
만천동은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 토박이인 증언자에 의하면 조부는 1901년생으로 오색에서 이주하여 20대 때 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당시 마을에는 듽성듽성 집이 있었으나 마을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³⁸⁾

라. 청호동 · 청학동 · 교동 지역 마을의 형성

청호동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정어리 공장과 민가가 있던 곳이었다. 이곳에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북한에 있는 고향 사람들끼리 집단촌을 형성하여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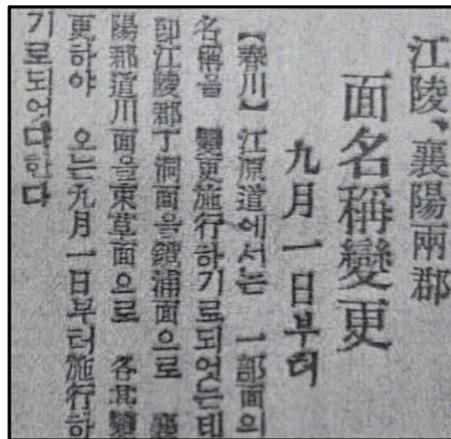
청학동과 교동은 속초리 4구에 속하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6·25전쟁 이후 도시의 확장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과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이다.

38) 박대유의 증언. 박대유는 61세로 만천동에서 3대째 거주하였으나 최근에 이사를 하였고 현재는 형제들만이 살고 있다. 2022년 9월 18일 사업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사진 42〉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 지역의 모습(1954년, 항공사진)

여기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개칭된 시기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서적에 속초면으로 개칭된 시기를 도천면사무소를 속초리로 옮기는 1937년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면(面)의 명칭이 바뀐 것은 『속초도시변천사Ⅱ』에서 언급하였듯이 1938년 9월 1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그림 24〉 면 개칭에 대한 신문기사

2. 전근대의 역사

가. 선사시대(先史時代)

1) 청호동 유적(靑湖洞遺蹟)³⁹⁾

가) 유적의 환경과 발견 경위

구석기시대 유물과 철기(원삼국)시대 유적이 발견된 속초시 청호동 지역은 해발 6m~9m 높이의 해안 사구(沙丘) 지대로 해안선과는 80m~9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400m 정도 이격(離隔)된 곳에 청초호가 위치하고 있어, 선사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호동 유적이 발굴된 이곳은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 즉 I-PARK 아파트 신축부지로 속초시 청호동 433-19번지 일원에 면적은 9,953m²이며, 아파트 건축 전 매장문화재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2009년 10월 20일~12월 19일)를 시작으로 시굴조사(2015년 4월 1일~4월 24일), 정밀발굴조사(2015년 5월 23일~8월 14일)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층과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15기, 수혈 4기, 小수혈군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43> 청호동 유적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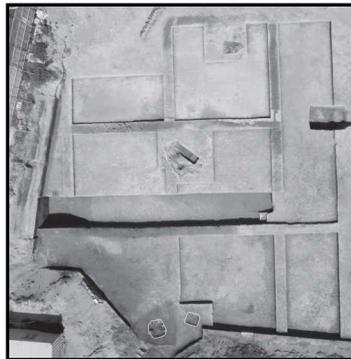


<사진 44> 청호동 유적 전경

39) (재)에맥문화재연구원에서 2018년 3월 14일 발간한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束草 靑湖洞遺蹟』의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나) 구석기시대 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층은 첫 번째 토양층 상부의 명(황)갈색 점토층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6,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 구성은 다수의 몸돌, 격지, 부스러기와 더불어 밀개, 굽개, 썰기, 화살촉 등의 도구가 동반되었으며, 다량의 쯤돌, 날몸돌 및 쯤돌날, 돌날 등이 출토되어, 강원 영동지역의 후기구석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유물층의 형성시기는 층위상으로 명(황)갈색 점토층 상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양극폐기 및 돌날 제작기법이 활발하게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B.P.⁴⁰⁾ 15,000~10,000년 사이에 해당된다.



<사진 45> 청호동 유적 석기제작소

청호동유적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속초시 관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식 발굴조사이며, 후기구석기 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46> 석기제작소 출토 쯤돌날 등



<사진 47> 석기제작소 출토 잔손질된 석기

40) BP(Before Present)는 고고학적인 단어로 현재 이전을 뜻한다.

다) 철기(원삼국)시대 유적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凸자형(2기)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뿔자형(13기)이며, 그중 북벽이 ‘一’ 자형을 띠는 주거지가 10기, 약하게 돌출된 주거지는 5기가 확인되었다. 내부 시설은 출입구 시설(단 유형과 경사식 유형으로 분류되며, 일부 주거지는 출입구가 단벽이 아닌 장벽에 설치), 노지(점토띠식 노지), 토기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의 수혈, 주주혈, 벽주혈, 외주혈, 벽구, 제습 및 배수용도의 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 이외에도 수혈 4기, 불규칙한 간격의 소수혈군(14~50cm)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토기류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경질무문토기는 웅, 소웅, 호, 뚜껑 등으로 용류가 가장 많으며, 특히 경질무문토기 웅은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고, 경부가 비교적 길고 살짝 외반하는 형태를 띤다. 타날문토기는 승문타날 단경호와 격자문타날 단경호가 출토되었으며, 일부 단경호는 도질소성으로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의 조성 연대를 확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되지만 청호동유적의 중심 연대는 4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청호동유적의 철기(원삼국)~삼국시대의 뿔·凸자형 주거지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을 공반하며, 비교적 늦은 시기에 유행하는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 유물군(遺物群)과 주거지의 평면 변화와 관련하여 영동지역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연대 편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유적은 사구지대가 아닌 점토층에 조성되어 유적의 입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진 48〉 철기시대 주거지(凸자형)



〈사진 49〉 철기시대 주거지(뿔자형)



<사진 50> 철기시대 출토유물(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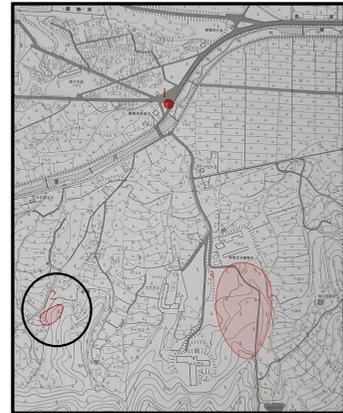


<사진 51> 철기시대 출토유물 토기

출토된 유물 수량은 대도 1점, 옥석류 123점(석기 파편 등 8박스 포함), 토도류 38점(토기편 등 21박스 포함) 등 162점(21박스 포함) 이다.

2) 노학동 경질토기 지표채집(蘆鶴洞硬質土器地表採集)

노학동 산552번지 일원(사당골 응골천 동쪽)에서 회청색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파손된 상태로 수습된 것을 복원하였다. 외면에는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안에 타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 속심은 황갈색을 띤다. 현존 높이 9.8cm, 기벽 두께는 1.1cm이다.⁴¹⁾



<그림 25> 노학동 경질토기 채집 및 유물산포지⁴²⁾

3) 노학동 유물산포지(蘆鶴洞遺物散布地)

현재 속초변전소 뒤 도로 옆으로 자리 잡은 남-북으로 펼쳐진 해발 41m 높이 구릉의 하단부 민묘(묘지) 주위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소량 채집되었다. 지표채집유물은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으로 타원형의 형태로 토기를 재손질하였으나 결실되었다. 2점은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⁴³⁾

41)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 분포지도-속초시-』, 2004, 88쪽(2번 구역).

42) 강원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53쪽.

나. 삼국시대

1) 소림암지(少林庵址)

설악산 목우재휴게소 앞 도로 건너편 골짜기(일명 탐상골)에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를 따라 개울 오른쪽으로 약 30분 정도 산을 오르면 석탑 1기가 있는 암자터를 찾을 수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속초시 노학동 산433으로 설악동의 경계 지점에 해당한다.

암자터에는 석탑 1기와 석축 그리고 흩어져 있는 기와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석탑을 중심으로 약 200평 정도의 대지가 마련된 점으로 보아 신흥사(神興寺)의 부속암자인 소림암(小林庵) 터로 추정하고 있으며,⁴⁴⁾ 고려시대(高麗時代) 중기(中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석탑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속초노학동3층석탑(束草蘆鶴洞三層石塔 : 석탑에 대해서는 문화재 분야에서 자세하게 다룬다.)으로 2000년 1월 22일 지정 관리되고 있다.



<사진 52> 소림암지 전경



<사진 53> 소림암지 채집 기와편

43) 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88쪽(3번 구역).

44) “(중략) 此峰(達摩峰)으로부터 西下이야 古庵의 遺墟가 有하니 昔日 香城寺 當時의 少林庵의 古墟라 한다. 達摩峰 下에 少林庵이 有함은 意味가 이러하다. (중략)” (崔觀洙, 『筆寫本 神興寺誌』, 「達摩峰과 少林庵古址」, 1926년)

“少林庵(廢庵) 一千六百八十九年(新羅 文武王 二年 壬戌)에 創하니 廢한 年代는 未詳하니라. (韓龍雲,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神興寺史蹟」, 神興寺層庵一覽, 91쪽. 1928년) 참조.

다. 고려시대

1) 교동 고분 유적(校洞古墳遺蹟)

유적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산 199번지로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상변경⁴⁵⁾된 상태이며 지도상에도 이미 교동 199번지는 없어졌고 현재는 전 지역에 모두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청자상감우점문완 1점과 청동술가락 1점이 발견되었는데 자세한 유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⁴⁶⁾

가) 청자상감우점문완(靑瓷象嵌雨點紋盥)

규격은 높이 5.1cm, 구경(口徑) 10.0cm이며, 고려시대(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 6월 8일 김택성이 발견하였으며,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구연(口緣)이 안으로 꺾여 들어간 형태이다. 내저면(內底面)이 비교적 넓으며, 주연(周緣)에 1조(條)의 굵은 음각대선(陰刻帶線)이 있다. 내저(內底) 중앙에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원(圓)을 그리며 있고, 외측면(外側面)은 네 면으로 나눈 뒤 각 면에 학(鶴)과 우점문(雨點紋)을 상감(象嵌) 시문(施紋)하였다. 굽 주위에도 연주문대(延珠紋帶)가 있다. 유(釉)가 극히 얇고 회청색(灰靑色)을 띠고 있으며, 낮은 죽절형(竹節形) 다리굽이다. 최운해(崔雲海) 묘 출토 분청사기우점문(粉靑沙器雨點紋) 종지와 비슷한 형태이다. 청동수저(靑銅匙箸) 1쌍과 청동기편(靑銅器片) 1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사진 54〉 청자상감우점문완

45) 공사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시켜야 할 경우에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허가로 지형이 변화된 상태.

4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제1집, 1989, 359쪽, 365쪽 참조.

나) 청동술가락(靑銅匙)

규격은 길이 28.5cm, 시면(匙面) 9.5×3.6cm이며, 병후(柄厚)는 0.4×0.4cm로 고려시대(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자와 보관처는 앞의 청자상감우점문완과 같다.

유엽형(柳葉形) 술(匙面)에 이른바 제비꼬리깃(燕尾羽)꼴 술가락총을 한 형식의 큰 술가락으로, 술은 매우 길며 장타원꼴을 하였으나 운두⁴⁷⁾가 없고 편평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루는 정사각꼴로 된 단면으로 뻗어 가다 손잡이 쪽에서 넓고 크게 퍼진 제비꼬리깃꼴을 하고 있다. 손잡이 쪽 윗면은 간단한 세 마디의 대마디(竹節)꼴 치레를 하였으며, 총은 가운데쯤에서 한 단의 턱을 만들면서 넓고 크게 갈라진 제비꼬리깃을 길게 뽑고 있다. 총의 갈라진 안쪽은 계단꼴 턱을 셋으로 내었다. 자루는 손잡이 쪽에서 아래로 심하게 휘어졌다.

술가락총의 윗면은 턱이 난 곳까지 넓은 세 줄의 오목줄을 총을 따라 그었으며, 그 가운데 줄은 계속 나아가 갈라진 꼬리깃을 따라 두 가닥으로 벌어진 장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식성 및 길고 날씬한 술과 자루 등의 작품(作風)에서 함께 수습된 청자상감우점문완(靑瓷象嵌雨點紋盥) 및 청동그릇조각 등과 더불어 고려 후반까지 내려오는 편년자료(編年資料)로서 주목된다. 자루 위의 양 가장자리는 모죽임을 하였고, 술의 양끝은 사용 탓으로 마모되었다.



〈사진 55〉 청동술가락

47) 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높이.

라. 조선시대

1)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속초포(청초호)에는 고려시대부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노학동 척산리(노학동 871번지 일원, 청초호 서쪽 3km) 판봉 언덕에 수군만호의 관사(官舍)로 추정되는 수군만호첨사유허지(水軍萬戶僉使有虛址)가 있는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구릉 높이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군사 공급과 훈련을 담당하던 곳이라 할 수 있다.⁴⁸⁾



<사진 56> 만호첨사 터 위치도

1926년 발간된 『면세일반』에도 ‘첨사유허(僉使遺墟)’라 하여 노리(蘆里) 척산(尺山)이라는 곳에 신라시대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가 있다고 적고 있다.⁴⁹⁾

만호첨사 터는 주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언덕을 이루고 있어, 위에 오르면 척산과 노리, 응골 일대를 두루 조망할 수 있으며, 지표면에서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와조각을 많이 볼 수 있어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만호첨사 터 서쪽 끝으로는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건물을 짓기 위해 지표를 굴삭기로 정비한 흔적과 진입로를 개설한 것을 볼 수 있다.

48) 정상철, 「속초리 성지」, 『속초의 역사와 이해』, 속초문화원, 2018, 60쪽.

49) 속초문화원, 『옛 문헌으로 본 속초Ⅱ -면세일반·읍세일람-』, 2008, 10쪽 참조.



<사진 57> 만호침사 터 전경



<사진 58> 만호침사 터 채집 기와편

2) 미시령(彌矢嶺)

미시령(彌矢嶺)은 강원도 고성군의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 사이에 위치한 고개로 예로부터 한계령(오색령), 진부령·대간령·대관령 등과 함께 태백산맥을 넘는 주요 교통로였다.

해발 826m인 미시령은 인근의 다른 고개에 비해 높고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 고개를 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글자 그대로 ‘미시령(彌時嶺)’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⁰⁾

미시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오래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미시과령은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는데,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다. 성종(成宗) 24년(1488년)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⁵¹⁾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이전부터 있었던 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미시과령(彌時坡嶺)이라 불려진 미시령은 대부분의 지리지와 옛 시와 기행문(표 2 참조)에는 ‘미시과령(彌時坡嶺)’⁵²⁾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지리지에는 ‘미시령(彌時嶺, 味施嶺, 彌矢嶺)’⁵³⁾ 또는 ‘연수과령(連水坡嶺)’⁵⁴⁾으로 기록되어 있으

50) 고성군, 『고성군지(下)』, 2020, 306쪽.

51) 在郡西南八十里許 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 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 復開此路.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杆城郡 山川條)

52) ‘彌時坡嶺’이라 적고 있는 지리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판동지』, 『관동읍지』, 『증보문헌비고』, 『강원도지』가 있다.

며, 1656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와 1903년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같이 ‘미시파령’을 설명하고 있지만, 끝부분에 “속칭(俗稱) 여수파령(麗水波嶺, 麗水坡嶺)”으로 적고 있다.

〈표 14〉 지리지에 나타난 미시령

연번	명칭	내용	지리지	연도	비고
1	미시파령 (彌時坡嶺)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길을 열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杆城郡	1530	
2	미시파령 (彌時坡嶺)	옛터가 있는데, 고을 서남쪽 63리에 있었다. 미시파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오색역(五色驛)을 철거하여 여기로 옮겼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杆城郡	1530	원암역(元岩驛)
3	미시파령 (彌時坡嶺)	현의 북쪽 80리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麟蹄縣	1530	
4	미시파령 (彌時坡嶺)	(중략) 又 自金剛 歷彌時坡嶺 雪嶽山 所冬羅嶺 (중략)	東國輿地志 권7 江陵大護府 山川條	1656	대관령(大關嶺)
5	미시파령 (彌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 有路舊廢不行 本朝成宗時 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 復開此路 俗稱麗水波嶺	東國輿地志 권7 杆城郡 山川條	1656	속칭 여수파령(麗水波嶺)
6	미시파령 (彌時坡嶺)	在郡西南六十三里 有舊基久廢 本朝成宗時開彌時坡嶺路 撤五色驛移置	東國輿地志 권7 杆城郡 郵便條	1656	원암역(元岩驛)
7	미시파령 (彌時坡嶺)	在縣北八十里 路通杆城郡 俗稱麗水波嶺	東國輿地志 권7 麟蹄縣 山川條	1656	속칭 여수파령(麗水波嶺)
8	미시령 (彌時嶺)	在郡南八十里	輿地圖書 杆城郡 關陔條	1757	
9	미시령 (味施嶺)	미시령(味施嶺) 고성(高城) 통로	萬機要覽 군정편 4, 關防	1808	인제 영로
10	미시령 (彌時嶺)	미시령(彌時嶺) 남쪽 통로.	萬機要覽 군정편 4, 關防	1808	간성 영로
11	미시파령 (彌時坡嶺)	在郡南八里許 旧有往路 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 以襄陽府 所冬羅嶺險阨 故復開此路 襄杆兩邑官路	關東誌 十三 杆城郡 關陔條	1829	지도 표기 彌矢嶺
12	연수파령 (連水坡嶺)	西北七十五里	大東地志 襄陽 山水條	1863	
13	연수파령 (連水坡嶺)	西南八十里 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 復開此路	大東地志 杆城 山水條	1863	

53) ‘彌時嶺’이라 적고 있는 지리지에는 『여지도서』가 있고, 『만기요람』에는 ‘味施嶺’, ‘彌時嶺’으로 혼용되어 있으며, 『조선지리지자료』에는 ‘彌矢嶺’이라 기록되어 있다.

54) ‘連水坡嶺’이라 기록하고 있는 지리지에는 『대동지지』가 있다.

14	미시과령 (彌時坡嶺)	在郡南八里許 旧有往路 今廢不行 成宗二十四年 以襄陽府 所冬羅嶺險阨 故復開此路 襄杆兩邑官路	關東邑誌 杆城郡 關阨條	1871	지도 표기 彌矢嶺
15	미시과령 (彌時坡嶺)	在北八十里 見杆城 右籬山 見總說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三 輿地考 十一	1903	
16	미시과령 (彌時坡嶺)	在西南八十里 見麟蹄 右籬山 見總說 本朝 成宗朝 以襄陽府 所冬羅嶺險阨 復開此路 俗稱麗水坡嶺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三 輿地考 十一	1903	속칭 여수과령 (麗水坡嶺)
17	미시령 (彌矢嶺)	연슈과 一云 큰영 元巖里	朝鮮地誌資料 杆城郡	1911	
18	미시과령 (彌時坡嶺)	在郡西南八里許 有路 舊廢不行 李朝成宗癸丑 以襄陽郡 所冬羅嶺險阨 復開此路	江原道誌 권 2 山川條 舊杆城	1940	

<표 15> 고문헌에 나타난 미시령

연번	표기명	내용	출전	연대	비고 (작자)
1	미과령 (彌坡嶺)	彌坡嶺頭晚霞赤	澤堂先生集 권5 詩	1625	이직 (李植)
2	미시과령 (彌時坡嶺)	平生弧矢志 四方經險艱 南登烏道棧 北上磨天山 不謂東峽路 復有彌坡關 一川百折渡 一嶺千匝環 (하락)	澤堂先生文集 권5, 詩 彌時坡嶺	1625	이직 (李植)
3	과령 (坡嶺)	坡嶺千重雪	澤堂先生集 권5 詩	1625	이직 (李植)
4	미시과령 (彌時坡嶺)	(중략) 曹砧之北爲五色嶺 其東則襄陽 西則麟蹄 五色之北爲彌時坡嶺 嶺在下雪岳之北麓 (중략)	養窩集 冊十二 雜著(上) 東遊錄	1700경	이세구 (李世龜)
5	미시과령 (彌時坡嶺)	(중략) 麟蹄 踰彌時坡嶺 嶺上始見碧海 連天 心目俱開 (중략)	苔泉集 권5遊賞 出宰安峽以遊金剛	1874	민인백 閔仁伯
6	미시과령 (彌時坡嶺)	지리지(地理誌)에 이르기를, “대관령(大關嶺)은 (중략) 또 금강산에서 시작하여 미시과령(彌時坡嶺), 설악산(雪嶽山), 소동라령(所冬羅嶺) (중략)	林下筆記 권13 文獻指掌編 關東要衝	1884	이유원 (李裕元)

한편 옛지도 대부분에는 ‘彌時嶺(坡)’⁵⁵⁾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彌時坡嶺’으로 기록하고 있는 1863년 발간된 『관동지』와 1971년 발간된 『관동읍지』에 수록된 지도와 『수성읍지』에 수록된 「수성군지도」에는 ‘彌矢嶺’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발간된 옛 지도에서는 ‘彌矢嶺’⁵⁶⁾ 또는 ‘連水坡嶺’⁵⁷⁾으로 표기되어 있다.

55) ‘彌時嶺(坡)’으로 표기된 옛 지도에는 『여지도서』, 『팔도지도』, 『해동지도』, 『광여도』, 『동국지지』, 『아동여지도』, 『여지도』, 『동국팔역도』가 있다.

56) 조선총독부, 『5만분의 1 지형도』 杆城,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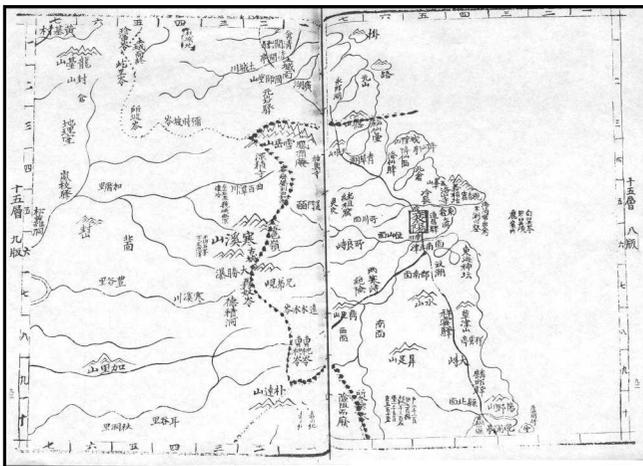
57)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표 16> 고지도에 표기된 미시령

연번	표기명	지도명	제작연도	비고
1	미시령(彌時嶺)	여지도서(輿地圖書)-襄陽府	1757	
2	미시과(彌時坡)	팔도지도(八道地圖)	1758	
3	미시령(彌時峯)	해동지도(海東地圖)-杆城郡	18세기	
4	미시령(彌時嶺)	광여도(廣輿圖)-杆城郡	18세기	
5	미시과(彌時坡)	동국지도(東國地圖)	조선 영조 연간	
6	미시령(彌矢嶺)	간성지도(杆城地圖)	1829	관동지 수록
7	미시과령(彌時坡峯)	청구도(靑邱圖)	1834	
8	연수과령(連水坡峯)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9	미시령(彌矢嶺)	간성군지도(杆城郡地圖)	1871	관동읍지 수록
10	미시령(彌矢嶺)	간성군지도(杆城郡地圖)	1879	수성읍지
11	연수과(連水坡)	접역지도(鰈域地圖)	조선시대	
12	미시령(彌時峯)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	연대 미상	
13	미시령(彌時嶺)	여지도(輿地圖)-杆城郡	연대 미상	
14	미시과(彌時坡)	동국팔역도(東國八域圖)	연대 미상	
15	미시령(彌矢嶺)	조선총독부 5만분1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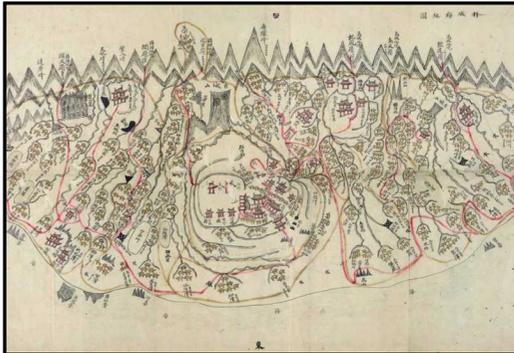


<그림 26> 여지도서(1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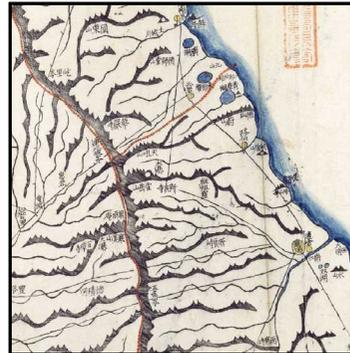


<그림 27> 청구도(1834)

이렇게 『관동지』 등이 ‘彌時坡嶺’ 이라 기록한 것은 이전 관찬 기록을 참고하여 편찬한 데 기인한 것으로 조선후기 민간에서는 ‘連水坡嶺’, ‘麗水波嶺’ 으로 많이 불렸다고 할 수 있으나,⁵⁸⁾ 『관동지』 등에 수록된 지도에서 ‘彌矢嶺’ 이라 표기한 것 그리고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지형도에서 ‘彌矢嶺’ 이라 표기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선 ‘미시령(彌矢嶺)’ 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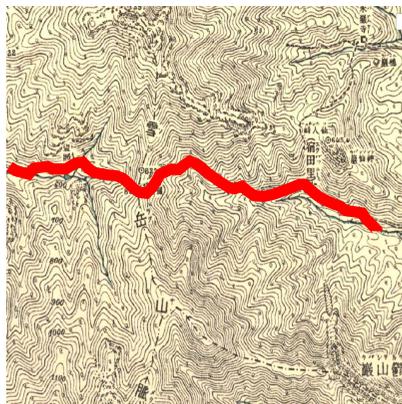


<그림 28> 간성군지도(수성읍지, 1879)



<그림 29> 대동여지도(1861)

1918년 발간된 지형도를 보면 미시령은 통행이 가능한 소로로 표기되어 있으며, 1927년 미시령개통기성회가 조직되어 11월 8일 미시령 개통공사를 착수하여 11월 25일 미시령 개통식을 가져 도보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⁵⁹⁾



<그림 30> 5만분 1 지형도(조선총독부, 1918)

58) 고성군, 앞의 책(하), 306쪽 참조.

59) 「동아일보」, 1927. 11. 10일자, 12. 8일자.

6·25전쟁 당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속초에 주둔하였던 미군 군수부대에서는 속초에서 인제 용대리까지 일선부대 군수보급을 위해 미시령도로를 개설하였고,⁶⁰⁾ 당시 통신장교로 근무하였던 폴 뷰포드 팬처는 물자 수송을 위해 공병들이 닦은 비포장 길 미시령을 이용해 춘천을 자주 오갔으며, 도중 미시령의 속초, 인제 방향의 사진을 많이 촬영하였다.⁶¹⁾

1959년 11월 28일에 육군 공병단에 의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군 작전용 도로로 개설되어 서울-속초간 버스 이동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⁶²⁾ 1989년 6월 17일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차관 사업으로 왕복 2차선 확포장공사의 완공으로 민간에 개방되었다.⁶³⁾ 이후 2006년 5월 3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 터널)가 개통되었고, 2010년 전 구간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었다.



<사진 59> 미시령 도로 현황(1953~1954)⁶⁴⁾



<사진 60> 미시령 도로 개설 공사중(1959)⁶⁵⁾



<사진 61> 미시령 개통 기념 비문(1963~1964)⁶⁶⁾



<사진 62>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개통식(2006)⁶⁷⁾

60) 엄경선, 『속초 수산업 발전의 역사』, 속초문화원, 2017, 164쪽.

61) 폴 뷰포드 팬처, 「Paul B. Fancher가 본 1954년 속초리 풍경」, 185쪽~186쪽,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속초시박물관, 2011. 6. 27. 사진 참조.

62) 「조선일보」, 1959. 11. 29일자.

63) 속초시, 『시정50년사』 下, 2013, 48쪽~49쪽.

64) 속초시박물관,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2011, 126쪽.

65) 고성군, 『사진으로 보는 고성』, 2020, 41쪽.

66)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스 기증사진 No.2013-430, 1964년 촬영.



<사진 63> 미시령 개통식⁶⁸⁾



<사진 64> 미시령 개통식⁶⁹⁾

3) 청초호(靑草湖)

청초호는 영랑호와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석호로 쌍성호(雙城湖) 혹은 진성호(震成湖), 논피호⁷⁰⁾로 불리기도 하였다. 청초호는 어귀 쪽은 동해바다에 잇대어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한 청초천이 유입되면서 형성된 소야평야와 구릉지대가 만들어지고 동해바다에 의해 형성된 사주(砂洲)가 발달하면서 마치 술단지 모양으로 형성된 석호이다.

청초호 주변으로는 농지와 함께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선사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청호동유적과 조양동유적(다음 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청초호를 중심으로 농경과 어로생활을 주로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연결해주는 위치에서 빼어난 경관은 자랑스러운 청초호는 예로부터 지리지를 비롯해 문집 등에 소개되고 있다.

<표 17> 지리지에 나타난 청초호

연번	명칭	내용	지리지	연도	비고
1	쌍성호 (雙成湖)	在府北四十里 杆城郡界 周數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 湖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襄陽都護府 山川	1530	

67) 속초시(2013), 앞의 책(下), 104쪽.

68) 속초시립박물관, 최구현 사진 No.B 6×6_261

69) 속초시립박물관, 최구현 사진 No.B 6×6_250

70) ‘논피’는 ‘논산리(論山里)’의 순수 우리말 이름이고, ‘논피호’는 ‘논피’라는 마을 앞의 호수라는 뜻이다.

2	청초호 (靑草湖)	在府北四十里 杆城郡界 周數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東國輿地志 卷7 襄陽 山川	1660 ~1674	
3	쌍성호 (雙成湖)	自官門北距四十里 周二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輿地圖書 襄陽府 山川	1757	
4	청초호 (靑草湖)	北四十里 杆城界 周數十里	大東地志 襄陽 山水	1866	
5	청초호 (靑草湖)	高麗 置萬戶營 泊兵船 其革罷 未改	大東地志 襄陽 鎮堡	1866	
6	청초호 (靑草湖)	在府北三十里 周回數十里 每冬氷 合有干項 犁破之狀 是夜湖狀 民牛皆喘汗 郡人謂之龍耕 以此占歲豐凶 一名 雙成湖	峴山誌 水源		일명 쌍성호
7	쌍성호 (雙成湖)	自官門北 距四十里 周二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襄陽府邑誌 全 山川		
8	쌍성호 (雙成湖)	自官門北 距四十里 周二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廢	關東誌 十三 襄陽府 山川		
9	쌍성호 (雙成湖)	自官門北 距四十里 周二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關東邑誌 襄陽府 山川		지도에는 靑草湖 표기
10	청초호 (靑草湖)	自官門北 距四十里 周二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襄陽郡邑志 山川	1899	
11	쌍성호 (雙城湖)	在北四十里 周二十里 有萬戶營 泊兵船 今廢	增補文獻備考 卷31 輿地考19	1908	
12	청초호 (靑草湖)	속스ㄴㅁㅁㅁ 所川面 束草里	朝鮮地誌資料 襄陽郡	1910 ~ ?	
13	쌍성호 (雙成湖)	在郡北四里 周二里餘 湖之形勝 於永郎浦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	江原道誌 卷1 山川 襄陽	1940	
14	청초호 (靑草湖)	在郡北三里 周圍數里 每冬氷 合有千項 劈破之狀 是夜湖上 民牛皆汗喘 人謂之龍耕 以此占 歲之豐凶	江原道誌 卷1 山川 襄陽	1940	

민간 측 기록에는 청초호로 기록되어 있으나, 관청 측 기록에는 대부분 쌍성호로 기록되어 있으며 만호영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청초호를 표기하면서 민간에서는 한 해의 길흉을 점치는 용경(龍耕)⁷¹⁾을 소개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에는 청초호와 쌍성호를 모두 소개하면서 쌍성호에는 만호영의 설치를, 청초호에는 용경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71) (중략) “연안부(延安府)의 남지(南池)에 신룡(神龍)이 있는데, 고로(故老)들이 서로 전하기를, ‘매년 겨울에 얼음이 터지는 것을 「용경(龍耕)」이라고 하는데, 물 근원부터 하류(下流)까지 곧게 터지면 그것은 흉수가 날 것을 점치는 것이고, 못 가운데를 가로 끊어서 얼음과 흙이 서로 섞이면 그것은 풍년을 점치는 것이고, 만일 전혀 터지지 않으면 그 점은 흉년인데, 올 겨울에 터진 것은 풍년의 조짐이라.’ 고 합니다.” (延安府 南池有神龍 故老相傳 : ‘每歲冬月氷拆 謂之龍耕 自源(組)〔縱〕流 其占水溢 ; 橫截池中 氷土相雜,其占豐年 ; 若都不拆 其占爲歲凶 今冬之拆 豐年之兆也), [『태종실록』, 태종 8년 무자(1408) 1월 27일(병자)]

<표 18> 문집에 나타난 청초호

연번	표기명	내 용	출 전	연 대	비고 (작자)
1	쌍성호 (雙城湖)	關東錄(附) (중략)又五里 過雙城湖 湖西十餘里 有石峯(중략)	恥齋先生遺稿 卷3	1639	홍인우 (洪仁祐)
2	쌍성호 (雙城湖)	秘仙臺 (중략)距臺一里許 有雙成湖 一名述郎浦(중략)	八谷先生集 卷1 七言律詩	1648	구사맹 (具思孟)
3	청초호 (靑草湖)	靑草湖, 次李甥韻, 名尙質	守夢先生集 卷1 七言絶句	1661	정업 (鄭曄)
4	청초호 (靑草湖)	又次秘仙亭韻 潘興昨日陟高臺 / 白首斑衣似老萊 靑草落花湖上路 / 此身何事又重來	守夢集 卷1 七言絶句	1661	정업 (鄭曄)
5	청초호 (靑草湖)	금강록(金剛錄) (중략)午入洛山寺食 大浦萬戶李潛來見 與之語 向 夕過靑草永郎兩湖 投清澗亭宿(중략)	守夢集 卷3 雜著	1661	정업 (鄭曄)
6	청초호 (靑草湖)	北關錄結語 (중략)入天吼山 窮水石之幽 臨靑草湖 盡湖海之勝 一壺一棹 到處嘯詠	泛虛亭集 卷7 雜著	1744	송광연 (宋光淵)
7	청초호 (靑草湖)	天吼山記 (중략)其北則靑草湖 湖與海水 波濤相吞 光影相發 (중략)	艮翁先生文集 卷20 記	1795	이헌경 (李獻慶)
8	청초호 (靑草湖) 쌍성호 (雙成湖)	峴山三十詠 / 草湖龍耕 雙成湖 一名靑草湖 在府北四十里杆城界 周數十 里 每冬月合凍後 冰忽鱗起 自北岸至南岸 有若犁 破狀 村人謂之龍耕 以此占年云	鳴巖集 卷4 詩	영조 연간	이해조 (李海朝)
9	청초호 (靑草湖)	送豐安君趙公赴杆城郡序 (중략)宿靑草湖邊人家凌晨過秘仙亭到洛山寺(중략)	騏峰集 卷4 序	1802	이시성 (李時省)
10	쌍성호 (雙城湖)	雙關湖 雪嶽凌空活畫奇, 籬山巒峯躡峯危 湖開十里包平野, 竹暗雙城有古基 束草島侵滄海近, 秘仙臺隱亂松枝 春風信馬垂鞭去, 草綠沙明日正遲	虛白堂詩集 卷10 詩	1841	성현(成倪) '關'은 '城'인 듯
11	쌍성호 (雙城湖)	雙城湖 遇大風	虛白堂詩集 卷10 詩	1841	성현(成倪)
12	청초호 (靑草湖)	北遊錄 / 靑草湖 鳴沙十里碧湖東 漠漠輕鷗裊裊風 舍瑟鏗然千古樂 天機隨處自然中 湖邊鳴沙最多	好古窩先生文集 卷1 詩	1896	유휘문 (柳徽文)
13	청초호 (靑草湖)	北遊錄(上) (중략)行二十五里 至靑草湖 恥齋記所謂雙城湖者 也 晴波細浪 瀾漫浩淼 周回十餘里(중략)	好古窩先生文集 卷16 雜著	1896	유휘문 (柳徽文)
14	청초호 (靑草湖)	嶺東山水記 (중략)山之下有靑草湖 湖之窮有秘仙亭 盖入海十 步許 小峰斗起 稚松被之(중략)	守堂先生文集 卷18 記	미상	최유해 (崔有海)

문집에서 처음에는 쌍성호를 주로 쓰고 있으며, 조선후기로 갈수록 청초호로 표기하면서 호수 경치 들을 시문에 적고 있다.

3.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가. 노리(蘆里)의 발전과 만천(萬泉)마을의 생성

1) 노리의 탄생과 분화

19세기 후반이 되면 노학동의 중심 마을인 노리 주변의 도리원, 이목, 척산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에 이 지역을 모두 묶으면 어느 정도 마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에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도천면 노리(道川面 蘆里)가 탄생한다.

노리에 살던 사람들은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더 많은 농지가 필요했고, 농지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인구도 유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노리는 1942년 속초읍(束草邑) 승격 때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4개 마을로 분화되었다.

1950년 전후의 노학동 전통 마을의 규모는 노리 40~50가구, 도리원리 40~50가구, 이목리는 20가구 정도였다.⁷²⁾

2) 1918년 이전의 학사평

학사평(鶴沙坪)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다.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밭이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 가보면 농사를 제법 많이 짓고 있어 딱사밭이라는 말이 의아할 수 있다. 요즘은 미시령 방향으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이곳은 파종기인 4월, 5월에는 바람이 너무 심해 작은 돌이 날아다닐 정도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학사평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평지로 된 넓은 농토가 있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 농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땅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1918년 지형

72) 이동형의 증언. 이동형은 85세로 2022년 6월 24일 노학동 노인회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도에 표시된 농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지도 작업 시기를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 준다. 당시 학사평은 위쪽이 밭이었고, 아래쪽은 왜송지(矮松地)⁷³⁾였다.



<사진 65> 1964년 학사평⁷⁴⁾



<사진 66> 학사평 (2022)

3) 교동 만천동(萬泉洞)의 생성

교동의 전통 마을로는 만천동⁷⁵⁾이 있다. 만천동은 현재 만천방앗간-럭키1차아파트-관음사-로얄아파트로 이어지는 길이 옛길이었는데, 대부분의 주택은 길의 북쪽(오른쪽)과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이유는 남쪽(왼쪽)은 길을 따라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전통적인 농업지대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마을로 농업지대의 마지막 지점이다.

이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1920년경이다. 증언에 의하면 증언자의 조부가 마을에 터를 잡았을 때 마을에는 집단촌이 아닌 간간이 몇 집이 있었다고 한다.⁷⁶⁾ 이곳은 농업지대로 성장한 마을이기 때문에 6·25전쟁 이후 급격히 커진 교동의 다른 지역과 달리 주변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생성된 마을이다.

73) 다복술이라고 하며 가지가 많은 어린 소나무를 말한다.

74)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77, 1964년 촬영.

75) 만천동(萬泉洞)은 행정동이 아니며 마을이 생성되면서 동네의 의미로 동(洞)이라는 글자가 붙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만천동 또는 만천마을로 표기하기로 한다.

76) 박대유의 증언. 증언자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동네 사랑방인 만화방을 운영하였다.

나. 소야팔경과 청초호

1) 소야 8경(所野八景)

속초 청초호를 중심으로 주변의 경관을 잘 표현한 기록은 1926년 발간한 『면세일반』에 소야 8경의 기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⁷⁾

논산리는 고지대에 위치하여 청초호에 이어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옛날 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청초정을 두어 시인묵객들이 계절에 따라 왕래하고 정자에 올라와 술잔을 기울이며 물가에서 시를 읊었다. 이때 청호마경, 속초귀범, 주교야화, 온정조하, 논산조양, 청대화병, 노동명월, 이동백설의 8승을 감상했는데 이것이 소야 8경의 기원이 된다.

가) 청호마경(靑湖磨鏡)

서쪽 가까이 태백산계의 주봉우리인 설악산 꼭대기를 갈아 흡사 화병과 같다. 청초 호수면에 웅대한 모습이 거꾸로 비추고 북쪽은 아득히 후지산의 한봉우리를 축소하여 위치시켰다. 운봉산을 바라보며 동쪽은 넓게 동해 물줄기가 만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따라 백사장 일대는 원산 양양선 2등 도로를 관통하고 남쪽은 부월리를 접해 완곡없이 정원형 한쪽 끝에 동북쪽 해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약간 가늘고 짧다. 호수면은 사시 푸르고 해안의 갈매기와 백로가 날아오르고 수영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풀 베는 아이와 노 젓는 아이가 피리 소리와 어부가를 서로 주고받고 달 밝은 가을의 저녁 꽃은 웃고 봄 새벽의 조망은 절경을 이룬다. 호수의 북쪽면 약 7, 8리 되는 호숫가에 우뚝 솟은 것을 용암이라고 부른다. 시인과 묵객들은 항상 올라와 술을 마시며 가무하고 전한국시대의 군수 남궁역씨 석존생일에 낙화를 즐겼다. 호수의 경치는 또한 칭찬할만하고 경치 중에 마경은 설경에서 아름다움을 취하고 겨울의 결빙기가 오면 층층히 맑고 깨끗해서 마치 대지에 하나의 큰 거울면을 간 것처럼 장관이 된다.

나) 속초귀범(束草歸帆)

남쪽에 넓고 평평한 사빈 호수 가까이에 좁고 길게 돌출해 굽어진 포구를 따라 하나의 마을을 이룸하여 속초리라고 부른다. 전방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센

77) 속초문화원(2008), 앞의 책, 10쪽~12쪽 참조.

물결을 헤치고 태양이 동해를 비출 때 돛을 단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소상 8경의 원포귀범에 뒤지지 않는 장관이다.

다) 주교야화(舟橋夜火)

들판의 동쪽 청초호를 따라 있는 마을이 지금의 부월리라고 하는데 이 마을은 본래 주교라고 부른다. 이곳의 호수 주변에 나루터가 있고 현재 마을이 호수에 가깝게 접함으로써 초여름의 4월과 늦가을의 9월경은 물고기와 게를 잡는 것이 한창이어서 강촌의 밤 불빛이 호수 주변에 비추어 거대한 불과 함께 불야성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라) 온정조하(溫井朝霞)

부월리는 내리, 외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 내리의 남쪽 청대산 언덕 산기슭에 민가가 여러 채 있고 산기슭 오른쪽 산간에 계곡에서부터 끊임없이 용출하는 온천이 있는데 겨울철 수온은 따뜻하고 하절기에는 보통의 물과 큰 차이 없다. 그 외 동절기에 흐르는 온천은 근처에 아침 증기가 올라와 우물 부근에는 아침노을이 두텁게 낀 듯하며 연기가 속초리까지 약 반리 공중에서 낙하하여 하나의 기이한 광경을 나타낸다. 중천에 이르러 점점 없어져 자취가 사라진다.

마) 논산조양(論山朝陽)

소야 일대 평탄 부근 평지에 마을이 위치하고 홀로 논산리는 약간 높은 구릉지에 있어 동쪽으로 향해 아침 해를 빨리 맞이하여 그 장엄한 경치가 팔경 중 으뜸이다.

바) 청대화병(靑塗畫屏)

동군의 진산인 설악산의 한줄기가 구부러져서 동쪽을 지나 천후산 달마봉이 되고 이것을 두 줄기로 나누어 동서 중앙을 관통해 우뚝 솟아 청대산이 된다. 제일 높은 곳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수십 그루 있어 향해의 목표가 되고 산봉우리들을 돌아 사계절을 감상하며 늦가을 서리 앓은 잎이 2월의 꽃보다도 붉어질 때 수 놓은 병풍을 장식한 미관은 신선의 모습을 자아낸다.

사) 노동명월(蘆洞明月)

서쪽 능의 울산암 구름에 우뚝 솟아 동해의 기운이 장엄함을 나타내고 남쪽의 주봉치는 청대산을 화병과 같이 둘러싸고 동해를 한 눈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노동을 현재 노리라고 칭한다. 가을에 달을 보면 고요한 달빛이 동해에서 나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중천에 걸리는 것과 달이 지는 산그늘의 경치가 노동의 땅과 같게 조화를 이룬다. 고대 시에 ‘중천의 월색이 좋아 노동명월을 잠시 본다’ 하니 팔경에 가히 더할만하다.

아) 이동백설(梨洞白雪)

들판의 서쪽 끝에 작은 부락이 있어 현재는 노리에 속한다. 교외 들판의 봄 경치를 접하면 마을 전부가 백화의 세계가 되고, 불시 흰 눈이 비약하는 모습이다. ‘배꽃이 흰 눈 같다’ 고 고시에서도 읊었으나 애석하게도 마을주민이 배나무를 베어서 그 잔재만 남았다.

이렇게 소야 8경 외에도 2경을 더해 10가지가 전하는데, 도원홍우(桃源紅雨 : 도리원리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붉은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면, 마치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것 같다는 경관)와 척산야침(尺山夜砧 : 척은 옷감을 재는 자를 뜻하므로, 나아가 밤에 옷감을 다듬이질하는 경관)이다.⁷⁸⁾ 김창흡 선생이 제정했다고 전해지기도 해서⁷⁹⁾ 1982년 세워진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 에도 소야 8경이 새겨져 있지만, 선생이 제정했다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2) 청초천(갈골늪, 蘆洞川, 所野川)

설악산 달마봉에서 시작되어, 척산리(尺山里),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논산리(論山里)를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예전에는 한글로 ‘갈골늪’, 한자로 ‘노동천(蘆洞川)’ 이라 하였다.⁸⁰⁾ 한편 소야천(所野川)이라고도 하는데 하천 좌우로 형성된 소야평야(所野平野)의 관개로(灌溉路)가 되고 있으며, 하천의 길이는 12km에 달한다.⁸¹⁾

다. 노리(蘆里)의 인구 유입

1925년 기준으로 속초에서 가장 큰 동네는 속초리였다. 속초리(束草里)는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속진리(束津里)도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다. 그 이외에 큰 마을은 대포리, 상도문리, 노리 순이었다.

78) 속초시, 『속초시지』, 1991, 1253쪽.

79) 속초시(1991), 위의 책, 1253쪽.

80) 『조선지리지자료(양양군)』

81) 속초문화원(2008), 앞의 책, 35쪽.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2 강원편』, 1964, 171쪽.

<표 19> 1925년의 마을별 인구

마을이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총호수	남	여	총수
대포리	131	681	23	93	1	3	155	411	266	777
상도문리	129	741					129	380	361	741
노리	119	735					119	378	357	735

출처: 『면세일반』

대포리(大浦里)에 인구가 집중된 이유는 속초의 중심지이자 항포구가 발달한 지역이며, 속초의 문호였기 때문에 일본인, 외국인도 살고 있었다. 상도문리(上道門里)는 전통적으로 안정된 마을로 쌍천(雙川)을 끼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다.

그런데 <표 19>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노리에 의외로 인구가 많았다. 이는 농업지대의 확장 과정에서 부월리(扶月里)나 논산리(論山里) 같이 원주민들이 이미 선점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리 지역이 비교적 넓어 농업 인구가 유입될 공간이 많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라. 노리의 경제

1) 노리의 농업 현황

1925년을 기준으로 도천면의 농업 인구는 65%나 되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작(小作)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 빈곤층이 많았다. 당시의 자료에서 해변가보다 내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업과 관련이 있다. 그래도 노리 지역은 비교적 농토로 개간할 수 있는 유휴지가 많아 속초의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표 20> 1925년 도천면의 농업 현황

마을 종류, 단위		장항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옹치	부월	논산	노리	속초	계
		논	묘	58	4,832	7,338	1,605	583	3,211	1,331	4,270	9,431	13,225
쌀	두	34	3,851	6,372	1,278	421	931	2,555	3,656	7,612	10,383	9,465	46,558
소	두	19	124	97	36	15	28	21	87	113	170		776

출처: 『면세일반』

<표 20>을 보면 노리에는 당시 도천면 논(畓)의 24%가 있었다. 논이 많다보니 쌀 생산량도 22%나 되었으며, 농사에 꼭 필요한 소도 170두로 22%를 가지고 있었다.

2) 보(洑)와 보관관⁸²⁾

가) 청초천의 보(洑)

보는 들판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물막이(댐) 시설이다. 지금은 하천에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면 그만이지만 예전에는 하천 바닥을 파고 돌과 흙으로 물길을 막아 만들었다. 이렇게 모은 물은 들판으로 끌어들이어 논에 물을 공급해 주었다.

청초천 주변의 논 중에서 척산(尺山) 앞버덩, 청대리(靑垜里) 앞버덩, 소야평야(所野平野)는 대부분 청초천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이를 위해 청초천에 보를 쌓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초에 제작된 「조선지지자료」라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청초천에 있는 보 4곳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의 위치는 금호콘도 입구(상보), 노리 앞(중보), 철구조물 다리(말보), 청대리 앞(신보)에 있었다.



<사진 67> 상보(웃보)



<사진 68> 중보(중보)



<사진 69> 하보(끝보, 말보)



<사진 70> 신보(새보)

82) 김덕수의 증언, 김덕수는 79세로 마지막 보관관이었으며, 2022년 11월 25일 자택에서 증언을 취하였다. 보에 관한 내용 일체는 증언으로 작성하였다.

나) 보관관의 역할

보의 물을 논으로 대주는 일을 하는 직업을 보관관⁸³⁾이라고 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논에 물을 채워야 하는데, 봄에 물을 대는 일을 보매기라고 하였다. 보관관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고, 보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 농부들은 보관관의 지휘 아래 봄에 가장 큰 공사를 했는데, 대체로 논 300평당 1인 썩이 동원되어 독을 쌓고 물길을 만들었다. 이 행사는 모내기 전의 가장 큰 행사이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썩하게 일하고 먹곤 했다. 보관관은 1970년대까지도 활동했으며, 임금으로 1년에 쌀 5가마 정도를 받았다.

다) 보(洑)와 물길

일제강점기 때도 보(洑)는 이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았다. 콘크리트로 설치하기 이전에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서 다시 쌓곤 했다. 그래서 큰비만 오면 논주인들을 다불러서 멍석, 가마니를 갖고 나가 난리를 피웠다.

보는 제방을 쌓아서 만들었다. 독을 쌓을 때는 흙을 소루지게⁸⁴⁾에 담아 날랐다. 가뭄 때는 개울 바닥을 팠다. 개울 바닥은 가래질을 하여 팠는데 외카래(외가래)는 3명이, 상카래(상가래)는 5명이 작업을 했다. 그러나 위쪽에서 너무 깊게 파면 아래쪽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쳤다.

보가 완성이 되면 논으로 물을 보내는 일을 했다. 물은 큰 소나무를 말구유처럼 속을 파서 수로(물길)를 만들었다. 소나무를 쓴 이유는 잘 썩지 않기 때문이었다.

83) 보관관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보의 물을 관리하던 사람을 지역에서 부르던 이름인 것 같다. 보(洑)는 다른 말로 복(坎)이라고도 썼다.

84) 국어사전에 없는 말로 지방 방언으로 추정되며, 소쿠리를 엮은 지계를 말한다.

4. 현대(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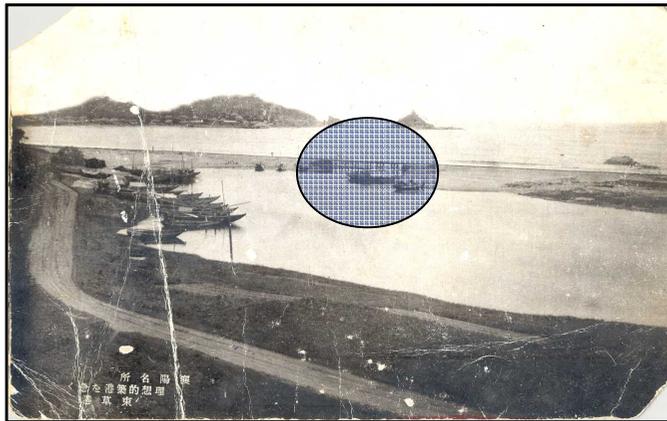
가. 6·25전쟁(戰爭) 이후

1) 청호동(靑湖洞) 마을의 생성

가) 6·25전쟁 전 아바이마을

일제강점기 초에 청초호 부근 일대의 충적지(沖積地) 즉, 부월리(扶月里) 부근은 개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만한 터가 없었다. 또한 동해안의 가파른 산지 사면(斜面)의 화전(火田)은 관헌의 눈을 피해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에는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砂洲)가 새로운 주거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1910년대 이곳은 원산과 양양을 잇는 지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청호동 북쪽으로 단절된 물길(개목)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⁸⁵⁾ 또한 1930년대 속초항이 개발되어 수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정어리공장지대로 지정되었으며,⁸⁶⁾ 6·25전쟁 때에는 정어리 기름공장이 두 세 곳 있었을 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사진 71〉 1930년대 속초항⁸⁷⁾

85) 엄경선, 「분단시대 동해안 수복지구 주민 수난 이야기」, 『수복지구 문학으로 본 수복지구 이야기 자료집』, 2022, 114쪽.

86) 「조선중앙일보」, 1925. 9.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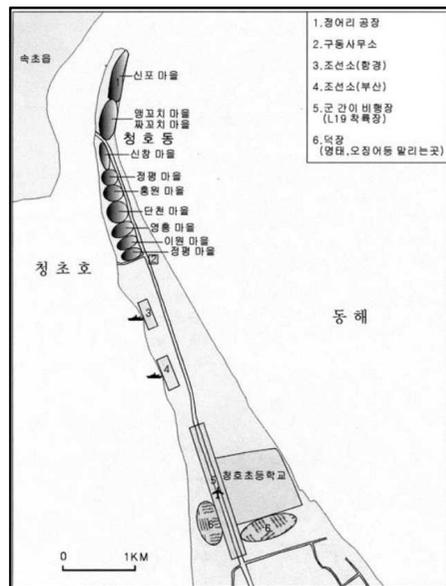
나) 6·25전쟁 직후 아바이마을

청호동에 실항민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청호동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거의 버려진 국유지로,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임시거처가 필요했던 실항민들에게는 쉽사리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1950년 10월부터 국군 제1군단이 속초지역을 수복하고 청호동 지역에 주둔하면서 전선의 배후 군수거점지인 속초에 많은 일자리가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이곳에 정착한 실항민 중에는 국군에 자원입대하거나 군부대에서 일하는 군속과 북한지역 후방에 투입되어 군사작전을 하는 실항민 등 군과 관련된 일에 많이 종사하면서 청호동에 피란민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하였다.⁸⁸⁾

가장 먼저 청호동에 정착한 피란민들은 군부대 주둔지와 남쪽의 군 간비행장 활주로를 피해 도선장 인근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국유지였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도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북에서 주로 어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어업 관련 기술에 숙련된 이들과 피란 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한 실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유한 선박을 정박하고 인력을 운영해 조업하기에는 바닷가 근처에 정착지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⁸⁹⁾

고기잡이배를 함께 타고 피란 내려온 실항민들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북청군 신포마을이 갯배 근처에 들어섰고, 북청마을, 단천마을, 신창마을, 흥원마을, 이원마을, 영흥마을이 들어섰는데, 청호동에 가장 많이 정착한 북청군 사람들은 짜꼬치마을, 앵꼬치마을 등의 고향 마을 지명을 정착촌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⁹⁰⁾



<그림 31> 6·25직후 청호동 일대

87) 월 안에 다리가 개설되어 있다.(속초시립박물관, 전장주 기증사진, 1930년대 속초항)

88) 엄경선, 앞의 논문, 107쪽 참조.

89) 국립민속박물관,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청호동』, 2014, 32쪽.

90) 옥한석, 「속초의 지리적 특성과 피난민의 취락 형성 과정」,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133쪽.

다) 실향민들의 정착촌 생활

청호동에 6·25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실향민의 거주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다. 실향민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수용소에 수용하는 방법, 둘째 행정기관의 주선으로 원주민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방법, 셋째 실향민들이 집거하여 살 수 있는 피란민 정착촌을 만드는 방법⁹¹⁾ 등이 있을 수 있었으나 첫째, 둘째 방법은 거의 실효성이 없었고 피란민 정착촌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자체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속초에서는 민정으로 이양되는 1954년까지 군정 당국은 원주민과 실향민을 ‘난민’으로 동일시하여 속초에 들어온 실향민과 원주민을 구별하여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향민 정착촌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주택건설계획을 세우지 않았다.⁹²⁾ 따라서 급속하게 유입된 실향민들은 해안가의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짓고, 집 짓는 재료도 폐군용 목재, 강통(드럼통), 시레이션 박스 등을 주워서 집을 지었으며, 마땅한 식수원도 없어 청초호 건너 중앙동의 공동우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사진 72> 지붕재⁹³⁾

그리고 대부분의 피란민들은 속초지역에 연고가 없어 생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6·25전쟁 중 미군정은 실향민들에게 직접적인 구호물자를 지급하지 않고 교회 등을 통해 지급함에 따라 실향민들의 교회 설립 이유에는 심리적 안전과 함께 구호물자 지급 등과 같은 생계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군 등 군속으로 근무하는 실향민들이 많았는데 이 경우 신분상의 위해를 받을 염려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⁹⁴⁾ 한편으로는 군인으로 가장

91) 사득환,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정착과 행정의 역할」,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148쪽.

92) 정재국,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305쪽.

93) 미군이 사용하던 음식용 캔을 평평하게 펴서 만든 지붕재이다.(국립민속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 2017, 52쪽.)

(假裝)하여 양양(襄陽)에 소재한 군부대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최소한의 구호물자를 받을 수도 있었다.⁹⁵⁾

이렇게 조금이나마 실향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은 있었으나, 청호동 실향민들이 느끼는 구호 정책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각종 규제조치만 있었다고 한다. 실향민들이 공직자로 진출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빨갱이 색출 작업은 실향민에게는 극심한 공포심과 레드컴플렉스를 갖게 하였다. 민정이양 후에도 반공정책과 신원조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남한 출신으로 호적을 변경하는 실향민들도 상당수 있었다.⁹⁶⁾

이상과 같이 6·25전쟁 당시 수복 이후 실시된 미군정을 비롯해 휴전 후에도 15개월 동안 미군의 지배하에 실시한 1군단의 군정은 실향민들이 청호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계획과 별다른 구호정책도 없이 여러 가지 규제조치만 있는 6·25전쟁 전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본주의 진영으로 수복된 지역에 실시된 미군정의 체제교육 시험장이 되었다.⁹⁷⁾

라)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

속초의 어업은 1930년대 속초항의 개발과 더불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6·25전쟁으로 실향민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들 중 배를 이용하여 이동한 사람들은 주로 속초항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고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고,⁹⁸⁾ 1955년에는 어업인구(1,146호 5,666명)가 농업인구(895호 4,901명) 보다 많아지게 되었다.⁹⁹⁾

6·25전쟁 직후 1950년대의 실향민들은 고향이 가까워 전쟁이 끝나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군 후생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38선 이북으로 들어오면서 속초 실향민 정착촌에 머물게 되었고, 속초에 주둔한 군 계통에서 일하는 같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이주하는 등 이미 정착한 연결망과 같이 살기 위해 속초 청호동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다.¹⁰⁰⁾ 이들 대부분은 배를 이용해 피란 왔거나 고

94) 사득환, 앞의 논문, 157쪽.

95) 이관희, 남, 2000년 9월 29일 면담(사득환, 앞의 논문, 156쪽.)

96) 사득환, 앞의 논문, 158쪽.

97) 국립민속박물관(2014), 앞의 책, 35쪽.

98) 6·25 전쟁 이후 속초 및 주변으로 이동한 피난민의 규모는 48,722명에 이른다. (국립민속박물관(2014), 앞의 책, 32쪽 참조.)

99) 김귀옥, 「피난민의 특성과 정체성」,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83쪽.

향에서 어업에 종사한 피란민이 대부분이었으며, 큰 기반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어업이므로 속초는 청호동을 중심으로 실항민들의 어업이 크게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속초가 실항민의 대거 유입과 어업과 그 주변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았으며, 속초 청호동에 오면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기가 용이하여,¹⁰¹⁾ 1966년 청호동의 인구는 7,348명(속초시 인구의 11.6%)으로 정점을 찍었다.

마) 청호동 가옥의 변화

속초 청호동으로 실항민들의 빠른 인구 유입은 주거의 부족과 주거 환경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실항민에게는 임시거처 형태에서 주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¹⁰²⁾

속초 청호동에 초기 정착한 실항민들은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임시 생활공간이 필요했으므로 군용폐기물, 비닐 등을 이용하여 수혈공간을 만들고 천막형태의 원추형 가옥을 만들었다.¹⁰³⁾ 그 후 조금의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집단의 생활을 하야 하는 경우에는 바닷가 가까이에



다 기둥도 없이 널빤지나 종이박스로

〈사진 73〉 진순덕의 집¹⁰⁴⁾

벽을 만들고 루핑 등으로 지붕을 만든 ‘하꼬방’¹⁰⁵⁾이라는 방과 부엌이 있는 주거 생활을 하였다. 이런 하꼬방 집에도 방과 부엌 사이에 벽체로 분리된 완충공간을 만들었는데, 함경도지방 민가의 ‘정주간’과 유사한 형태로 피란 오기 전 고향 집의 생활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¹⁰⁶⁾

100) 정재국, 앞의 논문, 304쪽.

101) 정재국, 앞의 논문, 304쪽.

102) 정재국, 앞의 논문, 304-305쪽.

103) 정재국, 앞의 논문, 309쪽.

104)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11쪽.

105)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10쪽.

106) 정재국, 앞의 논문, 313쪽.

정착 초기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실향민들은 특별한 가재도구나 어구들 없이 잠잘 수 있는 크기의 공간만이 필요했으며, 어업의 특성상 단체 생활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큰방 혹은 몇 개의 방들이 연결된 가옥구조를 만들게 되었고, 어업의 성황과 함께 급격한 실향민의 증가는 더 많은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게



〈사진 74〉 박송월 가옥¹⁰⁷⁾

되어 부엌에 방이 연결된 일자 형태의 가옥이 만들어지고, 몇 개의 큰방이 다시 부엌에 이어 붙은 연결된 가옥 형태가 나타났는데, 청호동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옥구조였다.¹⁰⁸⁾

실향민들도 점차 경제적 능력이 확보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내구적인 흙, 벽돌, 알루미늄이 사용되면서 완전한 근대주택을 건축하게 되어 담장이 있는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¹⁰⁹⁾

청호동의 판잣집은 당초부터 별다른 계획 없이 난립 된 것이었다. 좁다란 골목을 두고 다닥다닥 마주 앉은 모습이었고, 골목은 마당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편의를 위한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향민들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이도 아침이면 너무 붐비는 탓에 급한 대로 해안가나 방파제 등에 앉아 해결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공유지로 6·25전쟁 이후 실향민들의 정착지였던 청호동 지역은 1970년경부터 토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토지세 납부자에 한하여 지상점유권과 건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에 이 시기부터 판잣집을 헐고 새로 집을 개축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¹¹⁰⁾

107)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13쪽.

108) 정재국, 앞의 논문, 314쪽.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13쪽.

109) 정재국, 위의 논문, 320쪽.

110)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14쪽.

바) 피란민의 배(창이배)

2004년에 구축한 『문화원형백과 전통고기 잡이』, 「어선의 종류와 건조」에서 동해안의 어선 건조를 소개하고 있는데, 신포 마라도에서 채록한 차이배에 대한 구술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차이배’ 혹은 ‘창이배’ 여기(신포 마라도)도 있는데 황포돛대가 바로 차이배다. 우리가 피란나올 때 그런 배를 타고 나왔는데 아주 크다. 톤수로 한 10톤. 목선이 10톤이면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원은 본 선원들이 다닌다고 하면 6~7명 정도가 타고 다닌다. 선장 다음에 ‘고물사공’(고물사공, 선장을 보조해서 다니는 사람), 사공(노를 젓는 사람), 화장(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 일반 선원들은 ‘배선원’. 배 구조는 앞이 뾰족하고 뒤가 뭉뚝한 전형적인 풍선(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이다. 돛대는 둘 있었는데 뒤의 것이 길었다. 앞은 이물대(앞쪽 돛대), 뒤는 고물대(뒤쪽 돛대), 선수를 이물·선미를 고물이라 불렀다.

옆으로 모아지는 곳은 ‘가이싱구’(배난간)라고 하며, 고기는 앞에다 놓는데 ‘어창’이라 했다. 선원들은 뒤쪽에 타는데 ‘선실’이라 했다. 칸은 만들어놓기에 따라 달라졌다. 맨 뒤에 고물에는 치와 같은 ‘따리’(선박의 키에서, 물속에 잠기는 아랫부분에 있는 넓은 널조각)가 달려 있다. 노는 한쪽에 3개씩 6개는 되어야 했고, ‘따리’에는 손잡이인 ‘창선’(따리를 돌릴 때 쓰는 손잡이)이 박혀 있다. 고물사공이란 사람은 따리를 조절한다. 옛날에는 기계배보다 이런 배가 많았다. 마랑섬에 주로 어업은 차이배를 가지고 작업했었다.¹¹¹⁾

위의 구술자료를 보면 창이배는 차이배라고도 불렀으며 황포돛배(범선)라 할 수 있고, 6·25전쟁 피란 내려올 때 탔던 배였으며, 목선으로는 굉장히 컸고 선원은 6~7명이 탑승했다. 앞이 뾰족하고 뒤가 뭉뚝한 풍선이며, 돛대는 두 개가 있었고 뒤의 것이 앞의 것 보다 길었다. 노는 한쪽에 3개씩 6개가 있었으며, 기계배 보다 창이배가 많았고 주로 어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1)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 문화원형백과 전통고기 잡이』, 2004.

속초거주 실항민들의 구술에서도 창이배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어업 특히 명태나 오징어잡이에 창이배를 많이 사용했는데, 6·25전쟁 때 피란선으로 많이 활용했으며, 한 배에 가족과 친지 또는 이웃과 함께 4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을 태우고 피란 내려왔고, 정박한 곳은 전선에서 멀지 않은 동해안 연안의 주문진, 죽변 등이었다.¹¹²⁾

실항민에게 창이배는 고향에서는 생업을 위한 어선이었으나, 6·25전쟁 때에는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피란선으로 사용하였으며, 속초에 정착한 이후에는 실항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향에서와 같은 어선으로 다시금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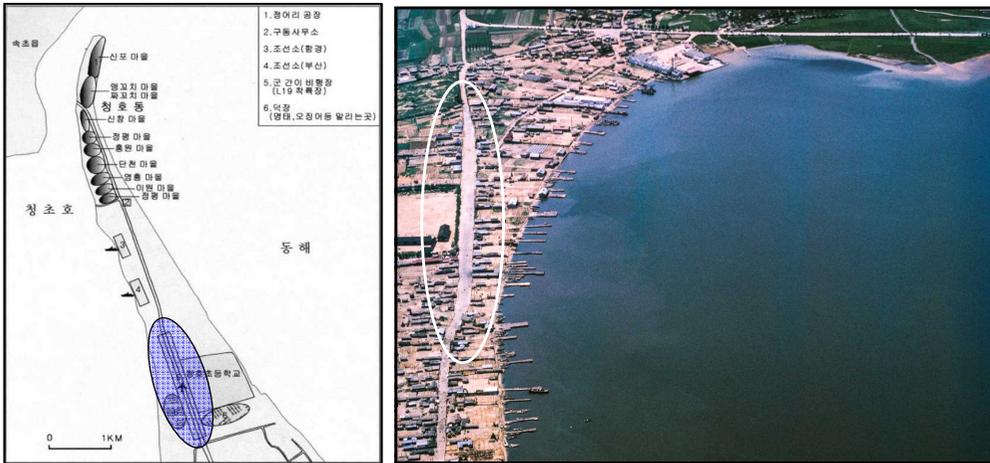


〈사진 75〉 홍남철수 당시 창이배

사) 청호동 비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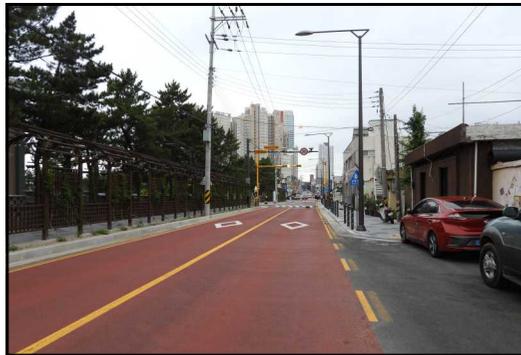
6·25전쟁으로 속초가 수복되고 국군 제1군단이 주둔하면서 개설하여 경비행기 이착륙용 간이비행장으로 제1군단이 속초에서 이동하는 1954년까지 비행장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청호초등학교 서쪽 옆 도로가 비행장이 있던 곳이다.

112) 김규택(함남 홍원군), 김남표(함남 북청군), 김철섭(함남 북청군), 박승호(함남 홍원군), 이근하(함남 영흥군), 이정균(함남 단천군) 인터뷰 참고(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제1장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 및 제2장 속초시지구 피난민의 체험기, 2000. 참조함.)



<그림 31> 6·25 직후 비행장 자리¹¹³⁾

<사진 76> 비행장 주변 전경(1964년)¹¹⁴⁾



<사진 77> 청호동 비행장 자리 현재 모습

2) 노학동 지역의 확대

가) 자활촌(自活村)과 신흥리(新興里)의 성립

(1) 자활촌의 성립

자활촌(自活村)은 행정구역상 속초시 노학동 39통 일원으로 현재는 바람꽃마을로 불려지고 있다. 자활촌이 형성되게 된 것은 1961년 8월 24일 강원도 대관령에 정착

113) 옥한석, 앞의 논문, 134쪽.

114)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스 기증사진 No.2013-269, 1964년 촬영.

하여 유희지개간사업에 종사하던 국토개발대원 248명을 이곳에 이주 정착시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115) 처음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정착민은 손수 주택을 짓고 경작할 땅을 일구어야 했다. 1961년 12월 26일 보사부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사평 자활정착민 주택 입주식을 갖고, 각계에서 보내온 위문품을 받았다.116)



〈사진 78〉 주택 건립전 거주 가옥 〈사진 79〉 자활촌 주택 건립중 〈사진 80〉 자활촌 주택 건립후



〈사진 81〉 자활촌 입주식

〈사진 82〉 자활촌 입주식

〈사진 83〉 자활촌 입주식



〈사진 84〉 입주 가옥 전경

〈사진 85〉 자활촌 전경

〈사진 86〉 자활촌 원경

115) 「조선일보」, 1961. 11. 20일자.

116) 「경향신문」, 1961. 12. 27일자.

지금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며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와 ‘바람꽃 마을’ 이라고 마을 이름을 변경하였다. ‘설악자생식물원’ 이 있는 곳이다.

(2) 신흥리의 형성

신흥리(新興里)는 『한국지명총람』에는 ‘자활촌 북쪽에 새로 된 마을로 6·25전쟁 때 이곳에 머물고 있던 군인들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1962년에 정부에서 농토를 주어 살게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¹¹⁷⁾ 하지만 증언자에 의하면, 1962년 논산 제2훈련소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신흥이라는 마을이 생겼고, 신흥리는 3개의 마을로 신흥상리(지금 학사평),¹¹⁸⁾ 신흥중리(한옥마을), 신흥하리(도평리)에 121세대가 나뉘 막사 생활을 하면서 농지를 개간하여 정착했다고 말하고 있어,¹¹⁹⁾ 6·25전쟁 당시 군인과 관련해서 생긴 마을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림 33> 2000년대 속초시(노학동 지역)



국토지리정보원의 옛 지도 1970년대 지도에서부터 ‘신흥일리(한옥마을)’, ‘신흥이리(도평리)’ 가 표기되어 있으며, 2000년대 공식 지도에는 ‘신흥일리(한옥마을)’, ‘신흥이리(도평리)’, ‘신흥삼리(한옥마을 건너편)’ 가 표기되어 있어 증언한 신흥리의 위치와는 거의 일치한다.

최초 이들의 이주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철원이었다. 하지만 철원 지역에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사람들이 많지 않던 학사평으로 집단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주지로 결정된 학사평은 바람이 많이 불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당시 학사평에는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도 6·25전쟁 이후 이주한 사람들로써 현재의 ‘김영애 순두부’ 일대에 5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신

11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2(강원도)』, 1981, 176쪽.

118) 정문섭의 증언. 정문섭은 61세로 학사평 원주민이며 2022년 6월 26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현재 ‘김영애 순두부’ 일대에서 ‘수입 외제차’ 까지가 학사평 원주민이고, 신흥상리가 1987년 학사평에 통폐합되었다고 한다.

119) 정문섭의 증언.

흥중에도 한 가구가 거주하였는데, 이주민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자 매일 와서 구경을 하였다고 한다.¹²⁰⁾

속초 이주민은 본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학사평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이주민에게는 가구당 집을 지어주고 논 1,200평, 밭 800평, 리어커, 소 한 마리를 지원해 주었다. 이들은 신흥상, 신흥중, 신흥하에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눠 거주하였다. 받은 농토는 낙엽,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 등을 모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농토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힘들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¹²¹⁾ 현재는 1962년 이주 정착한 121세대 중 대부분이 도회지로 떠나가고 현재 신흥리에 거주하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하다.

신흥상 마을의 경우 당시 조성한 마을길과 흔적이 남아 있으나, 신흥중은 한옥마을로 변하였다. 신흥하는 도평리¹²²⁾ 건너편에 집단촌을 형성했으나, 현재는 도평리 마을로 이주하였는데 그들 대부분도 도회지로 떠났다.



<사진 87> 신흥상 마을길



<사진 88> 신흥중 현재 모습



<사진 89> 신흥하 마을이 있던 자리



<사진 90> 도평리 마을길

120) 정문섭의 증언.

121) 정문섭의 증언.

122) 1980년대 중반에 새롭게 생긴 마을이다. 당시 신흥하 지역 가옥의 노후화와 동우대학이 생기면서 학사촌으로 새로 조성되었다. 도리원과 학사평의 중간 지점에 있어 도평리라고 하였다.

나) 노학동 미군 비행장

현재 한화리조트 워터피아 부지에 있었던 미육군 정보부대(대대급)에서 사용하던 간이비행장으로 속초시립박물관 남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연수원 진입도로가 활주로로 활용하던 곳이다.

대형 여객기 비행장이 아니라 정찰기, 헬리콥터가 이·착륙하는 모래나 자갈을 깔아 놓은 비행장이었으며,¹²³⁾ 돌풍으로 인해 미8군 예하 부대 소속 경비행기가 학사평에 추락한 일도 있고,¹²⁴⁾ 1970년대 초반까지 비행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91> 미군 비행장¹²⁵⁾



<사진 92> 추락한 미군 경비행기¹²⁶⁾



<사진 93> 미군 정보부대가 있던 자리(현 한화리조트 워터피아)

123) 정문섭의 증언.

124) 「동아일보」, 1965. 5. 22일자.

125)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64, 1964년 촬영.

126)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358, 1964년 촬영.



〈사진 94〉 노학동비행장 현재 모습 1

〈사진설명〉

이 사진은 〈사진 94〉, 〈사진 95〉 중간의 가로수를 경계로 각각 촬영한 것이다.



〈사진 95〉 노학동비행장 현재 모습 2

다) 학사평저수지(鶴沙坪貯水池)의 건설

현재 원암저수지라고 부르는 저수지의 원래 이름은 학사평저수지이다. 저수지의 목적은 농업 용수 공급으로 학사평 일대, 뒷버덩, 노리 일대로 수로를 관통시켜 물을 공급해 준다. 공사를 위해 1959년 5월 30일 속초읍사무소에서 학사평 수조저수공사 입찰을 하였는데 대림산업에 낙찰되었다. 이 사업은 당시 속초 인근의 토목사업 중에서 가장 큰 공사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¹²⁷⁾

공사는 1959년 6월에 착공하고 1963년 4월에 준공하여 농수 공급 뿐 아니라 주변의 풍광을 바꾸어 놓았다. 이 저수지는 몇 년 전 고성군에서 고성군 관리 지역이란 이유로 지역명인 원암저수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진 96〉 학사평저수지

〈사진설명〉

위의 〈사진 96〉은 현재 학사평저수지의 모습이며, 〈사진 97〉은 학사평저수지에서 농경지로 공급되는 농수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모습이다.



〈사진 97〉 학사평저수지 농수로

127) 「동아일보」, 1959. 6. 4일자.

3) 청학동(靑鶴洞)의 생성

가) 6구시장(六區市場) 마을의 생성

청학동의 6구시장 부근에는 해방 전까지 일본사람이 운영하는 소고기 통조림공장이 있었다.¹²⁸⁾ 공장의 규모는 수천 평에 달해 6구시장 부근까지 그 공장이 사용하였다. 해방이 되면서 통조림공장은 소련군의 막사로 이용되다가 수복 이후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¹²⁹⁾ 특히, 3구시장의 개설과 1954년 시청 앞에 주둔하던 미군군수부대의 타지 이동으로 청초호 내항에 접안하는 배가 늘어나면서 청학동에도 어부들과 관련된 상권이 형성되었다. 6구시장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거의 14후퇴 이후이다. 증언에 의하면 증언자의 부친은 함경도 영흥 출신으로 피란후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당시는 이곳에 머물던 소련군이 퇴각한 직후라 집이 없었으며 거의 최초 거주자였다고 한다. 거주 후 비교적 넓은 땅을 소유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 땅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부둣가에도 제법 많은 배가 정박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선술집과 식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자 읍에서 시장 개설을 위해 증언자의 부친을 찾아와 협조를 구해 부지를 희사하면서 6구시장이 개설되었다.¹³⁰⁾

나) 6·25전쟁 후 청학동 내륙의 마을 형성

인구의 증가는 6구시장마을 뿐만이 아니었다. 시장의 건너편인 속초초등학교 주변, 금강아파트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땅이 없던 피란민과 새로운 이주민들은 산등성이에 집터를 다져 가마니로 사방을 막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집과 집을 연결하는 미로 같은 길을 내어 이웃과 소통하였다. 그래도 1950년대는 명태, 오징어, 도루묵이 많이 잡혀 근근이 생활해 나갈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가마니집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살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형편상 큰 집을 지을 수 없어 방 하나, 부엌 하나가 딸린 흙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집들은 계속 늘어났고, 인구도 계속 증가하였다. 수복 이후 짧은 기간에 인구가 증가한 청학동은 1954년이 되어 속해 있던 속초리 4구에서 교동과 함께 6구로 분리되었고, 중심지는 6구시장 부근이었다.

128) 다케나카 통조림공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속초도시변천사Ⅱ』를 참조하기 바란다.

129) 김정환, 한정규, 정중천, 최영택, 박명선 공저, 앞의 책, 100쪽 참조.

130) 고병철의 증언. 고병철은 61세로 육구시장 최초 거주자의 자녀이며, 2022년 11월 16일 카페 파크뷰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나. 속초시 승격(1963) 이후 지역의 변천

1960년대는 속초의 대변혁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양양군 속초읍이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지역인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은 1963년 속초시가 만들어지면서 1960년대~1970년대의 변화를 선도하던 지역이다.

당시 이 지역은 유휴지가 많아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이에 벽돌공장, 공동주택, 주택지가 만들어져 다른 지역의 변화를 지원하거나, 직접 인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갔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당시 사진과 증언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변화 과정을 그림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나열해 보았다.

1) 1960년대 청호동·청학동·교동·노학동의 모습

가) 1960년대 노학동



<사진 98> 1964년 노학동 모습¹³¹⁾

- | | | | |
|-------|-------|------------------|-------|
| ① 미시령 | ② 신흥상 | ③ 신흥중 | ④ 비행장 |
| ⑤ 자활촌 | ⑥ 척산 | ⑦ 탐상골(속초노학동3층석탑) | |

131)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64, 1964년 촬영.

나) 1960년대 청호동·청학동·교동의 모습



<사진 99> 청호동·청학동·교동의 모습(1960년대)

- ① 청초천 ② 속초중학교 ③ 속초국민학교 ④ 청학동선착장
- ⑤ 청초호 ⑥ 5구도선장 ⑦ 청호국민학교

2) 1970년대 이후 청호동의 변화

가) 청호시장(靑湖市場)의 개설

청호시장은 1968년 6월에 착공하여, 건평 8평짜리 점포 75채를 지어 1969년 11월 15일에 개장을 했다.¹³²⁾ 시장의 위치는 청호초등학교 남쪽이다.

시장 거리는 도로를 중심으로 바닷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골목에 좌우로 점포가 배치되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시장과 비교적 떨어져 있는 청호동 남쪽에 사는 사람들과 조양동, 대포동 사람들이 이용했다. 청호동 북쪽 마을 사람들은 갯배를 이용하면 중앙시장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장을 이용했다.

<표 21> 청호시장 점포수

년도	1969	1975	1980	1981	1982
점포수	75	75	75	75	통계자료 없음

132) 속초시, 『시정30년사(하)』, 1994, 1386쪽.

<표 21>을 보면 청호시장 점포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거래 품목은 대부분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생선보다는 생필품과 야채 중심이었다. 쌀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선을 머리에 이고 부월리, 온정리에 가서 물물교환해 오기도 하였다.¹³³⁾

그러나 점차 시장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1983년 폐장하여 공식적인 통계에서 사라졌다. 폐장 이후에도 몇몇의 점포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길가에 위치한 점포는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100> 청호시장 골목(남쪽)



<사진 101> 청호시장 골목(북쪽)

시장은 없어졌지만 일부 뜻있는 주민들은 청호동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재생을 논의하면서, 청호동 옛 모습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진 103>과 같이 폐업은 하였지만, 옛 흔적을 유지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 102> 현재 영업하는 가게



<사진 103> 폐업한 후 간판을 남겨둔 가게

133) 김교섭의 증언. 김교섭은 57세로 ‘아바이뉘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9일 사업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나) 관광산업의 전개

(1) 5구도선장(五區渡船場)

5구도선장의 정확한 명칭은 갯배나루이다. 그러나 중앙동은 그렇게 불렸지만 청호동에서는 5구도선장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다.¹³⁴⁾

갯배는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로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방영된 KBS TV 드라마 ‘가을동화’ 덕분에 관광산업의 활로를 찾고자 고심하던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드라마에서 부각된 주인공 ‘은서네 집’은 아직도 남아있으나, 도선장의 위치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된 청초호 주변 정비 사업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



〈사진 104〉 과거 5구도선장(90년대 말) 〈사진 105〉 과거 5구도선장 자리(은서네집) 〈사진 106〉 현재 5구도선장

인기드라마로 인해 청호동을 찾는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속시키지는 못하였다. 이후 관광객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은 2010년 방영된 ‘1박 2일’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호동 단천면옥이 소개되면서 실향민의 음식이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역에서만 즐기던 함흥냉면, 아바이순대 등이 인기를 끌어 주요 관광상품이 되었다. 현재 청호동 지역은 음식 외에도 다른 즐길 거리를 구비하면서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2) 단천면옥

사실 청호동 냉면의 대표적인 가게는 1976년에 시작한 단천면옥이다. 단천면옥의 역사를 보면 청호동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단천면옥 역시 처음에는 아바이순대국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장사가 잘되지 않자 이북에서 해 먹던 막국수와 냉면으로 업종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아 점심때 냉면을 팔고 난 후에는 축항 끝자락에 풍을 치고 낚시꾼들 상대로 막걸리와 감자부침을 팔았다.¹³⁵⁾ 그러던 중 ‘1박 2일’ 촬영 장소가 되었고, 방영 후 관광객이 모여

134) 갯배에 대한 내용은 2021년에 발간한 『속초도시변천사Ⅱ』를 참고하기 바란다.

들게 되면서 지금은 더 넓은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다) 조도(鳥島)

조도는 속초해수욕장 앞에 있는 큰 섬이다. 옛적에 이 섬에는 대나무가 많아 죽도(竹島), 한글 이름으로 대섬이라고 부른 적도 있다고 한다.¹³⁶⁾ 그러나 지금은 모두 조도, 한글 이름으로 새섬이라고 한다. 조도의 생김새는 해발 20m 내외의 두 개의 연이어진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 중심부 반석 위에는 제법 큰 굴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조도(새섬)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새, 특히 갈매기들이 많이 서식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이 섬은 암반이 많고 나무도 있어 파도가 많이 일 때는 새들의 피난처로 안성맞춤이다. 1962년 강원도지사로 재직하던 이용(李龍)이 이 섬에 용초정(龍草亭)이라는 정자를 지으면서 소나무를 식목하여 소나무 군락을 이룬 적도 있었는데, 새들의 배설물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되는 일도 있었다.

청호동 주민들에게 이 섬은 매우 중요했다. 바닷일을 하고 돌아오는 주민들에게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었으며, 맨손꽂치잡이를 하는 어장이기도 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섬(홍합)과 들깍, 미역, 고르메, 까시리, 지누아리 등의 바다나물을 채취하던 삶의 터전이었다. 지금은 금지되었지만 동네 남자들은 여름철에 가마솥을 배에 싣고 건너가 섬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는 8·15 해방 이후 이곳이 북한 통치를 받을 때 해상으로 월남하기 위한 아지트이기도 했다. 섬에 놀러가는 척하면서 값진 물품을 이곳에 숨겨 두었다가 야밤에 도주할 때 숨긴 물건을 배에 싣고 월남하던 장소였다.¹³⁷⁾



<사진 107> 조도(2013년)



<사진 108> 조도

135) 김강석의 증언. 김강석은 62세로 단천면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자녀가 승계하였다. 2022년 6월 23일 청호동 해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36) 김정우, 『내 고향』, 1997, 73쪽 참조.

137) 김정우, 위의 책, 74쪽.

라) 1970년대의 청호동 풍경

1970년대 초반 청호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600명~1,900여 명이었다. 보통 한 집에 2~4명이 있었으니, 동네는 항상 시끌벅적했다. 학교에서 운동회라도 열리면 부모들도 참석하여 학교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 결국 학생수가 많아 부월리에 조양초등학교를 지어 학교를 분리했다.

청호동 아이들은 여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울려 바닷가에서 물놀이나 공놀이를 하였고, 겨울에는 청초호에 두세 겹 얹혀 얼어 있는 얼음에 올라타 나무 장대로 밀며 호수 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도 했다.¹³⁸⁾

중고등학생들은 등하교 시에 갯배를 이용했다. 갯배는 지금 운행하는 배보다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다. 하지만 갯배의 높이가 높지 않아 물결이 크게 일면 바닥에 물이 올라와 신발이 젖기도 하였다. 바람이라도 심하면 갯배가 밀려 반달처럼 휘어져 끝까지 가질 못했다. 그럴 때면 선착장 가까이에서 멀리뛰기를 하여 땅으로 내려갔다. 남학생들은 출발한 갯배에 멀리뛰기 하듯 뛰어오르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를 핑곗거리 삼아 학교에 가지 않았다. 다음날 등교하여 갯배 타다가 물에 빠져서 못 왔다고 하면 선생님들도 이해를 해주셨다.¹³⁹⁾

간혹 생선을 실은 리어키는 땅으로 내려가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하게 갯배에서 땅으로 내려가려면 철판을 놓아줘야 했는데 등교하던 학생들이 이 일을 도와주곤 했다.¹⁴⁰⁾

친구들과 영화도 많이 보러 다녔다. 갯배는 11시가 마지막 운행이었다. 마지막 상영이 10시 50분에 끝나면 갯배를 타지 못할까 봐 걸음 빠른 친구를 보내 잡아 놓곤 했다. 만약 갯배를 잡지 못하면 정박해 놓은 작은 배의 밧줄을 풀어 타고 건넜다. 타고 갔던 그 배는 청호동 쪽에 메어 놓았는데, 당시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던 시대였다.¹⁴¹⁾

마) 청호동의 어업(漁業)

(1) 청호동의 어로 활동

청초호가 매립되기 전에는 목선(木船), 철선(鐵船)으로 고기잡이를 했다. 당시는 배

138) 최영창의 증언, 최영창은 52세로 청호동에서 거주하는 실향민 2세이며, 2022년 6월 29일 청호동 해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39) 김교섭의 증언.

140) 최영창의 증언.

141) 김교섭의 증언.

의 규모가 크지 않아 주로 근해에서 어로 활동을 했다. 어로 작업이 끝나면 포구로 돌아와 주로 갯배 부근에 접안을 했다. 갯배 부근에는 접안할 수 있는 나무판자로 만든 선착장이 있었다. 이후 매립과 철교가 생기고, 배들도 대형화되면서 안쪽으로 접안 위치가 바뀌었다.

청호동의 배는 처음에는 목선(1960년대)이었다. 목선은 지역의 수많은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공급하였다. 이후 철선(70년대), FRP선(90년대)으로 바뀌었다. 철선은 1년에 한 번씩 녹이 난 부분을 긁어내고(깡강이 작업) 도색을 칠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금은 FRP선(강화플라스틱선)을 사용하고 있다.¹⁴²⁾

이 지역에서는 쾡치잡이를 많이 했다. 특히 조도 부근에서 손쾡치잡이를 많이 했는데, 어장이 멀리서 형성될 때는 큰 배가 목선들을 끌고 멀리 나가 조업을 하다가 다시 끌고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근해의 쾡치도 명태가 사라지는 시기와 비슷하게 사라져버렸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문어, 대구, 가자미, 오징어, 양미리, 도루묵을 많이 잡았다. 시기별로는 봄에는 가자미, 대구 5, 6월에는 오징어 가을에는 쾡치를 그물로 잡고 있다.¹⁴³⁾

(2) 청호동 해녀(海女)

청호동의 어업사(漁業史)에서 해녀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집단으로 이주했는데, 해방과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속초에서 활동하던 해녀는 무려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한 해 평균 50여 명이 활동하였는데, 그 수가 매년 감소하여 1988년에는 20~30명만이 남아있었다.¹⁴⁴⁾

속초에서 해녀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은 청호동이다. 현재 청호동 해녀는 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하는 이는 3명이다.¹⁴⁵⁾ 조업 장소는 청호동, 영금정, 조도 부근이며, 연안 정비 사업 전에는 축항 끝에서도 작업을 하였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고성, 낙산 쪽도 갔지만 어촌계가 생기면서 지역이 나뉘어져 범위가 좁아졌다.

봄에는 미역, 여름에는 성게를 많이 채취하며 그 외 전복, 멍게, 해삼, 문어 등을

142) 양종삼의 증언. 양종삼은 68세로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13일 청호동 어민회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43) 양종삼의 증언.

144) 윤금월의 증언. 윤금월은 60세로 현업 해녀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6월 12일 해녀의 집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45) 현재 속초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총 6명으로 청호동 3인, 영금정에 3인이 있다.

잡는다. 예전에는 다시마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해녀일로 벌이가 가장 좋았을 때는 20년 전이었다. 당시에는 잡힌 성게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¹⁴⁶⁾

제주도 출신 해녀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살기가 훨씬 좋아진 제주도로 대부분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청호동에 자리 잡은 해녀들은 거의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길러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맨손꽂치잡이¹⁴⁷⁾

작은 목선을 운용하던 1960~1970년대에는 맨손꽂치잡이를 하였다. 맨손꽂치잡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먼저 해초(진저리 등)를 대나무에 길게 엮어서 묶은 후, 섬 근처로 가서 바다에 던져놓았다. 그러면 꽂치들이 알을 낳으러 풀숲으로 들어온다. 이때 팔을 배 밖으로 빼어 해초 사이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벌리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꽂치가 들어온다. 이때 손가락을 오므려 손가락 사이에 낀 꽂치를 배 위로 던지면 된다.

맨손꽂치잡이 방법으로 조업할 때 많게는 하루 100드름¹⁴⁸⁾ 정도의 꽂치를 잡았는데 싱싱하여 그물꽂치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작업을 하다 보면 갈비뼈, 팔 등이 아파 그물 작업을 선호하였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사라졌다. 이 꽂치잡이 방법은 속초와 고성 지방의 특이한 전통어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청호동 할복장¹⁴⁹⁾

청호동 할복장은 1989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오징어 할복장으로 건축하였다. 할복장이 없을 때는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 부산물을 호수와 바다로 버리다보니 오염이 너무 심했다. 1950~60년대는 명태 할복을 하고 부산물을 임금으로 받기도 했다는데, 오징어는 그렇게 값이 나갈만한 부산물이 없었다. 하지만 오징어 내장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면서 처리업체에서 수거해갔다. 이로 인해 수입이 생겼고, 환경 오염 문제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

할복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90년대로, 약 10년~15년 정도 기간이었다. 그때

146) 고길자의 증언. 고길자는 80세로 청호동 해녀 1세대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6월 20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47) 양종삼의 증언, 김교섭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함.

148) 1드름은 20마리이다.

149) 최종철의 증언. 최종철은 65세로 청호동건조인협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12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는 경기가 좋아 조합원 숫자만도 150가구가 넘었는데, 현재는 은퇴나 이직으로 남아 있는 조합원은 11가구다.

결국 청호동 할복장은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으로 2020년에 폐쇄하였다. 운영비는 대체로 1년에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예전에 오징어가 많이 잡힐 때는 내장을 팔아서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아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진 109> 오징어 할복장

3) 1960~1970년대 청학동의 변천

가) 6구시장마을의 변천

시(市)로 승격되던 1963년의 속초 인구는 50,703명이었다. 그중에서 순수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327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에 해당하였다.

<표 22> 1962년말 속초시의 수산 현황

1962. 12. 31.기준

지역 \ 내용	총인구	어가수	어민수	어선수		
				기선	범선	계
속초시	50,703	3,831	5,327	325	486	811

당시 6구의 상황을 보면 속초리의 어업 관련 인구 중에서 6구의 어업관련 인구는 5구인 청호동 다음으로 많았다. 아래의 <표 23>을 보면 6구는 속초리의 어업 관련 인구 4,904명 중 22.4%에 해당하는 1,098명이었다. 5구인 청호동의 경우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6구는 1구부터 시작된 어업지대의 확장으로 나타난 마을이기 때문에 어업의 변동 상황을 잘 보여준다.

〈표 23〉 1962년말 속초리의 어업 관련 인구

1962. 12. 31.기준

지역 내용	속초 1구	속초 2구	속초 3구	속초 4구	속초 5구	속초 6구	계
어업 관련 인구	292	647	524	996	1,347	1,098	4,904

6구에는 어업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정박하는 어선과 그와 관련된 산업체들도 함께 자리 잡았다. 또한 칠성조선소, 제일조선소, 공영조선소 등 조선소가 인근에 모두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6구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6구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시장보다 더 활기가 넘치는 곳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은 6구시장 앞 호숫가 선착장이었다. 이곳에는 선술집이 상당히 많아 일에 지친 어부들의 휴식처가 되어 주었는데, 이는 6구시장이 선착장의 확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진 110〉 청학동 선착장(1964년)¹⁵⁰⁾

〈사진 111〉 청학동 선착장(1993년)

6구시장마을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지도 부족하고 생활 쓰레기 처리도 골치가 아팠다. 사람들은 처리하기 곤란한 연탄재를 호숫가에 버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버린 연탄재로 갯가는 점차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과격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항만청에서는 1974년부터 교동 내항 30만 평을 매립해 주택지로 조성하는 3년 차 공사인 호안 축조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호안 축조 후에 매립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곳에 온갖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투기하였다. 이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여 민원이 폭주하였고 결국 매립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¹⁵¹⁾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청초호반로의 호수 쪽은 매립되어 생겨난 땅으로 지금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150)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67, 1964년 촬영.

151) 이수영, 『속초, 그곳의 기억들』, 속초문화원, 2019, 49쪽 참조.

나) 6구시장(청학시장)

청학시장은 시장이 개설될 때 이곳이 6구였기 때문에 6구시장이라고 불렸다. 시장이 개설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시장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다. 설립 연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건물을 지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노점과 술집 위주의 거리가 형성되다가 1962년경 형제기름집 등이 들어오면서 시장 주변에 상가 건물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선창가에 선술집들이 들어서고 시장이 생기면서 야채, 생선을 팔던 노점상이 생겨난 후 영춘식당¹⁵²⁾이 개업하고 1962년경 형제기름집 등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가 건물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의 규모는 현재 청학 4거리 도로부터 부뚝가(호수쪽 도로) 까지 였다. 1960~70년대에는 김치, 생선, 야채, 쌀집, 고깃집, 기름집 등이 장사가 잘되었다.¹⁵³⁾



<사진 112> 6구시장(1964년)¹⁵⁴⁾



<사진 113> 청학시장(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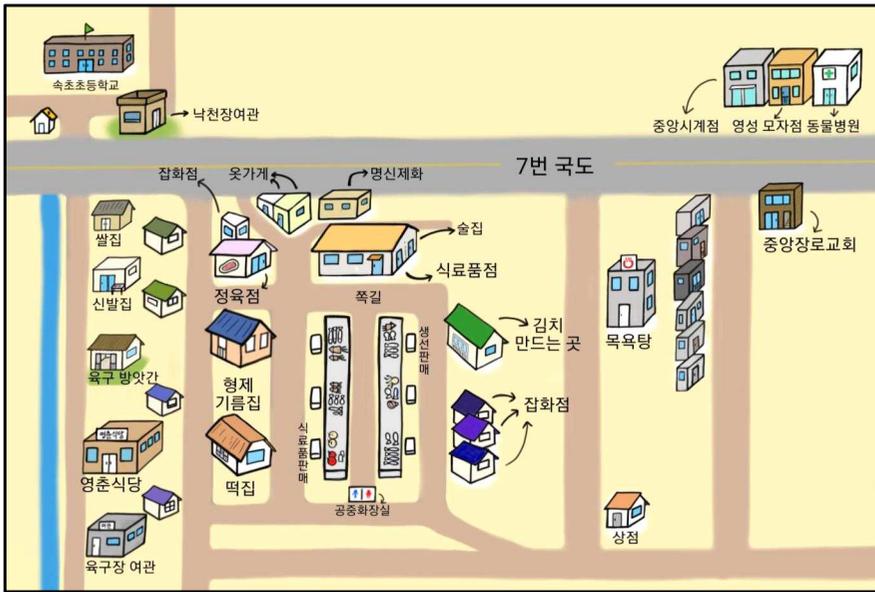
주민들은 중앙시장까지 가야만 하는 품목 구입이 아니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다 보니 작은 규모지만 나름 알찬 시장이었다. 청학시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어가다가, 1990년대 들어 육구방앗간 앞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0년도에 폐장되었다.

<표 24> 청학시장 점포수의 변화

년도	1975	1980	1983	1984
점포수	51	36	36	이후 통계 없음

152) 영춘식당은 육구방앗간 아래에 있었던 냉면집으로 속초에서 함흥냉면 다음에 생긴 식당이다.
 153) 김상진의 증언. 김상진은 73세로 육구시장 초창기부터 형제기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7일 사업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으나 주변에 거주민들이 많아 가게가 호황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154)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67, 1964년 촬영.

1970년대의 청학(육구)시장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1970년대 청학(육구)시장 재구성(증언 김선희, 그림 고지은)

<그림 34>와 같이 시장의 중앙에는 좌판대가 있어 생선, 야채 등을 팔았다. 시장 안 주변 건물에는 식료품점, 술집, 형제기름집, 떡집, 김치공장, 육고점(지역방언으로 정육점) 등이 들어서 있었다.

현재 육구방앗간 뒤쪽은 시장의 경계선이었다. 이곳은 폭이 약 3m 정도의 실개천(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가 되어있다. 천(川) 옆으로는 길이 나 있었는데, 이 길을 따라 쌀집, 육구방앗간, 영춘식당, 육구장이 있었다. 7번 국도 쪽으로는 명신제화, 옷가게가 길건너에는 낙천장여관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진 114> 청학시장 골목



<사진 115> 청학시장(형제기름집)



<사진 116>청학시장(꽃돼지야식)



〈사진 117〉 육구방앗간 일대



〈사진 118〉낙천회관



〈사진 119〉복개천 골목

다) 부닷가 풍경

육구시장의 끝에는 부닷가였다. 말이 부두(埠頭)이지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다. 물가에 정박을 하면 바로 물이어서 배를 연결시켜 놓고 땅에 고기를 풀어놓았다. 그러면 삼으로 리어카에 담아 끌고 덕장으로 실어날랐다.

리어카에 가득 담은 명태는 제법 무거워 혼자 끌고 가기에 버거웠다. 리어카 주인이 힘들어할 때 가끔 동네의 착한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다. 학생들은 고맙게도 리어카를 밀어주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명태를 너무 많이 실은 탓에 리어카 밖으로 가끔 흘러내리곤 했다. 물고기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일부러 몇 마리를 뒤로 빼곤 했다. 짓궂은 학생들은 이렇게 모은 열 댓마리를 팔아 용돈을 하기도 했다.¹⁵⁵⁾

6구시장마을의 선창가에 배가 들어오는 날에는 근처 식당과 선술집, 시장 안의 술집들이 붐볐다. 배가 들어오는 날 뱃사람들은 돈을 두둑이 만질 수가 있었다. 돈을 만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선술집이었다. 어떤 이는 돈을 다 쓸데까지 2박 3일 동안 술을 마시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항상 들렸다.¹⁵⁶⁾ 술집은 배가 들어오는 날 뿐이 아니라 비가 와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붐볐다. 비가 와도 선원들이 갈 곳은 술집 뿐이었다. 그래서 6구시장과 주변은 항상 활기가 넘쳤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 풍어를 이룰 때는 물론이고, 주변에 위치한 조선소 4 곳도 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¹⁵⁷⁾

부닷가에는 가끔 서커스단도 방문했다. 시장 끝의 부닷가 넓은 공터에 천막을 치고 공연을 했는데, 전기 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오징어배의 집어등에 의존하기도 했다. 공연이 끝나면 단원들은 주변의 숙소를 구해 쉬었는데, 방이 많았던 영춘식당에서 단원의 절반이 머물렀다.¹⁵⁸⁾

155) 고병철의 증언.

156) 고병철의 증언.

157) 김상진의 증언.

158) 고병철의 증언.

라) 6구시장 건너편의 모습

속초초등학교 정문 앞길은 당시 속초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가 있어 문구사가 4곳이나 있었다. 문구사에서는 준비물 뿐만 아니라 군것질거리도 팔았다. 뽕테기, 다슬기 같은 인기 간식을 한 컵에 10원에 팔았다. 커다란 눈깔사탕은 1원에 한 개였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바닷가에 밀려 나온 고무줄같이 딱딱한 도루묵알도 썰서 팔곤 했다.

현재 청학가로 시내 쪽은 6·25전쟁 이후 급격히 주택이 늘어난 달동네 지역이었다. 살 곳이 없어 산등성이를 깎아 터를 다지고 가마니로 막아 생활하다가 집을 지은 동네였다. 이 동네는 1970년대 초에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곳의 집들은 방 하나, 아궁이 하나인 집들이 대다수였다.¹⁵⁹⁾



〈사진 120〉 청학가로 개설전 모습 〈사진 121〉 청학가로 준공(84.12.28) 〈사진 122〉 청학가로

3) 1970년대 교동의 변천

가) 1970년대의 만천동(萬泉洞)

교동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만천동이다. 이곳은 교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속초의 확장 과정에서 보급처의 역할을 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 만천동 주변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중심지는 만천방앗간과 만화방이 있던 곳에서 현재 구세군교회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림 35〉는 1970년대 초 만천마을을 재구성해본 것이다. 마을이 형성될 때는 만천방앗간부터 시작하는 길의 오른쪽(북쪽)으로 집들이 들어섰다. 이 지역은 길 주변으로의 택지는 한정되어 있어 이후 유입된 인구는 우측 산등성이를 다져 집을 짓고 살았다. 길의 좌측(남쪽)에는 입구에만 몇 채의 집이 있을 뿐이었다. 그 이유는 산등성에서 길을 따라 내려오는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59) 김상진의 증언.



<그림 35> 1970년대 초 만천마을 재구성 (증언 박대유, 그림 고지은)

1970년대 초 마을에는 교동성당 뒷쪽과 건너편 택지에는 6·25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과수원이 있었다.¹⁶⁰⁾ 현 구세군교회 부근에는 8채 정도의 가옥이 있었는데, 뒤편에는 특이하게도 움집 형태의 토굴집이 2채가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동우물이 있어, 마을의 온갖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진 123> 마을 입구에 있는 편의점



<사진 124> 옛 우물터(건물자리)

마을을 지나는 길은 교동국민학교가 생기면서 아이들의 등굣길이 되었다. 아이들은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다 언덕에 있던 밤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학교를 갔다. 밤밭 뒤편에는 이 일대 가장 부자인 기와집이 있었으며, 근처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어

160) 윤계선의 증언, 윤계선은 82세로 만천동 입구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14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독한 이 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서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길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길은 만천동, 쌍다리, 갯가, 논산 아이들이 주로 이용했다.

만천동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길 입구에 있던 만화방이었다. 아이들은 용돈이 생기면 들리던 곳으로, 10원을 내면 만화책 4권을 보았다. 만화방집 아들인 친구가 가게를 보는 날이면 친구 뺨으로 시리즈의 나머지도 볼 수 있었다. 이 만화방이 가장 붐비는 날은 김일 선수가 레슬링 시합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은 10원, 20원을 내고 아이들과 동네 어른들이 TV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¹⁶¹⁾

나) 만천동 주변 지역의 모습

교통은 6·25전쟁 이전에는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통 마을인 만천동이 있었지만,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이 더디었다. 꾸준히 인구의 유입은 이루어졌지만, 만천동 자체는 커지지 못했다. 대신 6·25전쟁 이후 속초의 확장 과정에서 국유지였던 철길 주변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진 125〉 철독길의 민가 형성 모습

다) 1970년대 초반 만천동 주변 물길

만천동 뒤와 만천교회 위쪽, 경찰서 뒤편은 모두 산이었다. 산에서는 여기저기서 물이 흘렀다. 만천동의 경우 길을 따라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물길이 많으니 샘도 많았다. 샘이 많은 동네는 ‘만천’ 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¹⁶²⁾

161) 박대유의 증언.

도리원에서 내려오는 물은 도리원 앞버덩을 지나며 농토를 비옥하게 해주었다. 도리원 위쪽에서 발원하는 또 하나의 물줄기는 대우아파트를 지나 만천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만나 생활체육관 좌측으로 흘러 내려갔다. 현재 대우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인 만천로는 물줄기를 틀어 복개가 되어있다.



<사진 126> 만천로(현 생활체육관 옆, 1964년)¹⁶³⁾



<사진 127> 만천로 복개전(1985년)



<사진 128> 만천로(1993년)



<사진 129> 만천로

복개가 된 실개천은 공사 전에는 수량이 꽤 많아 동네 사람들의 빨래터가 되었다. 청초천처럼 빨래를 삶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실개천 끝인 생활체육관 건너편에는 유일택시 영업장이 있었고, 그 뒤로는 청초호수였다.



<그림 36> 만천동 주변 물길(1964년)

162) 박대유의 증언.

163)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70, 1964년 촬영.

라) 만천동과 교동국민학교(校洞國民學校)의 설립

만천동 마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원래 이 마을은 농업지대의 확장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당시 마을에는 약 70~80호가 있었는데 기존에 농업인 외에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1980년대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유입되었다.¹⁶⁴⁾

그러나 실질적인 이 마을의 변화는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196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청학동과 교동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상태였다. 당시 이 지역 아동들의 학군은 속초국민학교였는데, 학생수가 너무 많아 1969년 교동국민학교를 신설하고 1,036명의 학생을 나누어 속초국민학교 남쪽 교사에서 독립된 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다가 1969년 10월 만천동 뒤편 산을 헐어 학교를 새로 지어 교동국민학교를 개교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앓을 책상과 결상을 들고 새집으로 이사를 갔다.

학교의 설립으로 만천동길은 쌍다리마을, 논산마을, 갯가마을, 만천동에 사는 학생들이 지나다니게 되었다. 이 마을로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만화방, 방앗간, 중국집, 국숫집, 벽돌공장, 기와공장 등이 생겨났다.



<사진 130> 만천동(1964년)¹⁶⁵⁾



<사진 131> 만천동(1980년)



<사진 132> 만천동 옛골목

마) 속초시의 확장과 벽돌공장

속초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축 수요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건축 재료인 벽돌과 기와를 생산하는 곳은 건축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서도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이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곳으로 만천동 앞의 논과 습지 지역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벽돌공장들이 만천동 앞쪽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변 지역의 변화도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반 만천동 앞의 모습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64) 박대유의 증언.

165) 속초시립박물관, 디킨슨 기증사진 No.2013-270, 1964년 촬영.



<그림 37> 1970년대 초 만천마을 앞 재구성 (증언 서익달, 그림 고지은)

지역의 확장 모습은 건축 현황 통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통계가 일정하지 않아 부득이 벽돌공장의 생성과 현황 등으로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7>을 보면 이곳에 벽돌공장 5곳이 있었다. 지금 위치로 보면 보광병원 주변에 쌍골기와, 해동기업사, 광진기업사가 있었고 대원기업사는 농협 앞의 호수를 메워 공장을 세웠다. 현 생활체육관 건너편에는 현대기업사가 있었다.

유일택시 밑에 저쪽으로 나가는데 현대기업사가 있었어요. 보광병원 자리에는 해동기업사가 있었지. 아남프라자 조금 위는 광진기업사, 아남 바로 뒷집에는 조그마한 목재가 있었고, 목재소는 아니고 나무가져다가 팔았지요.

그전에 해동기업사 뒤로 다 논이었잖아. 아남프라자도 다 논이었어. 대원기업사는 농협 하나로마트 건너편 바다를 메워서 기업사를 했잖아. 해동기업사는 덕장하다가 기업사를 하고, 광진기업사도 해동기업사가 하던 그 무렵에 했어요. 광진기업사는 우리가 마차 시작할 때 생겼고 현대기업사는 (구)소방서 길건너서 그 무렵에 했어. 대원기업사도 그 무렵 다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¹⁶⁶⁾

증언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건축 경기가 좋아지면서 1968년경 마차운송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만천동 앞에 벽돌공장이 생긴 것과 거의 같은 시기로, 속초의 확장 시기와의 일치한다. 아래 <표 25>를 보면 속초에 벽돌공장이 가장 많은 시기는 1970

166) 서익달의 증언. 서익달은 92세로 2022년 9월 25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년부터 1975년까지이다. 당시 벽돌공장에서는 기와, 벽돌, 브로크를 생산하였다. 이들은 모두 건축자재로 1970년대 초 교동을 비롯한 속초시의 건축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5〉 연도별 벽돌공장 수

연도	1961	1963	1964	1965	1966-67	1969
공장수	2	5	6	10	3	6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75	1976
공장수	10	9	8	8	12	7

벽돌공장의 밀집과 함께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다. 마차운송업이라는 이 직업은 지금의 트럭을 대신했다. 당시에는 트럭이 많지 않아 조랑말에 마차를 달아 벽돌을 실어 공사 현장에 운반해 주는 일을 하였다. 그들은 직업의 특성상 벽돌공장 주변에 거주지를 마련하였는데, 이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6호가 있었다.¹⁶⁷⁾ 이들은 트럭의 보급으로 1980년 초에 모두 일을 그만두었다.

바) 수정장(水晶莊) 여관

1970년대 초반 만천동 앞을 이야기하면서 수정장 여관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미소지움 아파트 자리에 수정장 여관이 들어선 것은 1968년 경이다. 이 당시 속초에는 고급숙소라고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수정장 여관은 건축을 하면서 2면의 테니스 코트를 조성하였다. 당시 테니스 코트는 정말 귀한 시설이었는데 이것 덕분에 관공서의 높은 분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이 여관을 많이 이용했다.

이 여관이 수정장(水晶莊)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주인의 이력 때문이다. 수정장 주인은 원래 수정을 다루는 광물 광산업에 종사하였는데, 속초 인근에서 발견되는 수정맥이 많아 수정을 가공하거나 원석으로 설악산에서 기념품으로 팔기도 했다. 주인의 수정 사랑이 여관 이름에도 쓰였는데, 미소지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없어졌다.

사) 교동의 시작 1통 1반 쌍다리 마을

(1) 쌍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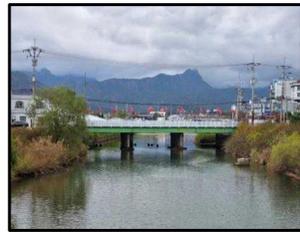
‘중앙로’로 불리며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구 7호선은 1937년 도천면 당시

167) 서익달의 증언.

부터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도로의 중앙에는 청초천교(靑草川橋)가 있는데, 속초사람들은 이를 쌍다리라고 부른다.

증언에 의하면 이 다리는 북한 치하이던 1948년 인근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외다리로 축조되었다고 한다. 6·25전쟁 때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정으로 다리를 두드려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남게 되었다.¹⁶⁸⁾

1970년대 들어와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1971년에 기존 다리 바로 옆에 새로운 다리를 하나 더 축조하여 제2청초천교라고 명명하였다. 다리가 완공되자 사람들은 ‘두 개의 다리’ 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쌍다리라고 불렀다. 이후 1996년 7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각각 편도 2차선 다리를 새로 건설하여 하나로 합쳤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곳을 쌍다리라고 부른다.



〈사진 133〉 청초교(쌍다리.1979년) 〈사진 134〉 청초교(2022년) 〈사진 135〉 청초교 교각

(2) 쌍다리 마을

다리 주변 가까이에 있던 교동 1통 1반과 2반은 쌍다리마을이라고 불렀다. 쌍다리 마을은 크게 주목받는 마을은 아니었다. 단지 1970년대 중반 이 마을에 있던 사료공장의 악취로 인해 떠들썩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동네는 1960년대 중반에 10~15채 정도의 가옥이 있었고, 주민 대부분은 명태 할복, 제재소 직원, 야채 농사 등으로 살아갔다. 이를 보면 현대제재소와 2곳에 있었던 덕장이 이 마을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제재소에서는 나무를 잘라 목재로 만드는 일 외에도 당시 속초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고기 상자를 만드는 일도 했다.

이 마을의 1970년대 초반 모습을 그림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68) 이수영, 장재환 공저, 『길 위의 속초학 속초의 길』, 속초문화원, 2020, 161쪽 참조.



<그림 38> 1970년대 초 쌍다리마을(교동 1통 1반) 재구성 (증언 김영순, 그림 고지은)

<그림 38>을 보면 이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재소와 덕장, 그리고 채마밭이다. 이 시설들은 이후 이 마을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쌍다리마을은 1970년대 초 통반제가 시행되면서 교동의 시작점인 1통 1반, 2반이 되었다.

우리 마을은 집단 부락으로 여자들은 모두 나가서 명태 할복을 하고, 남자들은 새벽에 와서 명태 창란을 추렸지요. 덕장이 있었는데 그랜드 약국집에서 덕장을 크게 하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어, 덕장이 두 개였지요.¹⁶⁹⁾

이 마을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속초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마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중요성을 부여해서 설명할 만한 마을도 아니다. 그림에도 이 마을을 소개하는 이유는 속초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청초천에 대한 추억 때문이다.

위의 <그림 38>을 보면 이 마을 옆에는 청초천이 흐른다. 마을과 청초천 사이에는 독방이 있어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었다. 청초천은 속초사람들의 피서지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목욕탕이었으며, 빨래터이기도 했다. 마을 안에는 속초 수산업의 역사와 같이 하는 현대제재소가 있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도 있었다.

이 마을은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로 인한 청초호의 매립, 먹거리촌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마을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 옛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169) 안영순의 증언. 안영순은 85세로 2022년 9월 25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사진 136〉 쌍다리마을(1980년)

〈사진 137〉 쌍다리마을(1993년)

〈사진 138〉 쌍다리마을

4) 1970년대 이후 노학동 전통 마을의 변천

가) 노리(蘆里)와 응골(應谷)

원래 노리와 척산의 경계는 금호콘도 입구의 다리를 중심으로 한다. 다리 위쪽은 척산(尺山)이고, 아래로는 노리다. 원래 응골도 노리의 한 동네였다. 그러나 응골에 가구 수가 많아지고 길이 생기면서 분리되었다.¹⁷⁰⁾ 이에 따라 노리 앞버덩이라 함은 노리마을 앞쪽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초천 건너편에 있는 농지(응골 쪽으로 변전소 서쪽)도 그렇게 불렀다.¹⁷¹⁾

노리앞 응골교 부근은 하천이 곡선 형태를 띠던 지역이기 때문에 잦은 범람으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다. 이곳 주변 땅을 논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70년대 초였다.

개간하기 전 노리 앞버덩(하천변)은 동네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놀던 곳으로, 갈대와 오리나무가 가득찬 진흙밭이었다. 이곳은 범람을 막기 위해 1965년에 제방을 개수하였고 1969년은 천의 주변에 석축을 축조하였다. 이후 1970년에 시작하여 1971년 4월 17일 완공한 청초천 직강 공사로 범람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다.

둑이 높아지자 갈대숲을 개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¹⁷²⁾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공동으로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유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청했고, 재판에 승소하여 경작하는 개인들에게 불하하거나 마을 공동재산으로 만들었다.¹⁷³⁾

170) 장봉녀의 증언. 장봉녀는 85세로 2022년 6월 9일 도리원경로당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71) 이동형의 증언. 이동형은 85세로 2022년 6월 24일 노학동 노인회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72) 차동준의 증언.

173) 정대철의 증언. 정대철은 80세로 2022년 5월 21일 사업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사진 139〉 청초천 직강공사(1970년)



〈사진 140〉 노리앞버덩



〈사진 141〉 노리앞버덩(응골 앞)

나) 도리원리(桃李源里)

노리와 도리원리는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심리적으로 가깝지는 못했다. 도리원마을은 현재 도리원교회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 위쪽은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리원마을에는 아람드리 소나무가 뽁뽁하게 들어차 있어 근처 학교 학생들의 단골 소풍지이기도 했다.

이 소나무 숲은 노리마을과 심리적인 경계선이 되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마을 모습이 급격히 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마을의 남쪽 돌배나무골 쪽에 동우대학이 설립되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 등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소나무 숲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리원마을은 남쪽으로, 노리마을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지금은 거의 한 동네처럼 가까운 거리가 되었다.

다) 척산리(尺山里)

(1) 학사평 농수로(鶴沙坪 農水路)와 마을 형성기 상황

학사평은 바람이 많이 불고 농사지을 만한 용수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다. 이에 학사평 저수지에서 물길을 만들어 학사평과 뒷버덩, 노리 앞버덩을 지나게 하여 용수를 공급하였다.

하지만 저수지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는 노리를 지나다보면 약해졌다. 노리에서는 이 물을 아래 논까지 보내기 위해 물에 낙차를 주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이 힘을 받아서 다시 흘러 내려갔다. 가뭄이 심할 때 이 물은 뺨이었던 갈골 앞 습지에 자연스럽게 고였다. 학사평 농수로는 노학동 마을의 농사에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시설물이었다.¹⁷⁴⁾

174) 정군철의 증언.



〈사진 142〉 학사평 별판



〈사진 143〉 학사평농수로

그러나 1960년대 초 새로운 마을(신흥, 자활촌)이 형성될 때 이 지역은 개척된 곳이 많지 않았다. 타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척박한 땅과 기후에 맞서 농지를 개간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당시 이주민들은 대부분 떠났고, 현재는 농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사진 144〉 학사평 농로



〈사진 145〉 자활촌 마을 도로

(2) 척산 방면 도로의 개설

목우재(牧牛재)는 1970년대 초까지는 작은 산길이었다. 척산에서 설악동을 잇는 4.3km의 도로 공사는 1976년 10월에 착공하고 1978년 5월에 완공하여 노학동에서 설악산으로 차량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진 146〉 목우재 공사전 모습(1975년)



〈사진 147〉 목우재 도로 포장 개통식(1979.9.16.)



<사진 148> 목우재도로(1993년)



<사진 149> 목우재도로 터널 개통식(2005.12.2.)

한편, 교통에서 척산 간 진입도로(온천로) 공사는 목우재 도로 시공 이전에 개설되어 있었다. 이 도로의 길이는 3.5km로 1971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2년 10월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완공 후에도 도로 포장은 하지 않고 굵은 모래로 길을 다져 놓은 상태였다. 작은 돌맹이나 다름없는 도로의 굵은 모래는 미시령 바람이 불 때마다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사정없는 모래 세례를 퍼부었다. 이후 1970년대 초반에 포장 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준비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1970년대에는 척산을 잇는 2개의 도로가 완공되어 척산을 비롯한 노학동 마을들이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진 150> 온천로(1972년)



<사진 151> 온천로(1970년대 초반)



<사진 152> 온천로

(3) 수정(水晶) 산지

1960년대에 미시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수정 광산 두 곳이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가 1965년 신흥리에서 학사평 저수지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서 발견된 흑수정맥이다. 이 수정맥에서는 팽이와 삽으로만 큰 흑수정 6개, 작은 흑수정 여러 개를 캐내었다. 보통 흑수정은 길이 10센티 이하이나 이곳에서 캐낸 수정은 길이 90여 센티, 둘레도 약 1미터나 되는 큰 것이었다. 광물업자는 이곳의 수정을 팔아 1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¹⁷⁵⁾

175) 「동아일보」, 1965. 4. 14일자.

사실 속초는 조선시대부터 수정 산지로 기록될 정도로 수정광이 많았다.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수정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이 노학동이었다. 신문에 수정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와 수정광산을 소개하고자 흔적을 찾아 보았다. 그러나 속초 지역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고성군 원암리 지역에서 두 곳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지역 하나는 신선대 부근이며, 다른 한 곳은 울산바위 서봉 쪽이다. 특히, 울산바위 서봉 쪽은 일제강점기에 채석한 광산으로, 채석 지역이 지름 3m 정도의 크기로 보아 상당량의 수정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채취 후 이를 다듬은 흔적도 아직 남아있다.



〈사진 153〉 신선대 부근 수정광산



〈사진 154〉 신선대 부근 수정광산 작업장



〈사진 155〉 울산바위 부근 수정광산 〈사진 156〉 수정광산 인근 작업장 차돌부스러기 〈사진 157〉 작업장의 차돌
※흙과 낙엽으로 덮혀 자리만 보임

그런데 조사를 위해 올라간 울산바위 길 옆에는 아주 오래된 전봇대들이 서 있었다. 마을에서 물어보니 군인부대가 있었다고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숙제로 남겨두었다.



〈사진 158〉 차돌광산 가는 길의 나무전봇대



〈사진 159〉 나무전봇대 윗부분

라) 이목리(梨木里)

이목리라는 이름은 돌배나무골에서 시작되었다. 마을과 동우대학 사이의 골짜기에 돌배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안에도 오래된 돌배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마을 이름처럼 배농사를 짓는 과수원이 있었다. 이목리는 도리원리와 같이 조선 후기에 마을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인구가 늘어 마을 모습을 갖춘 것은 일제강점 초기이다. 이때 마을의 중심 성씨인 양씨, 강씨, 황씨 일가가 이 마을로 이주하여, 1942년에는 이목리라는 행정구역이 생겨났다.¹⁷⁶⁾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대 초 이목리의 가구수는 40가구 내외가 되어 1, 2반으로 나뉘었다. 당시 마을에는 기와집이 1~2채이고, 나머지는 초가집이었으며 움막집도 한 채가 있었다. 이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대다수가 스텝트집으로 바뀌었는데, 그중 함석집도 4~5채가 있었다.¹⁷⁷⁾

이 마을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샘골천(이목천)의 양쪽으로 좁게 펼쳐져 있는 농토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살던 터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다.



〈사진 160〉 이목리 전경

176) 황시영의 증언. 황시영은 62세로 이목리에 3대째 최근까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이사를 하였다. 2022년 10월 1일 카페 메이트힐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77) 황시영의 증언.

2) 1970년대 이후 경제와 사회

가) 명태의 고갈

속초는 시 승격 이래 ‘수산도시’로 방향성을 정하고 집중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 외에 다른 산업이 전무한 속초는 어황에 따라 인구의 유동이 심했다. 1970년대 초반의 경우 속초의 인구는 7만 5천 명 정도였는데, 그중 70%가 유입인구로 어황에 따라 증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속초의 대표적인 어종이던 명태는 계속 잡혔다. 그러나 명태는 1980년도 중반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도 초가 되면서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명태 어획고는 1981년의 경우 16만에 이르던 것이 1995년에는 1만 5천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명태의 고갈 원인이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자원 관리의 실패라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 어선들의 남획으로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명태의 경우 명태 새끼인 노가리를 저인망으로 싹싹 긁어대다시피 건져 올린 것이 명태의 숫자를 격감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¹⁷⁸⁾



<사진 161> 명태 관태작업¹⁷⁹⁾



<사진 162> 명태 덕장¹⁸⁰⁾

나) 인구의 감소

197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산업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산업도시가 아닌 도시들도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1975년 인구통계에서 전국 35개 시(市)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속초시였다.¹⁸¹⁾

178) 「조선일보」, 1996. 3. 29일자.

179) 폴렌처 기증사진 (2010)-096. 1954년경 관태작업 광경이다. 말린 명태를 싸리나무를 이용하여 꾸러미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통 한 꼬챙이에 한 드름(20마리)을 끼워 팔았다.

180) 1954년경 덕장에서 명태를 말리고 있다.(속초시박물관(2011), 앞의 책, 82쪽.)

속초의 전출 인구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과 교육 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떠나갔다. 수산업이 중심이었던 속초는 2년간 연이은 흉어 등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은 울산 등 공업지대로 이동했으며, 여유 있는 집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977년 말 속초의 상주인구는 73,070명이었는데, 1978년 말에는 71,737명으로 한 해 동안 무려 1,333명이나 줄어들었다.¹⁸²⁾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자 속초시는 고향심기운동 같은 캠페인을 벌이지만 역부족이었다. 1978년의 경우 타지로 나가는 이삿짐이 하루 최고 7건을 기록하였으며, 취학아동수도 9학급 540여 명이 줄어들었다.¹⁸³⁾

다) 청초호의 오염

1990년대 초 청초호는 심각한 오염 상태로 냄새가 극심했다. 당시 속초는 하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생활하수를 청초호수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청초호 주변에는 3만여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하루 9천여 톤이나 되었다. 생활하수 말고도 호수변에서 수산물 가공을 하는 10여 개의 업체에서도 하루 1천여 톤의 폐수를 호수로 흘려보냈다.

당시 환경처의 조사에 의하면 악성플랑크톤이 기준치의 3~5배나 많은 10만 개(허용기준치 1L당 2만~3만) 이상이었으며, 동해안 지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아 방치할 경우 죽음의 바다로 변모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¹⁸⁴⁾

생활오수 외에도 청초호를 오염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폐선(廢船)이었는데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속초 청초호 주변을 인천 소래포구, 여수 돌산도와 함께 3대 폐어선 집단 방치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선박을 방치한 이유는 폐선 처리 비용과 해체 후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이었다.¹⁸⁵⁾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청초호는 빠른 속도로 썩어가 악취를 풍겼다. 이런 상태에 이르자 차라리 청초호를 매립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청초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결국 신수로를 개설하여 오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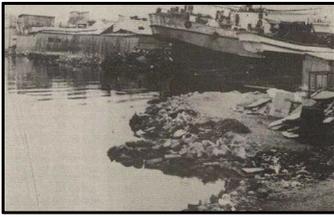
181) 「경향신문」, 1976. 2. 9일자.

182) 「경향신문」, 1979. 3. 29일자.

183) 「경향신문」, 1979. 3. 29일자.

184) 「동아일보」, 1991. 6. 22일자.

185) 「조선일보」, 1996. 4. 4일자.



〈사진 163〉 청초호 오염 모습



〈사진 164〉 신수로



〈사진 165〉 현재의 청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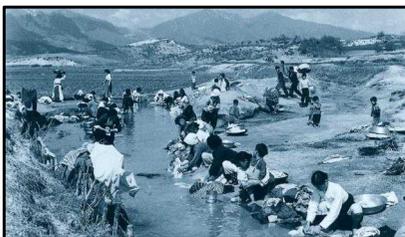
라) 청초천의 추억

청초천 주변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된 추억이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청초천은 동네 사람들의 놀이터였고 공동 생활 터전이었다.

쌍다리 마을의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건과 칫솔을 들고 물가로 올라갔다. 세수를 하기 위해 올라가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나와 씻고 있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목욕탕으로 변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성별로 식구들이 모여 물가로 나가 목욕을 하였다. 물가에 가면 벌써 다른 집 식구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큰소리로 인사를 한 후 일정 간격을 두고 목욕을 하였다.¹⁸⁶⁾

청초천은 여름이면 물놀이장이 되기도 했다. 어린아이들은 팬티만 입은 채 물놀이를 하다가 벗어서 말려 입고 집에 가곤 했다. 물이 워낙 맑아서 물고기들이 왔다갔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은 고무신을 벗어 물고기를 잡는 재미로 한참을 머물렀다. 그때는 일급수에서 산다는 가시고기도 많았고, 돌 밑에는 가재들도 많았다. 특히, 버들개지, 웅고지가 많아 이것을 잡아 추어탕을 끓여 먹었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빨래터가 되었다. 〈사진 167〉과 같이 빨래터에는 돈을 받고 양젓물로 빨래감을 삶아 주는 아저씨도 있었다. 빨래를 하고 나면 풀 위나 자갈 위에 널어서 말렸는데 중앙동에서도 이곳까지 빨래를 하러 왔다.



〈사진 166〉 청초천 옛사진(1950년대)



〈사진 167〉 청초천 빨래하는 모습(1965년)

186) 정군철의 증언.

마) 땃감 판매

6·25전쟁 후 노리 동네 사람들 중 젊은 사람들은 땃감나무를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동네에서 나무를 하던 장소는 대체로 달마봉 아래였는데, 땃감용으로 만든 나무를 우차에 실어 영랑시장, 중앙시장, 6구시장으로 가져갔다. 1970년대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산림녹화정책의 일환으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나무가 없으면 몰래 싸리재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기도 했다.¹⁸⁷⁾

바) 풀베기대회

1970년대에는 퇴비 증산의 일환책으로 각 동대항 풀베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대회 장소는 척산리였는데, 13개 동 8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지만 당시는 화학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퇴비 증산은 풀베기대회 뿐만 아니라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방학 숙제이기도 했다.



〈사진 168〉 풀베기 대회(1973년)

사) 물레방앗간

농업사회에서 방앗간은 중요한 시설물이다. 도리원 마을 앞에는 제법 규모가 큰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현재 위치로는 도리원마을 앞쪽(청초천 칠다리 앞)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되어있다. 이곳에는 물레방아와 디딜방아가 같이 있었는데, 1970년대 청초천 직강 공사와 경지 정리로 철거되었다. 노리, 도리원, 청대리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다.

187) 차동준의 증언.



〈사진 169〉 물레방앗간(1960년대) 〈사진 170〉 도로가 된 물레방아 자리 〈사진 171〉 물레방아 자리

3) 청호동 · 청학동 · 교동 · 노학동 행정 조직의 정비

가) 재건반의 설치

1963년 속초시 승격과 함께 ‘속초시 재건반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자로 속초시 하부 조직을 정비하였다.¹⁸⁸⁾ 속초리 5구~6구, 노리에는 126개의 재건반을 두었다. 재건반의 수는 인구 변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1972년 7월 1일자로 재건반 명칭과 구역 조정이 되었는데 속초리 5구~6구, 노리의 조정 전과 조정 후의 재건반수는 다음과 같다.¹⁸⁹⁾

〈표 26〉 1963년 속초리 · 노리 · 도리원리 · 재건반 설치수

구역	재건반 설치수	법정동 이름
속초리 5구	30	청호동
속초리 6구(청학동)	36	청학동
속초리 6구(교동)	34	교동
도리원리	4	노학동
이목리	2	노학동
노리	5	노학동
척산리	15	노학동
계	126	

나) 동(洞)명칭 제정과 구역(區域) 확정

1963년 속초시로 승격한 후에도 하부 행정 조직인 동(洞)을 설치하지 못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리(里)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66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동명칭과 구역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¹⁹⁰⁾

188) 실제로 공포된 것은 1963년 2월 8일이다.

189) 속초시, 「속초시 재건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공포(제325호)」 참조, 국가기록원, 1972.

190) 조례는 1966년 1월 11일 공포하였다.

〈표 27〉 동(洞) 명칭과 구역 조정

동명칭	구역
청호동	전(前) 부월리 433, 444, 459, 548-1, 338번지
청학동	전(前) 속초리 483-488, 631-633, 637-643, 646-648, 山178~山192, 山~136번지
교동	전(前) 속초리 618-620, 627-630, 634-636, 644-645, 649-825, 山272~山306번지
노학동	전(前)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칩산리 일원

다) 동별 재건반 설치

(1) 청호동 재건반

〈표 28〉 1966년 청호동 재건반 조정 내용

재건반명	이전 반명	구역	이전 반명
제1재건반	전(前) 부월리 제8재건반 일원	제16재건반	전(前) 부월리 23재건반 일원
제2재건반	부월리 제9재건반 일원	제17재건반	부월리 제24재건반 일원
제3재건반	부월리 제10재건반 일원	제18재건반	부월리 제25재건반 일원
제4재건반	부월리 제11재건반 일원	제19재건반	부월리 제26재건반 일원
제5재건반	부월리 제12재건반 일원	제20재건반	부월리 제27재건반 일원
제6재건반	부월리 제13재건반 일원	제21재건반	부월리 제28재건반 일원
제7재건반	부월리 제14재건반 일원	제22재건반	부월리 제29재건반 일원
제8재건반	부월리 제15재건반 일원	제23재건반	부월리 제30재건반 일원
제9재건반	부월리 제16재건반 일원	제24재건반	부월리 제31재건반 일원
제10재건반	부월리 제17재건반 일원	제25재건반	부월리 제32재건반 일원 부월리 제33재건반 일부
제11재건반	부월리 제18재건반 일원	제26재건반	부월리 제33재건반 일부 부월리 제35재건반 일부
제12재건반	부월리 제19재건반 일원	제27재건반	부월리 제34재건반 일원 부월리 제35재건반 일부
제13재건반	부월리 제20재건반 일원	제28재건반	부월리 제35재건반 일부
제14재건반	부월리 제21재건반 일원	제29재건반	부월리 제36재건반 일원
제15재건반	부월리 제22재건반 일원	제30재건반	부월리 제37재건반 일원

(2) 청학동 재건반

<표 29> 1966년 청학동 재건반 조정 내용

재건반명	이전 반명	구역	이전 반명
제1재건반	전(前) 속초리 제133재건반 일원	제17재건반	전(前) 속초리 제153재건반 일원
제2재건반	속초리 제134재건반 일원	제18재건반	속초리 제152재건반 일원
제3재건반	속초리 제135재건반 일원	제19재건반	속초리 제151재건반 일원
제4재건반	속초리 제136재건반 일원	제20재건반	속초리 제156재건반 일원
제5재건반	속초리 제137재건반 일원	제21재건반	속초리 제154재건반 일원 속초리 제155재건반 일원
제6재건반	속초리 제138재건반 일원	제22재건반	속초리 제157재건반 일원
제7재건반	속초리 제139재건반 일원	제23재건반	속초리 제158재건반 일원
제8재건반	속초리 제140재건반 일원	제24재건반	속초리 제143재건반 일원 속초리 제159재건반 일원
제9재건반	속초리 제141재건반 일원	제25재건반	속초리 제160재건반 일원 속초리 제161재건반 일부
제10재건반	속초리 제142재건반 일원	제26재건반	속초리 제161재건반 일부 속초리 제162재건반 일원
제11재건반	속초리 제144재건반 일원 속초리 제145재건반 일원	제27재건반	속초리 제163재건반 일원
제12재건반	속초리 제146재건반 일원	제28재건반	속초리 제164재건반 일원
제13재건반	속초리 제147재건반 일원 속초리 제150재건반 일부	제29재건반	속초리 제165재건반 일원
제14재건반	속초리 제150재건반 일부	제30재건반	속초리 제166재건반 일원
제15재건반	속초리 제149재건반 일원	제17재건반	속초리 제167재건반 일원
제16재건반	속초리 제148재건반 일원	제18재건반	속초리 제168재건반 일원

(3) 교동 재건반

<표 30> 1966년 교동 재건반 조정 내용

재건반명	이전 반명	구역	이전 반명
제1재건반	전(前) 속초리 제169재건반 일원	제20재건반	전(前) 속초리 제199재건반 일원
제2재건반	속초리 제170재건반 일원	제21재건반	속초리 제200재건반 일원
제3재건반	속초리 제171재건반 일원	제22재건반	속초리 제201재건반 일원
제4재건반	속초리 제172재건반 일원	제23재건반	속초리 제198재건반 일원
제5재건반	속초리 제173재건반 일원	제24재건반	속초리 제197재건반 일부
제6재건반	속초리 제174재건반 일원	제25재건반	속초리 제197재건반 일부
제7재건반	속초리 제175재건반 일원	제26재건반	속초리 제197재건반 일부
제8재건반	속초리 제176재건반 일원	제27재건반	속초리 제195재건반 일원
제9재건반	속초리 제177재건반 일원	제28재건반	속초리 제196재건반 일원
제10재건반	속초리 제178재건반 일원	제29재건반	속초리 제194재건반 일원
제11재건반	속초리 제179재건반 일원	제30재건반	속초리 제192재건반 일원
제12재건반	속초리 제180재건반 일원	제31재건반	속초리 제193재건반 일원
제13재건반	속초리 제181재건반 일원	제32재건반	속초리 제190재건반 일원
제14재건반	속초리 제182재건반 일부	제33재건반	속초리 제189재건반 일원
제15재건반	속초리 제182 · 188재건반 일부	제34재건반	속초리 제183재건반 일원
제16재건반	속초리 제202재건반 일원	제35재건반	속초리 제186 · 187재건반 일부
제17재건반	속초리 제184재건반 일부	제36재건반	속초리 제186 · 187재건반 일부
제18재건반	속초리 제184재건반 일부	제37재건반	속초리 제185재건반 일원
제19재건반	속초리 제191재건반 일원 속초리 제188재건반 일부		

(4) 노학동 재건반

<표 31> 1966년 노학동 재건반 조정 내용

재건반명	이전 반명	구역	이전 반명
제1재건반	전(前) 도리원리 제1,2,3,4 재건반 일원	제5재건반	전(前) 척산리 제4,5재건반 일원
제2재건반	이목리 제1,2재건반 일원	제6재건반	척산리 제6,7,8,9,10,11재건반 일원
제3재건반	노리 제1,2,3,4,5재건반 일원	제7재건반	척산리 제12,13,14,15재건반 일원
제4재건반	척산리 제1,2,3재건반 일원		

(5) 재건반 구역 조정

1966년 설치된 재건반은 인구의 증가로 1968년 6월 13일 속초시 재건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공포(속초시 조례 제154호)에 의하여 청호동 60재건반, 청학동 71재건반, 교동 61재건반, 노학동 25재건반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1968년 10월 동해지구해일재해로 인하여 영랑동, 교동, 조양동, 대포동에 재해복구주택 825동을 건립하여 피해주민을 이주시켜 이 지역에 대한 재건반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교동은 61재건반으로 동일하나 구역을 새로 조정하였다.

1972년 7월 1일 개정 조례(제325호)에 의거 청호동 64재건반, 청학동 72재건반, 교동 83재건반, 노학동 25재건반으로 조정하였다.

라) 새마을반의 설치

1973년 12월 29일 「속초시 재건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속초시 조례 제374호)」를 공포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목적으로 ‘재건반’을 ‘새마을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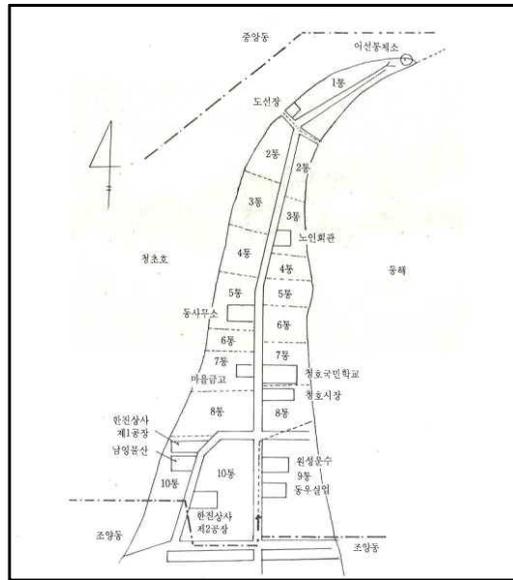
마) 통반제(統班制)의 실시

속초시에서는 1975년 7월 5일 행정조직의 행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내용은 동(洞)에 통(統)을 두고 통에는 반(班)을 두는 것으로, 조례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이의 실시로 그동안 설치되었던 새마을반을 폐지하였다.

획정 기준을 보면 반은 20~30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는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였다.

(1) 청호동의 통반 설치 내용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제1 새마을반 일원	6통	3반	제34 새마을반 일원	4반	제35 새마을반 일부	
		제2 새마을반 일부			제35 새마을반 일부			
	2반	제2 새마을반 일부		5반	제38 새마을반 일원	1반	제37 새마을반 일원	
		제3 새마을반 일원			제39 새마을반 일부			
	3반	제4 새마을반 일원		7통	2반	제42 새마을반 일원	3반	제39 새마을반 일부
		제5 새마을반 일부				제40 새마을반 일원		
	4반	제5 새마을반 일부			4반	제41 새마을반 일원	5반	제43 새마을반 일부
		제6 새마을반 일원				제43 새마을반 일부		
2통	1반	제7 새마을반 일원	6반		제44 새마을반 일원	8통	1반	제45 새마을반 일원
		제9 새마을반 일부			제46 새마을반 일부			
	2반	제8 새마을반 일원	7반		3반	제47 새마을반 일원	2반	제46 새마을반 일부
		제12 새마을반 일부				제48 새마을반 일원		
	3반	제9 새마을반 일부	8반	4반	제49 새마을반 일원	3반	제50 새마을반 일원	
		제10 새마을반 일부			제51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2 새마을반 일부	9반	5반	제52 새마을반 일원	4반	제52 새마을반 일원	
		제14 새마을반 일원			제53 새마을반 일부			
3통	1반	제13 새마을반 일원	8통	2반	제53 새마을반 일부	5반	제54 새마을반 일원	
		제15 새마을반 일원			제54 새마을반 일원			
	3반	제16 새마을반 일원		3반	제55 새마을반 일원	6반	제55 새마을반 일원	
		제17 새마을반 일원			제56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8 새마을반 일원		4반	제57 새마을반 일원	7반	제57 새마을반 일원	
		제19 새마을반 일원			제58 새마을반 일원			
	5반	제19 새마을반 일원		5반	제58 새마을반 일원	8반	제59 새마을반 일원	
		제23 새마을반 일부			제60 새마을반 일부			
4통	1반	제20 새마을반 일원	9통	2반	제60 새마을반 일부	9반	제61 새마을반 일원	
		제21 새마을반 일원			제61 새마을반 일원			
	2반	제22 새마을반 일부		3반	제62 새마을반 일부	10반	제62 새마을반 일부	
		제23 새마을반 일부			제63 새마을반 일원			
	3반	제23 새마을반 일부		4반	제63 새마을반 일원	11반	제60 새마을반 일부	
		제24 새마을반 일원			제62 새마을반 일부			
	4반	제22 새마을반 일부		5반	제64 새마을반 일원	12반	제62 새마을반 일부	
		제25 새마을반 일부			제64 새마을반 일원			
5통	1반	제25 새마을반 일부	10통	2반	제64 새마을반 일원	13반	제63 새마을반 일원	
		제28 새마을반 일원			제66 새마을반 일부			
	2반	제26 새마을반 일원		3반	제66 새마을반 일부	14반	제61 새마을반 일원	
		제27 새마을반 일원			제62 새마을반 일부			
	3반	제27 새마을반 일원		4반	제67 새마을반 일부	15반	제63 새마을반 일원	
		제29 새마을반 일원			제60 새마을반 일부			
	4반	제29 새마을반 일원		5반	제68 새마을반 일부	16반	제60 새마을반 일부	
		제31 새마을반 일원			제62 새마을반 일부			
5반	제31 새마을반 일원	6반	제69 새마을반 일부	17반	제62 새마을반 일부			
	제33 새마을반 일원		제64 새마을반 일원					
6통	1반	제30 새마을반 일원	7반	3반	제69 새마을반 일부	18반	제62 새마을반 일부	
		제32 새마을반 일원			제64 새마을반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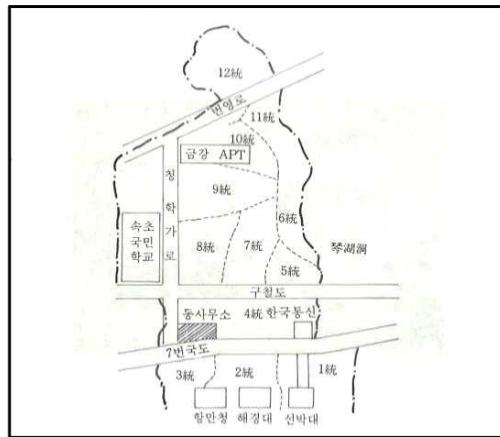
〈그림 39〉 청호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시정 30년사』

※ 〈그림 39〉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증감 없음.

(2) 청학동의 통반 설치 내용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동	1반	제1 새마을반 일원	8동	1반	제44 새마을반 일원
	2반	제2 새마을반 일부		2반	제45 새마을반 일원
	3반	제2 새마을반 일부		3반	제43 새마을반 일부
	4반	제4 새마을반 일원		4반	제46 새마을반 일원
	5반	제3 새마을반 일원		5반	제43 새마을반 일부
2동	1반	제5 새마을반 일원		6반	제47 새마을반 일원
	2반	제8 새마을반 일원		7반	제48 새마을반 일원
	3반	제6 새마을반 일원		8반	제42 새마을반 일원
	4반	제7 새마을반 일원		9반	제43 새마을반 일부
	5반	제11 새마을반 일원		10반	제49 새마을반 일원
3동	1반	제9 새마을반 일원	9동	1반	제50 새마을반 일원
	2반	제12 새마을반 일원		2반	제51 새마을반 일원
	3반	제13 새마을반 일원		3반	제52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4 새마을반 일원		4반	제53 새마을반 일원
	5반	제15 새마을반 일원		5반	제54 새마을반 일원
4동	1반	제16 새마을반 일원	10동	6반	제55 새마을반 일원
	2반	제17 새마을반 일원		7반	제56 새마을반 일원
	3반	제18 새마을반 일원		8반	제57 새마을반 일원
				9반	제58 새마을반 일부
				10반	제58 새마을반 일부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4통	3반	제19 새마을반 일원	10통	4반	제59 새마을반 일원		
	4반	제20 새마을반 일원		제60 새마을반 일부			
	5반	제21 새마을반 일원		제60 새마을반 일부			
5통	1반	제23 새마을반 일원	11통	5반	제61 새마을반 일부		
	2반	제22 새마을반 일원		1반	제61 새마을반 일부		
	3반	제24 새마을반 일원		2반	제62 새마을반 일원		
	4반	제25 새마을반 일원		제63 새마을반 일부			
	5반	제26 새마을반 일원		3반	제63 새마을반 일부		
6통	6반	제31 새마을반 일원	12통	4반	제64 새마을반 일부		
	1반	제27 새마을반 일원		제64 새마을반 일부			
	2반	제28 새마을반 일원		제65 새마을반 일부			
	3반	제29 새마을반 일원		제65 새마을반 일부			
7통	4반	제30 새마을반 일원	5반	제66 새마을반 일원			
		1반		제67 새마을반 일원			
		2반		제68 새마을반 일원			
	3반	제34 새마을반 일원	3반	제69 새마을반 일부			
		제35 새마을반 일원		제69 새마을반 일부			
		제36 새마을반 일원		제70 새마을반 일부			
	2반	제37 새마을반 일원	4반	제70 새마을반 일부			
		제38 새마을반 일원		제71 새마을반 일원			
		제39 새마을반 일부		제71 새마을반 일원			
1반	제39 새마을반 일부	5반	제72 새마을반 일원				
	제40 새마을반 일원						
	제41 새마을반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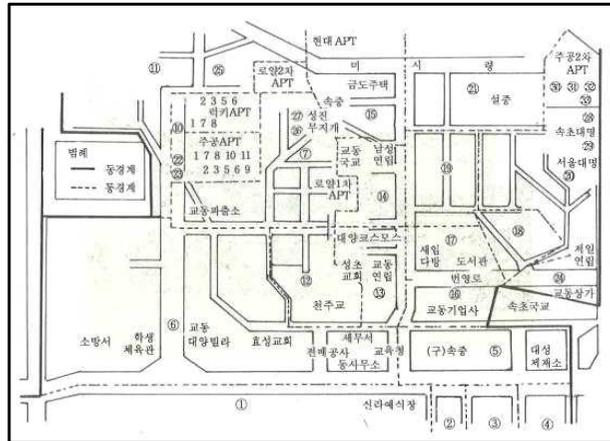
<그림 40> 청학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30년사』

※ <그림 40>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12통에서 13통으로 증가함.(<그림 40>에는 12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3통 69반이었음.)

(3) 교동의 통반 설치 내용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제17 새마을반 일원	10통	1반	제63 새마을반 일원
	2반	제16 새마을반 일원		2반	제62 새마을반 일원
	3반	제15 새마을반 일원		3반	제65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4 새마을반 일원			제66 새마을반 일부
2통	1반	제10 새마을반 일원	11통	4반	제64 새마을반 일원
	2반	제12 새마을반 일부		5반	제61 새마을반 일원
		제11 새마을반 일원		6반	제60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3 새마을반 일원		1반	제46 새마을반 일원
3통	1반	제9 새마을반 일원	12통	2반	제45 새마을반 일원
	2반	제8 새마을반 일원		3반	제44 새마을반 일원
	3반	제7 새마을반 일원		4반	제48 새마을반 일원
	4반	제6 새마을반 일부		5반	제47 새마을반 일원
		제5 새마을반 일원		1반	제49 새마을반 일원
5반	제6 새마을반 일부	2반	제50 새마을반 일부		
4통	1반	제4 새마을반 일원	13통	3반	제51 새마을반 일원
	2반	제3 새마을반 일원		4반	제55 새마을반 일부
	3반	제2 새마을반 일원		5반	제52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 새마을반 일원		6반	제53 새마을반 일원
1반	제37 새마을반 일원	제54 새마을반 일부			
5통	2반	제35 새마을반 일원	13통	1반	제82 새마을반 일부
		제36 새마을반 일원		2반	제83 새마을반 일원
5통	3반	제34 새마을반 일원	13통	2반	제81 새마을반 일부
	4반	제33 새마을반 일원		3반	제82 새마을반 일부
	5반	제32 새마을반 일원		4반	제80 새마을반 일원
6통	1반	제31 새마을반 일부	14통	4반	제79 새마을반 일원
	2반	제31 새마을반 일부		5반	제81 새마을반 일부
		제30 새마을반 일원		1반	제78 새마을반 일원
	3반	제29 새마을반 일원			2반
	4반	제28 새마을반 일원		3반	제55 새마을반 일부
7통	5반	제18 새마을반 일원	15통	4반	제56 새마을반 일원
		제19 새마을반 일원		5반	제66 새마을반 일부
	1반	제23 새마을반 일부		6반	제66 새마을반 일부
	2반	제22 새마을반 일원		1반	제67 새마을반 일부
8통	3반	제23 새마을반 일부	15통	2반	제68 새마을반 일부
		제21 새마을반 일원		1반	제73 새마을반 일원
	4반	제20 새마을반 일원		2반	제74 새마을반 일원
	5반	제27 새마을반 일원		3반	제75 새마을반 일원
제24 새마을반 일원		4반	제76 새마을반 일부		
9통	1반	제39 새마을반 일원	16통	4반	제76 새마을반 일부
		제40 새마을반 일원		5반	제77 새마을반 일원
	2반	제25 새마을반 일부		1반	제68 새마을반 일부
		제24 새마을반 일원		2반	제69 새마을반 일원
3반	제25 새마을반 일부	3반	제70 새마을반 일원		
	제24 새마을반 일원	4반	제71 새마을반 일부		
4반	제39 새마을반 일원	4반	제71 새마을반 일부		
	제40 새마을반 일원		제72 새마을반 일원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9동	2반	제42 새마을반 일원		
		제43 새마을반 일부		
	3반	제43 새마을반 일부		
	4반	제57 새마을반 일원		
	5반	제58 새마을반 일원		
	6반	제59 새마을반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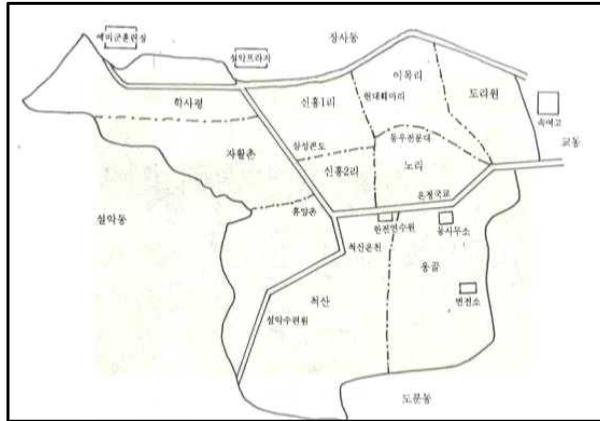


<그림 41> 교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30년사』

※ <그림 41>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16통에서 33통으로 증가함.

(4) 노학동의 통반 설치 내용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제1 새마을반 일원	3통	2반	제13 새마을반 일부
	2반	제2 새마을반 일원		3반	제14 새마을반 일원
	3반	제3 새마을반 일원		4반	제23 새마을반 일원
	4반	제4 새마을반 일원		1반	제15 새마을반 일원
	5반	제5 새마을반 일원	제16 새마을반 일부		
		6반	제6 새마을반 일원	2반	제16 새마을반 일부
2통	1반	제7 새마을반 일원	4통	3반	제17 새마을반 일원
		제10 새마을반 일부			제18 새마을반 일원
	2반	제8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9 새마을반 일원
		제10 새마을반 일부			제20 새마을반 일원
	3반	제9 새마을반 일원		5반	제21 새마을반 일원
4반	제11 새마을반 일원	제22 새마을반 일원			
3통	1반	제12 새마을반 일원	6반	제24 새마을반 일원	
		제13 새마을반 일부		제25 새마을반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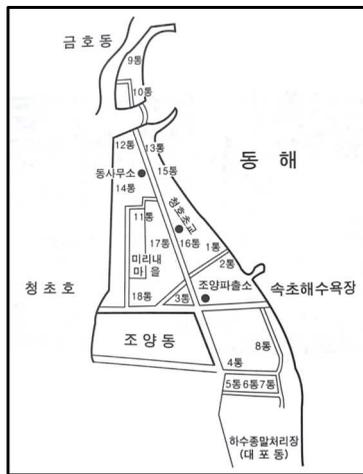
<그림 42> 노학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30년사』

※ <그림 42>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4통에서 5통으로 증가함.

바) 행정동 통반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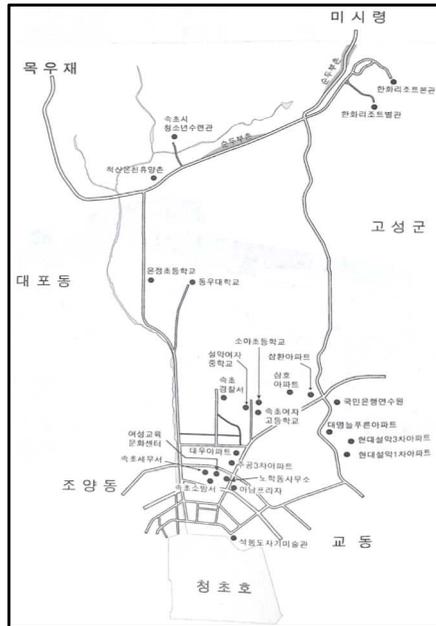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동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행정동이라 한다. 속초시는 1998년 10월 17일 <속초시 조례 제1657호>로 청호동, 교동을 나눠 청학동과 합쳐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을 통합하여 노학동의 행정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청호동(행정동)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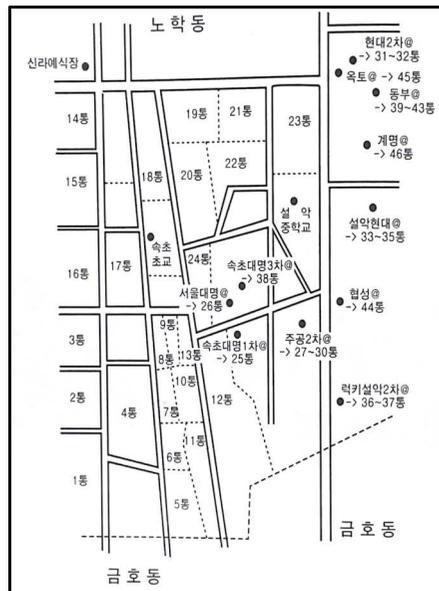
<그림 43> 청호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40년사』

(2) 교동(행정동) 행정구역도



<그림 44> 교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40년사』

(3) 노학동(행정동) 행정구역도



<그림 45> 노학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40년사』

사) 도로명주소법 시행

도로명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지번 주소를 대신하여 새로 나왔다는 의미에서 새주소라고도 불린다. 도로명의 기준은 ‘대로’는 폭이 40m 이상이거나 8차선 이상일 경우, ‘로’는 12m 이상이거나 왕복 2차선 이상, ‘길’은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으로 하였다.

도로명 주소에 의해 이름을 부여한 동명동, 금호동의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청호동 도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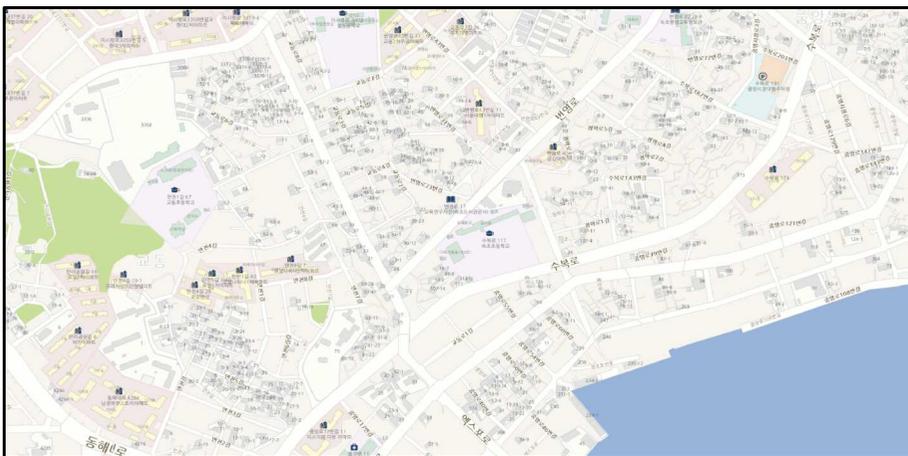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3223021	청호로	Cheongho-ro
3223027	설악금강대교로	Seorakgeumgangdaegyo-ro
4469060	미리내1길	Mirinae 1-gil
4469061	미리내길	Mirinae-gil
4469150	아바이마을1길	Abaimaeul 1-gil
4469151	아바이마을길	Abaimaeul-gil
4469275	청호로1길	Cheongho-ro 1-gil
4469277	청호로3길	Cheongho-ro 3-gil
4469278	청호로4길	Cheongho-ro 4-gil
4469279	청호로5길	Cheongho-ro 5-gil
4469280	청호로6길	Cheongho-ro 6-gil
4469281	청호로7길	Cheongho-ro 7-gil
4469282	청호로8길	Cheongho-ro 8-gil
4469283	청호해안길	Cheonghohaean-gil
4856401	청호로34번길	Cheongho-ro 34beon-gil



<그림 46> 청호동 도로명 구분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 33> 청학동 도로명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3223007	수복로	Subok-ro
3223018	청초호반로	Cheongchohoban-ro
3223019	청학로	Cheonghak-ro
3223024	변영로	Beonyeong-ro
3223025	중앙로	Jungang-ro
4469090	변영로43번길	Beonyeong-ro 43beon-gil
4469091	변영로49번길	Beonyeong-ro 49beon-gil
4469092	변영로53번길	Beonyeong-ro 53beon-gil
4469093	변영로56번길	Beonyeong-ro 56beon-gil
4469095	변영로72번길	Beonyeong-ro 72beon-gil
4469139	수복로143번길	Subok-ro 143beon-gil
4469140	수복로167번길	Subok-ro 167beon-gil
4469142	수복로187번길	Subok-ro 187beon-gil
4469217	중앙로108번길	Jungang-ro 108beon-gil
4469240	중앙로79번길	Jungang-ro 79beon-gil
4469241	중앙로82번길	Jungang-ro 82beon-gil
4469270	청학로1길	Cheonghak-ro 1-gil
4469271	청학로2길	Cheonghak-ro 2-gil
4469272	청학로3길	Cheonghak-ro 3-gil
4469273	청학로4길	Cheonghak-ro 4-gil
4469274	청학로5길	Cheonghak-ro 5-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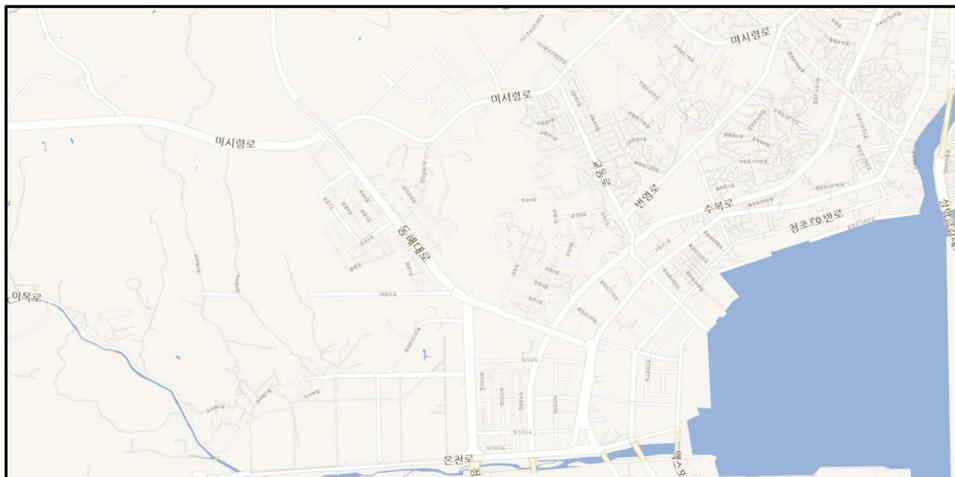


<그림 47> 청학동 도로명 구분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 34〉 교동 도로명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2000023	동해대로	Donghae-daero
2223002	청대로	Cheongdae-ro
3223002	교동로	Gyodong-ro
3223007	수복로	Subok-ro
3223008	엑스포로	Expo-ro
3223012	온천로	Oncheon-ro
3223018	청초호반로	Cheongchohoban-ro
3223019	청학로	Cheonghak-ro
3223023	미시령로	Misiryong-ro
3223024	변영로	Beonyeong-ro
3223025	중앙로	Jungang-ro
4469004	교동로1길	Gyodong-ro 1-gil
4469005	교동로2길	Gyodong-ro 2-gil
4469006	교동로3길	Gyodong-ro 3-gil
4469007	교동로4길	Gyodong-ro 4-gil
4469008	교동로5길	Gyodong-ro 5-gil
4469009	교동로6길	Gyodong-ro 6-gil
4469010	교동로7길	Gyodong-ro 7-gil
4469011	교동로8길	Gyodong-ro 8-gil
4469012	교동로9길	Gyodong-ro 9-gil
4469029	도리원길	Doriwon-gil
4469039	만리공원1길	Malligongwon 1-gil
4469040	만리공원길	Malligongwon-gil
4469041	만천1길	Mancheon 1-gil
4469042	만천2길	Mancheon 2-gil
4469043	만천3길	Mancheon 3-gil
4469044	만천4길	Mancheon 4-gil
4469045	만천5길	Mancheon 5-gil
4469046	만천6길	Mancheon 6-gil
4469047	만천7길	Mancheon 7-gil
4469048	만천8길	Mancheon 8-gil
4469049	만천길	Mancheon-gil
4469050	먹거리1길	Meokgeori 1-gil
4469051	먹거리2길	Meokgeori 2-gil
4469052	먹거리3길	Meokgeori 3-gil
4469053	먹거리4길	Meokgeori 4-gil
4469054	먹거리5길	Meokgeori 5-gil
4469055	먹거리6길	Meokgeori 6-gil
4469056	먹거리7길	Meokgeori 7-gil
4469057	먹거리8길	Meokgeori 8-gil
4469058	먹거리9길	Meokgeori 9-gil
4469059	먹거리길	Meokgeori-gil
4469064	미시령로3337번길	Misiryong-ro 3337beon-gil
4469065	미시령로3359번길	Misiryong-ro 3359beo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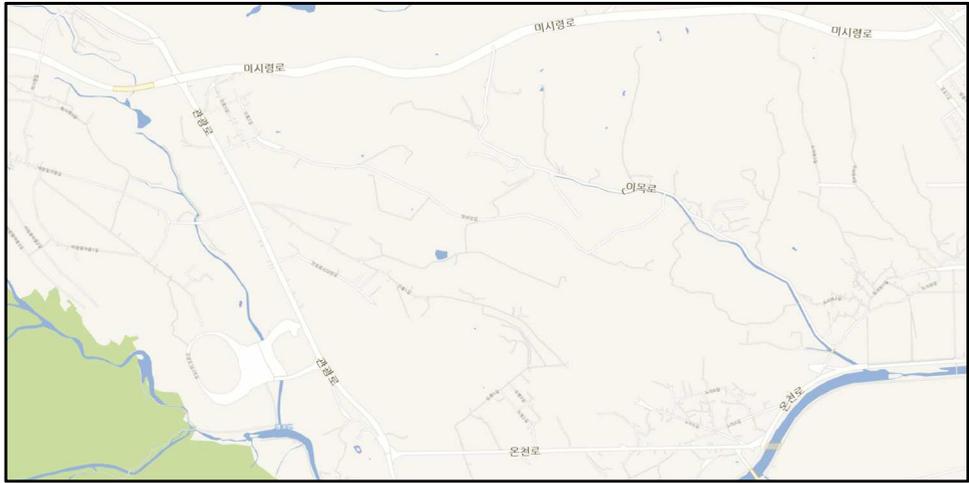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4469066	미시령로3389번길	Misiryong-ro 3389beon-gil
4469071	밤골1길	Bamgol 1-gil
4469072	밤골2길	Bamgol 2-gil
4469073	밤골3길	Bamgol 3-gil
4469074	밤골4길	Bamgol 4-gil
4469075	밤골5길	Bamgol 5-gil
4469076	밤골6길	Bamgol 6-gil
4469077	밤골길	Bamgol-gil
4469081	배움터길	Baemteo-gil
4469088	변영로23번길	Beonyeong-ro 23beon-gil
4469089	변영로31번길	Beonyeong-ro 31beon-gil
4469090	변영로43번길	Beonyeong-ro 43beon-gil
4469092	변영로53번길	Beonyeong-ro 53beon-gil
4469138	수북로103번길	Subok-ro 103beon-gil
4469153	엑스포로2길	Expo-ro 2-gil
4469223	중앙로17번길	Jungang-ro 17beon-gil
4469229	중앙로40번길	Jungang-ro 40beon-gil
4469234	중앙로46번길	Jungang-ro 46beon-gil
4469235	중앙로50번길	Jungang-ro 50beon-gil
4469236	중앙로54번길	Jungang-ro 54beon-gil
4469237	중앙로55번길	Jungang-ro 55beon-gil
4469239	중앙로60번길	Jungang-ro 60beon-gil
4469258	청대로351번길	Cheongdae-ro 351beon-gil
4469290	호반산책길	Hobansanchaek-gil
4469292	중앙로5번길	Jungang-ro 5beon-gil
4855704	장천1길	Jangcheon 1-gil



<그림 48> 교통 도로명 구분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 35〉 노학동 도로명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3223001	관광로	Gwangwang-ro
3223006	소평로	Sopyeong-ro
3223012	온천로	Oncheon-ro
3223013	이목로	Imok-ro
3223023	미시령로	Misiryong-ro
4013009	원암학사평길	Wonamhaksapyeong-gil
4013017	장성천길	Jangseongcheon-gil
4469002	관광로363번길	Gwangwang-ro 363beon-gil
4469003	관광로408번길	Gwangwang-ro 408beon-gil
4469013	노리1길	Nori 1-gil
4469014	노리2길	Nori 2-gil
4469015	노리3길	Nori 3-gil
4469016	노리4길	Nori 4-gil
4469017	노리5길	Nori 5-gil
4469018	노리6길	Nori 6-gil
4469025	도리원1길	Doriwon 1-gil
4469026	도리원2길	Doriwon 2-gil
4469027	도리원3길	Doriwon 3-gil
4469028	도리원4길	Doriwon 4-gil
4469029	도리원길	Doriwon-gil
4469030	도평1길	Dopyeong 1-gil
4469031	도평2길	Dopyeong 2-gil
4469032	도평3길	Dopyeong 3-gil
4469038	뒤틀버덩길	Dwitbeodeong-gil
4469069	바람꽃마을1길	Baramkkonmaeul 1-gil
4469070	바람꽃마을길	Baramkkonmaeul-gil
4469077	밤골길	Bamgol-gil
4469081	배움터길	Baeumteo-gil
4469101	사당골길	Sadanggal-gil
4469146	신흥1길	Sinheung 1-gil
4469147	신흥2길	Sinheung 2-gil
4469148	신흥3길	Sinheung 3-gil
4469149	짜리재길	Ssarijae-gil
4469189	울산바위길	Ulsanbawi-gil
4469190	응골길	Eunggol-gil
4469191	응동길	Eungdong-gil
4469252	척산탄봉길	Cheoksanttanbong-gil
4469253	척산양지말길	Cheoksanyangjimal-gil
4469258	청대로351번길	Cheongdae-ro 351beon-gil
4469259	청대마을1길	Cheongdaemaeul 1-gil
4469287	학사평1길	Haksapyeong 1-gil
4469288	학사평2길	Haksapyeong 2-gil
4469289	학사평길	Haksapyeong-gil
4856050	바람꽃마을3길	Baramkkonmaeul 3-gil
4856406	사당골1길	Sadanggal 1-gil
4856883	바람꽃마을4길	Baramkkonmaeul 4-gil
4859943	바람꽃마을5길	Baramkkonmaeul 5-gil



<그림 49> 노학동 도로명 구분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5. 기념물(記念物)

가. 유정충 선장 동상

속초시 청호동 550-17 신수로 남쪽 해변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 뒤편에 최초 건립하여, 교동 노총회관 옆으로 이전하였다가 2018년 6월 22일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1990년 3월 1일 제주도 남방 370마일 동지나해(東支那海)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강풍과 4m의 거센 파도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선원 21명을 탈출시키고 긴급구조를 요청한 후 자신은 하나호와 같이 운명한 유정충(劉禎忠) 선장의 동상으로 1991년 1월 9일 제막(除幕)되었다.

‘하나號 船長 劉禎忠 像’ 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座臺) 위에 유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혼자 남아 한 손에는 무전기로 긴급구조 신호를 요청하고 또 한 손은 방향키를 잡고 있는 모습을 구리 조각으로 형상화하였다. 앞면과 뒷면과 각각 <동상 건립문>과 <추진위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사진 172> 유정충 선장 동상

<동상 건립문>

劉禎忠 船長은 1990년 3월 1일 13시 51분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海域에서 漁精作業中 갑자기 밀어 닥친 돌풍에 휘말려 배가 危機를 당하자 船員 21名을 救出하려는 일념에서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통신기가 作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602하나호 침몰중 ...'이라는 말을 남긴 채 愛船과 함께 水葬되었다. 그는 「내 한몸 받쳐 全船員을 구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평소의 殺身成仁 精神을 몸소 실천하였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同僚船員을 救한 高貴한 그의 業을 기리기 위해 李相龍 江原道知事의 周旋으로 道民의 뜻을 모아 여기 이 像을 세운다.

1990년 12월 30일

故 劉禎忠 하나호船長 紀念事業推進委員會 세움
故 劉禎忠 하나호船長 紀念事業 推進委員
委員長 水協中央會 江原道支會長 許仁九

江原道東海出張所長 朴千洙	高城郡水産業協同組合長 徐成福
江陵市長 安載憲	束草市水産業協同組合長 韓基鍾
東海市長 金昇來	襄陽郡水産業協同組合長 金東淵
束草市長 洪淳紉	溟州郡水産業協同組合長 鄭昌洛
三陟市長 韓尙澈	東海市水産業協同組合長 金鳳秀
高城郡守 洪淳侁	三陟 水産業協同組合長 崔昌奎
襄陽郡守 鄭溟時	
溟州郡守 金昌壽	製作
三陟郡守 崔竣益	春川教育大學 教授 李吉鍾

또한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속초시 엑스포공원 호수변에 있던 동상을 고인이 생활하였던 청호동으로 옮겨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고자 한다는 비문을 새겨 넣었다.

나. 망향탑(비)

1) 영흥군민회묘지

재속초 영흥군민회에서 속초시 교동 산290-10에 설치한 묘지석으로 가로 49cm, 세로 119cm, 두께 14cm이다. 1966년 11월 5일 임야 12,701m²(3,482평)에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1968년 11월 5일 묘지석을 건립하였다.

묘비명은 앞면 오른쪽에 “在束草市” 가운데 “永興郡民會墓地” 왼쪽에 “西紀一九六八年十月五日建立” 이라 새겨져 있다.



<사진 173> 영흥군민회 묘지



<사진 174> 영흥군민회 망향탑

2) 영흥군민회 망향탑

재속초 영흥군민회에서 1979년 8월 추석에 속초시 교동 산290-10에 건립하였으며, 비신에 ‘망향탑’ 이라 양각되어 있으며, 3단 기단의 2단 중앙에 비문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목 놓아痛哭하며 발구르며 외쳐 보았네 來日이면 간다더니 벌써 三十星霜가고 굽이쳐 흐를 龍興江을 回想하며 이땅 永郎湖邊에 자리잡은 이 東山에 望鄉의 설움 안고 이 塔을 세우노니 北녘 하늘 가는 저 구름아 恨 많은 이 설움 傳해다오.

西紀 1979年 8月 秋夕

在 束草 永興郡民會 會長 金致龍

기단 배면에는 찬조하신 분으로 김치룡 외 62명의 이름이 오석에 새겨져 있다.

3) 함흥시민회 망향탑

속초시 교동 산304 번지에 함흥시민회에서 건립한 ‘망향탑’ 으로 탑의 상층부는 절단되어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다.

함흥시민회에서는 1978년 5월 6일 회원들의 공동찬조금으로 임야 23,802m²(7,200평)에 ‘망향동산’ 을 조성하고, 다음 해 11월 21일에 ‘망향탑’ 건립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다.

매년 정기총회와 함께 ‘망향제’ 를 올리며, 한식과 추석에는 소제도 올리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1997년에 ‘망향동산’ 의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처분하고, 같은 해 3월 5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6번지 임야 12,248m²(3,705평)를 구입하여 새롭게 묘원을 조성하고, 다음 해에 ‘망향탑’ 을 건립하게 되었다.



<사진 175> 함흥시민회 망향탑



<사진 176> 이전 건립 함흥시민회 망향탑

현재 탑의 전면(前面)에는 ‘故鄉頌’ 과 우측면(右側面)에 ‘망향동산’ 의 위치, 면적, 공로자 및 준공일을 그리고 배면(背面)에는 ‘망향탑’ 건립을 위한 기금찬조자 명단이 오석(烏石)에 음각(陰刻)되어 있는데, 李時坤외 24명이 25만원~3만원까지 찬조하였다.

탑의 전면과 우측면에 새겨진 ‘고향송(故鄉頌)과 ‘망향동산’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故鄉頌

盤龍山の 精氣어린 莊嚴한 偉容
 馳馬臺의 悠久한 옛情趣
 城川江의 여울과 關北第一의 銀盤
 萬歲橋에 물결치던 대보름의 人波
 다시 東으로 瑚璉川의 白沙
 白鷺에 덮인 定和陵의 雅趣
 歸州寺의 단단한 鍾소리
 온 누리를 어루만져거늘,
 斷腸의 애닦음이어! 내고장 咸興
 그대 지금 어이되어 있는지.....
 이제 버려진지 於焉 三十星霜
 오늘 그恨을 씻고 祖上들의
 넋을 달래며 나그네가 한데모여
 이에 望鄉塔을 세워 後世에 남기노니
 永遠하여라 내 江山아!

雪春

一九七八年 十一月 日 在束 咸興市民 一同
 咸興市民會
 共有墓地：束草市校洞山參百四番地
 面 積：貳萬參仟八百貳m²(七仟貳百坪)

功勞者

會 長 楊大吉 副會長 安承贊 副會長 李鍾熙
 理 事 李燮鳳 理 事 金白煥 理 事 白根鍾
 理 事 朱景漸 理事兼總務 吳啓鎬

一九七八年 十二月 日 竣工

1998년 3월 도로 확장과 주변 개발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 66번지에 망향동산을 새롭게 조성하고, 다음 해인 1999년 망향탑을 건립하였다.

4) 신포향원 향원비

속초시 장사동 산201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지구 신포읍민회에서 임야 27,174m²(8,220평)을 구입하여 망향원(望鄉園)을 조성하고 건립한 비이다.



<사진 177> 함흥시민회 망향탑

비신 앞면에 세로로 ‘鄉苑碑’, 기단 중앙에 ‘望鄉千里’, ‘在東草新浦邑民會’ 이라 두 줄로 음각되어 있다.

당초 1975년 4월 설립되었다가 1983년 10월 14일 현 위치로 이전하였는데 ‘설립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設立委員

梁相鎭, 金南豹, 崔仲求, 韓時鍾, 文振善, 河基潤, 崔仲淵, 金春植, 李光春

一九七五年 四月 日 建立

5) 신포향원 망향탑

이 망향탑은 원형 기단 위에 한반도 지형을 상징하는 오석(烏石)에 남과 북으로 헤어져 신포향원이 두 손을 맞잡으려 뻗은 팔을 조각한 사각의 문과, 굽어진 허리의 노인을 상징하는 투각(透刻)된 동관을 배경으로 한다. 북쪽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3명의 동상과 의자와 지팡이가 세워져 있으며, 바닥에는 이북5도(以北五道: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상징하는 도기(道旗)가 새겨져 있다.



〈사진 178〉 실향민 망향탑 전경

이 탑은 최초 2007년 7월 22일 속초시 설악산 입구 해맞이공원에 건립되었으나, 김철수(전, 속초시장)의 제안으로 속초지구 함경남도 도민회와 영북지구 이북도민연합회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향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바이마을(신포마을) 앞 현 공원부지(속초시 청호동 550-13)로 이전하였다. 2021년 6월 23일 실향민문화축제 개막식 행사의 일환으로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

탑의 배면 왼쪽에 아래와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오른쪽에 이 탑의 제작자인 신동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인생사 참으로 덧 없어라
 한 핏줄끼리
 남과 북으로 갈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형제의 손을 놓고 내려와
 한 때라 다짐하고 앓은
 이곳에 터 잡으니
 속초가 고향이 되었도다.
 포화가 멈춘 지 어언 50여년
 떠나간 세대의
 녀과 망향의 한을 기리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
 여기 탑을 세우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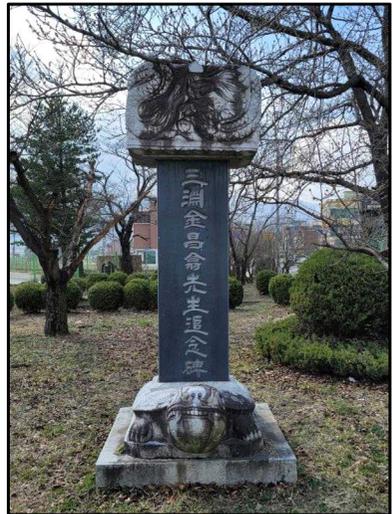
2007년 정해년(2007. 7. 22)
 속초시 영북지구 이북도민회

다.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三淵金昌翁先生追念碑)

속초시 노학동 348-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념비의 귀부(龜部)는 88cm×168cm×32cm이고, 비신(碑身)은 47cm×147cm×24.5cm이며, 이수(耳首)는 82cm×55cm×58cm이다.

이 추념비는 조선후기의 유학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자 건립한 것이다. 김창흡의 본관(本官)은 안동(安東)이요, 자는 자익이고, 호는 삼연이다. 서울 출신으로 좌의정을 역임한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자이고 영의정을 역임한 김수항(金壽恒)의 셋째 아들이다. 형은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과 예조판서와 지돈녕부사를 역임한 김창협(金昌協)이 있다.

15세에 이단상(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현종 14년(167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그 뒤로는 과장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동지들과 글을 읽으면서 산수를 즐겼다.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사사(賜死)되고, 경종 2년(1722) 신입사화로 형 김창집이 사사되자 그는 한 때 설악에 은둔하였다. 물소리 바람소리로 흥진(紅塵)을 씻으면서도 문득 외설악의 위대한 자태와 동해가 그리우면, 속초에 나와 향사(鄉士)들과 어울려 시회주(詩會酒)를 즐겼다고 한다.



이를 추념하여 1982년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속초문화원에서 건립하였으며, 김창흡의 “비폭층담(飛瀑層潭)”과 “소야팔경(所野八景)”을 새겼으며, 비문 아래와 같으며 윤홍열(尹弘烈)이 짓고 김철홍(金澈洪)이 썼다.

<사진 179>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

三淵 金昌翕 一六五三 一七二二

그의 家門이 權門勢家이었기에 黨爭의 傷處도 컸다. 장희빈과 얽힌 己巳換局에 父는 宋時烈과 함께 賜死되고 仲伯父 또한 謫所에서 죽는 등으로 처참한 家難을 當하였다. 當代의 뛰어난 學者요 詩人이었던 三淵先生은 끔찍한 宦海風波가 싫어 內雪嶽에 들어와 永矢菴을 어리다 물소리 솔바람으로 紅塵을 씻으면서도 문득 外雪嶽의 雄姿와 東海의 滄波가 그리우면 束草에 자주 와서 鄉士들과 어울려 詩會酒를 즐겼다. 三淵이 간지 四半千餘年 山川은 변하였으나 그 情이 그리워 그의 飛瀑層潭과 所野八景을 새겨두고 그를 追念하고자 한다.

飛瀑層潭

瓊臺俯金潭 右扇排青嶂 融時備衆妙 豈惟勢奇壯
名山蠟屐遍 始愜丹丘想 欲落金剛岩 驚吁更拄杖

所野八景

舟橋夜火 溫井朝霞 青岱畫屏 青湖磨鏡
論山朝陽 蘆洞明月 梨洞白雪 鳥島歸帆

西紀 一九八二年 九月 二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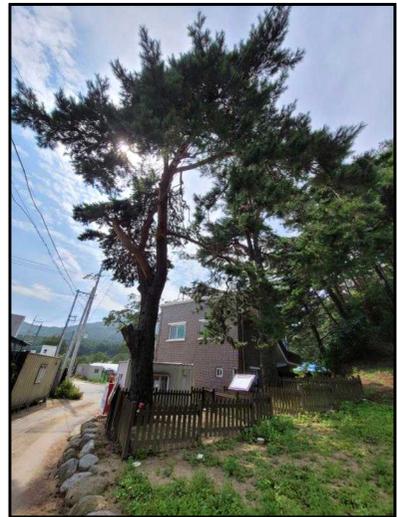
라. 보호수(保護樹)

1) 노학동 3통 2반 속초시보호수 3호

속초시 노학동 3통 2반 880-4번지 척산 경로당 옆에 있는 소나무로 수령은 약 150년이며 나무 높이가 16m, 둘레 2.6m, 수관폭 15m이고 1982년 11월 13일 속초시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 노학동 3통 2반 속초시보호수 4호

노학동 마을나무와 동일한 위치로 나란히 서 있는 소나무로 수령은 약 150년이며 나무 높이가 17m, 둘레 2.5m, 수관폭 16.3m이고 1982년 11월 13일 속초시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진 180> 속초시보호수 제3, 4호

3) 노학동 2통 2반 속초시보호수 1호

노학동 2통 2반 569-1번지 노리 송림에 있는 소나무로 수령은 약 400년이며 나무 높이가 21m, 둘레 3.5m, 수관폭 15m이고 1982년 11월 13일 속초시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4) 노학동 2통 2반 속초시보호수 2호

노학동 2통 2반 569-1번지 노리 송림에 있는 소나무로 수령은 약 400년이며 나무 높이가 21m, 둘레 3.0m, 수관폭 9m이고 1982년 11월 13일 속초시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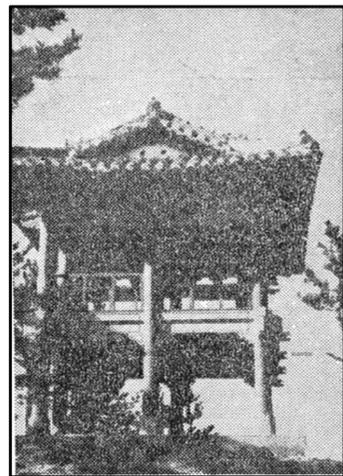
<사진 181> 속초시보호수 제1호



<사진 182> 속초시보호수 제2호

마. 용초정(龍草亭)

속초시 청호동 앞 바다 조도(鳥島)에 있었던 정자로 이용(李龍)이 강원도지사로 재직할 때 조도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 자와 속초의 ‘초(草)’ 자를 써서 정자 이름을 용초정(龍草亭)이라 붙였다. 이로 인하여 조도를 용초도(龍草島)라고도 불렀다.¹⁹¹⁾ 당시 경향신문에는 속초 용초정 준공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속초읍에서 관광객을 위해 용초정을 건립했는데 총공사비 37만 8천 원을 들여 1962년 5월에 착공해서 1962년 12월 22일에 준공함으로써 용초정은 제2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설악산 관광객들의 유원지로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¹⁹²⁾



<사진 183> 용초정

현재 정자는 헐리고 그 자리에 조그마한 등대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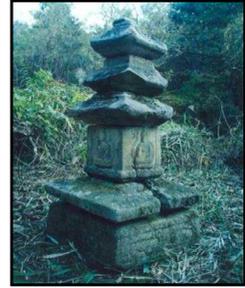
191) 속초시(1991), 앞의 책, 1207쪽.

192) 「경향신문」, 1962. 12. 26일자.

6. 문화재(文化財)

가. 속초 노학동 3층 석탑(束草盧鶴洞三層石塔)

- 지정별 : 강원도 문화재자료
- 지정일 : 2000년 1월 22일
- 소재지 : 속초시 노학동 산433번지
- 시 대 : 고려시대 중기



설악산 수련원에서 달마봉 쪽으로 약 30분 정도 오르면, 한적한 절터에 이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석탑은 단층(單層)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1층 탑신과 지붕돌[옥개석(屋蓋石)]은 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2층 지붕돌과 3층 탑신, 3층 지붕돌과 노반(露盤)은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고, 2층 탑신은 없어졌다.

탑의 가장 큰 특징은 1층 탑신의 4면에 사방불(四方佛)을 조성한 점이다. 연꽃 받침 위에 원형 머리 빛[두광(頭光)]과 몸 빛[신광(身光)]을 갖춘 좌상(坐像)을 조각하였는데,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상을 알 수는 없지만, 안정감 있게 돌을새김[부조(浮彫)] 되었다.

강원 영동지방의 석탑 중에서 사방불이 조각된 귀중한 석탑으로, 조성 수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높이는 1.8m이다.

석탑을 중심으로 약 200평의 대지가 마련된 점과 기와 조각과 석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암자터로 추정된다. 신흥사(神興寺)의 부속 암자인 소림암(小林庵) 터라고도 하지만 현 위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¹⁹³⁾

이 석탑은 1매의 지대석 상면에 1매의 석재로 구성된 기단을 놓았다. 각 면에는 상·하에 음각선으로 구획을 나눈 후, 각 면 2구씩의 안상(眼象)을 조각하였다. 기단의 상면에는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갑석을 놓았다. 갑석의 상면은 네 모퉁이의 합각선이 뚜렷하여 경사를 이루고 있고,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받침을 조각하였다.

탑신부는 1층 탑신 만이 1석으로 조성되었고, 1층 지붕돌, 2층 지붕돌과 3층 탑신, 3층 지붕돌, 노반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의 4면에는 양(兩) 우주(隅柱) 및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다.

19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유산검색/우리지역문화재 참조.

사방불은 2중의 원형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구비한 좌상이다. 마멸이 심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현상으로 보아 소발(素髮)로 보이는데, 육계(肉髻)가 표현되어 있다. 상호는 살이 오른 둥근 형태로 일자형의 눈, 코, 입, 짧은 귀가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하다.

법 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두껍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슴에는 V자형의 의문이 보이고 있다. 양손은 배꼽 부근에 모으고 있어 선정인(禪定印)을 결(結)한 것으로 보인다.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무릎 하단에는 복엽(複葉) 16판의 양연(仰蓮)이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대좌(臺座)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마멸되어 정확한 형상을 살필 수 없지만, 안정감 있게 되었다.

1층 지붕돌은 하면에 낮은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이 조각되었는데,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함각선이 두툼하여 둔중감(鈍重感)을 주고 있다. 2층 탑신은 결실되었고, 상면에 3층 탑신과 일석으로 조성된 2층 지붕돌이 놓여 있다. 지붕돌의 하면에는 각형 3단의 받침이 조각되어 있는데, 낙수면의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해 둔중감을 주고 있다.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받침 위에 양 우주가 모각(模刻)된 낮은 3층 탑신이 있다. 3층 지붕돌은 1·2층과 같은 형태인데, 하면에 각형받침 대신 단판 연화문을 조각하고 있다. 지붕돌의 상면에는 반파된 노반석 및 지름 5.5cm, 깊이 1.5cm의 원형 찰주공이 있다.

이 석탑은 영동지방의 석탑 중 사방불이 조각된 귀중한 일례로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층석탑 외에 초석으로 보이는 70cm×32cm, 42cm×40cm 크기의 장방형 석재와 길이 5.5m, 높이 90cm의 석축이 남아있다.¹⁹⁴⁾



<사진 184> 1층 탑신 사방불 돌을새김 전경

194) 강릉대학교 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121~123쪽.

나. 속초사자놀이

- 지정별 : 강원도 무형문화재
- 지정일 : 2019년 3월 8일
- 시 대 : 근대

속초사자놀이는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희 된 사자놀이가 넘어온 이주민속(移住民俗)의 하나로 그 원형이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속초사자놀이는 정월대보름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마을공동체와 함께했던 마당놀이와 동네돌기(길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벽사진경의 의미와 가가호호를 순회하며 놀이를 펼치는 연희적 요소가 잘 조화되어 있다.

속초는 실향민의 고장으로 함경도 민속문화와 언어가 중단되지 않고 계승되고, 함경남도 출신 최다 집거지인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중심으로 실향민 1세와 2세대들이 합심하여 사자놀이를 전승시키고 있다.¹⁹⁵⁾

2022년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된 한국의 탈춤에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하나로 속초사자놀이가 함께 등재되었다.



<사진 185> 속초사자놀이

19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유산검색/우리지역문화재 참조.

7. 주요 기관 및 시설

가. 행정기관

1) 교동(校洞)주민센터

교동은 1966년 동제(洞制)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 현재 교동은 1998년 10월 17일 청학동과 교동 일부 지역이 통합되어 행정구역이 개편된 것이다. 보통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校洞)이라고 하나, 속초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당시 속초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속초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지역 특성은 속초시 중심가에 있는 지역으로 금융기관, 병·의원, 상가 등 다양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과 고지대 서민층 밀집 주거환경 지역으로 상반된 지역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진 186〉 교동주민센터

2) 청학동(靑鶴洞)주민센터

청학동은 1966년 동제를 실시할 때 속초리(束草里)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 다른 쪽을 교동이라 하였다. 청학동은 중앙동·금호동·조양동·청호동과 함께 청초호를 둘러싸고 있는데 청초호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998년 행정동 통합 때 교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면적은 0.26km²로 금호동과 접하고 있으며, 동(洞)을 가로지르는 변영로·수복로·중앙로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청학동에 있는 청학시장은 예전에 속초리 6구에 있었다고 하여 6구시장이라 불리다가 6구가 청학동으로 바뀔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6구시장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청학동에는 일명 노가리촌이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언덕 위 높은 지대에 노가리를 말리는 건조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3) 청호동(靑湖洞)주민센터

청호동은 조선시대에는 양양군 소천면·속초리(束草里)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인데, 1914년 행정구역 변경 때 도천면[속초면(읍)]에 편입되었고, 1942년에 속초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를 일구(一區)에서 사구(四區)까지 4개 구(區)로 나눔에 따라, 속초리 삼구(三區)의 지역이 되었다.

8·15 광복 후 북한지역이었다가 수복되어 삼구에서 이곳을 떼어 속초리 오구(五區)·속초 오구·오구 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란민 중에 특히 노인분들이 많았으므로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라는 말을 써서 속칭으로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하였다. 1966년 속초시 동제 실시에 따라 청초호의 이름을 따서 청호동으로 개칭하였다.

지역 특성은 북쪽에 속초항이 있고 서쪽에 석호(瀾湖)인 청초호를 끼고 있으며, 동쪽에 동해가 있어 북·동·서쪽의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남쪽만 육지에 이어지는 작은 반도처럼 된 지역이다. 동쪽에 새섬(조도)이라는 섬이 있고, 동남쪽 동해변에 속초해수욕장이 있다.

1998년 10월 17일 동 통합 이후 항만이 접한 소반도형인 기존 청호동 지역과 1968년 재해주택 밀집지역인 구 조양동 새마을 지역으로 통합된 개발 낙후지역이었으나, 신수로 개설로 미리내마을 조성, 청호대교 건설, 관광선 부두 등이 건설되었다.



<사진 187> 청호동주민센터

4) 노학동(蘆鶴洞)주민센터

노학동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蘆鶴)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는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의 4동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가 신설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으로 명명되었다. 현재는 1998년 10월 17일 동 통폐합으로 (구)교동 일부를 병합하여 도농 복합 행정동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 특성은 1998년 읍면동 통폐합으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행정기관, 각급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속초시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뛰어난 자연 풍광으로 연수원, 콘도, 온천장,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물론 순두부, 토종닭요리, 딸기 등 지역 먹거리와 교동먹거리촌, 학사평순두부마을, 척산토종닭마을, 응골딸기마을 등 다양한 테마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



<사진 188> 노학동주민센터

5) 속초소방서

1977년 12월 대통령령 8753호에 따라 강원도 속초시에 문을 열었다. 강원도 교칙에 의거 1995년 3월 15일 관할 구역이 인접 고성군, 양양군으로 확대 조정되었다. 본부에는 소방서장 아래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등 2개 과가 있고, 2008년 8월 현장대

응 기능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지휘대(현장지휘과)를 신설했다. 현장지휘대는 119 구조대와 설악119산악구조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노학, 영랑, 간성, 양양, 거진, 동광, 현남북 등 7개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다.

현재 조직은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과 등 4개 과와 3개의 119안전센터(노학, 영랑, 설악)와 1개의 구조대(119)를 산하에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화재 예방 및 진압, 구급 활동 등이며, 특히 설악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지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어 신속한 산불 진압 지원 및 각종 산악재난사고에 대비한 응급 대응 체제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⁹⁶⁾



〈사진 189〉 속초소방서

6) 속초경찰서

속초경찰서는 1954년 11월 24일 양양경찰서로 시작하여 1957년 3월 5일 양양경찰서 속초지서를 신설하였다. 1963년 10월 26일 속초시 승격으로 속초 이전 및 속초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한 후 1995년 1월 27일 직제 개정으로 지서에서 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4월 6일 현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한 후 2003년 4월 2일 파출소를 순찰지구대 변경(북부, 중부, 남부)하고, 현남특수파출소를 운영하였다. 2003년 8월 1일 현북치안센타를 현북파출소로 승격하고 2010년 4월 27일 강현치안센타를 강현파출소로 승격한 후 2013년 11월 20일 서면파출소를 신설하였다. 2023년 양양지구대가 양양경찰서 승격으로 분리 예정이다.

조직은 7개 과 20개 팀, 3개 지구대, 4개 파출소, 3개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196)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사진 190> 속초경찰서

7) 속초세무서

속초세무서는 1968년 9월 강릉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되어 운영하다 1971년 4월 속초 교동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85년 4월 직제를 개편하여 2급지로 승격하여 운영하면서 4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조직은 6개팀(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체납징세과 조사팀, 세원관리과 부가팀, 세원관리과 소득팀, 세원관리과 재산법인팀)과 2실(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191> 속초세무서

나. 교육기관

1)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1950년 12월 2일 수복과 동시 양양군 자치위원회에 학무계를 두고 교육행정을 관장하다가 1954년 11월 17일 교육감을 양양군수가 겸임하고 학무과, 서무과를 두어 운영하였다. 1957년 7월 1일 양양군교육청사를 준공하였고 1963년 1월 1일 속초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다. 1966년 5월 6일 구 속초읍사무소(현시청)자리로 이전하였다가 1967년 10월 7일 속초국민학교 B동 2층으로 이전하였다. 1968년 4월 13일 속초시교육청이 속초시 교동 665-7에 준공하였다가 1973년 1월 1일에 속초시교육청에 양양군교육청이 통합되었다.

1991년 3월 8일 강원도 속초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4년 12월 24일 강원도 속초교육청 신축공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2006년 3월 1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0년 9월 1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5년 3월 1일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미래상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 이고 교육 지표는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 이다. 5대 교육 방향으로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산하 교육기관으로 속초시에 단설유치원 3, 병설유치원 6, 초등학교 12, 중학교 4, 고등학교 3, 특수학교 1을 두고 있으며, 양양군에 단설유치원 1, 병설유치원 13, 초등학교 13, 초등분교장 3, 중학교 4, 고등학교 1을 두고 있다.



<사진 192> 강원도속초교육청(1968년)



<사진 193>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2022년)

2) 경동대학교(동우대학)

동우대학(東宇大學, Dongu College)은 우당 전재욱 박사가 학교법인 동성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80년 12월 속초경상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및 충효인경(忠孝仁敬),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정신과 진(眞), 성(誠)의 교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초대학장에 한상갑(韓相甲)이 취임하여 경영과·무역과·행정과·세무회계과·관광과·식품영양과·유아교육과를 설치하였다.

1982년 의상과, 1984년 전자계산과, 치기공과·간호과, 1985년 치위생과를 증설하고 무역과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 동우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8년 3월 당시 경영과·세무회계과·행정과·관광과·식품영양과·유아교육과·여성교양과·전자계산과·사무자동화과·사진과·수산개발과·치기공과·치위생과·간호과의 14개 학과로 구성되었다.¹⁹⁷⁾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일대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했으나, 학교 경영 정상화 불가로, 2013년 3월 1일, 동우대학은 경동대학교와 통합되었다. 동우대학의 캠퍼스는 현재 경동대학교 설악제2캠퍼스(Global캠퍼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을 추진하며 조성한 원주시 문막읍 일대의 부지는 경동대학교 원주문막캠퍼스(Medical캠퍼스)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194> 동우대학 전경



<사진 195> 동우대학 전경

3) 초등학교

가) 청호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는 1958년 4월 13일 개교하여 운영하다 1971년 4월 6일 조양초등학교를 분리하였고 1979년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교훈은 ‘바르고 튼튼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이며, 교목은 해송, 교화는 해당화이다. 2021년 12월 31일 제64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6,279명을 배출하였다.

197)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사진 196> 1950년



<사진 197> 1960년



<사진 198> 1980년



<사진 199> 2000년



<사진 200> 2010년



<사진 201> 2022년

나) 온정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는 1951년 9월 19일 속초초등학교 노리분교로 인가를 받은 후 개교하여 1953년 7월 1일 설악국민학교로 다시 인가를 받았다. 1965년 11월 15일 온정국민학교로 개명하였고, 1996년 온정초등학교로 다시 개명하였다.

교훈은 ‘사랑과 꿈이 있는 즐거운 학교’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해당화이다. 2022년 1월 12일 제68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3,349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02> 1974년



<사진 203> 1981년



<사진 204> 1987년



<사진 205> 2015년



<사진 206>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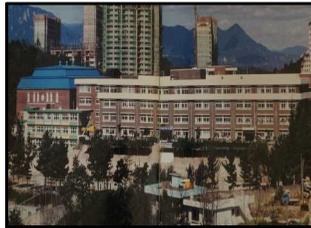
다) 교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는 1969년 10월 2일 교동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96년 교동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교훈은 ‘스스로 배우고 튼튼하게 자라서 바르게 행하자’이며, 교목은 향나무, 교화는 개나리이다.

2022년 1월 11일 제53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12,780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07> 1981년



<사진 208>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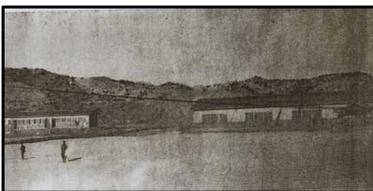
<사진 209> 2022년

라) 속초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는 1951년 10월 8일 속초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52년 5월 23일 제1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35명)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 사이에 학교분할(영랑초, 청호초, 중앙초, 교동초)을 실시하였고 1981년 3월 10일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96년 3월 1일 속초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교훈은 ‘스스로 배우며(자주인) 슬기롭게 생각하는(창조인) 성실한 어린이(도덕인)’이며, 교목은 주목, 교화는 장미이다.

2021년 12월 27일 제71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20,803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10>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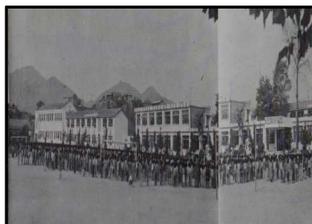
<사진 211> 1958년



<사진 212> 1963년



<사진 213> 1969년



<사진 214> 1975년



<사진 215> 1984년



<사진 216> 1997년



<사진 217> 2005년



<사진 218> 2022년

마) 소야초등학교

소야초등학교는 1999년 10월 20일 신설학교 설립을 확정하고 2002년 학교 명칭을 소야초등학교로 확정된 후 2002년 10월 4일 개교하였다. 교훈은 ‘꿈과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소야 교육’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산국화이다.

2020년 1월 7일 제17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1,807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19> 2004년



<사진 220> 2022년

바) 청대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는 1995년 7월 12일 18학급 설립인가를 받고 1997년 4월 1일 개교하였다. 교훈은 ‘마음은 넓게,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금낭화이다. 2020년 2월 17일 제23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3,755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21> 1997년



<사진 222> 2000년



<사진 223> 2003년



<사진 224> 2022년

4) 중학교

가) 속초중학교

속초중학교는 1951년 10월 16일 속초중학교로 3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교훈은 ‘나날이 지혜롭게 살자’ 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철쭉이다.

1961년 9월 8일 24학급으로 증설하고 1994년 3월 1일 26학급 증설 인가를 받은 후 1994년 5월 1일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2021년 1월 12일 제70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22,920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25> 1954년(1회 졸업)



<사진 226> 1966년



<사진 227> 1994년



<사진 228> 1995년



<사진 229> 2022년

나) 설운중학교(설악여자중학교)

설운중학교는 1971년 1월 16일 설악여자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교훈은 ‘깨끗하고 성실하며 지혜롭게 살자’ 이며 교목은 은행나무, 교화는 개나리이다.

1974년 1월 11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1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95년 12월 28일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강원행복더하기 학교로 선정되어 운영하다 2019년 3월 1일 설운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였다.

2022년 1월 4일 제49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14,540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30> 1971년



<사진 231> 2015년



<사진 232> 2022년

5) 고등학교

가) 속초여자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는 1963년 2월 22일 속초여자고등학교(속초여중 병설 3학급)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교훈은 ‘근면 성실’ 이고 교목은 향나무, 교화는 석류이다. 1963년 3월 20일 6학급으로 증설 인가를 받고 1970년 병설학교 분리 인가를 받았다. 1972년 1월 4일 속초여자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1973년 9월 27일 속초여자고등학교로 다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984년 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2021년 12월 31일 제56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17,936명을 배출하였다.



<사진 233> 1963년



<사진 234> 1970년



<사진 235> 1984년



<사진 236> 2000년



<사진 237> 2010년



<사진 238> 2022년

다. 종교시설

1) 춘천교구 교동성당

교동성당은 1967년 1월 1일 속초 동명동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초대 신부는 오브라이언 안토니오 신부이다. 1964년 9월 3일 동명동 본당의 페리 신부는 신설 본당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1966년 5월 11일 춘천교구장직을 사임한 퀸란 주교를 상주시켜 성당 신축을 돕도록 하였다. 1966년 12월 20일 성당·사제관·강당·수녀원을 준공하여 본당으로 정식 설립되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분원을 개설하였고, 1968년 3월 12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안토니오 학원을 개원하였다. 1992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성모상·성모서원·만남의 집·안당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안당의 집에서는 한글교실과 교리교실이 열린다.¹⁹⁸⁾



〈사진 239〉 교동성당



〈사진 240〉 청호동성당

2) 춘천교구 청호동성당

청호동성당은 교동본당의 관할 공소로 시작하여 1991년 11월 1일 청호동 준본당으로, 1994년 4월 19일에는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준본당으로 승격될 당시의 주보는 ‘평화의 모후’ 였으나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으로 주보를 변경하였다. 또한 새 성전을 봉헌하면서, 다시 ‘바다의 별’로 주보를 변경하였다. 6·25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항민들이 북녘땅을 바라보며 거주함으로써 형성된 청호동 지역의 복음화는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 속초의 중심지 동명동에 건축된 속초성당(현 동명동성당, 1952년)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청호동성당은 인근에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속초 해수욕장이 있으며 청호

198)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동 외에 조양동, 대포동 일부를 그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조양동은 부영·성호·주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여 교동본당 관할이었던 이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되었다. 1987년 10월 19일 경당 축성식을 거행한 후 교동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다. 공소로 시작한 지 4년만인 1991년에는 준본당으로 승격되었고 골룸반 외방선교회 사제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준본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 해에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본당으로 승격된 후인 1996년 5월 14일에는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제관 수리 및 성당 건축을 위한 준비 및 본당의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그해 9월부터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지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폭넓게 나아가야 함을 일깨웠다. 청호동성당은 2015년 8월 24일 김운희 루카 주교의 집전으로 현재의 새 성전 헌당식을 거행하고 오늘에 이르렀다.¹⁹⁹⁾

3) 중앙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는 1952년 10월 20일 속초지역에 장로교회를 설립하고자 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한 후 1952년 11월 9일 16명이 모여 창립하였다. 제1차 교회당 헌당은 1952년 12월 14일 당시 속초 4구 647-27번지의 기와집 1동(35평)을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헌당하고 1959년 4월 24일 청학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교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1994년 1월 5일 청학동으로 합병한 후 1994년 4월 14일 현 건물을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사진 241> 1953년



<사진 242> 1959년



<사진 243> 2022년

199) 천주교 춘천교구 홈페이지 참조.

라. 문화체육 시설

1)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의 역사와 실향민들의 문화를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2005년 11월에 개관했다. 이곳은 속초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으로 구분된다.

2개의 전시 공간을 갖춘 박물관은 제1전시실에 구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 유적인 청호동 유적과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외옹치 유적의 발굴유물과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지인 조양동 유적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은 어촌민속자료와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를 주제로 실향민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제3전시실에는 ‘우리 조상의 삶과 도구’를 주제로 한 어린이 민속 체험공간이 있다.

실향민문화촌에는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집, 황해도집, 함경도집 등 이북 5도 가옥과 함께 실향민들이 정착한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초기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홍남탈출’을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체험장이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어 매일 2회의 속초시립풍물단 공연이 펼쳐진다.

발해역사관은 지상 1층에 발해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한 ‘해동성국 발해관’과 지하 1층에 정효공주 고분벽화를 재현한 ‘발해고분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박물관 동쪽으로 ‘노리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사철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전망쉼터와 파고라와 함께 숲속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다.



〈사진 244〉 속초시립박물관 전경

2) 국립산악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은 한국의 등산 역사와 문화, 등반 기록 등을 재조명하여 한국 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악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 8일 개관하였다. 총면적 3,789㎡, 건축면적 1,80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다. 한국 산악의 역사, 인물, 문화 관련 자료를 5천 점 이상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암벽 등반, 고산 체험 등의 체험형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의 기획전시실과 3층의 상설전시실, 2층의 체험형 교육시설이 있다. 상설전시실은 총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산과 관련된 역사, 인물, 문화를 다룬다. 제1전시실은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등반 역사를, 제2전시실은 한국 주요 산악인 50여 명의 업적과 산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제3전시실은 한국 산악 문화의 기원과 전통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체험형 교육 시설로는 산악교실, 고산 체험실, 암벽체험실이 있다. 산악교실에서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악인전, 등산과학, 산악문화, 산악역사 및 산행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고산 체험실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고 온도가 낮은 고산환경과 가상현실(VR)을 통해 고산 등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암벽체험실에서는 실내 암벽 등반을 해볼 수 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후기 『산경표』 필사본, 산림청 정책 및 식목일 관련 자료, 한국 주요 산악인들의 등산 장비 등이 있다.

부대시설은 주요 전시실 및 체험 시설 외에 로비, 복도 등의 공간을 활용해 작은 전시와 조형물, 영상 자료 등을 비치하였으며, 1층 영상실을 통해 산악 다큐멘터리와 영화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상영한다. 이외에도 북카페, 옥상정원, 야외공연장 등이 마련되어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다.²⁰⁰⁾



〈사진 245〉 국립산악박물관

200)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3)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12월 7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제정 조례를 공포한 후 1999년 12월 11일 속초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1999년 12월 24일 설립 등기를 취득하여 2000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당시 사업은 공영주차장(대포 I 주차장 외 5개소) 수탁운영, 전인사업 수탁운영, 종합경기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수탁운영, 장묘시설(화장장, 봉안당) 수탁운영 등이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대포입시주차장 수탁계약 체결, 청소업무수탁 운영, 종량제 규격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탁운영,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화장실·지장물에 대한 수탁계약, 인조 잔디 풋살구장 수탁계약, 설악권 순환 속초시티투어 운행, 속초 설악 야구장 수탁계약, 대포항 제2, 3주차장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2010년 이후 종합경기장(웨이트 트레이닝장) 대행사업 추가 위탁계약, 속초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청소년 카페운영, 속초해수욕장 대행사업(변경) 위탁계약(파라솔 통합운영, 속초마을버스 운영,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대행사업 위탁계약, 속초시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속초시 로데오 제1, 2 주차장 대행사업 위탁계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 전략은 고객중심 책임경영, 미래선도 혁신경영, 가치실현 믿음경영, 생명존중 안전경영이며 비전으로 “SMART 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공단” 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 246>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 속초종합운동장

4) 속초종합운동장

속초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보조경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구와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경기장인 주경기장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994년 준공되었다. 준공 이후 K리그 경기가 가끔씩 열린 바 있으며, 1999년 11월 27일에는 속초가 고향인 김주성 선수의 은퇴 경기가 열린 적도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5년 강원 FC의 제1홈경기장인 강릉종합운동장이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서 속초종합운동장이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로는 2018년 현재까지 강원 FC 홈경기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마. 세금 및 금융 시설

1) 속초세관

속초세관은 1957년 서울세관 목호출장소 속초감시서를 설치한 후 1980년 목호세관을 동해세관으로 개칭하고 2000년 동해세관 속초사무실을 개편하였다. 백두산항로(속초 ↔ 러시아 자루비노 ↔ 중국 훈춘)가 개설되면서 2001년 금강산 해상관광이 시작되어 속초항에서 취항하였고 2002년 동해세관 속초출장소가 설치되었다.

2002년 양양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 지정되었고 2005년 동해세관 속초출장소 신청사가 준공되었다. 2006년에 속초세관으로 승격되면서 2007년 고성세관이 분리되었다. 2015년 양양국제공항이 관세법상 개항 지정되어 2016년부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를 권역내 센터로 관할하고 있다.

속초세관은 환동해권 북방교역 물류중심지인 속초항의 원활한 물류흐름지원, 강원도 항공관문인 양양국제공항의 신속 정확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대북 육로 통관 등 다양한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통관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세관으로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환동해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활수산물(활게류, 조개류)이 주를 이룬다.



<사진 247> 속초세관

2) 속초수협

속초수협은 1920년 3월 도천면 어업조합이라 칭하여 대포리에 위치했었고 1953년 6월 속초어업조합으로 발족하였다. 1962년 4월 속초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 발족하고 1965년 12월 양양어업협동조합 설립으로 양양군 일원을 분할 이양하였다. 1969년 4월 신용업무를 개시하여 1972년 6월 속초어업조합으로 개칭한 후 1977년 4월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1993년 1월 동명지점(상호금융)을 개점하고 2000년 2월 신용업무를 상호금융업무로 전환한 후 이듬해 대포수협설립으로 대포 일원을 분할 이양하였다.

2015년 4월 상호금융 청호지점을 개점하고 본 청사를 청호동으로 이전한 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준공하였다. 2019년 6월 동명동 수산물직매장을 준공하고 상호금융 동명지점을 이전하였다. 2020년 7월 상호금융 성수동지점을 개점하고 2021년 9월 판매과(본소위판사업소) 사무실을 준공하였다.

조직은 지도경제상무에 총무과, 지도점사과, 판매과, 외식사업과, 사업과, 유통과, 가공과가 있고, 신용상무에 상호금융과, 공제보험과, 금융관리과, 동명지점, 청호지점, 성수동 지점을 두고 있다.



<사진 248> 속초수협

9. 지명(地名)

가. 청호동(靑湖洞)

청호동은 아름다운 호수 청초호가 있는 마을이므로 그렇게 이름지었다. 이곳은 6·25전쟁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때 운영하던 정어리 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었다.

수복 이후 피란민들의 유입으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청호동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피란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²⁰¹⁾

그중에서도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까닭으로,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마을’이라고도 한다.



〈사진 249〉 청호동 전경

금강대교(金剛大橋)

청초호 구수로(舊水路) 위에 놓여 청호동과 동명동을 연결하는 다리.

배다리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로 사주(砂洲)에 위치한 청호동 마을을 칭하는 말이다. 청초호(靑草湖)를 끼고 있어 이전에는 배로 건너 다녔으므로 배다리라고 하였다. 한자(漢字)로 써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201) 속초문화원(2000), 앞의 책, 133-134쪽.

설악대교(雪嶽大橋)

청초호 신수로(新水路) 위에 놓여 청호동과 동명동을 연결하는 다리.



〈사진 250〉 금강대교



〈사진 251〉 배다리(주교리)



〈사진 252〉 설악대교

신수로(新水路)

청초호와 동해 바다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길.

5구도선장(五區渡船場)

중앙동(中央洞)과 청호동(靑湖洞)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으로 정식 명칭은 갯배나루이다. 청호동이 예전에 5구였으므로 청호동에선 5구도선장이라고 부른다.

조도(鳥島)

청호동(靑湖洞)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말로는 새섬이고, 한자로 표기하여 조도(鳥島)이다.

이용(李龍)이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로 재직할 때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이름 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龍草島)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서 있다.



〈사진 253〉 신수로



〈사진 254〉 5구도선장



〈사진 255〉 조도

청초호(靑草湖)

중앙동(中央洞), 금호동(琴湖洞), 청학동(靑鶴洞), 교동(校洞), 조양동(朝陽洞), 청호동(靑湖洞)으로 둘러싸인 속초시(束草市) 중앙에 위치한 석호(瀉湖)이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양양(壤陽)의 낙산사(洛山寺) 대신 청초호(靑草湖)가 관동8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였다.

다른 이름으로 쌍성호, 진성호, 논피호라고도 불린다.

청호방파제

청호동 신수로변의 남쪽에 있는 방파제.



<사진 256> 청초호



<사진 257> 청호방파제

나. 청학동(靑鶴洞)

청학동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 대밭에서 쉬고 갔다’ 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사진 258> 청학동 전경

청학시장(靑鶴市場)

속초리(束草里)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靑鶴洞)으로 바뀔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이라고 불림.

청학사거리

청학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의 사거리.



<사진 259> 청학시장



<사진 260> 청학사거리

다. 교동(校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과 교동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校洞)이라고 하나, 속초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다. 따라서 향교와는 관련이 없고 속초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명명했다.



<사진 261> 교동 전경

교동삼거리

만천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삼거리. 아남프라자 앞에 위치하고 있다.

만천동(萬泉洞, 萬千洞)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던 옛 땅이름. 마을 주변이 모두 산이어서 곳곳에 물줄기가 있어 많은 샘물이 솟아나던 지역인데, 샘물의 수를 상징적으로 만 곳이나 된다고 하여 만천(萬泉)이라 함.

땅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있는데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명과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도 있다.

만천사거리

만천로에 위치한 만천동 앞 사거리. 노학동주민센터 앞이다.



<사진 262> 교동삼거리



<사진 263> 만천동



<사진 264> 만천사거리

떡거리단지

청초천 하구 변에 위치해 있는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

병풍바위

만천동 관음사(觀音寺) 뒤편에 있는 바위. 바위의 절개지가 30m 정도 병풍(屏風)처럼 펼쳐져 있다.

샘치골

국민은행연수원 뒤편의 북쪽 골짜기. 천수답(天水畓)이라 샘물을 위쪽부터 차례로 대어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사진 265〉 먹거리단지



〈사진 266〉 병풍바위



〈사진 267〉 샘치골

소야교(所野橋)

청초천(靑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 먹거리 단지 동쪽 도로에서 조양동 아파트 단지로 통한다.

엑스포1교

청초천 하구에 놓여 교동과 엑스포광장을 연결하기 위해 가설한 다리. 처음에 가설할 때는 엑스포 행사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엑스포로를 연결하며 청초호수와 가장 가까운 다리이다.

엑스포2교

청초천 하구에 놓여 엑스포광장의 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가설한 다리. 청초호 반로를 연결하며 청초교 아래쪽에 위치한 다리이다.



〈사진 268〉 소야교



〈사진 269〉 엑스포1교



〈사진 270〉 엑스포2교

청대교(靑岱路)

청초천(靑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 먹거리 단지 서쪽 도로에서 조양동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연결한다.

청초교(靑草橋), 쌍다리

청초천(靑草川) 하류에 놓여 교동(校洞)과 조양동(朝陽洞)을 연결하는 다리.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고 부른다.

청초호(靑草湖)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으로 둘러싸인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 둘레 4.3km의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는 자연 석호로 일제강점기 후반에 항구로 개발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 속사호(束沙湖), 논피호라고도 한다.



<사진 271> 청대교



<사진 272> 청초교



<사진 273> 청초호

라.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사진 274> 노학동 전경

가. 노리(蘆里)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현재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 노동리, 노리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전에는 행정상 노학동(蘆鶴洞) 지역 전체를 관할했으나,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동시에 인구 증가에 따라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로 나뉘어졌다. 그러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지역이 합쳐져서 노학동이 되었다.

노리교(蘆里橋)

노리 마을 앞에 놓여 노리(蘆里)와 청대리(靑岱里)를 연결하는 다리.

뒷버덩(後坪)

노리, 척산리, 신흥리에 걸쳐 있는 넓은 버덩. 신흥리는 뒷버덩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었던 노리에서 볼 때, 마을 뒤(북서쪽)에 위치한 버덩이므로 뒷버덩이라고 했다. 한자로 표기하여 후평(後坪)이라고도 한다.



<사진 275> 노리



<사진 276> 노리교



<사진 277> 뒷버덩

말보(末淤)

청초천 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淤). 청초천의 철다리 부근이다. 요즘은 하보(下淤)라고도 하며, 한글 이름으로는 끝보이다.

신보(新淤)

중보와 말보 사이에 새로 조성된 보(淤). 동우대학 정문 앞에 위치해 있으며, 한글 이름은 새보이다.

앞버덩

노리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 과거에는 습지대였으나, 마을이 확장되면서 모두 논으로 조성되었다. 지금은 메워져 택지(宅地), 밭 등으로 많이 변화였다.



<사진 278> 말보



<사진 279> 신보



<사진 280> 앞버덩

응골교

노리 마을 앞에 놓여 노리(蘆里)와 응골을 연결하는 다리.

중보(中湫)

청초천 중류에 설치되어 있는 보(湫). 노리교(蘆里橋) 부근에 있다.

청초천(靑草川, 노동천, 갈골내)

설악산(雪嶽山) 달마봉(達磨峰)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여러 골짜기 물을 척산(尺山)에서 합류하고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예전에는 갈골내라고 하였고, 이를 한자로 노동천(蘆洞川)이라고 하였다.



<사진 281> 응골교



<사진 282> 중보



<사진 283> 청초천

나. 응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靑岱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

두루봉

청대산(靑岱山) 서쪽 봉우리. 산봉우리가 둥글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맷돌바위

맷돌바위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맷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맷돌바위골

마을 뒤(남쪽)에 있는 골짜기.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사당골

마을 서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패를 지어 다니며 노래와 춤을 팔던 사당패들이 거쳐한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다른 설명으로 제사를 지내던 사당(祀堂)이 있었다고도 한다.



<사진 284> 응골



<사진 285> 두루봉



<사진 286> 사당골

다.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다. 한자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본래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蘆鶴洞)으로 합쳐졌다.

도리원(桃李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 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이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다른 설명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李源)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李源)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으로 추정된다.

가운데 새골(사이골)

마을 북쪽 골짜기.

도리원 앞버덩

도리원 마을 앞의 버덩.

뒷꼬댕이

마을 뒤(북쪽) 높은 지대. 마을에서 장천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의 마을 뒤쪽 높은 곳.



<사진 287> 도리원



<사진 288> 도리원 앞버덩



<사진 289> 뒷꼬댕이

사지난골

마을 뒤(북서쪽) 골짜기.

아래 새골

마을 동북쪽 골짜기.

여우바위

사지난골에 있는 바위. 바위 틈새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사진 290> 아래 새골



<사진 291> 아래 새골 입구



<사진 292> 여우바위

윗 새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라. 이목리(梨木里)

노리 북쪽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처음에는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蘆里)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되었다.

도장생이

마을 제일 끝(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도장 새기는 나무가 많아 그렇게 불렀다. 미시령로 큰길에서 이목리로 들어오다가 화장장 지나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논이 되었다.

돌배나무골

마을 입구에서 왼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동우(東宇)대학 뒤편으로 이전에는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



<사진 293> 이목리



<사진 294> 도장생이



<사진 295> 돌배나무골

무박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옛날에 무밭이 많아서 무밭골이라고 하다가 무박골로 변하였다.

밭버덩

마을 입구 왼쪽의 버덩. 바깥 버덩이 줄어서 밭버덩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샘골천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박경원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예전에는 이목천이라고 불렀다.



<사진 296> 무박골



<사진 297> 밭버덩



<사진 298> 샘골천

서낭골

마을 북쪽 골짜기. 무박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서낭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는 소나무가 있다.

서낭봉

서낭골에 있는 봉우리.

아랫 골짜

마을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아래에 있다고 하여 이름하였다.

장자골(장재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사진 299> 서낭골



<사진 300> 아랫골짜



<사진 301> 장자골(장재골)

큰말사니

마을 뒤(북쪽) 큰 골짜기. 화장장 주차장 아래로 마을에서 제일 큰 논배미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 지었다. 지금은 논과 우사(牛舍)가 있다.

화전(花煎)바위

큰말사니에 있었던 바위. 근래에 마을 앞 샘골천 제방 축조 공사 때 화전바위를 깨어서 제방 석축에 썼으므로 지금은 바닥만 남아있다. 원래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예전에 이 바위에서 화전(花煎) 놀이를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진 302> 큰말사니

마. 척산리(尺山里)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모두 중심 마을 노리에 속하였으므로 척산(尺山) 역시 노리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하여 척산리라고 하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에 속하게 됨.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尺山)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몇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농사철에 마을 뒷(남쪽)산의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둘째, 마을 뒷(남쪽)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셋째, 동네 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피륙이 마치 산처럼 쌓인다고 하여 척산(尺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모두 척산(尺山)의 척(尺)이 '자 척(尺)'자 이므로 이것과 관련하여, 또는 자가 옷감을 재는 기구이므로 옷감, 피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후대에 한자의 뜻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은 마을 뒷(남쪽)산에 있는 목우(牧牛)재라는 고개와 관계가 있다. 고개 즉 재가 있는 산이므로 깎산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척산(尺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척(尺)자는 재(자와 재는 서로 통한다.)를 나타내는 훈(訓)을 딴 글자이며, 재 즉 고개라는 의미로 전국 각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가마소(沼)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가마소 개울 하류에 있는 소(沼). 소(沼)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지방 방언으로 가매소라고 불리었다.

가마소 개울

마을 서쪽 학사평(鶴沙坪)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목우(牧牛)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금호교

척산리 마을 앞에 놓여 척산리와 금호콘도를 연결하는 다리.



<사진 303> 척산마을



<사진 304> 가마소 개울



<사진 305> 금호교

노적(露積)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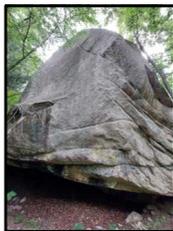
암지동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판봉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로 남동쪽 마을이다.

마치장(馬馳場)

마을 동쪽 산기슭 별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이라고 한다.



<사진 306> 노적바위



<사진 307> 판봉(마을)



<사진 308> 마치장

만호침사유허(萬戶僉使遺墟)

판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 만호 침사(水軍 萬戶 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망태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명가산

주봉산(朱鳳山)과 목우(牧牛)재 사이에 있는 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面)의 가산(家産), 즉 재산이라는 뜻의 면가산(面家産)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명당골

마을 서쪽 가매소 개울 상류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상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한다.

목우(牧牛)재(모기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사진 309> 만호침사유허



<사진 310> 명당골



<사진 311> 목우재

목우(牧牛)재 개울

마을 남쪽 목우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靑草川)을 형성한다.

물안골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朱峰山)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에너레

암지동 끝 달마봉(達磨峰) 북쪽 기슭에 있는 큰 암반.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하며, 범이 미끌어져 죽었다고 하여 범에너레라고 부른다.



<사진 312> 목우재개울



<사진 313> 물안골



<사진 314> 범에너레

병풍(屏風)바위

마을 서쪽 망태골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한다.

사당골

마을 동쪽 응골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패를 지어 다니며 노래와 춤을 펼던 사당패들이 거처한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상보(上漕)

청초천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보(漕). 한글 이름은 웃보이며, 금호교 부근에 있다.

서산태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사태가 난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암지동(암지골)

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암지골, 암지동(洞)으로 변화되었다.



<사진 315> 사당골



<사진 316> 상보



<사진 317> 암지동(암지골)

양지교

척산의 양지마을과 응달말을 연결하는 다리.

양짓말(양지마을)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 개울 북쪽 마을.

응달말(음지마을)

척산(尺山)에 있는 마을 중의 하나. 가매소개를 남쪽 마을로 양짓말 건너편에 있다.



<사진 318> 양지교



<사진 319> 양짓말



<사진 320> 응달말

작은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큰 너레골에서 왼편(북쪽)으로 갈라진다. 너레는 너럭바위 즉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작은 늪동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늪동골 바로 남쪽이며, 현재 종합경기장이 자리 잡았다. 학사평을 기준으로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며 작은 늪이 있었다.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338m

증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가마소 위쪽에 있다.

척산교(尺山橋)

청초천 상류 척산마을 앞에 놓여 노학동과 설악동을 연결하는 다리.



<사진 321> 작은 늪동골



<사진 322> 주봉산



<사진 323> 척산교

척산 온천(尺山溫泉)

척산에 있는 온천.

큰 너레골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왼쪽(남쪽)으로 작은 너레골이 갈라진다. 너레는 넓고 평평한 큰 암반을 뜻한다.

큰 늪동골

마을에서 서북쪽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바로 남쪽이 작은 늪동골이다. 학사평을 기준으로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며 큰 늪이 있었다.

탑상골

마을 서쪽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 노학동 3층 석탑(塔)이 있는 곳이다.



<사진 324> 척산온천



<사진 325> 큰 늪동골



<사진 326> 탑상골

파명당

목우(牧牛)재와 달마봉(達磨峰) 사이에 있는 터. 현재 송신탑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보니 그곳에서 학이 3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養陽郡) 강현면(降峴面) 강선리(降仙里)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普光寺)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사진 327> 파명당

바. 신흥리(新興里)

1962년 논산 제2훈련소의 건립으로 이주 희망자를 집단 이주시켜 뒷버덩에 조성한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도평리(桃坪里)

동우대학이 개교한 이후 형성된 마을로 도리원(桃李源)과 학사평(鶴沙坪)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도평리라고 이름하였다. 마을이 조성된 이후 신흥하(新興下) 마을 주민들도 이주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났다.

신흥 상(상에, 상에동네)

학사평 끝(서쪽) 마을.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鶴沙坪)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되었으며, 신흥리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 상(新興上), 또는 상에라 불린다.

신흥 중(新興中)

설악(雪嶽) 한화리조트 바로 앞(남동쪽)마을. 뒷버덩에 건설된 신흥리(新興里)의 중심 마을로 3개의 신흥 마을 중 중간에 있어 신흥 중이라고 하였다. 행정구역상 신흥 1리(新興一里)이며, 지금은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사진 328> 도평리



<사진 329> 신흥상



<사진 330> 신흥중

신흥 하(新興下)

노리와 척산 사이의 뒷버덩에 위치한 마을. 신흥 1리(新興一里) 밑(남동쪽)에 해당

하므로 신흥하(新興下)라고 부른다. 행정구역상 신흥 2리이며, 도평리가 조성된 이후 이주하여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다.



<사진 331> 신흥하

사.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 자 대신 ‘학(鶴)’ 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밭이라고 한다.

학사평(鶴沙坪)은 전통적으로 행정상 독립된 동리를 이루지 못하고, 척산리(尺山里)가 노리(蘆里)에서 행정상 분리되기 전까지는 노리에 속했고, 1942년 노리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李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된 후에는 척산리(尺山里)에 소속되어 오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되었다. 노학동(蘆鶴洞)의 학(鶴)자는 학사평(鶴沙坪)에서 따온 것이다.

두꺼비 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두꺼비처럼 생겼다.

명당골

학사평(鶴沙坪) 남서쪽 골짜기.

미시령(彌矢嶺)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 큰령이라고도 불렀다.



<사진 332> 두꺼비바위



<사진 333> 명당골



<사진 334> 미시령

심방골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 현재 월해사(月海寺)가 있으며, 달마봉(達磨峰)으로 이어진다.

용장골

마을 남서쪽, 심방골 서쪽 골짜기. 계조암(繼組菴) 밑으로 이어진다.

원암교(元岩橋)

용춘천(龍村川) 상류에 놓여 학사평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를 연결하는 다리.

월해사(月海寺)

심방골에 있는 암자. 예전엔 구복암(求福菴)이었다.



<사진 335> 심방골



<사진 336> 원암교



<사진 337> 월해사

자활촌(自活村)

학사평(鶴沙坪) 별관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5·16 군사 정변 후 군사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이주민에게 농토, 농기구 등을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는데, 자활촌(自活村)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코끼리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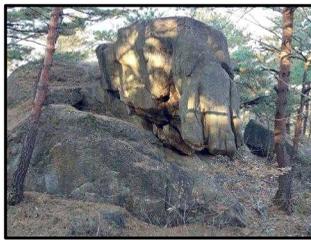
명당골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코끼리처럼 생겼다.

호랑 바위

명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호랑이가 이 바위의 틈에서 새끼를 키웠다고 한다.



<사진 338> 자활촌



<사진 339> 코끼리바위



<사진 340> 호랑바위

Ⅲ. 산 업



1950년대 명태덕장 전경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1. 속초 발전의 조력자 조선업(造船業)

가. 개요

속초(束草)는 1910년대 멸치, 1920년대 명태와 청어, 1930년대 정어리 풍어와 함께 동해안 대표 어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37년 속초항 건설과 함께 면사무소와 어업 조합이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이전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 후 6·25전쟁의 영향으로 피란민들이 속초항 근처로 모여들면서 전쟁이 끝난 지 10년 만인 1963년 시(市)로 승격하였다.

속초 어업의 최대 전성기였던 1973년 수산업 관련 인구는 어업인구와 수산제조업 인구를 합하여 35,615명으로 속초시 총인구 75,968명의 46.9%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조선업, 선박수리업, 수산물 유통업, 선구점 종사자, 부두 노동자, 리어카꾼, 생선 껍 짝 제작소, 제재소, 시장어물진, 건어물 가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70%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0년 속초시 어업인구는 1,418명으로 속초시 총인구 82,665명의 1.7%로 급감하였다. 여기에 수산제조업 관련 인구 및 수산업 관련 업체 종사자들을 포함하여도 10%를 넘지 못한다.

어선 수를 살펴보면 1973년에는 동력선(動力船)과 무동력선(無動力船)의 비중이 비슷하여 무동력선은 거룻배, 전마선으로 근해에서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 채취와 조개잡이, 손꽂이잡이, 가자미 낚시를 포함하여 잡어잡이, 문어 통발업에 종사했다. 2020년에는 무동력선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동력선도 1973년 453척에서 2020년 324척으로 감소하였다. 어업인구 감소에 비해 동력선의 감소폭은 크지 않은데 이것은 어선은 대형화되었으나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²⁰²⁾



<사진 341> 청초호변에 정박한 배(1960년대)



<사진 342> 함경조선소(1970년대)

202)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최영택, 박명선 공저, 앞의 책, 184-185쪽.

나. 속초 조선업(造船業)이 걸어온 길

속초의 조선업은 일제강점기 어업의 호황으로 어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동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범선(帆船)이 동력선(動力船)으로 바뀌면서 선체와 기계의 제작 및 수리를 위한 공장들이 생겨났으며, 목선(木船)의 주 원자재인 나무를 공급하기 위한 제재소(製材所)도 같이 생겨났다. 해방 이후 조선업과 관련 산업들은 급속히 성장하였고, 속초의 조선소들은 주로 목선을 제작하고 수리하였다. 조선업은 1990년대까지는 호황을 누렸지만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고, 목선이 합성 소재 FRP선들로 대체 되면서 가격, 기술 경쟁력에서 남동임해 공업지역의 조선소들에 밀리면서 급격히 감소되었다.

속초시 통계 연보에 따르면 1961년도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 6곳,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 3곳,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4곳이었다. 1970년에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12곳,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 10곳,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14곳으로 조선업과 조선업 관련 산업이 발전한다.

1980년대 이후 어선이 철선(鐵船), FRP선으로 대체되면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많이 줄어들어 1980년 6곳, 1995년 6곳, 2010년 2곳 만이 남게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마지막 조선소인 칠성조선소가 폐업을 하면서 속초의 조선(造船)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칠성조선소는 현재 카페로 변신하여 관광객들에게 과거 속초 조선업의 영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속초시에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는 없고, 조양동에 위치한 ‘대창조선공업사’가 선박수리업에만 종사하고 있다.

〈표 36〉 속초시 조선 관련 사업체 수

연도	조선업	어간유제조업	기계 및 장비	어망제조업	목재·나무제품
1961	6	5	3	-	4
1965	8	9	8	-	9
1970	12	8	10	1	14
1975	6	1	4	2	15
1980	6	0	1	3	14
1992	2	-	0	-	7
1995	6	-	2	-	7
2000	4	-	2	-	3
2004	4	-	1	-	1
2010	2	-	0	-	4
2015	0	-	0	-	0
2020	0	-	0	-	0

* 1982년~1991년, 2005년 통계 연보에 해당 내용이 없음. * 조선업에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포함

출처: 『속초통계연보』

1) 목선의 제조 과정

선주(船主)가 조선소에 배의 제작을 의뢰하면 목수는 직접 도면을 그렸다. 도면이 완성되면 목수들은 기차를 타고 부산에 직접 나무를 사러 갔다. 나무는 주로 우리나라에 많은 금강송 소나무를 사용했다. 부산에서 제재(製材)한 나무는 화물선이 운반해와 청초호에 던져놓고 갔다. 그 나무를 조선소로 끌어올려 말린 후 가장 먼저 용골(龍骨)²⁰³⁾을 만든다. 용골을 만든 뒤 배의 옆면을 비롯한 다른 부분을 만든다. 이 과정은 나무를 평평하게 깎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다음은 파배기 꼬듯 꼬고, 불에 달구어 구부리고 휘고, 곡선으로 대패질하여 만든 후 물이 새어들지 않게 정교하게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춘다. 목선의 형태가 완성되면 삼나무 껍질을 나무 사이 틈에다가 넣어서 방수작업을 하고 그리고도 남은 틈에는 페인트 찌꺼기를 채운다. 이후 도색(塗色)을 하고 진수(進水)를 하는데 이 과정이 배의 크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증언자의 경우 방수에 자신이 있었기에 목선 틈새나 갑판 바닥에 창호지를 놓고 젖으면 돈을 받지 않기도 하였다. 목선은 보통 10톤급 미만을 많이 제작하였다.²⁰⁴⁾



<사진 343> 속초의 마지막 배 목수 전용원 씨가 만든 목선²⁰⁵⁾

203) 선박의 선미에서 선수까지 보통 선저중앙에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등뼈구실을 하는 주요 구조체를 말한다.

204) 전용원의 증언. 전용원은 70세로 속초의 마지막 배목수로 2022년 7월 26일 자택 및 칠성조선소 카페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205) 현재 칠성조선소 카페에 전시되어 있으며, 실제 목선의 1/2 크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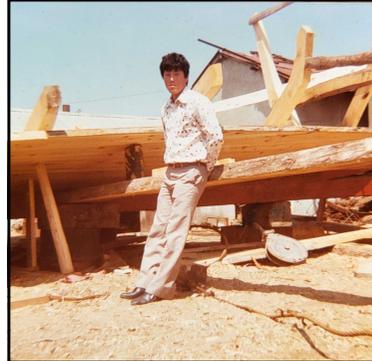
<사진 344> 방수용 삼나무 겹질



<사진 345> 틈메우기용 페인트 찌꺼기



<사진 346> 목선 제작용 공구



<사진 347> 젊은시절의 전용원 목수



<사진 348> 덕양호(목선) 진수식



<사진 349> 모형배²⁰⁶⁾

206) 「설악신문」, 2011. 9. 9일자. - 1970년대 초 전용원 목수가 제작하였으며, 수협이 어민교육에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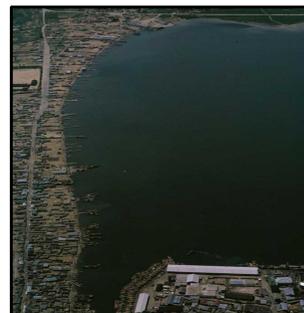
2) 속초 조선업의 전성기

속초 조선업의 최전성기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이다. 특히 1967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속초에서 20톤급 선박 17척이 <영동조선소>와 <제일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그러나 1968년에 속초항은 개항 이래 초유의 재난을 경험하였다. 파도가 해안지대가 휩쓸어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척의 선박이 파손되었다.

해일에 파손된 선박을 새로 건조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건조단이 구성되어 208척의 어선이 동시에 건조되었다. 지금의 조양동 동해대로 건너편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이마트 앞까지 청초호변이 작업장이었는데, 전국의 목수들이 몰려와 선박 건조작업에 투입되어 밤낮없이 배를 만들었다. 그러나 배목수일이 처음인 사람들도 강제로 투입되어 날림으로 만들어진 배도 술하게 많았다. 워낙 여러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다 보니 다 만들어진 배를 헬리콥터로 바다에 옮기기도 했는데 날림으로 만들어진 배가 헬기로 옮기다 부서진 경우도 있었다.²⁰⁷⁾



<사진 350> 68해일 피해 선박건조단
(현 엑스포 잔디구장~이마트 앞)



<사진 351> 1960년대 청호동과 청초호에 정박한 목선

3) 속초 조선업의 변천

1950년대부터 속초에서 본격적으로 어선을 건조하였으며, 6·25전쟁 중이던 1952년 청초호 연안 현재 칠성조선소 카페 자리에 <원산조선소>²⁰⁸⁾가 설립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종전 이후 <속초조선공업사>, <동해조선소>, <제일조선소>, <강원조선소>를 포함한 5개 조선소가 속초 6구에 위치하며 목선을 건조하였다.

207) 전용원의 증언.

208) 김영건, 『속초』, 20세기 북스, 2019, 78쪽.

1960년대는 무동력선에서 동력선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5개의 조선소가 추가로 개업하였다. 청호동 <함경조선소>와 <부산조선소>, 청학동에 <영동조선소>, 동명동에 <이구조선소>, <협성공업사>, 교동에는 속초조선공업사가 <공영조선소>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67년 당시 10개의 조선소가 운영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960년대 말 한국사료공장 설립 직전 그 위치에 선박수리 전문의 <수협조선소>가 잠시 운영되었고, 영동조선소가 조양동 갯마을로 이전하여 <영동조선소 2기>로 새롭게 개장하였으나 청초천 퇴적물에 의한 작업 여건의 악화로 바로 폐업하였다.²⁰⁹⁾

1970년대초 청호동에 <원풍조선소>가 개업하였으나, 동명동의 <이구조선소>가 폐업하였고, 1972년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영세조선소의 정책적 합병이 추진되어 <협성공업사>, <강원조선소>, <제일조선소>가 통합 후²¹⁰⁾ 잠시 <인디언조선소>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홍대조선소>로 명명하였고 사업장의 위치는 제일조선소 자리였다. 원산조선소는 가업 계승 후 2대 경영자가 <칠성조선소>로 상호를 변경하고 고철선으로 종목을 변경하여 속초 조선업의 명맥을 이어갔다.

1980년대에는 연안 어장의 황폐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동의 <칠성조선소>, <홍대조선소>, <공영조선소>, 청호동의 <함경조선소>, <부산조선소>, <원풍조선소>를 포함한 6개의 조선소가 운영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던 속초의 조선소들은 어획량의 감소, 정부의 목선 폐선정책, 청초호 매립으로 차례로 폐업하였다. 우선 교동의 <홍대조선소>가 1990년대 초반 폐업하였고 엑스포 개최에 따른 청초호 매립으로 1990년대 청호동의 <부산조선소>와, <원풍조선소>²¹¹⁾가 문을 닫았다. <함경조선소>는 조양동으로 이전하여 1998년 <대창조선공업사>²¹²⁾로 새롭게 개업하였으며, 현재까지 FRP선박을 제작 및 수리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2000년 <공영조선소>도 폐업하였고, <칠성조선소>는 3대 최윤성씨가 2014년 중소기업지원공단의 지원을 받아 카누와 카약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심각한 영업 부진에 빠졌고, 2017년 조선소 영업을 접고 칠성조선소 카페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²¹³⁾

209) 전용원의 증언. 속초 배목수로 여러 곳의 조선소에서 수많은 목선을 건조하였다.

210) 「매일경제신문」, 1972. 11. 13일자.

211) 박성열의 증언. 박성열은 60세로 2022년 7월 26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증언자는 가업을 계승하여 원풍조선소를 운영하였다.

212) 박병준의 증언. 박병준은 59세로 2022년 7월 6일 사업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선친을 도와 함경조선소를 운영하다가 청초호 매립으로 조양동으로 이전하여 대창조선공업사로 변경하고, 현재 속초의 유일한 조선소로 명맥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표 37> 속초 조선소 현황(195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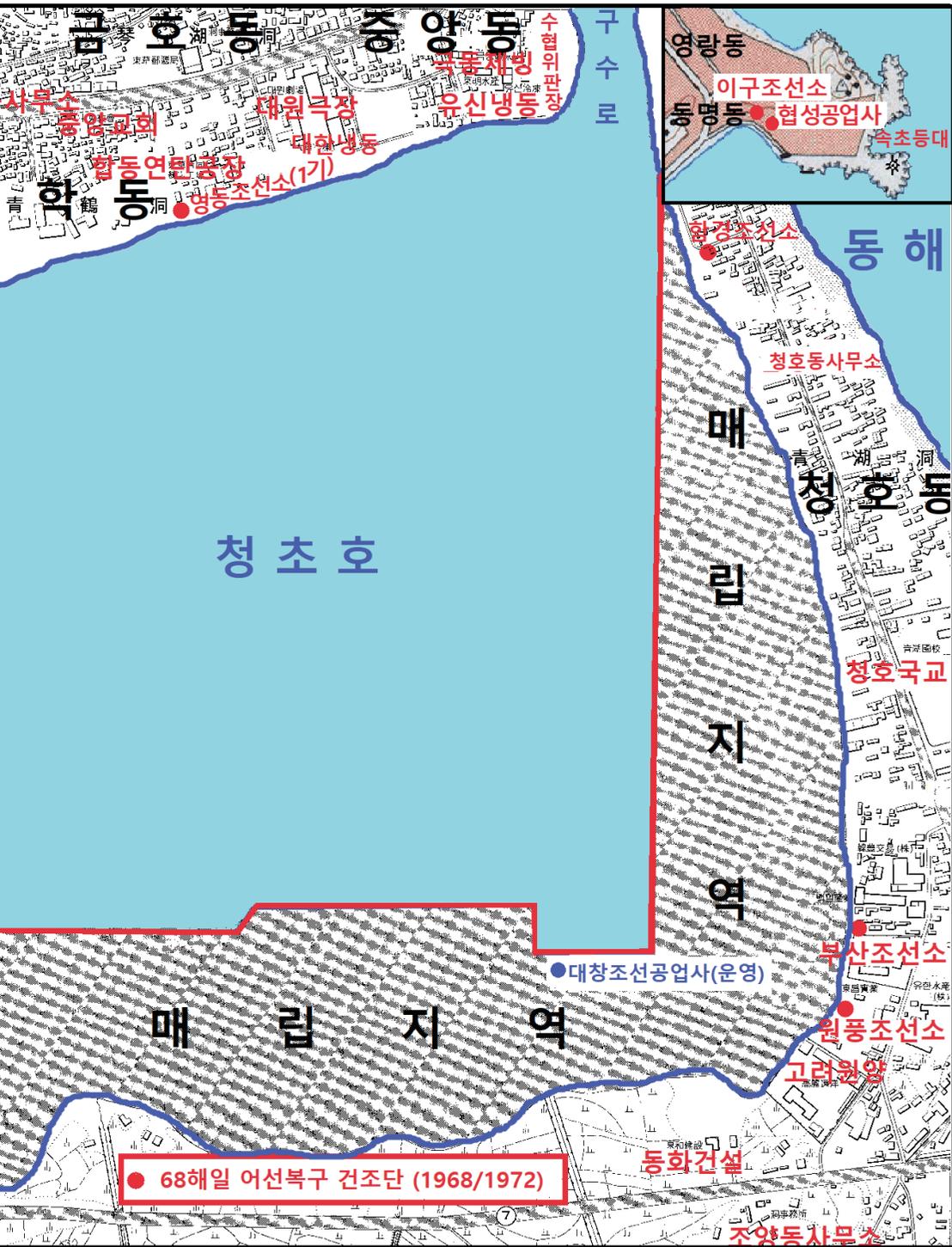
조선소명	주소	개업	건조/수리(척)	경영자	비고
		폐업	종업원수(인)		
원산조선소	속초 6구	1952	9/42 (1959)	최창원	최초 조선소
		1970년대초	13 (1967)		
속초 조선공업사	속초 6구	1950년대	5/10 (1959)	박형욱	사진 346 참조
		1960년대초			
동해조선소	속초 6구	1950년대	3/12 (1959)	손항근 최증협	공사 중단된 오피스텔 앞
		1970년대초	9 (1967)		
제일조선소	속초 6구	1950년대	4/6 (1959)	황운재	<제일조선소> 대일청구권선박건조
		1970년대중	10 (1967)		
강원조선소	속초 6구	1950년대	1/15 (1959)	김홍주	홍대조선소로 합병
		1970년대중	9 (1967)		
협성공업사	동명동 3반	1960년대말		조판득	
		1970년대중	10 (1967)		
이구조조선소	동명동 3반	1960년대초		박화규	해경 맞은편 위치
		1970년대중	25 (1967)		
영동조선소 (1기)	청학동 482-55	1960년대초		이종해 강중순	대일청구권 선박 건조
		1960년대말	30 (1967)		
영동조선소 (2기)	조양동 깃마을	1960년대말		강중순	영동조선소 이전
		1960년대말			
수협조선소	조양동	1960년대말		조영도	선박수리 전문
		1960년대말			
칠성조선소	교동 9반	1974		최승호 최윤성	원산조선소 계승
		2017	8 (1975)		
공영조선소	교동 9반	1960년대말		조영도 최재하	속초조선공업사 계승
		2000	10 (1967)		
홍대조선소	교동 10반	1970년대중		조판득	3개 조선소 합병
		1990년대중	12 (1975)		
함경조선소	청호동 17반	1960년대말		이종선 박춘원	청초호 매립으로 폐업
		1997	10 (1967)		
부산조선소	청호동 30반	1960년대말		김두칠	
		1990년대중	8 (1967)		
원풍조선소	청호동 10통	1970년대초		박재곤	
		1990년대중	4 (1982)		
대창 조선공업사	조양동 1034-24	1998		박병준	함경조선소 계승
		운영중	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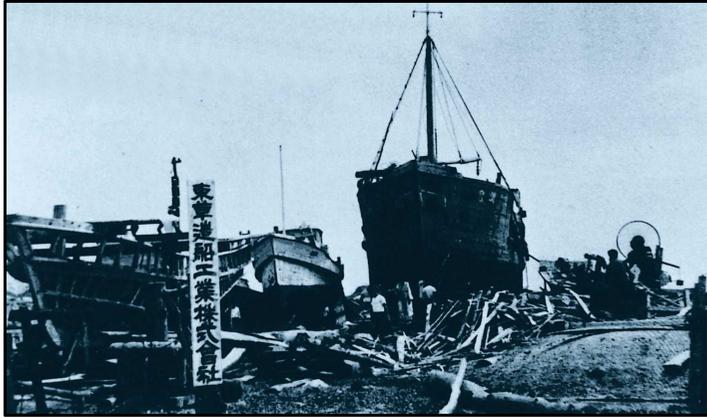
출처 : 『읍세일람』, 『속초통계연보』, 관련 종사자 증언

213) 김영건, 앞의 책, 80~84쪽.



<그림 50> 속초 전성기 조선소 현황 (1970년대~1980년대)





<사진 352> 속초조선공업주식회사(1950년대)



<사진 353> 철성조선소 카페



<사진 354> 대창조선공업사



〈사진 355〉 동해조선소 터



〈사진 356〉 원풍조선소 터



〈사진 357〉 이구조선소 터(삼진 건어물 할인마트 위치)



<사진 358> 제일조선소, 강원조선소 터



<사진 359> 공영조선소 터



<사진 360> 함경조선소 터(현재 관동OA 정보통신 위치)

2. 청호동(靑湖洞)의 수산물 가공업

가. 개요

청호동은 속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동이다. 지리적으로 어업에 유리하고, 농경지로 사용할 만한 땅이 없었으며, 실항민들 중에는 북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아 청호동 전체가 어업 경제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청호동의 경기는 속초 어업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어종이 풍부할 때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업이 부진할 때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계절별로 봄에는 주로 꽁치가 잡히고 여름에는 오징어, 가을에는 도루묵, 겨울에는 명태가 많이 나는데, 어느 것 하나 흉년이라도 오면 그 기간 동안은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다.²¹⁴⁾ 또한, 청호동에는 어업과 관련된 조선업과 수산물 가공업이 발달했다. 그중 오징어, 명태 덕장, 젓갈 공장, 오징어 조미공장, 홍게살공장 등은 대표적인 수산물 가공업이다.

나. 대표적 수산물 가공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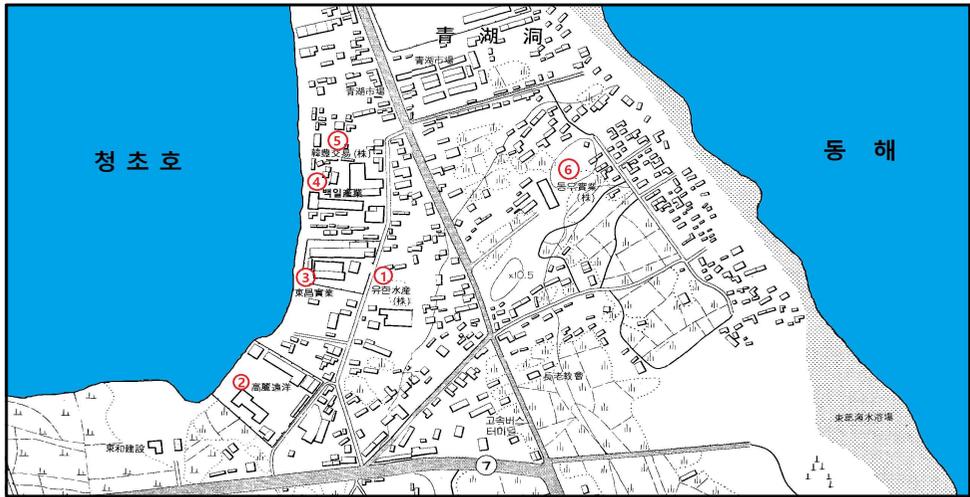
청호동은 1970년대~1990년대에는 규모가 큰 수산물 가공 공장이 운영되었다. 특히, <유한수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양제인 ‘간유구’를 명태애기름으로 만들었다. 1962년 통계자료를 보면 청호동 일대의 간유공장(애공장)에서 연간 명태간유 1,275드럼, 오징어간유 374드럼을 생산했다. 명태 간유 가공을 하는 공장 중에는 유한수산공장의 규모가 제일 컸다.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가 6·25전쟁 중에 간유(肝油)에서 비타민을 추출해 정제하는데 성공하여, 1960년 속초에 어간유제유소를 세웠다. 이 공장은 1962년에 유한수산공장(柳韓水産工場)으로 이름을 바꾸어 간유 가공만이 아니라 가공수산물 수출에도 한 역할을 했다.²¹⁵⁾

1970년대 이후 유한수산은 오징어 조미공장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마트 자리에 위치했던 <고려원양>은 페루·칠레산 대왕 오징어를 수입하여 조미 오징어채를 생산하였다. <동창실업>은 꽁치와 골뱅이 통조림을, <백일산업>은 오징어 조미공장이었으

214) 국립민속박물관,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청호동』, 2014, 148쪽.

215) 「설악신문」, 2018. 9. 17일자.

나, 후에 남영물산으로 상호를 바꾸고 흥계살을 생산하였다. <한풍교역> 역시 조미공장을 운영하다가 후에 한진상사로 상호를 바꾸어 게맛살을 생산하고, 현재 청호아이파크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동우실업>은 오징어 내장을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하였었다.²¹⁶⁾



<그림 51> 속초 청호동의 수산물 가공업(1980년대 초)

※ 그림설명

청호동 수산물 가공공장

- ① 유한수산
- ② 고려원양
- ③ 동창실업
- ④ 백일산업
- ⑤ 한풍교역
- ⑥ 동우실업

216) 박성열의 증언.



<사진 361> 동우실업 터(현재 청호동 아이파크 아파트 위치)



<사진 362> 동창실업 터(현재 청호동 성당 위치)



<사진 363> 백일산업 터



<사진 364> 유한수산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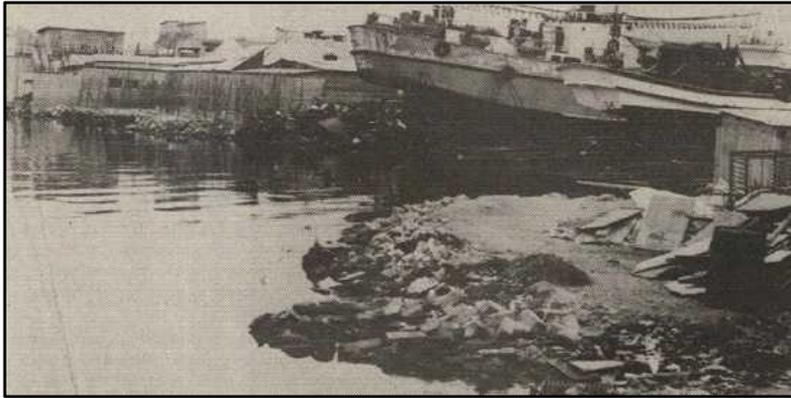


<사진 365> 한진상사 터



<사진 366> 고려원양 터(현재 이마트 위치)

위의 공장들은 많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오페수를 수년간 청초호에 무단 방류한 오염원이기도 했다. 이에 1990년대 초반 속초 내항(청초호)의 오염도가 전국 최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속초시민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청초호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전국 연안 중 최고 수준이었고 1991년 여름 청초호에는 적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²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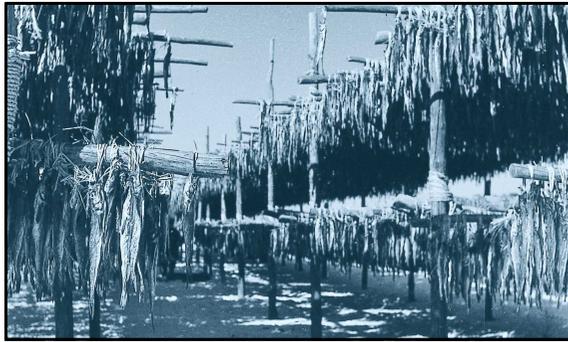


〈사진 367〉 공장에서 생선오물이 유입되는 청호동 하수구

다. 오징어, 명태 덕장

오징어나 명태를 할복한 후 건조하는 장소를 덕장이라고 한다. 건조의 정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되어 판매한다. 청호동의 경우 속초항과 인접한 바닷가 동네이기에 속초항에 들어온 오징어, 명태 생물을 바로 할복 후 야외 덕장에서 해풍과 자연광으로 말리는 방식을 과거부터 사용해왔다. 어획량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청호동 전체가 오징어, 명태뿐만 아니라 미역, 문어, 콩치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말리는 공간이었다. 옥상, 도로, 방파제, 해안가 철조망 등 건조가 가능한 공간은 모두 이용할 정도였다. 그러나 속초의 전체 어획량이 줄고 심지어 명태가 잡히지 않으며 덕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217) 「속초신문」, 1991. 6. 3일자, 6. 24일자, 8.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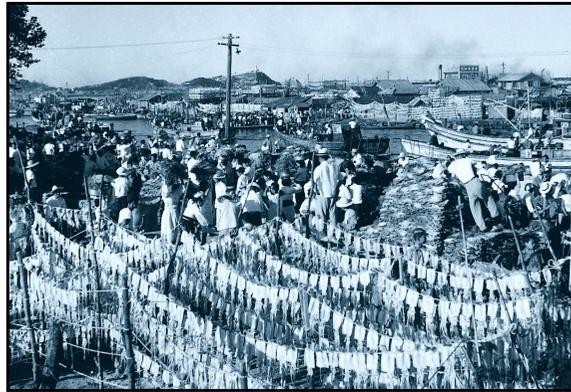


〈사진 368〉 1950년대 명태 덕장

명태 어획량의 전성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적게는 연간 1만여 톤에서 많게는 5만여 톤까지 잡혔다. 강원도 명태의 최대 풍어기는 1974년으로, 약 6만 톤을 잡아 올렸다. 1970년 명태 어획량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다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어획량이 급감했다. 1999년에는 1,329톤, 2001년에는 72톤으로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2007년부터는 어획량 ‘0’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이후 연간 어획량은 많아야 연간 2톤을 오가고 있다. 1980년대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명태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명태를 수입이나 원양어선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다. 명태가 더 이상 잡히지 않고부터는 청호동에 명태 덕장은 사라지고 고성, 인제, 양양의 덕장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남은 명태 덕장들은 코다리로 업종을 변경하며 대포 농공단지로 많이 이동하여 현재 청호동에 남아있는 명태 덕장은 한 곳도 없다.

오징어 어획량은 그래도 명태보다는 나은 편이다. 하지만 어획량이 일정치 않은 탓에 덕장 운영을 위한 오징어 물량 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징어 할복량은 2016년 1,952톤, 2017년 1,075톤, 2018년 1,468톤, 2019년으로 1,257톤으로 줄어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건조인협회의 회원수도 1991년 170여명에서 2016년 59명으로 줄어든 뒤 2019년에는 단 10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운영했던 공동 할복장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2020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덕장별로 할복을 한 뒤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고 있다. 청호동에 오징어 덕장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덕장이 150개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8개의 덕장만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덕장은 어업 경기 악화로 폐업하였고, 2000년대에 소수의 업체가 대포농공단지로 이전하였다.



<사진 369> 1950년대 오징어 덕장



<사진 370> 오징어 책책이 작업

라. 젓갈 공장

젓갈은 바다에서 잡아 온 신선한 수산물을 소금과 양념에 절인 발효 음식으로 속초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이다. 청호동은 함경도 출신 피란민들이 많았기에 청호동 정착 후 함경도에서 먹던 방식으로 젓갈을 담갔다. 청호동이 바다와 속초항에 매우 인접해있는 관계로 젓갈 재료도 다양성이 풍부하고 신선했다. 이러한 청호동의 지리적 장점과 실향민의 젓갈 제조 방식이 어우러져 청호동의 젓갈은 점점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젓갈의 종류에는 가자미 식해, 대구 식해, 햇때기 식해, 명태를 활용한 창난젓, 아가미젓, 명란젓 등이 있다.

지금의 젓갈 공장들은 2000년대 청호동에서 대포 농공단지로 많이 이주하였고, 대포 농공단지를 비롯한 영랑동, 장사동 일대에서 대형화, 자동화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처음부터 젓갈산업이 대형화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각자 집에서 집마다의 방식대로 젓갈을 담갔다. 그러다 숨쉴 좋은 사람들의 젓갈이 알려지게 되고 주변 마

을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사먹기 시작하면서 젓갈 가공업이 상업화되었다. 요즘도 청호동에서는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청호동에 남아있는 젓갈 제조업체는 ‘김송순 아마이 젓갈’ 과 ‘함경도 아바이 젓갈’ 의 단 2곳 뿐이다. 이 두 업체는 모두 소규모로 직접 젓갈을 담가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청호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며, 맛에 반해 단골이 된 외지인들 대상으로 택배 판매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 직거래를 하고 있다. ‘김송순 아마이 젓갈’ 의 대표는 청호동에 관광객이 많아지며 젓갈 수요가 조금은 늘었지만, 인건비나 재료값의 상승 문제로 수익성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위한 젓갈 개발과 젓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 371> 김송순 아마이 젓갈

<표 38> 절임식품 가공현황

업체명	소재지	주요 품목	업체명	소재지	주요 품목
영동식품	영랑동	명란, 창난, 오징어	참식품	대포동	명란, 창난, 오징어
풍미식품	조양동	액젓류	신화식품	장사동	명란, 창난, 오징어
동광식품	조양동	명란, 창난, 오징어	맛나푸드빌	조양동	명란, 창난, 오징어
해성식품	영랑동	명란, 창난, 오징어	청초원식품	동명동	명란, 창난, 오징어
진미씨푸드	장사동	명란, 창난, 오징어	고바우식품	노학동	명란, 창난, 오징어
속초식품	장사동	오징어, 낙지, 창난	선호식품	동명동	명란, 창난, 오징어
풀물음식품	장사동	명란, 창난, 오징어	한백푸드	대포동	명란
동화푸드	대포동	명란, 창난, 오징어	정희푸드빌	대포동	오징어, 낙지, 창난

출처 : 속초시청 홈페이지

3. 최대 농업지역 노학동(蘆鶴洞)

가. 속초의 농업환경과 변화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였던 조선 후기의 속초 지역은 주로 농업(農業)과 양잠(養蠶)을 업으로 했는데 농업에서도 중심이 된 것은 벼농사였다. 고종 8년(1871)에 성책된 『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논산리, 부월리 등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며, 대포리, 웅진리, 속초리, 속진리 등은 반농반어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다. 조선시대 마을의 분포가 도문천(지금의 쌍천), 온정천, 노동천(지금의 청초천) 주위에 형성되어 있음은 논농사를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²¹⁸⁾

속초 지역은 해안에 접해 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다. 기후조건 상으로도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업 입지 여건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속초의 농지 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주위의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지대를 지나는 청초천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속초의 농업은 전통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6·25전쟁 후에도 주로 원주민들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 속초리 1~4구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피란민이 모여들었지만 극소수였던 것으로 보이며, 농토가 없던 5구, 즉 청호동에 대부분 피란민들이 모여 살았다. 1955년 속초 인구 2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는 4,901명이며 이중 속초의 1~5구의 농업 인구는 9.7%였고, 5구에 농업인구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란민들은 이주 초기부터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미개척지도 빠른 속도로 농지로 전환되었다. 재산의 축적과 함께 일부 피란민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결국 속초의 지역 확대는 농토의 개척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속초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지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농토를 따라 집을 지었고, 하나 둘 지어진 집들로 인해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 산업발전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 타용도로 전

218)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上)』, 속초시·속초문화원, 2006, 289쪽.

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정부는 1973년에 주곡자급(主穀自給)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시책(農地保全施策)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이 안정되어 속초에도 농업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1,000명 정도 늘어났으며, 경지면적도 89ha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속초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주거환경 및 도로의 개설 등이 요구되었고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경지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1980년 이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하거나, 2002년에는 농지취득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호구역내 건축행위제한을 강화(농지법개정)하였다. 한편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토지소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듯하다.

〈표 39〉 속초시의 농가수와 농가인구 변화

연도	농가수(호)	농가인구(명)
1962	1,162	5,404
1963	1,083	6,565
1965	1,121	6,572
1970	1,080	6,258
1975	1,340	7,638
1980	1,351	7,363
1985	1,129	4,511
1990	995	4,318
1995	768	3,031
2000	744	2,622
2005	814	2,533
2010	340(전업농가) 575(겸업농가)	2,533
2015	421(전업농가) 651(겸업농가)	2,730
2020	402(전업농가) 겸업농가(625)	2,461

출처 : 『속초통계연보』

농지면적의 감소는 농가수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농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62년도 10,464세대 중 1,167호로 11%, 1982년도에는 15,117세대 중 1,040호로 6%, 2002년도에는 33,258세대 중 744농가로 2%, 2012년도에는 26,745세대 중 992농가로 3%, 2019년에는 38,689세대 중 1,027농가로 3%로 점차 감소하여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날로 악화되는 재산성(採算性)으로 인해 농업보다 관광이나 서비스업으로 직업을 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가수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농업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1962

년도 5,404명으로 인구의 10%였으나, 2019년에는 2,492명으로 인구의 3%만이 농업인구로 분류될 정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미곡 생산은 1962년 929톤, 1972년도 1,401톤, 1982년도 2,084톤, 1992년도 2,583톤, 2001년도는 2,430톤으로 생산량이 늘어났다.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농업기술의 발전과 우량종자의 보급 등 영농여건의 향상에 기인한 때문이었다.²¹⁹⁾ 그러나 2013년 1,290톤, 2019년 1,537톤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쌀 소비량 급감과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의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²²⁰⁾

〈표 40〉 속초시의 식량작물, 미곡, 과실류 생산 현황

연도	식량작물 생산현황		미곡 생산현황		과실류 생산현황	
	면적(ha)	생산량(t)	면적(ha)	생산량(t)	면적(ha)	생산량(t)
1963	868	1,802	473	986	110	38.4
1973	1165	3,157	692	2,605	73.0	53.0
1983	954	2,921	620	2,108	42.0	213.3
1993	721	1,661	590	1,239	39.3	478.0
2003	635	2,893	540	2,209	25.3	356.4
2013	342	1,907	266	1,290	-	-
2019	386	2,057	305	1,537	15.6	167
2020	375	1757	299	1278	-	-

출처 : 『속초통계연보』

나. 과수산업(果樹産業)

1) 노학동의 과수산업 현황

노학동은 속초시의 농업의 핵심지역으로 특히 과실류의 생산이 활발하다. 조양동의 청대리와 노학동의 척산리, 응골 일대의 산록 완사면을 따라 과수원이 많이 분포한다. 속초의 과수원들은 5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게 되었고, 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하였다. 과수원에서는 배, 사과, 복숭아, 자두 등을 재배하며, 복숭아와 배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19)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59-361쪽.

220)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59-361쪽.

<표 41> 속초시의 과실류 생산 현황

단위 : ha, 톤

연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14	14.1	204.9	0.1	0.9	5.4	84.0	8.6	120.0
2015	14.1	190.8	0.1	0.8	5.4	76.0	8.6	114.0
2016	13.1	141.0	0.1	1.3	5.0	48.0	8.0	91.7
2017	15.2	164.2	0.1	1.2	3.3	40.0	7.6	89.0
2018	13.6	134.1	0.1	0.7	3.5	53.2	8.3	62.0
2019	15.6	167.0	0.1	1.0	3.0	48.0	8.0	98.0

출처 : 『속초통계연보』



<사진 372> 척산마을 과수원

<표 42> 속초시와 노학동의 경지면적 비교

단위 : m²

연도	속초시 경지면적			노학동 경지면적		
	논	답	과수원	논	답	과수원
1981	4,090,624	5,748,899	331,827	772,815	1,698,784	119,832
1985	4,659,010	6,576,572	350,221	830,125	2,043,466	137,710
1990	4,347,492	6,330,608	361,905	889,903	2,024,780	156,419
1995	4,114,038	6,057,550	332,263	928,255	2,187,911	155,743
2000	3,985,223	5,825,365	330,387	899,245	2,118,942	152,239
2005	3,987,653	5,473,928	325,747	950,891	1,989,588	147,655
2010	4,112,215	4,711,931	307,927	1,038,176	1,719,547	162,689
2015	4,211,278	4,394,021	314,046	1,098,915	1,639,223	180,493
2020	4,044,056	3,953,420	269,121	1,022,608	1,396,930	135,051

출처 : 『속초통계연보』

현재 속초시의 경지면적 중 논(畓)의 면적은 1981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다. 그에 비해 밭과 과수원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속초시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노학동의 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밭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속초시 전체 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과수원의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초시의 다른 지역은 도시화에 따라 논, 밭, 과수원 등이 도시

적 성격으로 변모하지만 노학동은 아직 이러한 도시화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응골 딸기마을

응골 딸기마을은 관광농업마을로 식량작물을 대신하여 딸기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농촌 마을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6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2006년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 2011년에는 응골딸기 영농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응골딸기마을은 한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수확하며 딸기를 공중에 매달아 재배방식으로 인공수분이 아닌 꿀벌을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딸기이다. 매년 5월과 12월에 딸기체험축제가 열린다. 응골딸기마을은 딸기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머뭇쭈, 설악산꿀, 사슴, 각종 야생 산나물과 농산물 등 청정 먹거리를 재배하고 공급하고 있다.

〈표 43〉 딸기 생산현황

년도	면적(ha)	생산량	
		M/T	kg/10a
2006	0.1	1.5	1,500.0
2008	0.4	12.8	3,200.0
2010	0.2	9.2	2,300.0
2012	1.6	15.0	938.0
2014	1.7	37.4	2,200.0
2016	1.6	40.8	2,547.5
2018	0.9	24.2	2,356.7
2019	0.9	29.2	3,244.0
2020	039	25.4	2,824.8

출처 : 『속초통계연보』



〈사진 373〉 응골 딸기마을

4. 속초 성장의 핵심 관광업(觀光業)

속초는 산, 호수, 바다가 모두 갖추어진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바다 자원 고갈로 인하여 수산업이 쇠퇴하고 소득 증대, 주5일제 정착, 광역 교통망 개선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 관광인구가 늘어나면서 속초는 자연스럽게 어촌 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 속초시 산업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54.72%,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 수의 40.53%로 관광업이 속초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속초를 포함한 동해안 광역관광권의 관광수요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강릉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속초시, 양양군, 동해시, 고성군 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인근 도시의 위협 요소 극복을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관광객 수용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²¹⁾

〈표 44〉 속초 관광객 방문 현황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방문 객수	유료 관광지	5,628,594	5,760,710	6,079,309	9,333,649	10,134,095
	무료 관광지	8,002,309	7,917,399	8,039,263	8,257,530	6,977,329
총 방문객수		13,632,917	13,680,124	14,120,588	17,593,196	17,113,442

출처 : 『속초통계연보』

가. 척산온천(尺山溫泉)

척산온천은 노학동에 있는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온천이다. 1930년대에 땅 속에서 저절로 뜨거운 물이 솟아올라 온천임이 알려졌다. 그 뒤로 주민들이 빨래터로 이용하고 멀리서는 피부병, 관절병 환자가 몰려들었다. 온천은 일본인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해방 후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국립지질연구소에서 전국토를 지질 조사한 결과 이 지역의 온천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1965년부터 시굴하여 1969년 12월 30일 지하 250m 지점에서 44.8℃의 알칼리성 온천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 10월에 10평 남짓한 스투트 지붕의 척산온천탕이

221) 속초시, 『시정 50년사』, 2013, 806쪽.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3년 12월에 지하 360m 지점에서 47℃의 온천수를 분출시켰고 이어서 1975년 5월 온천 확장 공사 때 또다시 452m에서 수온 53℃의 온천수를 분출시켰다. 또 정부는 1978년 척산지구를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사진 374> 척산온천장(1970년대)

1985년 4월에는 척산온천 휴양촌으로 확장하여 해마다 평균 40만 명의 입욕객이 휴양촌을 찾아오고 있다. 현재는 척산온천 휴양촌은 7개의 온천공을 확보하고 있으며 용출온도 50℃~53℃의 강알칼리성 온천수가 4,300톤/1일 이상 용출되고 있다. 주요성분은 국립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단위 100PPM을 기준으로 나트륨 51.90, 염소 12.10, 알칼리 8.40, 불소 6.94, 칼륨 4.15, 칼슘 3.41, 리튬 0.08, 원소 0.18, 기타 4.80 등이 함유된 온천으로 피부병, 눈병, 위장병, 신경통, 류마티스 등에 특효한 희귀한 온천이다.²²²⁾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온천은 30℃미만의 온천으로 재가열이 필요하지만, 척산온천은 재가열이 필요 없는 천연온천수이다. 척산 온천장 맞은편에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척산죽육공원이 있으며 동절기에는 휴장한다.



<사진 375> 척산 온천장 원탕

222)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04쪽.



〈사진 376〉 척산 온천장 전경

나. 노학동 콘도촌

설악산은 1960년대부터 관광명소로 알려지게 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명산 중 하나이다.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70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그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198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이자 최고의 수학여행지로 각광받았다. 한 해 350만 명에 이르는 탐방객들이 설악산을 찾을 정도로 설악산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설악동은 1978년 설악동집단지설지구를 완공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완공 직후부터 전국에 수학여행단, 신혼여행객 등의 단체 관광객을 속초로 집중시키면서 속초시의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개발 당시에 설악동은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의 숙박, 상가시설로 조성돼 호황을 누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 관광객의 등장, 소규모 단위의 여행객, 노학동 콘도미니엄의 본격 등장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²²³⁾

1989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공동개발에 합의한 이후 속초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설 붐이 일어났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노학동 미시령로와 학사평 일대에 많은 콘도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설악 한화 본관(1985년, 768실)을 시작으로, 설악 한화 별관(1989년, 796실), 사조마을 설악(1991년, 219실), 설악파인리조트(1991년, 141실), 설악리조트 레저타운(1991년, 152실), 현대훼미리타운

223) 속초시(2013), 앞의 책, 818쪽.

(1993년, 477실), 연호콘도미니엄(1997년, 119실), 금호설악콘도미니엄(1997년 247실) 등 크고 작은 콘도미니엄들이 이어서 들어섰다.

노학동 일대에 콘도미니엄들이 입지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다.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미시령 고개를 넘어 속초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노학동이다. 또한 노학동은 목우재를 넘으면 설악산 국립공원, 미시령로와 7번 국도를 통하면 고성군, 미시령로와 관광로-온천로를 통하면 속초 시내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저렴하면서 넓은 토지이다. 노학동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洞)에 비해 콘도를 지을만한 넓은 부지들이 많다. 또한 속초 시내와 거리가 있어 지가(地價)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비용적으로 유리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노학동 콘도촌은 설악산 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설악의 풍경과 특히 울산바위의 장엄한 자태를 감상하기에 훌륭하다. 더불어 고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속초 시내와 동해 바다의 시원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노학동 콘도촌은 최근 시설 노후화, 숙박 시설과 방법의 다양화, 해안가에 건설된 새로운 호텔과 리조트들과의 경쟁에 밀리며 쇠퇴하고 있다. 설악리조트 레저타운, 현대 웨미리타운 등은 폐업하였고 다른 콘도들은 가격 경쟁력에서만 우위를 보이며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 377> 사조리조트와 연호콘도



〈사진 378〉 금호설악리조트



〈사진 379〉 리조트와 연수원이 밀집한 이목리²²⁴⁾



〈사진 380〉 노학동의 콘도촌²²⁵⁾

224) 한국토지주택공사, NH농협생명 설악수련원, 현대수리조트 등이 밀집한 노학동 이목로

225) 왼쪽부터 설악파인리조트,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코레스코(폐업)가 위치하고, 멀리 뒤편으로 한화리조트가 보인다.

다. 학사평(鶴沙坪) 순두부촌

학사평 순두부촌은 설악산과 속초를 찾기 위해 미시령을 넘은 관광객들이 처음 만나는 마을이다. 과거 교통편이 열악해 수도권에서 속초까지 최소 4시간 이상 걸리던 시절 먼 여행길에 지친 관광객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학사평은 과거 토양이 척박하고 바람이 강해 벼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콩을 키웠다. 자연스럽게 콩의 생산량이 늘며 콩 음식이 발달하게 됐다. 특히 1959년부터 고성군 원암리 학사평저수지 공사가 4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공사 기간 중 식사 또는 술안주로 인부들이 먹던 모두부, 순부두, 콩국수 등의 콩 요리가 알려졌다. 1980년대에는 인근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점심 메뉴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대중화되었다. 이곳 순두부는 강릉 초당의 순두부와 같이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해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식감과 짹짹한 맛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6년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 미시령 관통 도로가 마을을 비껴감에 따라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때 80여 곳에 이르던 순두부 식당들은 도로 교통의 변화와 함께 속초 시내의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속초의 다양한 먹거리가 부상하면서 상당수가 폐업하였다.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인제군 용대리 황태마을과 상호 교류를 통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미시령 관통 도로에서 학사평으로 진입하는 도로 건설, 순두부 가게들이 노학동 콘도 이용객들을 상대하기 위해 관광로(학사평 교차로 ~ 척산온천장)로 이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상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후 2016년 동해고속도로 속초 IC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마저도 상권 회복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사진 381〉 학사평 순두부촌

라. 청호동 아바이 마을

청호동은 1951년 수복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속초로 이주해온 피란민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주 형태는 대개 개별적이지만 전혀 연고 없는 이동이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찾아오는 연쇄 이동이 많았다. 개별 이동에서도 개인 단독 이동보다는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동반 이동이 많은 편이었다. 함경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여 ‘아바이마을’로 오랫동안 불려왔다.

청호동은 1954년에는 속초리 5구, 1966년 동제 실시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이곳은 군정 당국의 관할이었는데, 군정은 이 지역에 피란민 정착촌 형성을 위해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이곳에 유입된 피란민들은 현재의 청호동 1, 2, 3통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짓고 살았다. 재료의 대부분은 미 군용선에서 버린 것을 모아 사용했고 청호동 앞바다에 떠다니던 군용 목재나 목재소에서 나오는 죽더끼(피죽), 드럼통, 박스 등을 주워 재료로 활용하여 집을 짓기도 했다.²²⁶⁾

전쟁만 끝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통일만 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정착한 실향민들은 반세기도 훨씬 넘는 긴 세월을 이곳에서 지내왔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면 꼭 아바이마을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우리나라 유일한 실향민 집단정착촌 아바이마을은 분단과 통일 염원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런 아바이마을은 현재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탐방코스다.

수산업의 퇴조로 침체기를 겪던 마을은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지난 2000년 방영된 KBS TV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로 이름이 알려졌다. 어린 여 주인공의 집 ‘은서네집’, 사람이 직접 끌고 수로를 넘나드는 ‘갯배’와 남녀 주인공이 함께 걸던 ‘아바이마을 백사장’이 있다. 2010년에는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청호동 남쪽으로는 이마트, 북쪽으로는 갯배와 크루즈터미널, 서쪽으로는 청초호와 속초수협어판장, 동쪽으로는 속초 해변이 자리 잡고 있다. 활어회센터가 2곳 있고, 붉은대게(홍게), 생선찜 등 해산물 음식점과 냉면,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식해와

226) 속초시(2013), 앞의 책, 228~229쪽.

젓갈 등 함경도식 실향민 음식점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갯배 선착장 주변은 실향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가을동화 촬영지 포토존이 있으며, 2016년에 아바이마을의 문화전시공간 ‘아트 플랫폼 갯배’가 신수로 남쪽에 문을 열었다. 2016년 6월에는 실향민 문화축제가 처음 열렸으며, 수협어판장 일대에서는 해마다 양미리와 도루묵 축제, 붉은대게 축제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속초해변에서 열리며, 정월대보름 때는 속초의 실향민 대표 문화인 속초사자놀이 길놀이와 공연이 펼쳐진다. 11월에는 속초민예총의 갯배 예술제가 열린다.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풍경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2012년 아바이마을에 신수로와 설악대교(雪嶽大橋), 금강대교(金剛大橋)가 개통되면서 마을은 남북으로 나뉘었다. 이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대교 위로 올라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면 속초 앞바다와 조도, 속초 시내, 청초호, 달마봉과 울산바위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바이마을은 사방으로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²²⁷⁾



〈사진 382〉 속초의 대표적 관광지 아바이마을

227) 아바이마을 홈페이지(<http://www.abai.co.kr>) 참조.

IV. 문화예술



농악대 공연(1950년대 말)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1. 문학 속의 청호동과 실향민의 삶, 그리고 청초호, 미시령

6·25전쟁 이후 형성된 마을 청호동은 많은 지역 작가들의 창작 모티브로 활용되었고 아바이 마을 실향민의 삶은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아들어 독특한 예술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청호동은 옛 한시에서 시작하여 현대시, 극, 드라마, 영화, 구전설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배경이자 작품 소재로 활용되어 피란민들의 희로애락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공간이다.

청초호는 경치가 아름다워 속초 8경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고 예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풍광을 즐기며 작품 활동을 하던 곳이다. 좁고 긴 사주(砂洲)에 의해 동해와 격리된 석호(瀉湖)로 바다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미시령은 미수과(彌水坡), 미시과령(彌時坡嶺)이라고도 하며 고성군의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영서에서 영동으로 넘어오는 관문으로 미시령도 경치가 빼어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작품을 남긴 곳이다.



〈사진 383〉 청호동



〈사진 384〉 청초호



〈사진 385〉 미시령

2. 청호동 배경의 극 및 드라마

가. 그날, 그날에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인 이반(1940~2018) 작가의 작품으로 실향 1.5세대의 애환을 담아낸 연극이다.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으로 열 살 때 부모님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속초에서 성장한 이반 작가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실향민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기억과 경험을 녹여냈다. 이 작품은 1979년 극단 ‘광장’이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

해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상, 희곡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실향민 마을인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의 실화를 바탕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실향민 어부들의 한(恨)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통일문제를 조명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기화로 1980년 1월 신문에 아바이마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아픈 역사와 주민 삶이 주목받기 시작했다.²²⁸⁾

작품 배경은 1970년, 극의 무대는 속초 청초호 끝자락 속초항 한 켠의 주막집이다. 이 주막은 실향민 김노인 소유로, 북청댁을 주모로 두고 있다. 김노인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는 선주이기도 한데 친구 박노인을 선장으로 세워뒀다. 선원들의 푸념에 따르면 선장 박노인은 걸핏하면 북쪽을 향해 기수를 돌린다. 그 때문에 어군을 놓쳐 어획이 부진할 뿐 아니라, 월북 조업의 위험도 있다. 박노인 역시 실향민으로서 ‘이름도 못 지어주고 나온’ 어린 딸이 고향에 남아 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유별나다. 김노인은 박노인을 선장직에서 해임하려 하지만 주모 북청댁이 강하게 박노인을 옹호하는 바람에 실패한다. 여기에 김노인의 아들 창길이 은행원이 돼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²²⁹⁾



〈사진 386〉 그날, 그날에 연극공연 모습

나.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1997년 최재도 작으로 전 5막의 장막 연극이다. 난파선에서 선원들을 탈출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타전했던 의인 유정충 선장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최재도가 극본을 맡았고, 장규호가 연출했다. 1996년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아, 1997년

228) 속초문화원,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2017, 14쪽.

229) 「강원일보」, 2020. 8. 19일자.

전국연극제에 출품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속초항을 떠나 울릉도 근해로 조업을 나선 냉동선 수진호 선장은 유정충이다. 이 배에는 여러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선원으로 승선해 있다. 유 선장은 이들 모두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다.

유 선장은 출항하기 전부터 선내에서 도둑을 맞는 등 여러 사고와 다소 불쾌한 조짐들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여 무난히 출항을 한다. 선상의 라디오에선 지상의 여러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그 중엔 ‘기후 이상 현상에 대한 논의’와 ‘창녀 살해 사건의 범인을 쫓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몰락한 인텔리 현금석 노인은 배 안의 이런 저런 일들을 간섭하는 바람에, 조리장과 마찰을 빚는 등 선원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반공포로 출신인 최창식 노인은 이번엔 아들 최혁과 함께 승선했는데, 냉동기사인 최혁이 일반 선원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탓에, 이 역시 선내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 떠돌이 선원 한경조는 이런 사태에 무심하며 오히려 이들과 거리를 두려 애쓴다. 한경조는 유 선장의 특별한 배려로 이번엔 이 배에 처음 승선했다. 유 선장은 이들을 다독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여 화해를 도모한다.

이윽고 울릉도 근해에 도착해 조업을 하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유 선장은 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선원들은 난파 상황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탈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진다. 냉동기사 최혁이 자신이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창식은 아들을 위해 순위를 양보한다. 우여곡절 끝에 주방장인 저능아 화장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한경조가 마지막 순위로 결정된다. 풍랑은 더욱 거칠어지고 드디어 파선될 상황에 이르자 유 선장은 이선(離船)을 명령한다. 급박한 탈출이 이루어진다. 모든 선원을 탈출시킨 유 선장은 그러나 계속해서 구조신호를 타전하며 정작 자신은 탈출을 포기한다. 수진호는 끝내 침몰한다.

폭풍우 속에서 구명정에 오른 선원들은 악전고투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폭풍이 지나가고 망망대해에서 떠돌게 된 이들은 그간의 상황을 회상하며 맺혀 있던 사실들을 풀어놓는다. 각기 유 선장과 맺은 인연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한경조가 큰 범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서도 자수를 설득할 목적으로 유 선장이 이 배에 승선시켰음도 밝혀진다. 몰락한 인텔리 현금석과 반공포로 최창식을 그동안 알뜰히 살펴왔음도 확인된다. 저능아인 박경수가 이 배의 주방장으로 일하게 된 것도 다 유 선장의 배

려였음도 알게된다. 유 선장은 이들 모두에게 삶의 가치를 설파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왔음이 이때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의 시련은 계속된다. 구명정 위라고 안전하지는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승선 인원보다 초과되는 바람에 모두가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러던 중 최창식이 실수로 바다에 빠져 숨지게 되고, 수산학교 출신인 송철민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구명정 위에서는 유 선장을 비롯해 이번 사고로 사망한 자들을 추모하며, 조출하지만 송고한 장례식이 이루어진다. 라디오에선 수진호 구조활동 소식과 더불어, 창녀 살해 사건의 범인이 이 배에 타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선원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한경조에게 돌리지만, 한경조가 창녀 살해사건 전모의 진위를 밝히자 그 애절한 사연에 모두가 눈물짓는다.

이들이 구명정에서 버틴 시간은 무려 13일. 이들이 구조선에 구출되었을 때 구명정 위엔 저능아 주방장 박경수와 냉동기사 최창식, 그리고 늙은 선원 현금석만이 남아 있다.

최재도는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써온 작가로 1999년에 발표한 KBS 라디오 미니시리즈 「회한」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분단 문제를 민족사적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신선감을 주었다.

인민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얼떨결에 반공포로로 분류되어 석방된 주인공은 북조선 정부로부터 전쟁 중에 받은 ‘훈장’을 한평생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북조선의 인민 영웅이 청호동에서 단지 뱃놈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몇 년 후 「붉은 훈장」으로 개작되어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되고, 전국연극제에서 작품상과 희곡상을 수상했다.²³⁰⁾

다. 분노의 왕국

분노의 왕국은 1992년 4월 6일부터 1992년 5월 26일까지 방영된 문영남 극본으로 1992년 4월 6일부터 1992년 5월 26일까지 방영되었던 MBC 월화드라마이다. 원작인 분노의 왕국은 조선왕조의 적손 이하연이 일본 천황 즉위식에서 천황을 저격하면서

230) 속초문화원(2017), 앞의 책, 191~192쪽.

벌어지는 민족의식을 그린 소설로 제1회 MBC 문학상 수상작이다.

소설 무대를 60~70년대 청호동으로 설정함으로써, 당시 청호동 실향민들의 삶의 양태가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봄의 콩치잡이와 ‘조기바리’, 여름의 오징어잡이, 겨울의 명태잡이로 이어지는 속초 어판장의 사계가 그대로 투시되어 있으며, 청호동의 주거환경 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²³¹⁾



〈사진 387〉 TV에서 방영된 분노의 왕국

라. 가을동화

드라마 가을 동화는 KBS2에서 2000년 9월 18일부터 동년 11월 7일까지 방영한 미니시리즈로 총 16부작으로 제작되었다. 청호동을 배경으로 한 윤석호 감독의 계절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이자 20세기의 마지막 가을 작품이기도 하다. 남자 주인공은 송승헌, 여자 주인공은 송혜교, 남주역에 원빈, 악역 여주에 한채영으로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했다.

출생의 비밀, 불치병, 교통사고 등 막장 드라마의 삼신기가 모두 들어 있는 작품이지만, 아름다운 화면과 두 주연 배우가 연기하는 애뜻한 분위기가 이를 커버하여서 방영 당시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OST 판매량도 좋았다. 성인 연기자로 성장하려는 송혜교의 청순한 연기를 볼 수 있는 드라마이며 또한 아역이었던 문근영이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²³²⁾

231) 속초문화원(2017), 앞의 책, 17~18쪽.

232) 나무위키 참조.



〈사진 388〉 가을동화 배경이 되었던 은서네집

마. 만선

만선은 이은자의 단편 소설로 실항민 뱃군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월선 조업의 위험을 안고 만선을 위해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실상과 함께 청호동과 속초 어판장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²³³⁾

233) 속초문화원(2017), 앞의 책, 17쪽.

3. 문학 속의 미시령과 청호동

가. 미시령 한시

1) 미수과(彌水坡)

조위한(趙緯韓)

怪石奇岩似劔鉞 괴이한 돌과 기이한 암석이 칼로 잘라낸 듯하고
 重關複嶺逼穹蒼 중요한 관문의 첩첩 고개는 푸른 하늘을 몰아세운 듯 하네
 陰陰嵌竇龍棲祕 음산한 동굴은 용이 숨은 듯하고
 窈窕巔崖鳥道長 컴컴한 벼랑은 새가 지나는 길처럼 늘어졌네
 脚插東溟朝蹙日 다리를 동쪽 바다에 담구어 아침에 해를 차내고
 髻連楓岳夏留霜 상투를 풍악산에 묶으니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네
 縱然未遂愚公計 설령 산을 우공(愚公)의 계획²³⁴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欲斷靈蛇鏹疊岡 신령스런 뱀이 서린 첩첩 산을 깎아 끊어내고자 하네

『현곡집권7(玄谷集卷之七)』

【작자소개】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자는 지세(持世), 호는 소옹(素翁), 현곡(玄谷)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초명은 소한(紹韓),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권필(權鞮), 이안눌(李安訥), 이춘영(李春英)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623년(인조 1) 10월(閏)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였다가 잠시 틈을 내어 양양과 주변 간성, 고성(금강산)지역의 명소를 유람하고 현산록(峴山錄)을 남겼다. 저자의 부임 경로를 살펴보면, 강원도 홍천을 경유하고 인제현에서 머물렀다가 미수과(미시령)로 해서 양양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34) 『列子』 <탕문> 편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을 표현한 것이다.

2) 미시과령 2수(彌時坡嶺 二首)

이식(李植)

平生弧矢志 평소에 호시의 뜻을 품고서
 四方經險艱 사방의 험준한 길 두루 밟고 다녔나니
 南登鳥道棧 남쪽으론 조령(鳥嶺)의 잔도(棧道) 건넜고
 北上磨天山 북쪽으론 마천령(磨天嶺)을 넘어도 보았어라
 不謂東峽路 그런데 뜻밖에도 동쪽 산골 가는 길에
 復有彌坡關 또다시 미시령(彌時嶺)이 버티고 서 있다니
 一川百折渡 돌고 돌아 일백 굽이 건너야 할 강물이요
 一嶺千匝環 일천 겹 에워싸인 준령(峻嶺)이로세
 側足滄波上 한 발 삐끗하면 곧바로 푸른 바다
 舉手靑雲間 손을 들면 잡히나니 푸른 구름
 始怪地何依 처음에는 디딜 땅도 없을 듯 겁나더니
 更擬天可攀 하늘까지 오를 욕심 다시금 샘솟누나
 方知濊國東 이제야 알겠도다 예맥(濊貊) 나라 이 동쪽에
 別是一區寰 따로 별세계(別世界)가 감추어져 왔던 것을
 將窮觀覽富 여기저기 좀 실컷 구경하려 하였는데
 豈計腰脚頑 말 안 듣는 허리 다리 이를 어찌나
 時時領奇絶 때때로 접하는 기막힌 경치만으로도
 且爾開塵顏 속세에 찌든 얼굴 펴기에 족하도다

두 번째(其二)

五步一回顧 다섯 걸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
 十步一停留 열 발 걷고 나서 다시 멈춰 휴식하며
 三朝上峻阪 삼일 동안 아침나절 험한 비탈 올라
 三暮登上頭 사흘 저녁에 정상에 우뚝 섰어라
 巨石傷我足 거대한 바위에 발도 다치고
 顛崖眩我眸 깎아지른 낭떠러지 눈이 아찔했나니
 大哉穹壤內 굉대(宏大)하도다 미시령이여
 茲嶺誰與侔 천지간에 그 무엇이 그대와 짝하리오
 回車與叱馭 수레를 돌렸거나 마부 꾸짖었거나
 忠孝心所求 모두가 충효심의 발로라 할 것인데²³⁵⁾

何意携老母 노모를 모신 이 길 무엇 때문에
 乃反窮遐幽 깊은 골 뒤질 생각 거꾸로 한단 말가
 餘生慕苟全 남은 인생 성명(性命)을 보전할 수만 있다면
 絕跡甘遠投 자취 끊고 먼 산골로 들어가도 좋으려만
 臨風發長歎 바람결에 날려 보내는 나의 장탄식(長歎息)
 吾道知是不 나의 이 길 과연 옳은 것인지

『택당집권5(澤堂集卷之五)』

3) 고개를 넘으며(逾嶺)

不謂軒騰到極顛 생각이나 했으랴 최정상(最頂上)까지 오를 줄을
 向來辛苦費攀緣 그동안 등반(登攀)하랴 얼마나 고생하였던고
 平臨大嶺橫分地 산맥 좌우로 나뉜 지방(地方) 가지런히 굽어 비고
 快眺東溟上際天 하늘과 잇닿은 동해 바다 보기만 해도 상쾌해라
 滌國舊墟今職貢 지금은 공물(貢物) 바치는 예맥(濊貊) 나라 유허지(遺墟地)
 金剛眞氣本靈仙 진기 감도는 금강산 예나 제나 선계(仙界)로다
 前岡欲下重回首 앞 능선 내려오려다가 거듭 머리 돌려 바라보니
 白嶽終南轉杳然 서울의 백악과 종남산 더욱 까마득하여라

『택당집권5(澤堂集卷之五)』

【작자소개】 이식(李植, 1584~1647)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풍당(澤風堂), 본관은 덕수(德水),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조선 중기 문장(文章)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이다.

저자는 1631년(인조 7) 8월에 간성현감으로 임명 받고 10월 간성으로 오는 길에 ‘미시과령’을 넘으면서 느낀 바를 적고 있는 이 시는 작가의 표현대로 ‘돌고 돌아 일백 굽이 물을 건너, 일천 겹 에워싸인 준령을, 다섯 걸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 열 발 걷고 나서 다시 멈춰 휴식하며, 삼일 동안 아침나절 험한 비탈 올라’ 넘어가야 하는 험준한 고개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235) 수레를 …… 것인데 : 한(漢) 나라 왕양(王陽)이 익주 자사(益州刺史)로 부임할 때 공래산(邛邛山)의 구절판(九折阪)을 넘으면서 산길이 너무 험한 것을 보고는 “아버이에게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어찌 이 험로(險路)를 자주 왕래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얼마 뒤에 병을 핑계 대고 사직하여 장안으로 수레를 돌렸는데, 뒤에 왕존(王尊)이 익주 자사로 부임할 때에는 구절판에서 마부를 꾸짖으며 “말을 험차게 몰아라. 왕양은 효자지만 왕존은 충신이다.” 라고 했던 고사가 전한다. 『漢書』〈王尊傳〉

4) 미시령에 올라(登彌時坡)

허적(許禱)

九月登彌時坡大雪滿嶺杆城，襄陽，麟蹄之界

9월 미시령에 오르니 큰 눈이 고개에 가득하다. 간성, 양양, 인제의 경계이다.

岾嶢危嶺接秋空 가과른 고개 가을 하늘과 접하는데
 樹木摧殘大雪中 큰 눈에 수목 꺾이고 시들었네
 鬼鑿羊腸開地險 귀신 양장 뚫어 험지 열고
 人攀馬尾遡天風 사람 말꼬리 잡고 바람 거슬러 가네
 聖人岩下東溟闊 성인암 아래 동해 드넓고
 繼祖窟前西日紅 계조굴 앞 서쪽해 붉다
 神疲暫憩高標上 정신이 피로해 높은 데서 잠깐 쉬니
 若木扶桑目力窮 약목과 부상이 멀리 보인다

『수색집권5(水色集卷之五)』

【작자소개】 허적(許禱, 1563~1640)

자는 자하(子賀), 호는 수색(水色), 상고재(尙古齋), 본관은 양천(陽川), 권필(權鞞), 이안눌(李安訥), 이정귀(李廷龜), 홍서봉(洪瑞鳳), 김류(金瑬), 장유(張維) 등과 교유하였다. 1623년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였다.

5) 미수파(彌須坡)에 올라서 2수

구문유(具文游)

日出之濱有水州 해 돋는 저 물가에 수성 고을이 있다더니.
 彌須嶺盡地西頭 서쪽 땅끝 머리에는 미수령이 또 있구나.
 山腰棧道盤還屈 산허리를 이은 길은 구불구불 돌아 났고
 樹杪人言仰或酬 나무 끝의 사람과는 올려보며 대화하네.
 脚逐騰鼯緣壁上 다리는 절벽 타는 다람쥐를 따라가고
 身隨飛鳥共烟浮 날아가는 새와 함께 창연 속에 몸이 떴네.
 斜陽獨立東回首 해질녘에 홀로 서서 동쪽을 바라보니
 碧海茫茫眩望眸 아득한 푸른 바다 보는 눈이 아찔하네.

두 번째(其二)

振衣千仞上層巔 옷을 걷고 천 길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納納乾坤望眼前 바라보는 눈 앞으로 건곤이 들어오네.
 九邑封疆山畫野 산줄기 들을 갈라 아홉 고을 나뉘놓고
 三韓窮境海吞天 삼한의 땅끝이라 바닷물이 하늘 삼킬 듯하네.
 雲烟引帳頭邊過 운무는 휘장 끝 듯 머리 스쳐 지나가고
 日月迴輪脚底旋 둥그런 해와 달은 다리 밑에서 선회하네.
 此去玉京纔咫尺 여기서 하늘까지는 지척일 것만 같아
 飄然羽化欲登山 날개 돋친 신선 되어 날아오르고 싶다네.

『예곡유집권1(禮谷遺集卷之一)』

【작자소개】 구문유(具文游, 1644~1718)

자는 사아(士雅), 호는 예곡(禮谷).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저자는 1680년(숙종 6) 간성군수를 역임한 구음(具崙)의 아들이다. 부친이 계신 곳을 찾아오는 길에 남긴 작품이다. 간성에서 머무르는 동안 많은 시를 남겼다.

6) 미시령(彌時嶺)

채팽윤(蔡彭胤)

絶嶺天纜尺 절정에서 하늘은 지척인데
 懸蹊石自層 매달린 산길 돌은 절로 층을 이루었네.
 攀緣容稍稍 휘어잡고 오르려니 얼굴은 근심에 차고
 曲折每兢兢 구부러지고 꺾어질까 매양 찢찢매는구나.
 下界花生樹 산 아래 나무에는 꽃이 피지만
 中峯雪沒僧 중봉(中峯)에는 스님이 눈에 빠지네.
 肩輿猶不穩 견여(肩輿)는 오히려 마땅치 않아
 時復倚枯藤 때로는 마른나무 등 넝쿨에 의지하누나.

『희암집권16(希菴集卷之十六)현산록(상)峴山錄[上]』

【작자소개】 채팽윤(蔡彭胤, 1669~1731)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 은와(恩窩), 본관은 평강(平康).오광운(吳光運), 이덕수(李德壽), 이현조(李玄祚), 이현석(李玄錫)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721년(경종 1) 12월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재임 동안 현산록(峴山錄)을 남기었다. 이듬해 8월에는 ‘동해묘(東海廟)’ 제사를 영랑호(永郎湖)에서 지냈다. 1723년(경종 3) 3월에는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고 풍악록(楓岳錄)을 남겼다.

7) 미시령 아래 용두촌에서 잠시 쉬면서 -미시령은 일명 연수파라고도 한다.

〈彌匙嶺底暫憩龍頭村嶺一名連水坡〉

최성대(崔成大)

遠郡苦難到	먼 고을 도착하기 어려움에 괴로워
我行逾十日	내 걸음 열흘 지났지
自春循峽江	봄부터 협강을 따라
經鱗入山樾	인제를 거쳐 산월에 들어가니
其間數百里	그 사이 수백리
路險難盡說	험난한 길 말로 다하기 어려워라
況逢風雪頻	하물며 빈번한 눈바람을 맞고
兼值嵐瘴泄	아울러 학질에 의한 설사를 겪음에라
溪深湍石悍	시내 깊어 여울돌 사납고
谷暗林箐密	골짜기 어두워 대숲 촘촘하니
五馬行逆遭	다섯 말도 머뭇거리고
徒御亦嘖呻	마부도 신음하네
暫入龍頭村	잠시 용두촌에 들어가
歇鞍問村民	안장을 풀고 촌민에게 묻기를
襄州今遠近	양주는 이제 어디쯤이오
何日可抵官	언제 관사에 당도할 수 있소
答云前有嶺	그가 답하기를 앞에 고개가 있어서
高聯雪嶽山	높이 설악산과 이어지는데
其名連水坡	그 이름은 연수파라 합니다
鳥欏與蛇盤	새장처럼 구불구불한데
努力到極頂	노력해서 정상에 오르면
其上有神祠	그 위에 사당이 있어서
俯瞰襄州府	양주부를 내려다보면
如拳渺海涯	바다가 주먹처럼 아득합니다
下嶺始平地	고개를 내려가면 평지가 시작되는데
風煙千里豁	풍연이 천리나 트이고
繁華太平樓	태평루 번화하며
奇勝洛山刹	낙산사 절경이라
官爲太守去	태수로 부임되어 가면
榮耀自可悅	그 영광에 자연히 즐거우리라

莫言登嶺苦 고개 넘기 괴롭다 말하지 마소
 險阻從此畢 험난함도 여기서 끝난다오
 莫愁到州遲 고을에 가기가 더디다고 근심하지 마소
 明日行即達 다음날에 가면 곧 도착한다오
 語罷謝村民 대화가 끝나 촌민에게 사례하니
 藍輿向前發 남여가 앞길을 향해 출발하였다

『두기집권4(杜機集卷之四)』

8) 고개를 오르며 <登嶺>

西攢萬點黛 서쪽으로 일만 점 눈썹 모이고,
 東瀉一泓白 동쪽으로 한 웅덩이 흰빛 쏟아지네
 酌酒奠峰祠 술 따라 봉사(峰祠)에 제례하는데
 孤雲不盈握 외론 구름 한 주먹도 안 되는구려

『두기집권4(杜機集卷之四)』

9) 고개를 내려가 잠시 쉬며 2절 <下嶺小憩二絶>

1절

辛苦越重險 고생하며 층층이 험지를 넘어서
 秣驂停水頭 말 먹이려 물가에 머무르네
 隔岡聞候角 고개 넘어 후각(候角) 소리 들리니
 知是近襄州 양주(襄州)에 인근임을 알았지.

2절

漸覺襄州近 양주에 가까워짐을 점차 깨달으며
 回思京國遙 서울이 멀어짐을 회상하네
 深箒與亂嶂 깊은 대숲과 어지러운 봉우리
 離脫始今朝 오늘 아침에 처음 벗어나네

『두기집권4(杜機集卷之四)』

【작자소개】 최성대(崔成大, 1691~1762)

자는 사집(士集), 호는 두기(杜機),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신유한(申維翰), 오광운(吳光運), 임정(任玼) 등과 교류하였다.

저자는 1750년(영조 26) 1월에 양양부사(襄陽府使)가 되어 정월에 부임하였다.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10) 미수령에 오르다 <上彌水嶺>

김창흡(金昌翕)

臆巖才過立巖高 창암(臆巖)이 재주가 과하여 바위를 높게 세우니,
 撐突雲霄似插刀 구름 낀 하늘까지 치솟아 칼을 꽂아놓은 것 같네.
 負勢眞能長弟起 세력을 믿고 능히 장제(長弟)가 일어나니,
 呈奇似慰往來勞 편지를 부치는 것이 위로하는 듯하여 왕래하며 수고하네.
 名山磅礴斯爲裔 명산의 기세가 높아 후예가 된듯하니,
 詞客牢籠偶爾遭 문장을 읊는 객들이 뇌룡(牢籠)에서 우연히 만나네.
 亦有佳潭蒙惡號 또한 아름다운 연못이 나쁜 소리로 덮혔으니,
 須君洗雪在揮毫 모름지기 그대는 눈으로 씻어낸 붓으로 휘두르시오.

이른바 도연(盜淵)은 샘과 돌이 절경이라 그렇게 이른다네
 <所謂盜淵泉石絕勝故云>

『삼연집권10(三淵集卷之十)』

11) 미수령에 오르다. 두 번째 <上彌水嶺 之二>

行穿萬水亂流號 다니는 곳마다 만 줄기 물이 뚫어 어지럽게 흐르는데,
 病葉蕭蕭墮素袍 병든 잎새 소소하게 흰 옷자락에 떨어지네.
 滿目皆秋缺絕磴 모든 가을이 눈에 가득한데 돌다리에서 끊어지고,
 馳神有海又洪濤 신선이 달리는 바다에 또한 파도가 넘실하네.
 寧惟靈運爲詩妙 차라리 오직 영혼이 움직여 시의 묘미가 만들어진다면,
 詎識安期不我曹 어찌 편안한 시기를 알아서 내 것으로 하지 않겠는가.
 除道千氓迎亞使 길을 열어 수많은 백성들이 부사(副使)를 맞이하니,
 因人得免鑿山勞 그로 인해 사람들이 산을 깎는 수고를 면하였네.

세 번째(其三)

遵茲嶺路幾周遭 이 고갯길을 따라 여러 번 돌고 도니,
 携得詩人興始豪 시인을 이끌고 비로소 호방한 기운을 돋구네.
 原本巖流採經誌 원본암(原本巖) 시냇물에서 경서가 쓰여진 비석을 캐내니,
 剪裁楓菊入風騷 단풍과 국화를 잘라내 문장을 짓네.
 羊腸折折吟逾緩 장속까지 절절하게 읊조리며 끌어내니,
 鰲脊峨峨望益高 거북이 등뼈 같은 산세를 바라보니 더욱 높아지네.
 別有霜空天吼聳 별세계의 서리 내리는 하늘에 회오리 소리가 들리는데,
 耳根清徹籟嘈嘈 귓바퀴에서 바람소리 깨끗이 사라지네.

『삼연집습유권8(三淵集拾遺卷之八)』

【작자소개】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자는 자익(子益), 호는 낙송자(洛誦子), 삼연(三淵)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이단상(李端相), 조성기(趙聖期)의 문인이다.

저자는 1713년(숙종 39) 봄에 간성지역의 영랑호(永郎湖), 화암사(禾巖寺) 등지에서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와 수창(酬唱)하였고 금강산 유람도 함께 하였다.

12) 미수령에서 고자(高字) 운을 얻다 <彌水嶺得高字>

김시보(金時保)

追隨雲月自吾曹 구름과 달을 따라 나의 무리들은
 曉下天臺嘯詠豪 날이 밝아오는 천대(天臺)에서 시를 읊었네.
 深藪熊號秋嶺巨 깊은 풀숲의 곰 울음 소리가 추령(秋嶺)에서 크게 들리고,
 窮山馬病石崖高 산을 돌아다니니 말은 병이 들고 바위는 높이 솟았네.
 峨洋逸調聊相答 산과 바다가 조율하며 서로 답하니,
 瀑布奇觀又一遭 폭포가 떨어지는 기이한 장관을 다시 한 번 만나는구나.
 浮世百年無此樂 덧없는 세상의 백년 삶에 즐거움이 없으니,
 捫蘿竟日敢言勞 녁굴이 온종일 이어지니 감히 말해봤자 수고롭네.

두 번째(其二)

鰲背羊腸去去高 바다거북 등처럼 굽이치고 양의 내장처럼 구불거리며 갈수록
 높아지니,
 車前黃葉墮蕭騷 수레 앞의 누런 잎이 스산히 떨어지네.
 雪山峭壁分天勢 눈 내린 산의 깎아지른 절벽이 하늘의 위세를 가르니,
 楓岳層峰泛海濤 풍악(楓岳)의 층층이 이어지는 봉우리가 파도위에 떠있네.
 奇賞漸知趨異境 기이한 구경을 하며 점차 다른 곳으로 가니,
 遠遊何況得同袍 멀리 떠나며 어찌 하물며 친구를 얻겠는가.
 平看日脚頭邊逼 가만히 햇살을 바라보니 머리 가장자리에 몰려있으니,
 雖未登仙亦足豪 비록 하늘에 오른 신선은 아니더라도 또한 족히 호방하네.

세 번째(其三)

短髮西風倚杖高 짧은 머리에 서풍이 불어 지팡이를 높이 의지하니,
 忽看溟漲莽滔滔 홀연히 바다 파도를 바라보니 푸른 물결 넘실대네.
 爲水元來唯滄海 물이 만들어진 것이 원래 푸른 바다에서 시작되는데,
 與天相際盡洪濤 하늘과 더불어 끝이 없이 파도가 넘실대네.
 輕身况若凌空舉 가벼운 몸이 비록 빈손을 들어 능멸하지만,
 快意堪酬歷險勞 즐거운 마음으로 험난한 고생을 두루 감당하며 맛보네.
 地勢窮邊知物巨 땅의 기세는 몸소 크기를 알았으니,
 笑他天吼似秋毫 다른 천후산(天吼山)을 비웃으니 가을 터럭 같다네.

『모주집권4(茅洲集卷之四)』

13) 고개 위에서 흥을 기록하고 삼연을 보다 <嶺上紀興示三淵>

晨起興飛翻 새벽에 흥취가 일어나 새들이 날개짓하니
 盪漱意共忙 세수하고 양치질할 뜻으로 함께 바쁘네.
 淵翁爲我先 연옹(淵翁)이 나보다 앞서니
 石門閃朝光 석문에 아침 햇빛이 비추니,
 纔看秋野平 가을 들이 눈에 들어오네.
 遂陟雲嶺長 모름지기 구름에 싸인 고개가 길게 이어진 곳에 오르니
 木石亂參錯 나무와 바위가 어지럽게 서로 섞여있으며
 鳥獸叫蒼茫 새와 짐승이 우짖는 소리가 숲에서 들려오네.
 天機所融會 하늘의 기밀이 뭉쳐 있는 곳에 부르고
 唱答未詎央 답해도 아직 가운데에 못미치네.

두 번째(其二)

孰謂水嶺險 누가 일컬어 수령(水嶺)이 험난하다고 하였는가.
 我喜水嶺高 나는 수령이 높은 것을 기뻐하네.
 天際漲波濤 고개 높은 곳에서 만리를 내려다보니
 嶺高俯萬里 하늘 끝에 파도가 일렁이는데
 波濤與島嶼 파도와 섬이
 混茫而峇嶽 뒤섞여 끝없이 산을 이루네.
 咫尺幻雪山 가까운 거리는 눈내린 산처럼 보이고,
 往往起長飈 가끔 긴 물결이 이네.
 浩蕩遂忘世 넓고 끝없이 이어지니 드디어 세상을 잊고,
 素髮倚雲豪 흰 머리를 구름에 의지하네.

세 번째(其三)

片雲去悠悠 조각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니
 極目倚秋空 온통 눈에 는 가을 하늘 뿐이네.
 日輪盪我側 해가 내 곁에서 움직이니
 萬有涵夕紅 만물은 붉은 석양 노을에 담겨있고,

天地亦一形 천지가 또한 한 가지 형태이네.
 行當有終窮 일생토록 곤궁하니,
 人生且自放 인생이 또한 스스로 달아나네.
 百年劇忽忽 백년이 매우 바쁘게 흘러가니
 長謠付跌宕 긴 노래는 질탕하고
 風度天吼松 바람은 하늘에서 소나무로 불어오네.

『모주집권4(茅洲集卷之四)』

14) 오는 길에 본 바를 기억하며 <記來路所見>

彌水嶺高當海門 미수령(彌水嶺) 높아 해문(海門)을 막는데
 雪山盡處壁躑躅 설산(雪山) 다한 곳에 절벽이 뿅뿅하네
 風高天吼蒼崖裂 바람 천후(天吼)보다 높음에 푸른 벼랑 갈라지고
 亭聳雲根白浪翻 정자 운근(雲根) 위로 솟음에 흰물결 번득이네
 島霧還兼野煙漲 섬안개도 들연기와 가득하고
 林禽却與渚鷗喧 숲새도 갈매기와 재잘대네
 馬前漸覺蓬萊近 말 앞서 봉래가 가까워짐을 점차 깨달으니
 眞意悠然在不言 진의가 유연히 무언(無言) 중에 있도다

『모주집권4(茅洲集卷之四)』

15) 미수령에서 눈을 만나며, 완심루에 소회를 부치다 <彌水嶺值雪 寄懷玩心樓>

昔誦淵翁詠雪作 예전에 삼연옹이 <설작(雪作)>을 읊기를
 蒼松古栢冰片落 ‘창송(蒼松)과 고백(古栢)에 빙편(冰片)이 떨어지네’ 하였는데,
 今於路中逢是境 이제 도중에 이런 경우를 만났으니,
 何況雪山聳我側 어찌서 설산이 내 곁에 솟아 있나.
 雪山之白尙以雪 설산의 흰빛이 눈처럼 고상하니
 晶晶瓊瑤觸人目 흰 옥구슬이 눈길마다 닿는다.
 玩心樓中趣何如 완심루 속 정취는 어떠한가.
 愧殺忽忽度峽客 충충히 험곡 지나는 나그네 신세 부끄러워라.

두 번째(其二)

險處才過猶慄慄 험지 겨우 지났거늘 아직도 벌벌떨고,
 凍坂相仍轉詰屈 언 비탈 이어짐에 절로 허리 굽어진다.
 啓轅固已愁嶺塞 떠남에 고개 막힐까 걱정했는데,
 果然中道值大雪 과연 도중에 큰 눈을 만났도다.
 百人開逕杉樞錯 백 사람이 길을 내도 수풀이 어지럽고,
 十僧挈輿手脚裂 열 승려가 수레를 끌어도 손발이 찢어진다.
 治人食人我何有 치인(治人)인들 식인(食人)인들 나와 무슨 상관이라,
 回望石門人煙絕 돌아봄에 석문에 인적도 끊겼어라.

『모주집 권5(茅洲集卷之五)』

【작자소개】 김시보(金時保, 1658~1734)

자는 사경(士敬), 호는 모주(茅洲),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이희조(李禧朝), 정호(鄭澹)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711년(숙종 37) 8월에 김창흡(金昌翕), 정동후(鄭東後), 정선(鄭戢) 등과 금강산(金剛山)을 한차례 유람하였다. 이듬해 7월에 양구현감(楊口縣監)이 되면서 9월에 설악산(雪嶽山)을 유람하였다. 11월에는 간성군수(杆城郡守)로 임명을 받아 12월 18일에 부임하였다. 당시의 나이가 55세였다. 1713년(숙종 39) 봄에는 간성지역의 영랑호(永郎湖), 화암사(禾巖寺) 등지에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과 수창(酬唱)하면서 금강산을 유람도 함께 하였다. 김창흡은 저자의 시에 대하여 평하기를 “그의 시는 성령(性靈)에서 발하는 것이 충담(沖淡)하고 광원(曠遠)하여 왕왕 대아(大雅)와도 같다.” 라고 하였다.

16) 미시령(彌矢嶺)

김몽화(金夢華)

危乎彌矢嶺 위급하도다 미시령이여
 梯棧共鉤連 사다리가 서로 얽혀 연결 되었네
 峯合疑無路 봉우리가 겹쳐있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巖開始見天 암석 사이가 열려있어 비로소 하늘이 보이네
 舍輻休馬足 마굿간에서 말의 다리는 쉬고
 越險賴僧肩 험준한 길을 건너며 승려의 어깨를 의지하네
 遙見巖縫折 멀리 봉우리가 겹쳐진 험준한 곳을 바라보니
 人言雪岳巔 사람들이 말하길 설악산이라고 하네

『칠암집권3(七巖集卷之三)』

【작자소개】 김몽화(金夢華, 1723~1792)

자는 성민(聖民), 호는 칠암(七巖),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저자는 1788년(정조 12) 10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하고 유설악록(遊雪嶽錄), 고성기행록(高城記行錄) 등을 집필했다. 유설악록은 김재찬(金載瓚)과 함께 가을에 설악산을 돌아보고 적은 기행문이다.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알려진 설악산의 와선대(臥仙臺), 비선대(飛仙臺) 등을 돌며 느낀 절경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다.

17) 미시령(彌矢嶺)

이채(李采)

蓬嶽之南雪嶽前 봉악(蓬嶽)의 남쪽 설악(雪嶽)의 앞에
 嶺高眺望更無邊 고갯마루가 높이 솟아올라 끝이 없이 펼쳐졌네.
 羣山落落平蟠地 여러 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평지를 잇고,
 積水蒼蒼遠接天 강물이 푸르고 푸르러 멀리 하늘에 닿아있네.
 鳥度楓巖秋色拖 새들이 나는 풍암(楓巖)에 가을색이 물들이니,
 僧歸花寺夕陽穿 승려가 돌아가는 화사(花寺)에 석양이 길게 뻗어있네.
 令人便有凌雲氣 사람을 시켜 구름의 기운을 침범하니,
 巾服飄然坐若仙 수건과 옷이 바람결에 나부껴 앉아있는 모습이 신선같네.

『화천집권1(華泉集卷之一)』

【작자소개】 이채(李采, 1745~1820)

자는 계량(季亮), 호는 화천(華泉), 본관은 우봉(牛峯)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유한준(兪漢雋), 오희상(吳熙常), 홍직필(洪直弼)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771년(영조 47) 가을, 이보천(李普天), 조원철(趙元喆), 이의숙(李義肅) 등
 세 친우들과 금강산, 설악산 등지를 유람하고 남긴 기행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나. 미시령 지리지

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杆城郡) 산천조

미시파령(彌時坡嶺)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彌時坡嶺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 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 復開此路>

2) 간성지(1633) 산천조

미시파령(彌時坡嶺) 고을 남쪽 80리 쯤에 있으며, 예전에는 지름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다니지 않는다. 1493년(성종 24)에 양양부(襄陽府)의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이 길을 다시 열었다. 양양(襄陽)과 간성(杆城) 두 읍의 관로(官路)²³⁶⁾이다.

<彌時坡嶺[在郡南八十里許舊有徑路廢不行○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故復開此路襄杆兩邑官道也]>

3) 유평아기(游楓嶽記) 己丑(1709년)

김유(金樛)

“마침내 고개를 넘었다. 고개는 바로 이름이 미시령이었는데 혹 ‘미일령(彌日嶺)’이라고 일컬었으며 세속에서는 연수파(烟樹坡)라 부르기도 하니 가로 막히고 함준하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일컬어진 곳이다.” <遂踰嶺嶺卽名彌時而或稱彌日俗號烟樹坡阻峻稱於世>

『거재집권20(儉齋集卷之二十)』 기(記)

【작자소개】 김유(金樛, 1653~1719)

자는 사직(士直), 호는 검재(儉齋), 본관은 청풍(淸風),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 이관명(李觀命), 김간(金幹), 이희조(李禧朝) 등과 교유하였다.

236) 관로(官路) : 예전에, 국가에서 관리하던 간선 길.

다. 청초호 한시

1) 청초호를 지나며 <過靑草湖>

이상질(李尙質)

靑草湖邊白日斜 청초 호숫가에 해는 기울고
 西來山影倒淸波 서쪽으로부터 온 산 그림자, 푸른 물결에 드리웠구나.
 海棠開遍鳴沙路 해당화 활짝 핀 명사(사각거리는 모래) 길
 放馬徐行踏落花 말고삐 풀어두고 유유자적 꽃잎 밟으며 간다네.

『가주집(家州集)권1 卷之一』

【작자소개】 이상질(李尙質, 1597~1633)

권필의 문하생. 인조반정 이후 성균관에 입학했고, 예조좌랑, 부수찬·정언을 거쳐 교리에 이르렀다. 인조가 사친을 추숭하고자 하는 것을 극간하다가 유배되었다. 문집 『가주집』이 있다.

저자는 1617년(광해군 9) 4월 1일 양양 부사로 있는 정엽(鄭曄)을 찾아와 14일 동안 금강산 유람을 함께하였다. 정엽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사이로 양양과 간성, 고성 일대의 지역의 유람을 기록으로 이때 남긴 시이다.

2) 월계 가는 길 <月溪途中>

유희경(劉希慶)

山舍雨氣水生煙(산함우기수생연) 산은 비 기운을 머금고 물에선 안개가 피어나는데
 靑草湖邊白鷺眠(청초호변백로면) 청초호 호숫가엔 백로가 잠들었네
 路入海棠花下轉(로입해당화하전) 길은 해당화 아래로 들어 들고,
 滿枝香雪落揮鞭(만지향설락휘편) 가지 가득 향기 나는 눈이 휘두르는 채찍에 떨어지네

* 月溪는 강원도 양양에 있다.

『촌은집(村隱集)권1』 卷之一』

【작자소개】 유희경(劉希慶, 1545~1636)

조선 선조 때의 학자. 자는 응길(應吉). 호는 촌은(村隱). 예론과 상례(喪禮)에까지 두루 통달하여 국상과 서민들의 장례에도 그에게 자문하였다. 광해군 때에 폐모를 상소하라는 이이첨의 청을 물리치고 은거하였다. 저서로 『촌은집』, 『상례초(喪禮抄)』가 있다.

3) 청초호에서 사위 이군의 시를 차운하다. 이름은 상질(尙質)이다 <靑草湖次李甥韻名尙質>

정엽(鄭曄)

行近漁家細路斜 어부의 집 가까이 가니 오솔길이 비껴 있고
 湖連溟渤杳澄波 바다에 잇닿은 호수에 맑은 물결 아득해라
 山光水色煙霞裏 산 빛과 물빛이 노을 속에 잠겼는데
 處處鳴沙步步花 곳곳마다 명사(鳴沙)요 걸음마다 꽃이라

『수몽집권1(守夢集卷之一)』

【작자소개】 정엽(鄭曄, 1563~1625)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몽(守夢), 설촌(雪村),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송익필(宋翼弼), 성혼(成渾), 이이(李珣)의 문인. 김장생(金長生), 이정귀(李廷龜)와 교유하였다.

저자는 양양부사로 재직하면서 1617년(광해군 9) 4월 1일(윤) 서울에서 온 두 사위 나만갑(羅萬甲)과 이상질(李尙質) 그리고 손자 원(援), 낙산사 주지승 원우(元祐)와 함께 양양을 출발하여 14일 동안 금강산 유람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금강록(金剛錄)에 그려내고 있다. 이 시는 이때에 지은 작품이다.

4) 청초호 <靑草湖>

조위한(趙緯韓)

平湖極目杳無涯 넓은 호수 눈에 가득 아득히 끝없으니
 河伯媿媿不自多 하백(河伯)도 우물쭈물 으스대지 못하네
 持比洞庭宜見小 동정호에 견주어보면 당연히 작아 보이나
 竝名靑草未爲過 청초호란 이름에 부합함은 과장이 아니라네
 倒涵雪岳千峯影 설악산 천 봉우리 그림자 잠겨 있고
 旁接滄溟萬里波 푸른 바다 만 리 파도 가로 접하네
 時有女郎隨伴侶 당시 여랑(女郎)이 반려자 따라
 芳洲爭唱采菱歌 꽃다운 모래섬에서 채룽가를 다투어 노래했지.

『현곡집권7(玄谷集卷之七)』

【작자소개】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자는 지세(持世), 호는 소옹(素翁), 현곡(玄谷),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초명은 소한(紹韓)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권필(權鞞), 이안눌(李安訥), 이춘영(李春英)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623년(인조 1) 10월(閏)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도입되었다가 잠시 틈을 내어 임소인 양양과 간성, 고성(금강산)지역의 명소를 유람하고 현산록(峴山錄)을 남겼다. 이 시는 재임 도중에 남긴 작품이다.

5) 청초호에 묵다 <宿靑草湖>

황호(黃虯)

丈夫有深恥 장부에게 깊은 치욕 있나니
 小技尙虛名 작은 재주로 헛된 명예 숭상함이라
 牢落非身事 뇌락히 신세를 비난하며
 蒼茫老世程 창망히 세상길에 늙어감이라
 鄉書無雁到 고향 소식 오지 않는데
 塞月向人明 변방 달빛 나그네 비추네
 稅駕知何地 휴식할 곳 어디인지 알겠으니
 年年賦遠征 해마다 먼 여정에 시를 짓네

『만랑집 권3(漫浪集卷之三)』

【작자소개】 황호(黃虯, 1604~1656)

자는 자유(子由), 호는 만랑(漫浪),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조정(趙綱), 조희일(趙希逸), 윤명은(尹鳴殷), 유철(兪徹)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637년(인조 15)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이곳을 지나면서 타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은 시이다.

6) 청초호 <靑草湖>

오도일(吳道一)

四月江城黃鳥飛 4월 강변 고을에 피꼬리 날고
 綠陰如海見花稀 녹음 바다 같아 꽃 잘 안 보이네
 偶逢詩友携仍出 우연히 시우(詩友) 만나 이끌고 나가니
 却被風光挽不歸 좋은 경치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게 만류하네
 山意釀雲侵酒席 산의 뜻 구름 빚어 술자리 엄습하고
 雨痕抽蘚上漁磯 비의 흔적 이끼 빼어 낚시터에 오르네
 歌姬祗管明朝別 가희(歌姬)²³⁷가 그저 내일 아침 이별을 노래하니
 枉唱銷魂金縷衣 부질없이 노래하며 애간장 녹임이 금루(金縷)²³⁸라

『서파집권4(西坡集卷之四)』

7) 청초호 <靑草湖>

吏術三年太半詩 관리 노릇 3년에 태반이 시인데
 況逢雲物媚芳時 더구나 구름 같은 아름다운 때를 만남에라
 閒哦一任冠欹側 한가로이 읊조림에 오직 갓망건 따라 기울이며
 倦步惟憑杖護持 느릿느릿 걸음에 그저 지팡이 따라 지탱하네
 寒峭野梅猶溢眼 추위 심함에 들 매화 눈에 어른거리고
 雨晴汀柳欲舒眉 비 개임에 물가 버들 눈썹 펴려고 하네
 夕陽江岸頻移席 석양 강가에 자주 자리 옮기는데,
 烹艾又魚處處宜 쑥 찌며 고기 잡는 곳곳마다 참 좋구려

『서파집권4(西坡集卷之四)』

237) 가희(歌姬) 옛날 노래를 아주 잘했던 노(魯)나라 우공(虞公)이란 사람이 노래를 할 때에 그 발성(發聲)이 매우 청아하고도 애절하여 들보의 먼지가 날렸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238) 금루(金縷): <금루곡(金縷曲)> 혹은 <금루의(金縷衣)>의 준말로, 남자의 욕정을 부추기며 유혹하는 노래 이름이다.

8) 청초호 모래 언덕, 비바람을 만나 배를 돌리다 <靑草湖沙岸遇風雨回舟>

爲餞殘秋訪小山 진별하려고 늦가을에 소산을 찾아가니
 滿江風雨一帆還 강에 가득한 비바람 돛단배 하나 돌아가네
 吹顛任却冠巾倒 바람 뒤집힌 탓에 갓망건 엎어지고,
 灑急從他衣袖斑 물보라 거센 탓에 옷소매 얼룩지네
 眞境祇應吾輩會 진경(眞境)이 그저 우리의 모임에 호응하니,
 勝情能有幾人攀 승정(勝情)을 겨우 몇 명이 부여잡았어라
 閣寒更藉官醅力 누각 찬데 거듭 술잔 기울이니
 醉暈微微欲上顏 취기가 으슬으슬 얼굴에 오르려 하네

『서파집 권4(西坡集卷之四)』

【작자소개】 오도일(吳道一, 1645~1703)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최석정(崔錫鼎), 조지겸(趙持謙), 조상우(趙相愚) 등과 교류하였다.

저자는 1680년(숙종 6) 영남 암행어사가 되었으나 허적(許積)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후 강원도사(江原都事)로 임명받았으나 그해 4월 환국이 일어나 지평이 자리를 옮겼다. 1695년(숙종 21) 3월에 강원 감사 시절 관동지역의 울진(蔚珍)을 거쳐 금강산을 유람하고 『관동록(關東錄)』을 남겼다.

9) 청초호에서 이진희에게 보내다 <贈靑草湖李生震熙>

김창흡(金昌翕)

絳帳非吾事 스승은 내 소임 아니거늘
 諸生漫往還 제생들 부질없이 왕래하는구려
 喧應吠雪犬 소음이 응당 설견(雪犬)을 짓게 하리니
 養豈出泉山 봉양이 어찌 천산(泉山)에서 나오리오
 餘師在黃卷 다른 스승은 책속에 있나니
 努力趁朱顏 얼굴 붉히도록 노력해야지
 摳衣與操杖 스승 모시는 일이
 何必此巖間 하필 이 산골짜기에 있으리오.

두 번째(其二)

年窮吾欲默 한해 다하도록 내 가만히 있으려 하였거늘
 講輟爾將還 강회 끝나면 너는 돌아가려고 하나.
 餘意燈留榻 여운이 남음에 등불이 책상에 남아 있고
 孤征雪遍山 외로이 감에 눈이 산을 두르고 있네
 詞華雖李杜 화려한 문사가 설령 이백·두보라도
 德學竟曾顏 덕행·학문은 결국 증자·안연이라
 侍下勤存省 시하는 존양성찰에 힘써서

『삼연집권11(三淵集卷之十一)』

10) 원암(圓巖)에서 청초호로 향하며 <自圓巖向靑草湖>

遙空野馬漾如波 먼 하늘 야생마 파도처럼 출렁대고,
 滄海無邊碧色多 푸른 바다 끝없이 푸른 빛깔 많도다
 垂老壯遊憑浩氣 노년에 멋진 유람하며 호방한 기운에 기대니
 白鷗休笑鬢毛蟠 흰 갈매기여 귀밑머리 다새었다고 비웃지마라!

『삼연집권8(三淵集卷之八)』

저자는 1705년(숙종 31) 9월에 양양(襄陽)를 거쳐 강릉(江陵), 간성(杆城)을 유람하며 지은 작품이다.

11) 청초호 <靑草湖>

채팽윤(蔡彭胤)

北折瓮峴路 북쪽으로 웅현의 길로 꺾어 들고
 右轉滄海水 우측으로 창해의 물로 돌아 가네
 有湖千頃匯 호수 드넓게 모이고
 凝碧頗瀾瀾 응벽지 질펀히 흐르네
 發源天吼陽 천후산 양지에서 발원하고
 橫決神興趾 신흥사 터에서 횡행하네
 每年水潦至 매년 장마철이라
 查石此輸委 나무며 바위가 이곳에 흘러드네
 嵌空成窟穴 구멍 뚫어 동굴 만드니
 魚鼈所託止 물고기·자라가 머무는 곳이라
 篙楫既難容 뱃노도 이미 용납하기 어렵거늘
 罾罟不可以 그물이야 쓸 수 없어라.
 有時上流溢 때때로 상류가 넘쳐서
 沙崩隄以圯 모래도 무너지고 제방도 무너지면
 海波遂壘入 바다 파도 끝내 유입되어
 澶漫通萬里 아득히 만리나 통하니
 黃魚喜新水 누런 물고기 새 물결 기뻐하여
 隊隊東南徙 무리지어 동남쪽으로 옮겨가네
 漁師伺其便 어부는 그 편리한 시기를 살피서
 日夜集涯涘 주야로 막다른 곳에 모으니
 碧鱗絳織綸 푸른 비늘 낚시에 걸리고
 頰肌落刀几 붉은 껍질 도마에 떨어지네
 向來深淵底 그동안 연못 밑에 깊이 숨었으니
 誰能施鉤餌 누가 능히 미끼를 쓸수 있었던가
 禍媒進取急 재앙의 매개에 진취가 급해지고
 厲階隄防毀 재앙의 계제에 제방이 무너져서
 今年又決潰 올해 또 터지니
 此物多入市 이 물건 대거 시장에 유입되리.

我來渡不得 내 건너 오려 하나 그러지 못해
 下馬步沙沚 말에서 내려 모래섬을 걸으니
 盈盈尋丈間 넘실넘실 한길 한발 사이에
 招招待舟子 뱃사람 불러대네
 安知魚貴賤 고기잡이 귀천 누가 알리
 良苦泥行李 행장에 얽매여 참으로 괴로움을

『희암집권17(希菴集卷之十七)풍악록(楓岳錄)』

【작자소개】 채팽윤(蔡彭胤, 1669~1731)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 은와(恩窩)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오광운(吳光運), 이덕수(李德壽), 이현조(李玄祚), 이현석(李玄錫)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는 1721년(경종 1) 12월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도임하여 재직 중인 1723년(경종 3) 3월에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고 『풍악록(楓岳錄)』을 남겼다. 이때 지은 작품이다.

12) 청초호에서 척주(陟州) 사군의 시를 차운하다 靑草湖次陟州使君韻

조문명(趙文命)

近海多逢百頃湖 인근 바다 드넓은 호수 가득 맞는데,
 湖心倒影雪山孤 호수 한복판에 외진 설악산 그림자 비치네.
 初來遠地忘爲客 먼 지역에 처음 와서 나그네인줄 잊으니,
 在處名區不負吾 가는 곳마다 명승지라 날 저버리지 않네.
 魚似松江頻入網 송강(松江) 같은 물고기가 자주 그물에 들어오고,
 酒如澗水欲添壺 민수(澗水) 같은 술²³⁹이 항아리를 더해가네.
 使君別是風流主 사군은 특별한 풍류의 주인이니,
 官吏迎開竹裡廚 관리가 맞아 대숲 속 주방 열어주네.

『학암집책』(鶴巖集冊一)』

【작자소개】 조문명(趙文命, 1680~1732)

자는 숙장(叔章), 호는 학암(鶴巖),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봉호는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자는 1713년(숙종 39) 금강산(金剛山) 유람 때 지은 시이다.

239) 민수(澗水) … 술 :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2년에, 제(齊) 나라 임금의 “술은 민수처럼 많고 고기는 언덕처럼 많다.[有酒如澗 有肉如陵]” 고 말한 내용이 있다.

13) 청초호 <靑草湖>

유휘문(柳徽文)

鳴沙十里碧湖東 명사(鳴沙) 10리 푸른 호수 동쪽,
 漠漠輕鷗裊裊風 아득아득 가벼운 갈매기 간들간들 바람,
 舍瑟鏗然千古樂 쟁그렁 비파 놓는 소리 천고의 음악,
 天機隨處自然中 천기(天機) 가는 곳마다 자연히 맞도다
 청초호 주변에 명사(鳴沙)이 가장 많다 <湖邊鳴沙最多>

『호고와문집권1(好古窩文集卷之一)』, 『북유록(北遊錄)』

【작자소개】 유휘문(柳徽文, 1773~1832)

자는 공회(公晦), 호는 호고와(好古窩), 금호산인(錦湖散人),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유장원(柳長源), 남한조(南漢朝), 정종로(鄭宗魯)의 문인. 남한호(南漢皜), 유식(柳栻), 이병운(李秉運),姜운(姜標) 등과 교유하였다.

저자의 북유록(北遊錄)은 수록되어 있는 이 시는 1819년 9월에 중형 유도문(柳道文)과 이우겸(李宇謙)이 동북 지역 유람을 권유하여 함께 떠나 북상하면서 평해의 <월송정>, 울진의 <망양정>, 삼척의 <죽서루>,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간성의 <청간정>, 고성의 <삼일포>, 통천의 <충석정> 등의 관동팔경과 금강산 일대와 관동지역의 명승지 유람할 때 지은 작품이다.

라. 청초호 기록

이도현(李道顯)

청초호. 양주(襄州) 북쪽 30리에 큰 호수가 있다. 사람들이 일컫기를 ‘그 주위 30리를 『지리지』에서 영랑호라 한다.’ 하는데, 암석이 기괴하다.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호수 중심에 절반 들어가 있다. 그 위에 옛 정자 터가 있는데, 이는 대개 또한 영랑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이 호수는 영동 지역 호수 중 가장 큰 곳이다. 따라서 파릉(巴陵)²⁴⁰ 청초호의 이름을 취하여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파릉의 호수는 주위가 수 백리이니 이는 실로 견줄 수 없다. 靑草湖〈襄州北三十里有大湖人稱其周三十里地誌以此爲永郎湖巖石奇怪東有小峯半入湖心其上有古亭基蓋亦永郎仙徒遊賞之地是湖爲嶺東諸湖之最大者故取巴陵靑草湖之名以名之然巴陵之湖回數百里則此固不能侔矣〉

千頃湖光一鏡奇 드넓은 호수 빛 거울 같아 기이한데
 漁舟出沒碧琉璃 푸른 유리에 고기잡이배 출몰하네
 夕陽來唱巴陵曲 석양에 와서 파릉의 곡조 부르니
 驚起寒鷗直北移 놀라 일어난 갈매기 곧장 북쪽으로 옮겨가네

『계촌문집권2(溪村文集卷之二)』

【작자소개】 이도현(李道顯, 1837~1907)

자는 치문(釋文), 호는 계촌(溪村)이다.

저자의 관동잡영(關東雜詠)은 1887년(고종 24) 가을에 강원도지방의 명승고적 가운데 주로 금강산의 풍물을 담고 있어 ‘금강산유람시’라고 평할 수 있는데, 제목마다 해설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운 것이 특색이다.

240) 파릉(巴陵) : 중국 호남성에 있었던 군(郡) 이름이다. 이곳에 천하의 절경인 동정호가 있고, 동정호가에 악양루가 있다.

4. 구비전승 설화

가. 청초호 용경(龍耕)

청초호에 대해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경이 나오는가 하면은 청초호가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호가 얼니다. 어는데 얼음을 보고서 그 다음해의 농사를 풍흉을 그 점쳤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논을 갈아 논 것같이 그런 얼음이 얼니다.

그걸 갖다고 용경(龍耕), 용갈이, 용이 논을 갈아 놓았다는 뜻이 용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용경이 누워 있는 방향을 보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점쳤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청초호이면서 이 청초호는 앞으로 우리 속초로 보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쪽에 남을 향해서 갈아났을 때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서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남북을 나눠서 길흉을 점쳤어요.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나. 청초호 용의 전설

청초호는 용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속초의 민속놀이 중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의 유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숫룡과 암룡이 살고 있었다. 청초호에는 숫룡(청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황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 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며 사랑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숲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숫룡이 죽고 말았다.

이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해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용을 달래고 흉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해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이 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가 거행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다. 청초호와 민속

청초호를 쌍성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쌍성호라 했냐하면 영랑호하고 청초호하고 호수가 들이기 때문에 쌍둥이이기 때문에 쌍성호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청초호 호수 가운데 청룡이 살았다 해서 청초호라 하고 영랑호는 황룡이 살았다 해서 황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랑호라면 기록에 엄연히 영랑(永郎)이란 게 남아 있고 또 이쪽은 쌍성호라고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호수인데 영랑호는 이미 이름을 얻었고, 청초호는 이름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청초호에서는 무슨 놀이가 있었나 하면 논뉘호의 불꽃놀이, 논산을 우리말을 하면 논뉘가 됩니다. 뉘 산(山)자니까 지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청초호를 논뉘호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 봉건시대에는 높은 사또가 부임하면 지방 사람들이 그 사또에게 잘 보일려고 환영식을 하는데 여기서 해 왔다는 것입니다.

남궁억 선생 때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남궁억 선생(1863~1939) 그 다음에 최모 씨던가 그 양반 때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하면 그런 불꽃놀이 하다가 빠져 죽은 익사 사고가 생겼다. 그래 없어졌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일본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없애려던 차에 호기가 됐고 한가지는 여기 용암이란 바위가 있었답니다.

그 길이가 구척이나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억 선생이 4월 초파일에 이 지역사회분들과 거기서 술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 일본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주연을 베풀었다. 그래서 청초호가 한층 더 이름이 높아 났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바위를 항구를 만드느라고 그 바위를 깎습니다. 박상희란 분이 청초호를 개항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 게가 얼마든지 많았는지 사람들이 가을철만 되면 밤에 햇불을 켜두고 쪽 와서 게를 잡느라고 불야성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오징어 배가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듯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다리역할을 했다 해서 주교(舟橋)라고 저쪽 부월리를 주교리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소야팔경 중에 주교야화(舟橋夜火)란 말도 그때 그 불이 아주 꽃같이 밤에 피니까 주교밤 꽃이라고 소야팔경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뭘니까? 옛날보다 기후가 좀 뜨셔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30년전만 해도 청초호가 많이 얼었습니다. 열때 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양강지풍(襄江之風:양양·강릉은 바람이 심함)이라해서 바람이 심하니까 그 열때 마치 파도 물결이 치듯 바람이 부니까 논밭을 같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경(龍耕), 용갈이라고 불려왔답니다.

〈박익훈, 남·77, 교동, 1992. 4. 21.〉

라. 청호동 갯배

갯배가 여기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처럼 생겼고 이 뒤로 육지로 돌아 갈라카면은 한 10리, 15리 거리가 되니까, 그리 거기서 보면은 불과 한 100m 거리 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갯배를 마련해 가지고 줄을 땡겨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은 시내에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

그거가 여기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생긴건데 언제쯤 될까? 53년, 그러니까네 여기에 피난민들이 집결되서 살고 하나까네 한 60년대 뭐 그쯤 되어서 아마 갯배가 마련됐을 거야.

〈황화수, 남·75, 청호동, 1999. 12. 4.〉

마. 청호동 성황제

성황당은 요가면 있는데 조 앞에 가면 바닷가 쪽에 조 높은 산 위예다 있잖아 났는데, 성황당이란 거는 옛날 고래 풍습이지. 신을 믿고 그 성황당이라는 거는 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성황당 신을 많이 믿어.

“그저 고기라도 많이 잡아주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에 가서 제사를 모셔.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게 성황당이야.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제사를 모시고 그러지.

옛날에 도감도 말아보았는데, 옛 풍습에 의하면 성황제라 하면 주로가 전체 동민들이 모여가 하는기 원칙이지마는 여기에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돈을 내고, 제물을 갖추고 굿도 하고 소도 잡고, 옛날에는 두 마리씩 잡고 했는데, 거기 동 전체의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냈지요.

〈황화수, 남·75, 청호동, 1999. 12. 4.〉

바. 청호동 유래

왜 청호동이라고 하는냐 청호동이 말이지 앞에 이 청초호가 있잖아 청초호를 이렇게 움싸고 있으니까 맑은 호수를, 푸른 호수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청호동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전부가 반도처럼 생긴 일종의 속초지역을 봐서는 반도 형태지마는 일종의 섬과 같이 좁 거리가 시내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 저 갯배가 땡기고 그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기가 백사지 땅이고 국유

지인데 피난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빨리 갈까 해가지고 38선 가차이에 혹 빨리 수복이 되면은 찾아가까 해서 또 이북에서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고 순간이라도 살라면은 아는 직업을 택해야 되고 바닷가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여기 와서 바닷가에서 뭔가 종사를 해야 생계유지가 되니까 고기잡이가 주축이니까 여기 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여기에 정착을 한 거지. 그래서 여 청호동이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집결되어 가지고 살다보니까네 여기 주로 함경도 분들이 많고, 이래서 한때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 ‘아바이’라는 것은 함경도에 가면은 영감님이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을 ‘아바이’라 이리 카거든. 그래 ‘아바이 마을’이라고 호칭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야.

〈황화수, 남·76, 청호동, 1999. 12. 4.〉

사. 척산의 유래

척산지역의 명칭 같은 경우 자 척(尺)자에 뫼산(山)자를 쓰거든요. 어떤 척도를 잴다, 관측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관측소로 위치했다는 유래도 일설에 있어요.

해군기지가 대포항에서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그쪽 지역이 넓고 이쪽 해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관측소가 있다는 측면에서 척산 마을 이름을 자척(尺)자를 쓰고 뫼 산(山)자를 써서 척산마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유래는 그렇게 되요.

그 다음에 대포항에 수군병영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쪽 노리지역에 '수군만호유호'라는 게 있었어요. 유호라고 얘기는 그 해군장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관사 같은 곳인데 그곳이 아마 노리에 있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쪽지역은 대포항과 연계해서 군사적인 측면에 강이 높아서 실제 또 노학이라든가, 만천동이라든가 동리의 특성 노학동은 갈대가 많은 마을이고, 갈대가 많은 동네라서 갈골마을이라고 그거하고 유사하게 척산마을을 제가 설명해서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명명이 되어진 그런 것이고 이목리 같은 거나 도리원 같은 경우는 그쪽의 일부 마을입니다.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아. 파명당(破明堂)과 학사평(鶴沙坪)

명당자리를 아주 그 처음에 명당자리를 제대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잘못해 가지고 파명당을 만들었다 하는 문젠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딘가 하면 척산, 척산서 지금 현재 달마봉으로 연결하는 그 한 산능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면 지금 서울대학 산장이 거게 있지요. 거 산장 거게서 조금 올라가면 그 구릉 있는 데로 쪽쪽 올라가면 그 능선이 파명당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게 올라가 보면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 명당을 어떤 지관에 의해 가지고 그 명당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산주가 상당히 그 겨울에 사냥하는 것을 상당히 즐겼습니다. 사냥하는 것, 그 수렵을 상당히 즐겼는데 그 친구 세 사람이 같이 그 겨울에 수렵을 하러 나갔는데 다른 그 능선은 눈이 잔뜩 쌓였는데 그 위치만은 눈이 녹아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니까 이 사람들이 스이서 거게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지역에는 전부 눈이 있는데 이 지역만은 눈이 녹았으니 이건 분명히 명당지리다 이 말이야. 그래니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세 친구 중에서 누가 먼저 죽던지간에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자리에 묻히기다."

그래 약속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 한 사람은 산주입니다, 산주. 그래 이제 거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참 몇 해 지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말이지요 그 산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 산주가 죽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묘를 쓰게끔 그 친구들이, "우린 묘터 봐 놓은게 있으니, 그 아버지가 원한 자리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갖다 묘를 써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묘를 썼단 말입니다. 묘를 써 놓고 난 다음에 참, 우짜 됐던지 간에 그 뭐 가정에 말이야 참, 붙은 것은 없지만 또 망한 것도 없고 약간 그, 그래도 뭐인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여자들이 딸이 낳으면 그 딸들이 팔자가 세단 말이야. 그래 한 번은 가만히 그 딸들이 어데 가 점을 해 보니까 그 묘자리가 말이야. 너무 역세서 말이야. 남자들은 그 가정에 잘 되지만 여자들은 그 팔자가 역세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니까 이 딸네들이 말이야 남자들만 잘살라고 그런 자리에 묘자리에 묘를 써 놓고 우리 딸네들은 완전히 만날 그 과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야, 그래니 안 되겠으니까 이 묘자리를 옮겨야 하겠다. 그래 이제 딸네들이 냅다 우기니 아들네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사실 그렇거든요.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고 여형제간들은 만날 망하도록 놔 둘 수만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그 묘자리 나쁘다면은 우리 옮겨 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리고가 가지고 묘를 뺐단 말입니다. 묘를 파니까 아, 정말 봉분을 다 파 가지고 관이 드러날까 하니까 학이 두 마리가 나오드립니다.

학이 두 마리 날라 나와서 한 마리는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북쪽을 향해 날아간 학이 어데 앉았나 하면 지금 학사평(鶴沙坪)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지금 대학 짓는 그 건물 거게가 학사평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래

밭이에요. 이 노학동을 옛날에 갈골, 갈밭이라고 했었는데 이 영랑, 청초호가 물이 그꺼정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갈골입니다.

그래서 그 우예가 학사평인데 모래밭입니다. 거게 인제 학이 내렸다 해서 학 학자에 모래 사자를 써서 학사평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남쪽으로 날아간 학은 지금 저 손양, 양양군 손양면에 가면 학포리(鶴浦里)라고 있습니다. 그 학포리에 앉았다 해서 그 학포라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 고지명(古地名)을 보면은 그 학포리는 그래서 학포리가 아닌데마, 그러한 전설이 한 면 있지요.

그 다음에 노학동, 노학동이라 명명이 된 것이 옛날 그 노동입니다. 갈골인데 갈골과 학사평이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갈골 노동의 노자를 따 가지고 노학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치는 바람에 노학동이라 하는 이름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 파명당에 얽혀서 그 하나 생겼는데 이름이 합쳐 가지고 우리 속초의 고유 동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파명당에 대한 전설로서 이쪽에 학사평이라는 말은 그 비슷한 점이 수궁이 가는데, 손양면 학포리 문제는 전연 수궁이 가지 않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전설은 전설이니까...

〈김봉춘, 남·54, 금호동 13/2, 1981. 4. 27.〉

자. 미시령 전설

미시령은 원래는 옛날에는 미시타령이래요, 아득할 미, 화살 시(矢) 자가 아니라 때 시(時) 자래요. 그건 뭘고 하니 아득한 시간이 걸려야 그 재를 넘어 갈 수 있다. 그 말이래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 내력을 모르니까, 요즘에 와서 미시 이게 활에 관한거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래요. 미시령은 때 시자다. 미시령은 본래는 대관령도 그렇고 무신 재든 간에, 재 밑에는 역이 있어요, 역마을.

지금 우체국 같은 거. 통신 역할, 물건을 운반하고. 그러면은 역에는 사람이 타는 말이 있고, 짐신는 말이 있거든. 역이 크면 클수록 말이 많지요. 근데 미시령 밑에는 원암역이 있었어요.

원암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암역은 고려에는 장천리에다 역을 만들려니까, 장천리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거예요. 역사사람이란 상놈이다 이거요.

옛날엔 양반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역을 만드냐 안된다 이거야. 김진사란 진사가 장천에 났대. 진사 같으면 생원인데 양반이지. 진사난 마을에 양반마을에 우예 짓냐 말이지. 그래 할 수 없이 원암이란 데로 옮겼어. 원암 이 미시령 밑에. 그 원암역에 가면 서낭봉이란 게 있어요.

동네 한복판에 큰 능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서낭당이 있다고 해서 그 봉을 가보면 마을 한복판에 어디서 왔는지 묘겜이 생겨서. 그것이 서낭봉이다 이거지. 그 서낭봉은 미시령을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낭당에 와서 제사를 올리고 넘어가야 무사하다 이거야.

왜 그런고 하니 옛날 도적이란게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있다가 사람이 짐 싣고 지나가면 장사꾼같이 물건 뺏기고 죽이고 그러지. 그다 제사를 지내고 가야 무사하다. 하. 그래서 서낭봉.

그리고 미시령 꼭대기 다 갈 무렵에 얼마 안 남겨 놓고 왼쪽으로 촛대걸은 바위가 아주 묘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그 바위를 우리말로 잘 바위라 하고 한문은 숙암이라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재가 험하고 기니까 사람들이 거서 자고 갔대.

거기에 주막이 있었지. 그 넘에 넘어가면 도적소란 게 있어요. 지금은 산비탈로 길이 났지만 옛날에는 골짜기로 땡겼다 이거야. 그 밑에 도적소에 가보면 그 밑에 길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밑에 물이 흘러가는 조그마한 폭포가 그 밑에 있다. 도적놈들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 뺏고 돈 뺏고 그 소에 집어넣어 죽였다. 그래서 도적소라.

그런가 하면 미시령에 대해서 맨 꼭대기에 가면 미시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휘호가 있어요. 거기엔 미시령이라고 역시 화살 시(矢)자로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화살 시자로 써놨는데 왜 때 시(時)자라고 하느냐 하는데 어찌 대통령이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다 아는고? 여기 사람이 그렇게 써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 대통령이 알아서 쓰게 아니거든.

그 잘못 써 있지. 이박사 호가 우남이거든. 그 앞에 써 있지.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얘기가 택당 이선생이 쓴 것에 여기에 가면 영랑호 저쪽으로 간성군 토성면이 있는데, 토성면에 애남이란 백정이, 여기에 영월 넘어 가가지고 너무 험해가지고 못 다니니깐. 미시령, 그때는 오색령, 지금 그러니까 한계령으로 넘어 다녔거든.

그 한계령을 양양사람은 오색령이라 하고 인제 사람은 한계령이라 하고. 왜 그런고 하니 양양사람은 오색이라 하나면 한 나무에 오색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고. 거기에는 돌에 오색이 많다고. 그래서 충청도 보령에 가면 비가 있어요. 그 비문에 뭐라 써있냐 하면, 오색 골짜기에는 돌이 오색이다. 그걸 비문을 못 본 사람은 나무에 오색꽃이 핀다고 잘못된 얘기를 한다니까.

오색령에서 인제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한계천이라 하거든 한계리에 있다 해서 한계령이다. 그래 길을 닦을 때 군인 둘이 저쪽에서 와서 닦으니 한계리만 알았지. 이쪽에서 오색이란 것은 몰래.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한계령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색으로 왔거든. 그 사람들이 잘데가 어디가 자냐. 그래서 역이란 공무원 뭐 이런데 대해서 필요한 게지. 그래 말도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데. 그건 신분증이라래. 토성면 사람이 백정 되는 사람이 장사하러 갔다 말이지. 여기서 해산물 사가지고 그 미시령을 넘어서 저쪽 가가지고, 영서지방에다가 팔고 판 돈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넘어왔지.

물물교환, 그러고 오는데 곡식을 말띠에다가 싣고 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 통고지설(通高之雪), 통천과 고성 사이에는 눈이 많이 온다. 양간지풍(襄杆之風)은 양양과 간성 사이에는 바람이 세다.

그도 택당이 써 놓은데 보면 그 바람이 천후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바람이 세다 이거야.

근데 백정이 넘어 오는데 눈이 와 놓으니까 오기 힘들꺼 아냐. 오다가 눈사태를 만나 가지고 아들이 말과 함께 구불었네. 아버지 혼자 아들을 구할 재주 없지. 그 할 수 없이 집에 혼자 돌아왔다. 그래 집에서 죽은 혼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송장을 찾으러 인제 눈이 좀 녹아서 아흐레 지나서 갔단 말이지. 가 보니까. 눈이 좀 녹아서. 아들이 구불어 간 자리 이래 가 보니까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구멍을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더라고.

그래서 애남아... 애남아... 하고 부르니깐.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애남이 죽은 귀신이 저기 있다. 이 아무도 구멍에 대고 얘기 할라 하지도 않고, 들어 갈라 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니 애남이 맞나? 맞다기야. 그럼 애리 내 보이더라고. 아 맞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니까 살았더라고. 그 어째 살았느냐 하니 이 놈이 말하고 같이 구불었는데 말은 간 곳 없고 어디간 데 없고 안장하고 같이 구불었다. 바위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개 바위 위에 탁 걸렸네. 공간이 생겨가. 눈이 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죽지 않고.

“그래 안춌드나?”

하니 눈속이라 안 춌드래요.

“뭘 먹거 살았느냐?”하니 말 안장 가죽을 뜯어먹고, 물은 눈을 먹고 살고 그걸 사실 그대로 써 놓은 게 있어요.

〈박익훈, 남·84세, 교동, 1999. 12. 1.〉

차. 만천동 유래

교동 쪽은 옛날에 만천동이라고 했어요. 그 동의 이름은 이쪽에 만석군이 살고 있다 그래서 만천동이라 한다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샘이 하나있었으므로, 그래서 샘천(泉) 자를 쓰기도 하고, 일 만(萬) 자에 일 천(千) 자를 써서 만천동이라고 하고, 유래 또 한 가지는 집이 한 만천호가 된다 해서 동을 명칭을 한 게 아닐까 해요. 아마 추정을 한 것이 이쪽 동리에서는 요충이 될만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만천동이라 하기도 하고, 만석군이 살고 있었다 해서 만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일설에 의하면 샘천(泉) 자를 써서 늘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다 그런 뜻에서 동네 명칭을 만천동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동제 실시 이후 동 명칭을 교동이라 명명한 게 이쪽의 지역의 특성상 학교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 흔히들 교동이라 부를 경우 그쪽 지역에 향교가 있을 때 그 동네들 교동이라 명칭을 하죠. 우리 속초에서 아직 향교라든지, 유림이라든지 하는 뿌리 깊은 것은 없어요. 다만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적 특성 때문에 교동을 학교 교(校)자를 써서 교동이라 명명을 붙인 건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각 동 폐합 관계로 노학동 전체 지역과 교동 일부지역을 합쳐서 노학동이라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 명칭에 대한 유대관계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어떤 역사성을 찾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카. 노학동 유래

예전에 노학동이라는 게 노리 갈무리라는 게 전문대학 있는 데가 노리거든. 노린데 노리가 4개 부락이여. 4개 부락은 도리원, 이목, 노리, 척산 그래서 일정 때도 이 4개 부락이 2개 부락씩 도리원, 이목리 한 부락이 되어 가지고 서는 부장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이 부락 일을 보고 척산, 노리 가지고 한 부락이 되어서 보고 이러다가, 아 그게 일정때, 대동아 전 쟁나기 그 무렵은 아주 통합이 됐어.

노리가 그 4개 부락이 그래 가지고선 부장이 하나 나가지고서는 4개 부락을 총지휘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노리는 왜 노리라 했냐면 거기 이 갈노(藎)자, 갈대가 말짱 정착했으니깐. 제일 누가 정착을 빨리 했냐면 그 쓸라면은 서씨네. 저 지금 차씨네가 그 다음 이씨네가 정착을 했어. 제일 최초에 이제 차씨네가 하고.

그래 이제 도리원은 왜 도리원이라 했냐 하면 복상나무 꽃이 피서. 거기 이제 양지천이거든 그래서 도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락 이름을. 또 이목리는 왜 이목리라 했냐면은 배꽃이(梨)자 배나무꽃이 이젠 봄이면 하얗게 피고 예전인 제 개척 시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이여.

부락 이름을 척산을 왜 척산이라고 짓냐하면 이 척산 쪽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탄봉이라는 데가 있어. 탄봉이 왜 탄봉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양짓 마을이고 온천장 너메 양지마을이고, 요건 중간마을은 큰 솔대가 있으니 큰솔대가 있어. 거기를 중간마을이라고 해서 탄봉은 이제 이 지금 온천장인가 이쪽으로 너메로서 여관이 하나 있지. 개바닥에 여관 뒤로 올라가면 외탄봉 있는 게 자척(尺)자 같애. 그래서 거 자 척 자 같다. 그래 가지고서 그 자 척자를 써서 척산이라 한다. 지명을 그렇게 짓고 쪽 내려와요.

〈김중태, 남·83, 교동, 1999. 11. 25.〉

타. 노학동 유래

노학에서 노자는 갈대 노(藎)자를 쓰고, 학은 학(鶴)자를 쓰는데 예전에는 노학동은 갈골 마을이라 얘기를 하고 갈대 숲과 학이 있는 곳을 말하지요.

옛날에는 이쪽에 온정리, 논산리 지역 저쪽에 노리지역, 노리지역 합해서 노리마을이라고 얘기한 게 노동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쪽 지역에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노리지역과 척산마을을 옛날에 향촌이 형성이 되는 그 역사성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척산마을에 관련해서는 옛날에 대포항에 수군병영지가 있었어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파. 노학동 유래

옛날 이곳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대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학자도 많이 난 명문대가입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그 이씨 집안은 어느 때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터이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묘소 앞 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지관은 유실된 그 곳을 유심히 이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유실된 이 자리가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일 줄이야. 그리하여 그 지관은 그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알려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된 파명당이 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중 또 한 사람이

“지관 어른, 속는 셈치고 그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니 그 방도를 알려주시지요?”

그 지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하고 보금받은 일이 가끔 있기는 하였는데 하여튼 이 파명당을 다시 복원하여 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파명당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할 즈음에 이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될 산소 자리에 관하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파명당 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되고 또한 설령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그곳에다 모실 수 없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갑론을 박하여 몇 차례 다시 만나 숙위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파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의논을 모았어요.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묘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인부들을 시켜서 묘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 만큼 파내려 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하여 그 깊이 이하로 삽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이 내려앉고부터는 또한 모래도 많고 하여 학학(鶴), 모래사(沙), 들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어요.

이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 가버렸어요.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蘆洞)이었는데 학이 왔다하여 노학동(蘆鶴洞)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은 양양에 학포리(鶴浦里)란 지명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

〈척산리 이장, 1999. 12. 3.〉

하. 도리원 유래

도리원은 복숭아나무라든가 배나무골, 이목리같은 경우 옛날 배나무골이라고 해서 마을명이 그렇게 명명이 돼서 이목리, 도리원리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신흥촌이라든가 자활촌 같은 경우 아주 최근에 60년대 어떻게 있었나 하면은 박정희 정권때 깡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탕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 정화차원에서 그 재건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자활촌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집단이주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에는 허허벌판였거든요. 황무지인데 주로 충남쪽의 논산사람들이나 연산 사람 등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이주가 됐어요. 지금의 자활촌과 신흥리 마을쪽에 그사람들은 이주시켜 가지고 재건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재건촌 그게 이제 의미가 승계되면서 자활촌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60년대

이후 향촌이 생겨진 그 경우라서 역사성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리 마을이라든가 자활촌 마을이 흑사평은 별판이예요. 원래 이름이 흑사평이예요. 척산마을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노리마을은 역사성을 갖고 그 다음에 도리원리와 이목리 같은 경우 배나무골이라든가 복송아 주로 과수원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예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도리원이라든가 이목리 쪽은 좀 덜한데 인곡 쪽에는 과수원이 많아요. 그쪽에 과수원 마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노학동의 명칭에 대한 연혁은 그렇게 되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거. 청초호 관련

과거의 여기는 완전히 그 고구려 지역에 들어서 완전 고구려의 문화를 받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삼국시대 때는 저쪽에 실직국, 즉 말하자면 삼척까지가 신라의 영이 되어 있었고, 어, 그 이쪽에는 완전히 그 뭔가 고려의 문화를 받았다고 문화를 고구려 문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나중에 신라를 통일합병 후에 경덕왕 16년, 그러니까 757년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쪽 영흥만까지를 그 올라 갔지요. 신라가 통일시켰다고 봐야겠지요. 그때에 군주제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군주제도를 썬(썬) 때에 우리 여기에는 속초현을 고구려 시대 때는 속토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경덕왕 16년에 가서 속초현, 동제현이라고 개칭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미리 우리가 어든 쪽에 연관이 되었었나 하면은 바로 신라가 5경 9주의 행정을 펼 때 말이죠, 우리는 바로 명주주의 직할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군사적인 면에서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설악산에 올라 가면은 정고평(丁庫坪)이라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고평 이름의 명칭이 내려옵니다. 그 현 속어로 말하자면은 그럼 지금 현재로 보서는 한 정점이 된 기지, 사당, 이런 정도의 본위로 걷고 있죠. 그때는 승병제도를 병행했기 때문에 병적(兵的)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그 사찰이었습니다. 대사찰이 병의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고평(丁庫坪)이라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 병참 기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 내려와 가지고 볼 때 척산 지금 우리 마을 고을 이름에 척산이 있지 않습니다. 이 척이라는 것도 군대 용어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에 근거가 될만한 것 있느냐? 있습니다. 전에 그 이조 때만 하더라도 수군만호가 여계 우리 속초에 주둔하면서 심지어 청초호를 명칭이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본명은 청초호(靑草湖)인데 군대 용어로서는 쌍성호 혹은 진성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수군만호가 있을 때 그 전부 정박을 해 가지고 함선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수군만호의 청사지가 어디냐? 바로 척산입니다. 척산지를 현재로 보면은

설악 온천장 맞은 편에 청대산을 연결하는 밑에 아주 따로 뚝 떨어져 나오는 낮은 봉이 하나 있습니다. 거게 ‘탄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탄봉에 예, 옛날에 그 수군만호 청사지입니다. 거게가 그 유적지로서 우리가 조사도 해 봤고, 초석도 발견해기도 했고 그 당시 그 청사지가 들어가기 전에 인조 때에 소나무가 말이죠. 아주 굵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사사회생’했다. 그러니까 네 번 죽고 네 번 살았다는 그러한 나무랍니다.

그 소나무를 그때 그 만호청사를 이룩할 때 그 소나무를 베었는데 그후에 그 소나무에 대한 설은 있어도 그 근거는 못 잡았는데, 그런데 그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 인변에 사는 사람이 얘기해주는데 들으니까

전에 언젠가는 한 번 큰 홍수가 한 번 났을 때 아주 그 사토가 빠져 나가니까 큰 나무뿌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뿌리가 무지무지하게 커서 말이죠 아주 대단한 나무였다는 하는 말은 들어 봐서는 그때 그는 두 아름 내지 한 서너 아름 가까운 나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는 그때 그 소나무가 아니냐 하는 걸 추측하게 됐어요(하략)²⁴¹⁾

<김봉춘, 남, 금호동, 1981. 4. 21.>

241) 속초문화원, 『속초향토사 1차 자료』, 1981, 222~223쪽.

5. 어업민요

속초의 어업민요는 주로 노동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청호동을 비롯하여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등에서 전승된다. 청호동의 김형준(작고)과 장사동 모래기의 김봉준(65), 동명동 신재덕(81)이 잘 부른다. 어업민요는 뱃소리라고도 하는데 청호동의 경우 함경도 실향민들에 의해 전승된 것이 많은 편이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말로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잔재 되어 있다.

예전에는 노 젓는 배가 대부분으로 조업 시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힘들게 고기를 잡을 때 박자와 흥을 맞추고 돌귀주는 소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고생스런 바닷일을 하는 데는 소리꾼의 소리가 씩씩해야 일할 맛이 난다고 한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곳에서는 '허리도리'라 하는데, 힘이 센 앞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어부들이 후렴을 제창하는 형식이다. 청호동 어업민요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을 당기며 부르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베기소리」,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바다로 이동하는 재래식 이동 기구인 든대로 일을 하면서 부른 「든대질소리」도 전한다. 이것은 「배내리는소리」라고도 하는데 바다에 배를 띄울 때를 「설망」이라 한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을 넣기 때문이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며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를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 후 제창의 형식이다.

(어업요1) 지어소리

행-혜 행-혜/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팔청춘 그림도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후략>

(어업요2) 다리어소리

다리어라 내자/다리어라 내자

다리어라 내자꾸나/다리어라 내자
 니가 내가 어찌하든/다리어라 내자
 힘을 쓰고 용을 썬라/다리어라 내자 <후략>

(어업요3) 베끼소리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해는 지고 저문 날에/베끼어라 보자
 고삐없는 소를 놓고/베끼어라 보자
 그 소 찾기 망경이다/베끼어라 보자<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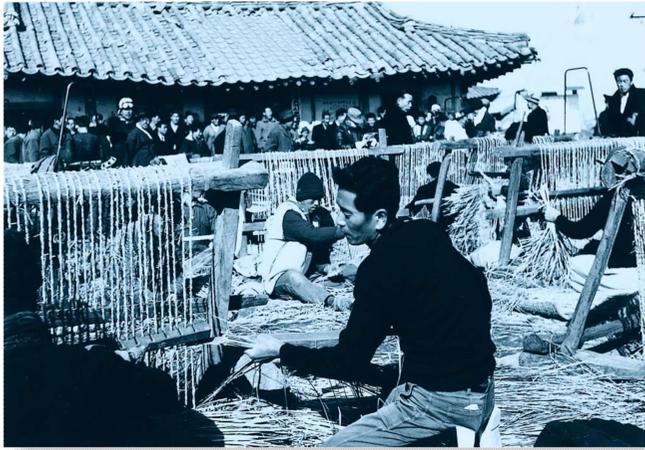
(어업요4) 산대소리
 에라소 가래로구/에라소 가래로구나 퍼실어보자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에라소 가래로구나
 지밧에 젖어 축늘어졌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에라소 가래로구나<후략>

(어업요5) 든대소리
 자~자 자~자 /우리 배를 내려다보니
 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 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 다 얼었구나 /들어보세 들어보세
 우리 배를 들어보세 /보고 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로다<후략>²⁴²⁾

<김형준, 남·74, 1987. 5. 27.>

242)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V. 삶과 민속



가마니짜기 경진대회(1950년대)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한 해와 4계절의 풍속이다. 세시풍속은 오랜 전승의례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세시풍속은 실질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민족적 전통의식의 결여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지지층의 약화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지역 중 하나인 청호동은 피란민의 특수한 처지와 현실에서 북한의 세시풍속을 견지하고 전승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지는데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세시풍속이 속초의 세시풍속과 습합(習合)되고 혼재되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주목된다.

여기서는 청호동에 남아있는 세시풍속 일부를 소개한다.

가. 정초 세배

음력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마친 후에는 피란민들은 단천, 함흥, 영흥 등 주로 고향 마을 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으로 세배를 다닌다. 아이들은 동네 어른을 찾아 세배를 다니는데 친척이 많지 않으므로 이북 고향이 같은 동네 어른들을 주로 찾는다.

나. 정월 뱃고사

정월달이 되면 피란민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이들의 배 안에는 성주를 모시고 있는데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한다.

다. 정월달 첫째 뱀날

정월달에 12띠로 처음 드는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고 한다. 이날을 ‘털없는 날’이라 하여 출어를 포기한다. 배가 출어하면 미끄러져 파선된다고 하는데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고 출어하지 않는다.

라. 정월 대보름날 달점치기와 액막이

정월보름날이 되면 북청 출신 피란민들은 사자탈을 만들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한 해 동안 병도 없고 탈도 없다고 한다. 대보름날 아침에는 부럼을 깨물어 몸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약밥을 먹는다.

아. 동짓날

동짓날이 되면 피란민들은 오구랑을 넣은 팔죽을 해서 먹는다. 새알처럼 생긴 응심이름 함경남도 방언으로 오구랑이라 한다. 오구랑 팔죽의 오구랑은 수수로 작게 만들어 수십 개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

자.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어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호동 주민들은 청초호가 얼면 그것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갈면 이듬해 풍년이요,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아 놓으면 평년작이라고 점을 친다.

2. 민속신앙

민속신앙 중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성황제(城隍祭)이다. 노학동의 4개 마을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매년 음력 3월 3일, 9월 9일에 제사를 지냈다. 현재 일부 마을은 한해에 1회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

청호동의 경우는 수협 주관의 풍어제와 어촌계 주관의 성황제를 지낸다.

가. 노리 성황제

제당은 마을 앞 소나무숲에 위치하고 있다. 벽돌 슬라브로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지었으며 합석 여단이문을 달았다. 제사일은 음력 3월 3일, 9월 9일에 지낸다.



<사진 389> 성황제 모습

나. 척산리 동제

척산의 제당은 당우형이 아니고 신목과 제단의 형태이다. 제당은 온천장에서 목우재로 넘어가기 전에 전 강원도 설악공무원연수원 못미처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100m 전방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당 형태로 수령 200년 정도된 소나무 신목에 한지와 실을 묶어 놓았다. 주변은 높이 30cm, 둘레 4m 정도의 돌담을 둘러 쌓아 놓았다.

마을 제사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다. 도리원리 동제

당집은 없으며 마을 입구 둔덕 길옆 숲속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변에는 1m 정도로 입구만 내놓고 둥글게 돌담을 쌓아 올렸다. 수령이 200년 정도 된 소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으며, 한지를 함께 매달아 놓았다. 마을 제사는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



<사진 390> 도리원 신목



<사진 391> 도리원 제단



<사진 392> 이목리 제단

라. 이목리 동제

제당은 당우형이 아니고 소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다. 성황봉이 있는 골짜기를 서낭골이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수령 200여 년 정도의 노거목 하단에 한지와 실을 묶어 놓았다. 마을제사는 매년 3월 3일에 지낸다.

마. 청호동 성황제

청호동에서는 수협 주관의 풍어제는 매년 한차례 지내고 있다. 어촌계에서 주관하는 성황제도 봄과 가을에 좋은 날을 받아서 지내고 있다.

제당은 대략 60년 전에 선주들이 풍어와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던 야산 위에 당집을 지었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성황신의 화상을 걸었으며, 남성황신은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이고, 여성황신은 족두리를 쓴 여인이다.



<사진 393> 청호동 성황당



<사진 394> 성황당 내부

3. 식생활(食生活)

음식 문화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업과 관련이 있다. 노학동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경 생활을 해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많이 생산된 지역으로 농작물을 중심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특성상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작물 재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콩이다. 현재도 학사평에는 콩을 이용한 음식을 파는 순두부촌이 성업 중이다. 그 외에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등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이용한 음식들이 발달하였다.

교동과 청학동은 혼합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초호수 주변에는 농업지역보다는 어업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체적으로 금호동과 비슷한 음식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바닷가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해물을 이용한 찬거리를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 지저 먹는 조리법으로 만드는데 물 좋은 생선으로 얼간 생선을 만들어서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도 많다. 또한 신선한 어물은 횡감으로 많이 이용하고, 탕류로 매운탕이 발달하였다.

청호동은 6·25전쟁 이후 피란민의 유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보존되어온 지역이다. 또한 북한 지역의 음식이 향토의 음식과 만나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청학동·교동·노학동·청호동의 음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청학동·교동·노학동·청호동의 대표적인 음식

분류	노학동	청학동·교동·청호동
전통음식	순두부, 송이버섯 박고지 볶음, 장떡, 호박범벅, 감자옹심이, 메밀국수, 도토리 국수	오징어불고기, 오징어물회, 생선찌개, 생선구이, 생선조림, 가자미미역국, 삼숙이탕, 명태조림, 도치두루치기볶음, 회무침, 황태북어해장국, 생선매운탕
속초항포구에서 탄생한 음식		도루묵(명태) 칼국수, 회국수, 가리비꼬지, 성계비빔밥, 콩치된장구이
반찬류	동치미	미역나물,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서거리젓, 오징어식혜

가. 농업 지역(노학동, 만천동 지역)의 음식

1) 순두부

대두는 꺾고 좋은 것을 골라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불렀다가 멧돌에 간다. 끓인 물에 같은 콩물을 넣고 끓인 후 가는 체에 부어서 거른다. 거른 콩물을 다시 끓이면서 간수를 넣고 주걱으로 저어 주어 약 10분간 놓아두면 두부가 영긴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참기름을 쳐서 먹는다.

2) 송이버섯 박고지 볶음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썰어 놓고 박고지는 물에 불려 썰어 놓는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박고지, 송이버섯을 넣어 볶으면서 양념을 한다.

3) 동치미

단단한 무를 통으로 또는 크게 썰어 절인 후 저민 생강, 마늘 주머니와 청각, 홍고추, 삭힌 고추를 넣고 물을 흥건하게 부어 심심하게 담근 김치이다.

4) 장떡

된장, 찹쌀가루,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등 모든 재료를 넣어 반죽한 뒤 동글동글하게 빚어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지져 낸다.

5) 호박범벅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을 긁어 다듬은 후 도톰하게 썰어 놓는다. 냄비에 물을 붓고 호박과 설탕을 넣고 푹 삶아지면 건더기는 건져 놓는다. 삶은 팔과 고구마, 밤을 호박 삶은 물에 넣고 무르게 삶는다. 어느 정도 익으면 찹쌀가루 푼 물을 조금씩 따라 부으면서 주걱으로 눌지 않게 저어 준 후 호박 건더기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낸 후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다.

나. 혼합 지역(청학동, 교동)

1) 도루묵(명태) 칼국수

칼국수에 생선을 넣어서 끓인 음식으로 냄비에 물을 붓고 적당량의 고추장과 된장을 풀고 호박, 감자를 넣어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 끓인다. 생선이 다 익으면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서 다진 파, 다진 마늘, 후추, 깨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2) 회국수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놓고 가자미는 뼈째로 썰어서 양념장에 무쳐 놓는다. 양념장은 고추장에 고춧가루, 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어 만든다. 깻잎, 상추는 깨끗이 씻어 채 썰고 배도 채 썬다. 육수는 물에다 멸치, 다시마, 간장, 된장을 넣어 끓여 간을 맞추어 놓는다. 대접에 삶은 국수를 담고 양념한 가자미와 채소와 배를 얹어 비벼 먹는다. 회국수는 비빔국수로 소면을 적당히 삶아서 따뜻한 육수를 곁들여 낸다.

3) 황태북어해장국

황태는 두들겨 살을 발라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송송 썰은 배추김치와 콩나물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이 때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한 후 끓으면 달걀 줄 알을 친다.

4) 명태조림

뿌듯하게 말린 명태를 5cm 크기로 토막을 내고 냄비에 무를 깔고 명태를 올려 간장 양념을 끼얹어 가며 조린다.

5) 가리비꼬지

가리비는 살짝 데쳐 살을 발라내고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양념하여 볶는다. 피망과 붉은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고 꼬지를 준비하여 여러 재료를 색을 맞춰 끼우고 끝에 호일로 마무리한다. 꼬지에 달걀 물을 적신 후 팬에 살짝 지져 낸다.

6) 쫄면장구이

쫄면은 깨끗이 손질한 후 된장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쫄면 앞뒤에 바른다. 석쇠를 달군 후 식용유를 바르고 쫄면을 올려 노릇하게 구워낸다.

다. 청호동의 음식

청호동의 피란민 중 대부분은 함경도 출신이지만 평안도, 황해도 출신들도 많았다. 따라서 청호동의 음식은 출신 지역마다 독특한 색깔을 유지하며 보전되어 왔다. 하지만 피란민 1세대의 고령화로 보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라지고 있는 음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1) 특징

가) 함경도 음식

함경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기후가 가장 추운 지방이다. 따라서 벼농사보다 밭농사가 많으며, 잡곡의 질도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다. 주식으로 기장밥과 조밥을 많이 해 먹고 쌀, 기장, 조, 수수가 매우 차지고 구수하다. 감자, 고구마도 품질이 좋아 녹말을 만들어 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먹는다.

음식의 간은 짜지 않고 담백하나 마늘, 고추 등 양념은 강하게 쓴다. 함흥냉면에 사용하는 다대기라는 양념장도 이 지방에서 나온 말로 고춧가루 양념의 별칭이다. 음식의 모양은 먹음직스럽고 크게 만들고, 장식이나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나) 황해도 음식

황해도는 북쪽 지방의 곡창 지대인 연백평야와 재령평야가 있어 쌀의 생산량이 많으며 잡곡의 질도 좋고 풍부하다. 또한 곡식이 많아 가축들의 사료로도 사용되어 고기 맛은 유별나다. 각 가정마다 닭과 소를 많이 길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만두나 밀국수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며 즐겨 먹는다.

음식은 구수하고 소박하며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음식의 조리할 때는 양이 풍부하게 하고, 큼직큼직하게 만든다. 간은 싱겁거나 짜지 않고 충청도 음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 평안도 음식

평안도는 기후가 춥고 산세가 험하다. 서쪽은 서해안과 접하고 있어 해산물에 많고, 동쪽은 산이 높고 험하지만 들판도 넓어 산채와 밭곡식이 풍부하다. 특히, 신의주평야나 안주평야 등에서 비교적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잡곡 중에서는 조를 많이 생산한다.

메밀로 만든 냉면과 만두국 같이 가루로 만든 음식이 많으며 국수를 즐겨 먹는 편이다. 또한 콩과 녹두 음식이 많은 것도 큰 특징이다. 추운 지방이라 기름진 육류 음식을 즐겨 먹으며, 간은 맵고 짜지 않고 싱거우며 음식은 모양보다는 소담스럽게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양의 음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평양냉면, 순대·어복쟁반·온반이 유명하다.

2) 주식과 찬

청호동에서 전승되는 이북 음식 중 기본 음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 항목	함경도 유입 음식	황해도 유입 음식	평안도 유입 음식
주식류	닭비빔밥, 잡곡밥, 찰조밥, 회냉면, 옥수수죽, 얼린조죽, 감자 막가리만두, 물냉면, 감자국수	잡곡밥, 김치밥, 비지밥, 김치말이, 냉콩국, 수수죽, 밀범벅, 호박만두, 밀다갈버무리	평양냉면, 강랑국수, 평안 만두국, 생치냉면, 온반, 김치말이, 닭죽, 어복쟁반, 굴린만두온면
찬류	가릿국, 다시마냉국, 세천어국(천엽국), 동태매운탕, 비웃구이, 영계찜, 닭섭산적, 가지미식해, 도토리묵식해, 고동어회, 콩나물김치, 원산잡채, 채칼김치, 봄김치, 동태순대, 함경도 대구깍두기	김치국, 김치순두부찌개, 돼비지탕, 조기매운탕, 애호박찌개, 붕어조림, 돼지족조림, 행적, 대합전, 잡곡전, 개구리구이, 호박지, 동치미, 순대, 목장때묵, 호박김치	돼지순대, 녹두지짐, 콩비지, 냉채, 돼지고기구이, 가지김치, 고사리국, 내포중탕, 오이토장국, 무공더덕전, 도라지장아찌, 영변김장김치, 꽃게찜
병과류	오그랑떡, 함경도인절미, 인감자떡, 달떡, 찹쌀구미, 괴명떡, 콩엿강정, 들깨엿강정, 만두과, 약과, 꼬장떡, 산자, 강정, 과줄	꿀물경단, 증편, 오쟁이떡, 무설기, 혼인인절미, 수리치인절미, 쯤쌀떡, 잔치메시루떡, 혼인절편, 큰송편, 무정과, 달알떡, 달알범벅	노티, 조개송편, 송기떡, 무지개떡, 골미떡, 꼬장떡, 뽕떡, 니도래미, 엿, 찰부꾸미, 과줄, 견과류, 태식
음청류	식혜(단감주)	연한 식혜	

3) 지역별 대표 음식

도 항목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밥	닭비빔밥	김치밥, 김치말이	온반
국수	감자국수	밀낭화(칼국수), 메밀 동치미 막국수	평양국수
국, 죽	미역냉국	남매죽, 냉콩국	닭죽
만두		호박만두	굴만두(굴린만두)
탕	함흥의 보신탕	짬지두부, 돼지탕	돼지탕
김치	갯김치, 콩나물 김치, 통김치	호박김치, 고수김치, 동치미	
찬류	가자미 식해, 햇떼기 식해	조갯살 식해, 청포묵, 칼치젓갈, 무장아찌, 감자장아찌, 조갯살식해	가지 소박이
부침개	순대콩부침, 북어전, 명태전	녹두지짐, 행적, 된장떡	녹두지짐, 찰수수지짐
떡	오그랑떡, 콩떡	조참쌀취떡(차조쌀취떡), 좁쌀떡, 오쟁이떡	노티
순대	명태순대	돼지순대	순대
그 외		닭백숙, 밀다각범벅(떠덕범벅)	

4) 식해

속초에는 젓갈류의 한 종류인 식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식해는 염장을 한 젓갈류와는 달리 곡류를 혼합해 숙성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속초의 식해는 서거리식해, 오징어식해, 도루묵식해, 해떼기식해, 열갱이식해 등이 있다. 이들은 육질이 단단한 가자미, 도루묵, 명태, 해떼기, 열갱이 등의 생선을 좁쌀과 함께 버무려 발효시킨 함경도 음식인데, 함경도 정착민들에 의해 속초에서 맛볼 수 있는 토속음식이 되었다.

가) 오징어식해

생 오징어를 굵게 채 썰고 무는 나박 썰기하여 마늘, 파, 생강은 다진 후 오징어채와 준비한 양념을 넣어 버무리다가 찰밥을 넣고 2~3일간 삭혀서 먹는다.

나) 조갯살 식해

황해도 연안 지방에서 즐겨 먹는 젓갈류로, 조갯살의 내장을 빼고 씻은 후 소금에 절여 물기를 제거한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엇기름 가루를 섞어 넣고 여기에 조갯살, 잣, 대추,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후 항아리에 담고 밀봉하여 일주일 정도 후에 먹는 밥반찬 및 술안주이다.

다) 가자미 식해

참가자미를 손질하여 소금에 절인 후 15~20시간 정도 그대로 둔다. 가자미가 꾸덕꾸덕 해지면 2cm 정도의 길이로 썰어 메조밥, 다진 마늘, 생강즙, 고춧가루, 엿기름가루를 넣어 빨갱게 버무린다. 2~3일이 지나면 가자미가 삭으면서 국물이 잘박하게 생길 때 소금간을 한 무를 가자미와 섞어 버무린다. 단지에 가자미 식해를 꼭꼭 눌러 담고 10~15 °C온도에서 약 20일간 익힌다.

라) 햇떼기 식해

햇떼기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 2~3일간 두었다가 씻어서 5분 정도 물에 담그어 둔다. 좁쌀로 밥을 하여 절여 놓은 햇떼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깨소금을 넣어 버무린다. 양념한 햇떼기 식해는 따뜻한 곳에 담요를 덮어 익혀야 맛이 나며 담근 후 10일 정도 후에 먹을 수 있다.



〈사진 395〉 오징어 젓갈



〈사진 396〉 조개 젓갈



〈사진 397〉 가자미 식해

5) 순대

가) 명태순대

명태를 절인 뒤에 입 쪽에서 내장을 빼낸 후 씻어 물기를 거둔다. 명태내장, 두부, 삶은 배추와 숙주,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소금, 된장 등을 모두 섞어 소를 만들어 명태 입쪽에서부터 배속까지 꼭꼭 채워 넣고 입을 아무린다. 김장철에 많이 만들어 꾸덕꾸덕하게 말려 겨울 동안에 찌거나 구워서 썰어 먹는다.

나) 함경도식 순대

돼지 머리와 무청은 삶아서 다지고, 돼지 선지는 삶아서 으깨어 놓는다. 찹쌀은 씻

어 건져 놓고 두부는 물기를 짜 놓는다. 큰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담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로 양념하여 돼지 내장에 넣어 끓는 물에 삶아 낸다. 이때 내장에 바늘침을 주어 내장 안의 수분을 제거한다.

다) 돼지순대

내장은 소금물로 씻어 분비물을 제거하고 찹쌀 찢 것과 숙주, 우거지에 양념한 것, 선지를 넣어 소금간을 한 후 내장에 채워 실로 묶는다. 된장물이 끓으면 순대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다가 꼬지로 찢러 보고 30분 정도 충분히 익힌다. 식힌 후 썰어서 소금 양념을 곁들여 낸다.

라) 오징어순대

오징어를 따지 않고 뱃속의 내장을 빼 몸통에다 고추, 양파, 계란, 깻가루, 생강, 후추, 고추장, 참기름, 조미료 등 갖은 양념을 버무려 찹쌀밥, 돼지고기, 두부, 숙주 나물, 오징어 다리 등을 다져 만든 순대 속을 넣어 꼬지를 이용하여 입구를 봉한다.

찜통에 찢 채로 먹기 좋게 잘라서 먹어도 되나 계란옷을 입혀 먹으면 더욱 맛있는 요리로 변한다.



<사진 398> 아바이순대



<사진 399> 오징어순대

4. 민속극과 놀이

가. 속초사자놀이

속초사자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으로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속초사자놀이’도 포함되며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소중한 가치를 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자놀음은 여러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데 1930년대 양양군에 속하였던 속초와 고성지역도 사자회 즉 사자놀음이 전승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한반도 분단이후 약 70여 년 동안 북한민속의 이주 정착 사례로 속초사자놀이는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함경도 출신 1세대와 2~3세대, 속초사자놀이보존회를 비롯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사자놀이를 전승시키고 있다.

속초사자놀이는 6·25전쟁으로 인해 함경도 출신 피란민이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집단거주하면서 전승된 전통 민속극이다. 1930년대까지 함경도 북청 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여러 마을에서 장정들의 편싸움이 벌어졌으며, 달이 뜬 뒤부터 시작된 사자놀음은 15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16일 이후는 초청받은 유지(有志)의 집을 돌며 놀았다고 한다.

이러한 함경남도 민속놀이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속초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에 의해 1950년대부터 속초에서 연희된 북청 사자놀음의 기원이 되었다. 속초에 모여든 함경남도 사람들이 집단화되자 1957년 북청도청 기금 마련을 위해 정월 대보름날부터 10일 동안 사자놀음이 행해졌는데, 당시 속초에는 북청에서 13세부터 사자춤을 추고 19세 때에 애원성을 잘 불렀던 죽평리 출신 김수석이 거주했으므로 이분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정월 대보름날 처음 북청사자놀음이 공연하게 된 것이다. 1959년 5월 2일 북청 동향친목계가 구성되면서 북청사자놀음 공연단이 결성되었고 당시의 북청도청 계원은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 36명이었다. 이들은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 협동을 목적으로 북청사자놀음 공연, 장의, 부조 사업 등을 하였다.

도청 건립을 위한 걸립국의 형태로 속초 전역에서 펼쳐진 사자놀이는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걸립’과 ‘안택’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벽사진경(辟邪進慶 : 사귀

(邪鬼)를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함)의 민속적 의미와 예능적 가치로 속초의 무형문화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속초사자놀이는 민속공연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며 사자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춤사위가 통소·장구·소고·북·팽과리·징 등의 민속악기와 잘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다.

1) 속초사자놀이 내용

제1과장 : 마당돌이

길놀이를 일명 ‘마당돌이’ 라고도 하는데 북청에서는 사자놀이와 관원 놀이가 합쳐져 연희 되었다고 한다. 애원성춤과 악기 반주에 맞춰 연희자들이 1열로 행진한다.

제2과장 : 마당놀이

양반꼭쇠 해학은 양반과 그 하인 꼭쇠가 마당돌이에 등장하여 마지막 과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놀이판을 돌아다니면서 놀이 내용을 소개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부른다. 양반과 꼭쇠는 말을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냇두리춤, 무동춤, 꼬추춤, 칼춤이 선을 보인다.

제3과장 : 사자놀이

사자놀이는 초장, 중장, 말장으로 나누는데 초장은 사자가 몸푸는 과장이다. 중장은 사자가 본격적으로 노는 부분이다. 두 마리의 사자가 놀다가 한 마리가 쓰러지는데 의원을 불러서 살리는 방법을 알아낸다. 다시 살아난 사자는 중장의 마지막에 입사자춤을 추는데 앞채사람이 뒷채사람의 어깨위에 올라탄다.

제4과장 : 군무놀이

군무는 마지막 뒷풀이 마감 마당이다. 집에 들어간 사자가 어린아이를 등에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태운 사자는 한바탕 놀고 주인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냇두리춤을 추자고 권한다. 함경남도 민요 돈돌라리를 만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두 참가하는 군무가 이뤄진다.

나. 도리원 농악

도리원 마을은 속초시 노학동에 속한 마을로 물레방앗간이 있었을 정도로 농토가 잘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이다. 이에 따라 농악놀이도 오래전부터 전승되었는데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고증에 따라 1900년 이전부터 마을에 농악대가 구성되어 걸립농악이 행해지며 인근 지역 일원과 타지역으로 초청을 받아 공연을 펼칠 정도로 유명했고 지금도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 마을만 유일하게 농악이 전승되고 있다.

도리원농악은 1900년대 이전부터 활동하며 그 당시 김경대, 최정수 등이 중심이 되어 걸립굿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1910년대에 이르러 강릉에 살던 경기도 출신 이설기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도리원농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도리원 농악은 초기에는 대체로 영동지역 농악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나 경기지역과 강릉에서 농악대원으로 활약했던 이설기에 의해 경기도 웃다리농악의 섬세한 가락과 동작이 반영되었고, 강릉농악의 특징인 농사풀이가 접맥된 것이다.

속초도리원농악대는 1930년부터 대포동 별신제 굿놀이와 고성 아야진 별신굿에 초청받아 성대하게 농악공연을 했다고 한다. 또한 정월달에는 거진읍, 양양 강현면 일대 농가의 초청을 받아 일주일간 머물면서 여러 마을에서 대보름 걸립농악을 했으며 이때 모은 걸립 기금으로 소야천 큰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농악대회에서 도리원 농악대가 우승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전쟁과 경제환경에 의하여 잠시 중단되다가 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새로운 속초 도리원 농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거진, 삼척, 경기 수원 등지에도 초청을 받아 공연하면서 농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당시 농악의 발전상을 들려준 고증에 의하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아녀자들을 대신하여 무동(아녀자 구성부문)을 15~18세 소년들로 편성하여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도리원 농악은 1970년대 농촌의 고령화와 이동 현상 등으로 전승이 어려워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설악제 당시 도리원풍년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과거의 농악대가 행했던 농사 풀이를 살리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리원농악대를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속초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도리원농악대를 재건하여 1992년 설악문화제에는 동대향 농악경연을 개최하고 1995년 12월 29일 도리원농악대 옛 구성원이었

던 엄상원, 양춘석, 최철수를 중심으로 재창단하게 되었다. 당시 대원은 28명으로 갯마당풍물단 5명과 도리원농악대 상쇠 엄상원이 다시 쟁과리를 잡고 기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은 속초풍물단원인 갯마당이 합세하면서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 설악문화제 공연, 제15회와 19회, 21회, 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며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도리원농악’ 출연단의 상쇠 엄상원이 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였다. 도리원농악은 고령이었지만 1세대 초창기 대원인 엄상원, 김동섭, 양춘석이 중심이 되어 잊혀졌던 판곡과 가락을 되살리고 현재에 이르러 젊은 농악대원들이 합세하여 속초농악의 전통을 계승하며 맥을 잇고 있다.

도리원 농악의 놀음은 서낭굿, 지신밟기, 우물굿, 다리굿, 뱃고사굿, 뱃굿, 만선굿, 오방지신굿(쟁이놀이, 무동놀이, 소고놀이, 벽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 황덕굿(뒫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용선놀이

용선놀이는 청초호의 용갈이(龍耕)의 전설과 함께 전해지는 놀이이다. 과거에는 속초의 체육대회가 있을 때 용선을 만들어 경주하는 놀이를 하여 전승되었지만 현재는 개최되지 않는다.

라.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만천동은 속초 교동 서쪽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는 옛 땅이름으로 아주 좋은 샘물이 많이 있어서 만천(萬泉)이라는 뜻과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설명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나룻배싸움놀이가 전승되어, 1984년 6월 18일 강릉에서 개최된 제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하였다. 이후 1996년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출연한 바 있다. 강원 영북지역에 속한 속초에는 관동팔경 가운데에도 들어가며 신라 화랑과도 연관된 청초호와 영랑호를 비롯한 많은 호수가 있어 호수 위에서 행해지던 호상(湖上)민속들이 전한다.

한겨울에 되면 거울처럼 맑은 청초호가 얼게 되는데 그 얼음이 마치 갈아놓은 논 두렁처럼 굴곡을 이룬다. 얼음 밑에 용이 기어가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 얼음의 굴곡을 ‘용갈이’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이 얼음의 모양을 보아서 다음 해 농사가 잘되고 못 되는 가를 짐치기도 하였다.

옛 구비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불이 발생하여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하여 숫룡이 타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고 하며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를 오가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후에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에 만천동과 청대리를 오가던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만천동 나룻배싸움의 민속은 이처럼 극적인 요소를 지녔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 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 마을은 그해 풍어와 대풍년을 거둔다고 믿었다. 경기 이후에는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한다.

예전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로 싸리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고 동쪽으로 대포동과 접했다. 나룻배싸움놀이의 과정과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음력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용신제를 지낼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祭主)와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을 금하는데, 동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용신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 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神酒)와 각종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멀리 뿌리며 고축을 하고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나누어 먹고 흥을 돋운 다음에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지게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서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면 풍어를 약속받는다고 믿는다. 나룻배싸움놀이가 승

패를 정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의 청년들이 어울려 한마당 놀이판을 펼친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도선료를 받지 않고 푸짐하게 대우를 해주었다고 한다.

만천동 나룻배싸움은 용신제와 나룻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용제는 두 마을에서 뽑은 제관과 제주들이 제상을 나룻배에 싣고 호수 가운데로 나오면서 시작된다. 나룻배싸움은 마을에서 결혼을 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를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혼례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가마싸움놀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만천동은 동군, 청대리는 서군으로 나누어 편을 갈라 경쟁하는 편전(便戰)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와 같이 풍요제의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나룻배싸움을 할 경우에도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른 장정들을 뽑아 태우는 것도 이러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암수룡으로 상징되는 나룻배싸움은 결국 하나로 화합하기 위한 양파(兩派) 경쟁적 형식의 민속놀이로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전체 5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마당은 용제로서 두 마을의 제관과 마을 청년들이 솟룡과 암룡을 위무하는 용제를 지낸다.

둘째마당은 음복으로 상대마을을 찾아가 음복을 권하고 인사를 나눈다. 이후 각기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셋째마당은 뱃놀이이다. 장정을 뽑아 배에 태우고 이들이 나루터를 왕래하며 노래와 춤을 추면서 배의 무사고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나루터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돌아와 힘겨루기 준비를 한다.

마. 만천광대놀이

만천 마을은 해마다 한가위를 맞아 일년 동안 농사의 풍년을 감사하고, 다음 해에도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광대놀이를 행하였다. 놀이방식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조금씩 거두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농악소리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면 액운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는 풍습에 따라 집집을 순회하면서 마당놀이를 하였다.



부 록

1.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 연표
2. 증언 기록
3. 추억을 기억하는 거리

부록 1.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 연표

년월일	일	지	비 고
1927.11.08	미시령 개통공사 착수.(미시령개통기성회)		동아일보
1927.11.25	미시령 개통식.		동아일보
1951.10.08	속초국민학교 개교.		
1951.10.16	속초중학교 3학급 설립 인가.		
1953.07.01	온정(溫井)국민학교 설립.(교명은 설악초등학교)		
1953.10.18	속초중학교 학생과 주문진중학교 학생 간에 다과회 개최.		
1955.03.29	속초여자중학교 설립.		
1958.04.13	청호국민학교 개교.		
1959.01.17	학사평수리공사 착공.(해빙기부터 사업비 7억 6천만원)		조선일보
1959.06.08	학사평저수지공사 기공식.		동아일보
1960.01.17	대설(大雪) 미시령(彌時嶺) 교통 두절.		
1960.05.05	속초여자중학교 동맹 휴학.		
1961.08.00	대관령국토개발대 440명 학사평, 성대리 이주 정착.		조선일보
1961.08.24	이주민 학사평(鶴砂坪) 도착.		
1961.12.26	학사평 자활정착민 주택 입주식. (보사부장관, 강원도지사 참석)		경향신문
1962.11.04	학사평 이주민 가내수공업장 1동과 이주민 주택 3동이 동해안일대 태풍으로 파괴		동아일보
1962.12.22	용초정 준공.(조도에 건립. 37만 8천 원 소요)		
1963.02.22	속초여자고등학교 설립.		
1963.06.25	척산리(尺山里)에서 군트럭 굴러 23명 사상.		
1965.04.08	신흥리에서 학사평저수지에 이르는 도로 옆에서 흑수정맥 발견.(100여만원 벌어)		동아일보
1965.05.22	동해 순간돌풍으로 학사평에서 미8군 예하부대 소속 경비행기 추락.		동아일보
1965.11.08	속초에서 철광석을 실은 리베리아 화물선(7,000t급)이 기관 파열로 선원 53명 태운 채 좌초.		

년월일	일	지	비 고
1966.06.29	교동 고분유적발견.(청자상감우점문완 1점, 청동순가락 1점)		
1966.12.20	교동성당, 사제관, 강단, 수녀원 준공.		
1966.12.23	설악중학교 설립.		
1967.01.01	교동성당 설립.(속초 동명동 본당으로부터 분리)		
1967.04.27	어린 딸이 운다고 어머니가 살해한 사건 발생.		
1967.05.10	속초경찰서는 어머니의 춤바람을 보다 못해 고발한 아들의 신고로 청호동 9반 북청(北靑)식당을 급습하여 5명을 검거하고 전축 1대를 압수.		
1968.04.13	속초교육청 청사 낙성.		
1968.09.13	속초세무서 개청.		
1968.10.26	강원일보 창간 23주년 기념 도내 국민학교 야구대회 속초국민학교 우승.		
1969.10.02	교동국민학교 설립.		
1969.12.31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속초시 온천개발.(척산에 온천관광호텔 건립 계획)		조선일보
1970.12.28	청호초등학교 교사 35명 집단사표.(동화 '어느 통지표 애기'를 쓴 교사에 대한 부형들 폭행에 항의하여)		
1971.01.16	설악여자중학교 설립.		
1971.09.22	교동 반장 61명 집단사표 제출.(동장의 부정에 대한 시의 미온적 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1972.06.28	마른명태에서 농업공업용 살충제가 검출되어 도 위생시험소에서 업자를 구속하고 물건 압수.		
1974.03.08	속초여자종합고등학교가 도내 중고 사격대회에서 우승.		
1974.12.14	청호마을금고 설립. 이사장 전수남, 회원 41명, 출자금 4만 1천원으로.		
1976.08.30	부녀 마을금고 성립. 현재의 교동 새마을금고 전신.		
1976.09.10	속초 학생체육관 개관.		
1977.11.25	척산온천 사추 성공. 지하 300m에서 40°C 물줄기 솟음.		

년월일	일	지	비 고
1978.06.30	청호동에서 이혼 이유 따지는 처형과 부인을 사상한 사건 발생.		
1979.08.27	청학새마을금고 설립.		
1979.10.05	영흥군민회 망향탑 준공.		
1979.11.21	함흥시민회 망향탑 착공.		
1979.12.14	주공 1차 아파트 준공.		
1980.04.20	속초지역 강풍으로 학사평으로 가던 강원여객 시내버스가 날아 온 돌에 운전석 유리창 깨져.		조선일보
1980.08.22	경상전문대(현재의 동우전문대) 설립인가 신청.		
1980.11.03	속초 경상전문대학이 학교법인 동성(東星)학원으로 설립인가 받음.		
1980.11.11	속초 경상전문대학 공사 착공.		
1981.03.18	속초 경상전문대학 개교.		
1982.09.28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 건립.		
1982.11.06	교동 김종욱(金鍾旭)씨 도사건이 새끼 21마리를 낳음.		
1982.11.13	노리 시나무 2그루, 척산리 마을나무 2그루 지정.		
1983.03.08	청학동 금강아파트 준공.		
1983.09.16	속초 경상전문대학 동우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3.10.14	신포향원 향원비 현위치 이전.		
1984.06.14	청호동 방파제 1억 4천만원 들여 기공.		
1986.08.22	럭키아파트 준공.		
1986.12.17	로얄 1차 아파트 준공.		
1989.11.28	교동에 로얄골든 아파트 준공.		
1990.06.26	교동에 주공2차 아파트 준공.		

년월일	일	지	비 고
1990.10.30	노학동에 설악리조트 레저타운 준공.		
1991.01.09	유정충 선장 동상 제막식.		
1994.12.24	강원도속초교육청 신축공사 준공.		
1996.04.06	속초경찰서 청사 신축 이전.		
1998.10.17	청학동과 교동 일부지역이 통합되어 행정구역 개편.		
2000.01.01	속초시설관리공단 설립.		
2000.01.22	속초 노학동 3층 석탑 강원도 문화재자료 지정.		
2002.10.04	소야초등학교 개교기념식.		
2005.11.04	속초시립박물관 개관.		
2006.05.03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터널) 개통.		
2007.07.22	실향민 망향탑 건립.(해맞이조각공원)		
2014.11.08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2015.05.23	청호동 유적(후기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 발굴조사 착수.		
2019.03.08	속초사자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2021.06.23	실향민 망향탑 이전.(청호동 아바이마을 공원 앞)		
2022.03.01	설악여자중학교를 설온중학교로 교명 변경, 속초중학교와 설악중학교는 교명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		

부록 2. 증언 기록

본 구술자료는 채록에 의미를 두어 그대로 서술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구술 표기 원칙>

- 구술자가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
 - ※ 단, 비표준어 표기 시 명확하지 않은 단어는 표준어로 교체
- 구술의 의미가 없는 단어 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는 일부 생략

조사연구원 박경심, 김선희, 김정환, 한정규, 김창섭, 최영택.

정대철 80세

온정리 2022. 5. 21

마을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곳에 정착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마을 이름은 노리이고 갈대가 많아서 갈골이라고 했어요. 수복 후 '노리'라고 했지요. 태어난 곳은 이 마을 개타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부근입니다. 결혼해서 조양동에 약 4년쯤 살다가 이곳 온정슈퍼에서 51년째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처음엔 농사짓고 살았어요. 명성그룹 토목공사 할 때 십장으로 생활도 했다가 토목, 건축, 조경으로 십장을 1년 8개월쯤 했어요. 39살에 이라크에 형틀 목수로 1년 6개월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척산마을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금호 콘도 다리를 중심으로 위로는 척산이고 아래로는 노리입니다. 원래 응골도 노리였는데 하지만 그 동네가 응골로 따로 나갔지요.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하셨을 때 마을은 몇 가구나 살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50가구. 예전에는 청초천에 물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청초천에서 버들개지 옹고지 다 따서 먹었지요. 옛날에는 소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4H 클럽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동네는 마을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서낭당도 마을소유인데 이종윤씨가 등기를 내놨어요. 이 건 우리 아버지들이 해놓은 마을 자산입니다. 등기는 나, 정대철, 김용각, 이도형, 차종대, 김해수 이렇게 여섯 명이 등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재산으로 돌려놨지요. 온정슈퍼 건너편 논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썼는데 이게 시(속초시)하고 재판이 걸렸어요. 시에서는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 땅이다 주장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 건너편 농산물관리원 그 자리도 우리 마을 땅인데 어찌어찌하여 그냥 주자고 그래서 줬어요. 그 위에 땅이 300평이 있었어요. 마을회관도 마을 땅을 팔아서 지었지요. 1억 6천만 원 들어서 현재 마을 자산이 1억 4천만 원 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정착하셨을 때 이 마을에는 어떤 집들이 있었나요?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 등.

기와집은 없었고 16살 때 함석집을 지었습니다. 내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중학교에 못 갔어요. 그때부터 노가다(막노동)를 했지요. 그렇게 노가다를 하면서 이 집을 함석으로 짓는데 동우대학이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됐지요.

척산마을은 언제 생겼나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척산은 우리 노동4리에 속해있습니다. 척산마을이 재판을 한다면 우리 마을 이름을 넣어서 재판을 합니다. 노동4리 중 노리(온정슈퍼)가 제1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증도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쉽게 말해서 도청소재지처럼 그런 역할을 했어요.

척산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집들은 어디에 주로 있었나요?

2004년 그때부터? 원주민이 팔고 이사를 가니 그런 집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주민이 많아졌지요. 청학동에 길을 크게 뚫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5반) 이주를 했어요. 제비뽑기로 여기 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커졌지요.

척산온천 지역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던 곳인가요?

임정희, 진영선, 조합장 김태영 3명이 온천장을 시작했습니다. 온천은 일본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자기네 나라로 쫓겨갔어요. 원래는 영랑동 사람의 딸이 하다가 너무 멀고 그러니 임정희한테 팔았어요. 그때 온천의 효험은 안질병이가 무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만 큼 유명했어요. 흔디병도 문둥이도 와서 생우물을 지어 올려 씻었고 우리도 겨울에 토끼 잡으러 갔다가 발이 얼면 거기 가서 녹였습니다. 온천장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 노리 앞부터 논산리 앞의 평야를 소야평야라고 했나요?

아니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농지개량하고 불렀을 거예요.

소야평야라고 했다면 소야평야라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했고 왜 그렇게 불렀는지 들어보셨나요?

소야벌이라는 거 여기 전철 들어온다는 그때부터 소야벌이라고 불렀어요. 20년은 안 됐을 거예요.

온정초등학교 쪽에 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집이 들어서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인공 말년부터입니다. 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갈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골입니다.

설악산으로 가는 목우재 길은 예전부터 있던 길인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길인가요?

옛날부터 목우재가 있었어요. 파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묘를 여니까 학이 날라갔다고. 차서방네 할아버지를 궁단터로 이전하는데 누런 학이 날라갔다고. 학사평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척산에서 신흥사로 넘어가는 길은 대체로 어떤 길을 이용했었나요?

설악스케치 앞 개울 가마소골을 건너면 차서방네 묘가 있는데 거기를 탐상골이라고 합니다. 노적바위 앞에 올라가면 탐상골이 있습니다.

박대식 집 위에 공동묘지로 가면서 가마소골로 갑니다. 옛날 승냥간(대장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쇠물이 아직도 나옵니다.

속초에 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우재가 잘만하면 물이 많아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노적바위 앞에 냉장탕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복날에 물을 맞으러 장떡 뭐 이런 먹을 것을 해갔어요. 짠 음식을 먹어야 여름을 잘 난다고 해서. 거기 무당들이 치성을 드리는 곳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삼형제바위가 있어요. 자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는

곳, 나도 아버지가 거기서 치성을 드려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갈밭도 비어 나르고 우마차도 끌고 가서 물츨을 갖고 왔습니다. 물츨은 소가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면 그걸 비어서 쓸어서 쪼하고 섞어서 콩을 넣고 삶아서 소를 먹인다고 그러면 소가 잘 먹어요. 물츨은 봄밭입니다. 봄에 일찍 나오는 풀인데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파명당에 가면 물츨이 꼭 찢고 그래서 그걸 지고 내려오면 엄청 무겁습니다. 버들강아지하고 물츨이 제일 빨리 나옵니다. 물이 미지근하니까 풀이 잘 자라요. 소들도 엄청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이 마을에 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나 방축 같은 것은 없었나요?

수리조합이 있어요. 대명콘도 밑에 수리조합이 있는데 그걸 씁니다. 고성에 돈을 주고 댐을 올려서 그 물을 우리가 씁니다. 뒷버덩 그쪽에 학사평 그쪽 다 그 물을 쓰고 소야벌도. 저수지 만들기 전에는 보매기라고, 붓도랑이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 물이 없어서 애정 조정할 것 없이 천평, 오백평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 평에 호가살 두흙이면 두흙 세흙이면 세흙 이런 식으로 줍니다. 물을 대주면 그 경비가 납니다. 밥도 먹어야지 막걸리도 마셔야지 그런 경비를 줍니다. 보관관이 그렇게 합니다. 청대리 앞으로 나가는 그 보가 새보다, 콘테이너박스 앞에 비닐하우스, 거기 붓도랑이 있는데 척산서부터 금호다리 밑을 파서 물을 그 물이 청대리 앞까지 갑니다. 수리조합이 생겨서 물세를 일년에 한번 내요. 보매기는 붓도랑을 치는 사람, 보관관 앞으로 일년에 쌀을 한 가마를 줍니다. 보관관이라는 직업을 보매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매기는 어느 동네도 다 명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보, 중보 에 김** 박** 몇흙 몇흙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청대리에 보관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양수기로 다 돌려서 다 없어졌지요.

노리 사람들은 전쟁 후에 땀감을 해서 영랑시장에 갖다 팔았다는데 척산 사람들도 그랬나요?

맞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영랑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내 친구는 보 독에 있는 검불을 굵어 세단을 짚어지고 그걸 팔아서 고등학교를 시켰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나도 나무를 해서 팔았어요. 영랑시장 거기 남방사진관, 다방, 뭐 이런데 팔았지요.

전쟁 때 이 동네는 피해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 패들이 아군이 들어오면 아군에게 맞쳤었고 이복서 나오면 또 그 간부들이 나서서 잘해서 죽거나 피해를 본 건 없었어요.

질문 외에 해주실만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 동네에 개타사라는 절이 있는데 20여 년 됐습니다.

장봉녀 85세

도리원리 경노당 2022. 6. 9.

도리원리에 마을이 생긴 것은 언제인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 도리원리에는 몇 가구는 살고 있었나요?

100가구 정도 되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한옥마을과 빌라, 길가에 몇 가구만 들어서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도리원리는 복숭아 도(桃)를 쓰는데 실제로 복숭아나무가 많았나요? 과수원이나 산복숭아가 있었나요?

주변이 다 복숭아 과수원이었어요. 지금은 과수원이 많이 없어졌지요.

예전 기억으로 노리마을과 도리원 사이에 소나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언제 없어졌나요?

예전에는 주변과 길 따라 소나무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도리원리는 주로 농업을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앞의 논에서 주로 농사를 하고 사셨나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앞버덩의 논은 거의 노리사람들 논이었을 텐데 도리원 사람들은 어디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앞버덩의 논은 도리원 사람들의 논입니다.

철독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전쟁 직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1937년 신문기사에 노리 한문서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노학교회 자리 주변에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당이 없어졌어요. 서당님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네 주민의 큰아버지가 서당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 값으로 쌀 몇 말씩 가져다 줬어요.

상보, 중보, 하보는 어디인가요?

앞버덩을 기준으로 상보(척산 쪽), 가운데는 중보(갈골 앞), 끝은 하보(도리원 앞)라고 해요.

이 동네에는 전쟁과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나요?

피해가 많았고 특히 마을 집이 많이 탔어요. 마을사람들이 언방(낭떠러지의 방언) 밑에 굴을 파고 피신해 있었습니다.

김교섭 57세

아마이뉴시점 2022. 6. 9.

청호동에는 몇 년도부터 정착했나요?

1966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아버님은 양양, 어머니는 단천이세요.

어머님께서 피란민이시면 피란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외할아버지의 작은 배에 엄마, 삼촌 세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의 청호동 모습은 어떠했나요?

청호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많았어요. 최고 많았을 때 1,640여 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4개 반, 한 반은 60명씩, 그렇게 6학년까지 있었어요.

청호초등학교 몇 회이고 당시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나요?

21회 졸업생입니다. 학생 수는 1,640여 명이었고 내가 졸업할 때는 1,300명으로 줄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다니셨나요?

중학교는 갯배를 타고 다녔고 고등학교는 버스로 다녔어요. 받은 버스비 중 반은 버스비로 썼지만 반은 다른데 쓰고 걸어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갯배 요금은 얼마나 했나요?

20원이었어요. 영화비도 20원, 옛날에는 반공의식 관련 단체관람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려면 학생들도 나눠서 갔어요. 나눠서 가도 인원이 워낙 많으니 갯배 가운데 길게 줄서서 손으로 끌기도 했습니다. 끄는 건 세 개밖에 없고 빨리 가야 하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셨어요.

갯배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나요?

11시면 갯배가 끊깁니다. 영화를 볼 경우 마지막 상영이 10시 50분에 끝나면 갯배를 못 탈까 봐 걸음 빠른 친구가 조금 일찍 뛰어서 갯배를 잡아요. 만약 갯배가 간 뒤면 주위에 정박해 놓은 작은 배들이 많았으니 그걸 타고 건넜어요. 타고 갔던 그 배는 청호동에 매어 놓았어요. 그 배의 주인아저씨가 그러려니 하고 찾으셨겠지만...

등교 때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 갯배가 벌써 출발했다면 멀리뛰기 하듯 뛩니다. 갯배에 몸이 안 닿으면 물에 빠집니다. 옷 책가방 신발 다 젖어요. 그럼 학교를 안 갑니다. 다음 날 갯배 타다가 빠져서 못 왔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청호동에도 시장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위치는 어디이고, 규모는 얼마 정도였고, 무엇이 주 거래품목이었나요?

학교 위에 있었어요. 옛날엔 많이 활성화됐었어요. 생필품과 야채가 제일 많았어요. 생선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청호동에 시장은 언제 개설되고 언제 문을 닫았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중학교 때 한 집 두 집 없어지더니 고등학교 때는 거의 시장이 없어졌고 일반 가정집으로 변해갔어요.

농사를 짓던 부월리, 온정리와 물물교환 같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나요?

맞아요. 거기에 가서 생선을(머리에 이고) 쌀과 바꿔서 왔다고 들었어요.

1970년대 아이들이 놀이공간은 있었나요? 주로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없었어요. 운동장과 바닷가 백사장이 다였어요. 백사장에서 공차고 딱지치기 야구를 했어요.

부모님은 어업에 종사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보았던 어업의 변화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셨어요. 명태를 잡아 오면 침냉쿨에 20마리씩 끼워서 입찰을 했어요. 20드름을 싣고 집집마다 배달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일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한 리어카에 3천원~5천원 받았어요.

청초호에 부두가 생기기 전 호수는 어디까지였나요?

동사무소 뒤 열 걸음 정도까지만 땅이었고 수협은 도로까지 다 호수였었어요.

항구가 없을 때 배를 정박하던 곳은 청초호 쪽인가요? 아니면 해수욕장 쪽인가요?

청초호 쪽이었어요. 나무판자로 만들었어요.

1970년대 고기가 많이 잡히던 시절 기억나는 청호동의 풍경이 있나요?

명태가 많이 났어요. 골목마다 명태 건조를 했고 다 마르면 관태작업을 많이 했어요. 관태는 싸리나무에 20마리씩 한쪽으로 대가리를 보게 해서 끼운 명태를 그렇게 불렀어요.

윤금월 60세

청호동 해녀 2세대 2022. 6. 12.

청호동에는 언제 정착하셨는지요?

여기서 태어나 자랐어요.

청호동의 기억과 상황은 어땠나요?

예전, 내가 자랄 때 비교하면 많이 변했지요. 도로도 넓어졌고 큰 건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도 집은 많았지만 작았어요. 지금은 집들이 커졌어요.

집은 얼마나 있었고, 주요 건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정화슈퍼. 이 동네에선 그 집이 제일 오래되었지요.

당시 청호동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어업과 그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해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는지와 스승님은 누구신가요?

1988년부터 했습니다. 34년 되었네요. 작은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스승님은 친정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해녀를 하다 여기에 오셨는데 자연스레 어머니한테 배우게 되었어요.

해녀 일을 시작할 때 속초에 해녀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셨나요?

내가 처음 할 때는 20~30명 정도가 하셨어요.

현재는 속초에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청호동에 세분, 영금정에 세분.

해녀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몸은 고달프지만, 생활을 해야 하니까. 수입원이니까요.

예전에는 작업을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조도 부근에서 했어요. 예전에는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물량도 많았고 좋았지만, 지금은 제약이 많아요. 해경이 위험한 곳이라고 조업을 못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도 부근은 스킨스쿠버들이 들어가서 우린 못합니다. 스킨스쿠버는 취미고 우리는 생업인데.... 빨리 그런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재는 어디서 작업하시나요?

청호동 앞바다에서 합니다.

주로 채취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채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봄엔 미역을 주로 하고, 여름 요즘은 성게 철이에요. 5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가을 2달 정도는 쉽니다. 겨울은 해삼을 잡습니다.

잡으면 어떤 경로로 판매가 되나요?

주로 횃집으로 넘기고 미역은 단골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직접 시장으로 팔지는 않아요.

해녀들의 모임은 있나요?

예전엔 있었어요. 다른 모임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몇 명 없어서...다 돌아가시고...

초창기 해녀 활동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때는 제한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즐았고 어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한번 작업을 나가면 수입은 얼마나 되시나요?

20~30만원. 하지만 월평균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날이 나쁘면 못 나가니까...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시나요?

(웃으시며) 생각납니다. 동굴 같았어요. 구멍구멍에 뭔가 있는 거, 그것과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푸른색 초록색 색이 참 예뻐요. 봄에는 미역이 많으니 갈색, 여름에는 울긋불긋하고 멍게가 있으면 참 예뻐어요.

양종삼 68세

청호동 2022. 6. 13.

고향은 어디시고, 청호동에는 언제 정착하신 건가요?

청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청호동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여기서 사셨으니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게는 부월리에서 자랐어요. 옛날에는 청호동까지 다 부월리였습니다. 속초읍 부월리 이렇게. 시로 승격이 되면서 청호동과 부월리로 나뉘어졌어요.

청호동에 정착한 후 계속 어업에 종사하신 건가요?

다른 일을 하다가 35살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징어를 잡았어요. 가까운 데로 나갔지요. 10톤 정도의 크기 배였습니다. 그때는 원양어선이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업하신 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거의 목선(60년대)이었고 그리고 철선(70년대), FRP선(90년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철선이 있긴 하지만 거의 FRP선입니다. 철선과 FRP선 비교하면 철선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1년에 한 번은 녹이 난 부분을 긁어내고(깡깡이 작업) 색을 다시 칠해야 하지만 FRP선은 그런 작업이 없어요. FRP선은 서해에서 먼저 시작됐고 남해 그리고 우리 속초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서해가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으니까. 오징어배(원양어선)는 철선으로 시작해서 FRP선도 많아요. 가격은 철선보다 조금 더 비싸지요.

청호동에 현대식 부두가 생긴 건 언제였나요?

매립하고 나서부터 입니다. 관광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생겼어요.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갯배 그쪽에다 댔지요.

현대식 부두가 생기기 전에는 배가 어디에 접안하였나요?

그때 청호동은 바다 쪽이 아닌 집 뒤 청초호 쪽으로 배를 대기도 했고 거의 갯배 부근에 댔어요. 배를 대는 곳은 나무판자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배가 많이 없었고 크기도 작았으니까. 매립을 하고 청호동은 많이 좋아졌지요.

1977년 신문 기사에 맨손꽂치잡이가 나오는데 이런 걸 해보셨나요?

해봤지요. 20년 전에 해봤어요. 목선으로. 손꽂치는 배가 작아야(낮아야) 합니다. 배를 대고 팔을 밖으로 뻗어서 손가락을 벌려야 하니까.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갈비뼈도 팔도 많이 아팠어요.

어떤 방법으로 꽂치를 잡았나요?

목선으로 잡을 때는 노를 저어서 꽂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미끼는 따로 없고 (진저리, 듬북) 대나무에 해초를 길게 엮듯 매달아(1미터 정도) 끈으로 대나무를 묶어 바다에 던져 띄워요. 그러면 꽂치들이 알을 낳으러 해초로 옵니다. 손가락을 벌려서 해초 위에 흔들거리면 꽂치 대가리가 손가락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면 손가락 사이에 낀 꽂치를 잡듯 오므려 배 위로 던져넣고 바로 또 손을 해초 위에 댍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많이 잡으면 100드름 정도. 꽂치를 잡아서 배에 수북이 있을 때 아주 이쁩니다. 배 주위나 밑으로도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은색으로 번쩍번쩍하니 정말 멋있어요. 가격은 좋지는 않았지만, 워낙 많이 나서. 하지만 그물꽂치보다 손꽂치의 가격이 좋아요. 그물로 잡는 것보다 손꽂치는 싱싱하니까. 큰 배가 목선들을 뒤에 끌고 멀리 나가기도 했어요. 배들이 꽂치를 다 잡으면 다시 배들을 끌고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꽂치는 밤에 작업을 안합니다. 보름달이 흰히 떠 있으면 그때는 꽂치가 없지요. 아마 달과 조류 때문인 듯하고 밤에 나가도 달이 지면 그때 꽂치잡이가 시작됩니다.

맨손으로 잡는 방법은 이 지역 전통 방법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전래 되었나요?

전통 방법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배웠으니까. 고성 쪽에도 많이 잡았어요.

한 번 조업을 나가면 어느 정도 잡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조업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많이 잡았을 때는 한 바리, 2,000마리 정도 잡았어요. 못 잡을 때는 5~10드름. 많이 잡을 때는 허리도 어깨도 많이 아파요. 배 옆에 기대서 팔을 많이 쓰니까. 끈기가 없을 때부터 안 잡았어요. 명태가 없어진 것과 비슷해요. 조류나 수온 그리고 해양 오염 등 정확한 원인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나갈 때 점심을 싸가지만 많이 잡으면 점심도 안 먹고 바로 들어와요. 빨리 팔아야하니깐.

맨손꽂잡이를 하던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섬 주위. 큰 배에 달려서 갈 때는 낙산 쪽 이런 데로 갔습니다.

80년대 이후는 주로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잡으셨나요?

문어, 대구, 가자미, 오징어, 양미리, 도루묵... 봄에는 가자미 대구. 5, 6월은 오징어 가을엔 그물로 꽂치 잡았습니다. 가을꽂치는 기름지고 커서 맛이 있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잡은 고기는 어디에서 판매하셨나요?

거의 수협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조금 팔기도 했어요.

청호동 어민 조합 같은 것도 있나요? 있다면 언제부터 있었나요?

조합이 있습니다. 연승협회, 채낙기협회, 자망협회 등등 있어요. 30년~40년 정도 됐습니다.

장재수 60세

청호동 어촌계장 2022. 6. 13.

청호동에 등록된 어민 수는 몇 분이나 되고 배는 몇 척이나 되나요?

어민은 170여 명이고 배는 100여 척입니다.

청호동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망, 연승, 통발, 채낙기로 조업을 합니다.

청호동 어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고기잡이 배의 역사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쟁 후 시작되지 않았나 합니다. 청호동은 거의 모래밭이었어요. 실항민들이 급하게 집을 짓고 고향가기 전까지 어업을 하며 생활을 했으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상황은 어떤지요?

인원이 많아요. 자망 경우는 한배에 한 명 정도 있어요. 통발 경우 2~5명 있습니다.

청초호 안의 부두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관광엑스포를 하려고 매립하면서 만들어졌어요. 1990년대.

청초호 안에 부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청초호 안에 배를 접안했나요?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 길게 물 위로 나가게 해서 배를 접안시켰어요.

청호동에서도 성황제를 지낸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디서, 주관처는 어디인가요?

성황당은 청호동 1세대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었어요. 성황제는 어촌계에서 주관을 하고 대의원들이 음력 3월에 모여서 날을 잡습니다. 제를 지내는 사람 중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미롭니다. 그러다 보니 3월을 넘기고 4월은 썩은 달이어서 넘어갔고 결국 6월 5일에 성황제를 지냈어요. 무속인은 잘 안 부르는데 작년과 올해는 초청해서 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 무속인을 불러서 굿을 합니다. 내년에도 굿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청호동 성황당은 다른 지방에서 기도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효험이 있다는 소문으로...

성황당은 60여 년 전에 사료공장 뒤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30여 년 전에 사료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옮긴 게 지금의 자리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사실 성황당 그곳도 샀어요. 그때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와 현대건설 측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옮기길 바랬고 속초시와 우리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성황당이니 그냥 있길 원했습니다. 그때 건설사 측에서 성황당을 혐오시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상당히 기분을 건드리더라... 우리는 옮기라고 하면 옮기겠다. 하지만 성황당을 옮길 장소와 첫 제를 지낼 비용을 현대건설에서 내라, 했더니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옮기지 않기로 하고 현대건설에서 성황당 재정비를 위한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이 있는 부지를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속초시에서도 성황당을 시의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청호동에 어업과 관련된 공장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전에는 공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없어요. 대포농공단지로 이주했습니다.

고길자 80세

청호동해녀 1세대 2022. 6. 20

청호동에는 언제 정착하셨는지요?

16살 때(1958년) 부모님을 따라 제주에서 청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가 제주에서 해녀셨거든요. 속초로 오게 된 건 해녀 일을 하시려고....

정착하실 때 청호동 상황은 어땠나요?

옛날 처음 이사왔을 때는 지금 이 자리(태희네 민박)는 다 모래밭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집도 별로 없었지요. 우리도 나중에서야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집은 얼마나 있었고, 주요 건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갯배 근처, 거기가 제일 많았어요. 집이 많으니 사람도 많았지요. 큰 건물은 없었어요.

정착하실 당시 청호동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오징어와 명태가 많이 났으니 그것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여기 말고 조양동 쪽을 안동네라고 했는데 그쪽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해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어떤 분에게 배웠나요?

20살 때부터 배웠고 친정어머니에게 배웠다.

그때 바닷속의 상황은 어땠나요?

들어가면 모든 게 풍부했어요. 성게 멍게 해삼 전복 미역 문어 등등...

속초 해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아시나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처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1958년에 여기 와서 바로 일을 하셨으니 그때가 해녀 역사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속초 해녀 1세대, 내 나이가 2세대, 지금 해녀를 하는 3명이 3세대입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와 같이 하셨던 분이 살아 계시는데 98세이신 김영애 어머니예요.

해녀 일을 배울 때 당시 속초에 해녀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셨나요?

50명 이상 되었고 제주도에서 우리와 같이 이사를 온 해녀분들이 많았어요. 속초에만 정착한 게 아니라 친분에 따라 거진, 대진으로도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속초에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5명. 문순임(87세)과 난 해녀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고 3명은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많이 힘들어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만하라 하고.....

1980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거진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집단이주하셨다고 하는데 속초에도 집단으로 이주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해녀 일을 그만둔 분들은 여기 정착하셨나요? 제주도로 돌아가셨나요?

여기서 살다 다 돌아가셨고 제주도로 돌아가신 분은 없었어요.

작업은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가까운 곳으로는 청호동 그리고 동명동 영금정, 멀리는 조도 부근에서도 했어요. 배를 타고 고성, 낙산 쪽도 갔지만 어촌계가 생기면서 지역이 나뉘어져 범위가 좁아졌어요. 지역이 나뉘기 전에는 물량이 많았고 수입이 좋았는데.....

주로 채취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채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미역, 성게를 제일 많이 해요. 계절로 보면 봄은 미역 여름은 성게를 많이 합니다. 그 외 잡어도 하는데 잡어는 전복 멍게 해삼 문어를 말해요. 옛날엔 다시마도 많았지만 지금 다시마는 없어요. 성게는 세종류를 채취하는데 딱성게, 아까성게, 구로성게. 아까성게는 붉은색과 녹색, 갈색이 섞여 있고 가시는 짧고 구로성게는 검은색에 가시는 길어요. 딱성게는 가을이 지나면 알이 써서 먹지 않습니다. 알의 색도 다른 것과 같고 맛도 같지만, 쓴맛이 도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초창기 해녀 활동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초창기에는 복장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냥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으니 날씨가 추우면 일을 못 했어요. 지금은 해녀복이 있으니 겨울에도 바다에 들어가요. 예전에 비해 복장이 좋아졌지만, 지금은 스킨스쿠버들 때문에 물건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는 작정을 하고 해경에 신고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해경에서는 현장 사진(바닷속에서 물건을 잡는)을 원했어요. 우리는 일하기 바쁜데 그런 사진 찍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해녀들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나요?

20여 년 전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수출도 많아서 성게알은 바로 다 갖고 갔으니 벌이도 좋았지만 다른 곳에서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수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횡집에도 팔고 시장에도 팔고 현장 판매도 하게 됐어요.

김강석 62세

단천면옥(조양동) 2022. 6. 23.

현재 하시는 일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단천면옥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현재는 조양동 통장협회 회장, 장학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청호동에는 언제부터 거주했나요?

청호동 단천면옥, 그 집에서 부모님이 사셨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좀 있다가 속초로 와서 식당을 했는데 엄청 잘 됐어요. 진양식당 부근에서 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식당도 잘 됐지요. 청호동에서 배를 타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를 아니까 이왕이면 우리 식당에서 팔아줬어요. 너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버니 치기 어린 감정에 엉뚱한 곳에 다 써버렸어요. 결국 식당을 접고 서울로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좋은 분을 만나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빚도 다 갚고 나니 고향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속초로 내려오게 됐고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냉면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고향에서 친할아버지가 단천마을에 훈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유가 있었는지 집에 막국수를 내리는 나무틀이 있었고 글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국수를 해서 먹이기도 했데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바이순대국을 했어요. 하다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북에서 국수를 만들어 먹었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이걸 팔아보면 어떨겠냐고, 그래서 냉면과 막국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처음엔 장사가 안됐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점심에 냉면을 팔고 나면 축항으로 나가 끝자락에 풍을 치고 낚시꾼들 상대로 거기서 막걸리와 감자부침을 팔았습니다. 감자를 강판에 가는 걸 내가 많이 도왔습니다.

청호동에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느 마을에 사셨나요?

신포마을(단천면옥 있는 곳이 신포마을). 신포마을에서 위쪽으로 흥원마을, 북청마을이 있었어요.

어릴 때 기억하는 청호동의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북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전쟁이 났고 인민군 통신병으로 남한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전쟁 후에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거취를 결정할 때 북한으로 가면 공산주의에 살아야 하는데 그게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남겠다고 했고 속초 청호동으로 오셔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정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 때 해변 모래밭에 오징어 덕장이 가득했습니다. 간식거리가 없던 때라 널린 오징어를 슬쩍 해서 많이 먹었어요. 때로는 밀려온 다시마를 모래밭에 널었다가 마르면 먹기도 했어요. 신다신식당 아저씨가 예전에는 술 도매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면 주전자로 사 오면서 훌쩍훌쩍 마시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68 해일이 일어났어요. 큰 파도가 밀려오니 다들 피신을 해서 지금 아이파크 자리가 언덕이었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전부 피했습니다. 파도가 집을 다 쓰러뜨렸고 그래서 신작로로 학교를 못 가고 해변 모래사장으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모래사장으로 가다 보면 돈도 주웠고 그때는 은행에 넣지 않고 다들 집안(장판밑)에 두기도 했습니다. 집들이 파도에 파손되면서 돈이 밀려왔기에 그걸 줍기도 했어요.

명절 때가 생각납니다. 다른(실향민 이외) 친구들은 명절이면 즐겁고 신나 했지만, 우리 실향민 가족들은 북에 두고 온 친지들이 생각나셔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그 고통을 술로 푸셨어요. 그러니 명절이 즐겁지 않았지요. 그러시다가 고향 땅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청호동에는 놀만 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항구와 해변이 놀이터였지요. 정박 된 배 위에서 긴 막대기로 칼싸움을 했고 그러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청호동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놀았고 동네 형들이 수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에 떨어뜨려도 집에 찾아올 정도로 강합니다. 정월 보름 때면 바닷가 백사장에서 망우리를 돌렸어요. 한 십여 명이 함께 돌리다가 한꺼번에 바다에 던지는데 불꽃 깡통이 바다에 포물선을 그리며 들어갔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축제 때 이런 놀이도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청호동에는 어떤 공장들이 있었나요?

명태 애 공장, 오징어 내장 처리공장이 있었어요. 덕장이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정어리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었는지 아시나요?

동사무소 뒷블럭에 예전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정어리 공장이 있었어요.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정어리 공장에서도 애공장에서도 심하게 났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서 주변 지형이 변한 게 있나요?

많이 변했습니다. 갯배도 크고 좋아졌고 민박도 많아졌고 펜션도 많아졌어요. 아이파크 아파트도 설악대교 금강대교도 생기고....

청호동 마을에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우리(단천면옥)집에 1박 2일 방송 촬영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청호동에서 많이 드시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제비, 콩치전(콩치를 빼째 다져서 동그랑땡처럼 팬에 익힘), 물회

이동형 85세, 박옥순 87세

노리 2022. 6. 24.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박) 14살에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집은 몇 채 없었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된 것은 동우대학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이) 일정때는 40~50가구 정도 되었어요. 동우대학이 들어오면서 곱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토박이가 30프로도 안 됩니다.

갈골 앞을 앞버덩이라고 했다는데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였나요?

다리 건너 청대리 가는 길 앞을 앞버덩이라고 하고 지하철 들어온다는 곳 소야벌 윗부분을 앞버덩이라고 합니다.

앞버덩을 소야평야라고 부르기도 했나요?

속초경찰서 앞을 소야평야라고 하고, 최근에 그렇게 불렀어요. 소야밭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물길이가 현재 경찰서 앞으로 흘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옛날 비포장일 때 경찰서 앞으로 물이 흘렀어요. 작은 도랑이라고 불렀어요.

청초천은 제방을 쌓기 전 홍수 때 계속 범람이 나타났나요?

옛날에는 물이 잘 빠졌는데 개발이 되면서 물이 빠지지 않아 범람 현상이 나타났어요.

농토가 침수가 되었을 텐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다는 이야기 들어 보신 것은 없나요?

박) 침수가 되면 쌀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 홍수가 날 때는 피해를 보고, 다시 복구하여 농사를 지었어요.

노리가 조선시대에 논산리에 속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들어 보신 내용이 있나요?

옛날에는 속초가 양양군에 속해있었고, 학교도 대포초등학교로 다닌 걸로 보아 노리가 논산리에 속해있다는 말도 맞을 거예요. 그때 속초는 시골이고 집도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 노리, 도리원, 이목리는 몇가구나 있었나요?

노리 40~50가구, 도리원 40~50가구 있었어요.(인공때) 이목리는 20가구 정도 있었어요.

어릴 때 드셨던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농사를 지으면 김일성이 다 뺏어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콩, 밀기울, 메밀쌀, 감자.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많이 먹었어요. 농사지은 밀기울을 갈아서 체에 쳐서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었어요.

이 동네에는 전쟁과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나요?

민가가 타고, 인민학교가 파괴되었어요.

정문섭 61세

학사평 2022. 6. 26.

집단지주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여기는 학사평 마을이고 이주할 당시에는 신흥리라고 했어요.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논산 제2훈련소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 오게 되었어요.

강제는 아니었고 본인의 의사대로(안오고 싶은 사람은 안오고) 여기로 온다는 사람들에게는 집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라는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신흥이라는 마을이 생겼어요. 신흥이라는 마을은 3개의 마을입니다.

신흥상리(지금 학사평), 신흥중리(한옥마을), 신흥하리(도평리). 그 당시에 집 지어주고, 논 1,200평, 밭 800평, 리어커, 소 한마리를 주고 농사짓게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산을 개간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지요. 그 당시 퇴비도 없었어요. 퇴비라고는 산에 있는 낙엽, 짐승이나 사람의 배설물이 전부였어요. 힘들어서 90% 이상은 다 이사 가고 지금은 10%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한 3% 정도 남아있어요.

그때 121세대가 왔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은 2~3분 정도가 됩니다(1세대). 2세대까지 포함해도 3~4분 정도뿐입니다. 힘드니까 다 헐값에 팔고 도회지로 나갔어요. 지금에 와서는 땅값도 오르고 좋아졌지만, 그 당시는 힘들었어요.

집단지주촌이 생기기 전 이곳에는 집이 없었나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동네는 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두 부부가 계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롭게 사시다가 좋아가지고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963년도였어요.

원래는 이주계획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철원으로 계획되었었는데... 아버지가 철원으로 가보니 그 당시 철원군수가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속초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초에 군대 막사를 만들어 놓고 같이 집단생활을 했다고 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에 소나무가 그렇게 많았대요, 호랑이도 있었고..

집단지주촌은 어디에 마을이 생기고, 농사짓기 전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121세대가 신흥 상리, 중리, 하리에 분포되어 있었고, 막사 생활을 하면서 개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삶도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이 동네 지명이 별로 없던데 알고 계신 지명이 있나요?

예전에는 학사평과 신흥리가 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애향단이라는게 있었어요. 애향단이 신흥리로 되어서 하리, 중리, 상리 애들이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통폐합이 되었어요. 지금의 '김영애 순두부' 일대에서 '수입 외제 차'까지가 학사평 원주민입니다. 1987년 상리하고 학사평만 통폐합되었고, 하리는 도평리가 되고, 중리는 한옥마을이 되었어요. 옛날에 원주민이 살던 곳을 딱새벌(딱사벌) 이라고 했어요.

1965년 신문에 신흥리에서 학사평저수지로 가는 길옆에 수정맥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이 일대에 수정이 많이 나왔어요. 왜정시대부터 일본사람들이 수정을 캐서 안경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척산리 목우재에 가기 전에 수정골이 있어요.

학사평에 미군 비행장이 있었는데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군 비행장은 학사평이 아니고 신흥중리 한옥마을 밑에 보안대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큰 여객기 비행장이 아니라 정찰기, 헬리콥터 비행장이었어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이 아니라 모래나 자갈을 깔아놓은 비행장이었어요.

비행장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없어졌나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만 해도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가 가고 나서 병원부대가 왔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듣기론 그 부대

가 주문진으로 옮겨가 동해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부대 옆에 보안부대가 있었는데 명성콘도가 생기면서 보안부대가 이동했어요. 6·25전쟁이 끝나고 70년 초반 정도에 없어졌을 거예요.

비행장을 운영하던 미군 부대는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미군 부대 규모는 대대급 규모였고(천명 정도) 건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곳에 콩꽃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콩을 많이 심었나요?

콩을 심은게 아니고 마을 사업으로 두부를 생산했었어요. 그리고 마을 이름으로 두부 사업을 하려 했는데, 학사평이라는 이름이 서울 어느 곳에서 상표 등록하여 이미 사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사평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끼리 상의하여 콩꽃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가 2003, 2004년 때입니다.

순두부촌과 콩꽃마을은 연관성이 있나요?

순두부촌과 콩꽃마을은 같은 마을입니다. 어려서는 순두부촌이 없었어요. 두부를 하기 시작한 건 1976년 정도에 김영애 어머니가 저수지 밑에 마을이 몇 집 있었는데, 이 동네에 와서 먹고살기 힘들니깐 두부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곡식하고 물물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학사평 주변 바위나 산 이름을 알고 계신 지명이 있나요?

호랑바위(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갔다는데서 유래), 울산바위. 고성꺼예요. 예전에는 원암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을에서는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었나요?

바람세기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기왓장이 날아가고, 자갈이 날아갔어요. 바람이 불면 걸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학사평저수지는 원암저수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다른 큰 저수지가 있었나요?

맞아요. 예전에는 학사평저수지라고 불렀는데 몇 년 전에 고성군에서 왜 학사평저수지라고 그러느냐면서 원암저수지로 했어요. 이 저수지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름이 바뀐게 4~5년 되었고 행정상 고성 땅입니다.

대명콘도 앞에서 울산바위로 넘어가는 길이 약초꾼들이 다니던 길이라고 하던데, 이 마을에 약초꾼들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무도 하고, 산나물도 해서 살았으니....약초꾼도 있었어요. 시내에서도 나무를 하러 왔었어요. 그 길이 용산대골로 가는 길인데, 흙다리라고 있었고 폭포민박 앞쪽으로 해서 울산바위 옆까지 길이 있었어요. 지금도 길이 있어요. 왜정시대 때 차돌광산 때문에 길을 뚫은 것 같아요. 그 길로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최춘자 66세

청호동 부녀회장 2022. 6. 27.

고향은 어디신가요?

청호동 신평마을

청호동에는 언제 어떻게 정착하셨나요?

부모님이 전쟁 때 함경남도 이원에서 내려오셨고 청호동에 정착하셨어요. 우리 형제 모두 청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착 후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는 배 선장을 하셨고 어머니는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물고기 손질로 돈을 벌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배를 타셨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것만 손질을 했었어요.

당시 청호동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신평마을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했어요. 지금의 이 자리(정호네 식당)에 리어카로 6번을 날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학교다닐 때 파도가 크게 친 다음날엔 항상 세숫대야와 삽을 갖고 등교를 했어요.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에 파도에 모래가 운동장까지 밀려들어서 그걸 학생들이 다 치웠어요.

청호동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언제쯤인가요?

전쟁 후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5명이 한 학년당 5개의 반이 있었고 그렇게 6학년까지 하면 1,900여 명이었어요. 학교 옆 할복장이 있는 곳에도 교실이 있었는데 디근자로 학교 건물이 있었어요. 운동회라도 열리면 부모님까지 오셔서 정말 북적였습시다.

그때는 조미공장이 4군데 있었는데 모두 잘 되었어요. 속초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양양에서 구하기도 했어요.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 덕에 우리 집의 슈퍼마켓이 잘됐어요.

전쟁 후 청호동에 우물도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식수는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우물은 없었고 공동수도가 지금의 마을금고 자리 앞에 있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물통에 물을 받아서 생활을 했기에 맨날 줄을 서서 받았지요. 내가 물을 머리에 이고 날라서 키가 크지 못했던 거 같아요.

고향의 음식 중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명태 애조채국입니다. 명태를 지리로 끓이다가 애가 익으면 애를 건져서 으갠 후 고춧가

루 마늘 파를 섞어요. 지리로 먹다가 애조체를 넣고 먹으면 전혀 다른 맛이고 구수하고 매콤하고 맛있었어요.

청호동에 정착한 후 대체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드셨나요?

명절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중 명태순대가 있어요. 대태(아주 큰 명태)의 내장을 다 비운 후 그 속에 다진 김장김치와 야채, 두부, 당면을 다져서 넣고 밖에 3일 정도 꾸덕하게 말려 썰서 먹었어요. 꾸덕하게 마르면 생태와는 달리 썰 때 살이 부서지지 않아요. 그 외 팔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팔을 꼭 삶아서 으갠 후 물을 붓고 수제비를 뜯어 넣고 먹었습니다.

고향이나 북쪽에서 있던 음식이 현재 속초에 남아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아바이 순대, 가자미식해

고향이나 북쪽에서 먹던 음식이 속초에서 변형되어 전해지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명태순대. 티브이에서 보니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순대와 조금 달랐어요.

고향에서 먹던 음식과 현재 속초에서 전해지는 음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순대와 차이점은 속을 채운 후 뿌득하게 말렸냐, 안 말리고 바로 찌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최영창 52세

청호동 2022. 6. 29.

청호동에 정착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부모님이 흥남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정착을 청호동에 하셨기 때문에 청호동에서 태어났어요. 갯배 근처처럼 어떤 마을이 아니라 6통입니다.

어렸을 당시 청호동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슬레이트 집들이었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집들이 개보수가 되었어요. 메워진 곳에 부두(수협)가 생기고 해안도로도 났습니다.

어릴 때 청호동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았나요?

어업입니다. 우리 집은 덕장을 했었어요.

청호동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녔나요?

청호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녔어요. 중학교는 갯배를, 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청호동 아이들이 놀만 한 공간은 있었나요? 주로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놀았고, 학교 끝나고 동네에서 형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동네에서 살던 아이들은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집에 2~4명 정도 있었으니 시끌시끌했었어요.

청호동 길이 예전에 비행장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졌나요?

들었어요. 전쟁 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 때니까 임시로 생겨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초창기 청호동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물이 있다고 하던데 위치를 아시나요?

두 개가 있었어요. 대우반점 건너편에 하나, 성황당과 아이파크 중간쯤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파크 어디쯤에 묻혔을 거예요. 우물을 직접 써보기도 했어요. 친척분들이 성황당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청호동 마을에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드라마 가을동화 때, 그 후 1박 2일. 가을동화는 청호동이라는 곳이 알려졌고 1박 2일은 먹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외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옛날에 소금 만들던 염전이 속초해수욕장 근처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자리가 옛날엔 웅덩이가 많았어요. 습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개구리도 많이 잡으러 다녔었어요. 68해일 때 한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들었고 그분들이 새마을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청호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조양초등학교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태풍이 왔었는데 약간 언덕에 있던 성황당의 아래 흩어져서 버랑을 이루었던 적도 있었고 겨울에 청초호에 떠밀려서 두 겹 세 겹 얹혀진 얼음 위에 올라타고 나무 장대로 저어서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위험하긴 했지만, 그때는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박귀암 71세

청호동 속초제빙공장 2022. 7. 6.

사장님의 고향은 어디시며, 속초에는 언제 정착하셨나요?

전남 영암. 1976년에 정착했습니다.

이주하셨다면 속초에 정착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술자로 오게 됐습니다.

현재 하시는 제빙업은 언제부터 하고 계시고 어떤 연유로 시작하셨나요?

1976년에 여기서 일을 했고, 1997년에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호동에 공장을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이 1976년에 설립했고 그래서 기술자로 내가 왔어요.

젊은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군 제대를 하고 25살에 속초제빙으로 왔습니다. 40대에 인수를 받았는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낚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제빙공장의 위치는 어디이며, 직원은 몇 명이고, 현재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직원은 나를 포함 3명이고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고 예전에는 배에도 얼음이 나갔는데 내가 인수할 때는 수협에서 얼음을 다 대줘서 우리 매출이 적었습니다.

제빙공장이 가장 호황을 누리던 때는 언제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90년대고 IMF였지만 오히려 지금과 비교하면 잘 됐어요. 오징어가 많이 낚였거든요.

현재 만드는 얼음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일반시민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되는 얼음은 주로 청호동 어판장에서 사용되나요?

어판장은 수협에서 얼음을 다 팔아요. 우리는 식용이기 때문에 마트나 시장으로 나갑니다.

현재 속초의 어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얼음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만약 고기가 많이 난다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황이 좋으면 당연히 우리 공장도 잘 되겠지요. 고기가 많이 나면 시장과 일반판매도 많아질 것이고 관광객도 와서 고기를 살테고, 얼음도 많이 팔리겠지요.

얼음 공장이 설립되고 현재까지 오는 동안 희비가 있었을 텐데 그 스토리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직원이 많았어요. 냉동 기사만 5명이고 일하는 사람이 주 야간으로 나눠서 있었으니까 15명 정도 있었어요. 직원이 많았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규모로(투자비) 다른 사업을 했다면 훨씬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조미공장이나 사료공장처럼... 그때 얼음 공장을 운영하려면 그만큼의 직원이 있어야 했어요. 지금은 기계화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예전처럼 없어도 되지만 사람 대신 장비가 일을 합니다.

현재 속초에 남아있는 다른 제빙공장들이 있나요?

4곳이 있었어요. 극동냉동, 동명냉동, 유신냉동 그리고 우리..... 극동, 동명, 유신냉동 순으로 없어졌어요. 유신냉동은 7~8년 된 것 같고, 수협이 청호동으로 옮긴 후에 문을 닫았어요.

그 많던 얼음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항 부진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운영난이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우리가 문을 닫으면 개인 냉동공장은 하나도 없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이지요.

박병준 만59세.

대창조선소 2022. 7. 6.

속초에는 언제 정착하셨나요?

청호동(전 함경조선소 자리)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하고 다른 곳에 있다가 1995년에 속초에 정착을 했어요.

현재 하시는 일이 대창조선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연유로 시작하셨나요?

청호동 함경조선소는 1953년에 설립을 하셨어요. 1998년까지 청호동에서 하다가 1999년에 이곳 대창조선소로 옮겼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일 큰 어려움은 수리할 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큰 배만 주로 오는데 수리할 배는 적고 직원들 급여나 운영비 등등 꾸준한 지출이 있으니... 그래서 요즘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대창조선소의 위치는 어디이며, 현재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양동에서 운영 중이고 사업 규모는 점점 작아졌어요.

현재 만들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수리만 하고 있어요. 예전 함경조선소 초기 경영 때는 작은 목선은 만들었지만, 지금은 나무도 비싸고 배를 만드는 목수들도 없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요즘은 FRP선이라 모든 자재들이 전라도 쪽에 있어요. 그 자재를 사와 여기서 만들면 물류비가 너무 나와서 배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는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현재 속초의 어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조선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선감소, 어민감소, 어획량감소. 지금 수리하고 있는 오징어배도 선장이 없어서 주문진에 있는 분을 모셔온다고 했습니다. 어민도 마찬가지로 거의 외국인 선원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창조선소가 설립되고 현재까지 오는 동안 희비가 있었을 텐데 그 스토리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조선소 부지는 땅이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초호 매립한 땅은 별로 좋지 않아서 땅을 걷어내고 모래를 다시 깔고 다지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 모래는 영광호 준설한 모래였어요. 바지선을 빌려서 땅 고르는 작업비만 2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오징어 냉동선이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차라리 배 사업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있어요.

작년엔 주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했는데 우리 조선소에서 수리중인 배에 페인트 칠을 하던 중 페인트 가루가 날려 차에 묻었어요. 그것도 보상하느라 애먹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수협과 속초시에서 담장을 해줬습니다. 이전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바다와 관련된 사업은 고민을 해봐야 하고, 앞으로는 가두리 사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민들도 줄어드니 어떤 배는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선장이 없어서 주문진에서 모셔와야 하고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2개월 동안 1억 500 매출을 올렸는데 경비가 9천 만 원 나왔고 나머지로 인건비를 줘야 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징어라도 많이 나면 수리업도 좋아질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관광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우스보트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펜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는 내가 만들 거예요.

현재 속초에 다른 조선소들도 있나요?

없습니다.

칠성조선소처럼 여기도 카페나 업종을 바꾸면 안 될까요?

칠성조선소는 상업지역이고 우리 대창조선소는 공업지역이라 안 됩니다.

그 많던 조선소들이 문을 닫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기가 안 났던 게 제일 큰 원인이지요.

과거 조선소 이름을 보니 부친께서는 함경도에서 피란 오신 것 같은데 부친의 원래 고향은 어디시며 어떤 경로로 속초에 정착하셨나요?

함경남도 이원입니다. 피란 오실 때는 LST선으로 삼천포로 가셨다가 속초로 정착하셨어

요. 아버님은 해마다 처음 피란 가셨던 삼천포를 손수 운전을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작년 4월 1일에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부친께서 살아오신 생애를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은 고향에서 동아대 중퇴를 하셨고 피란 오실 때 현금 1만 원과 릴케시집을 갖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1만 원이면 큰돈이었는데 남한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서 많이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문어 한 마리에 1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일기도 매일 쓰셨어요. 배를 올려서 수리를 하려면 조수간만의 차이도 알아야 하는데 아버님의 일기에는 그런 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1일. 개업 날인데 대출을 많이 한 상태여서 개업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있었어요.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아버님은 조선소 운영의 전반적인 걸 기록하시고 난 수리에 관한 걸 기록했습니다.

부친께서 운영하신 함경조선소의 역사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렸을 때 우리는 고무신을 신지 않고 가죽제품의 신발을 신었어요. 바닥이 기름투성이었으니 고무신을 신으면 다 녹습니다. 어머니는 조선소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모두 해주셨어요. 함경조선소에서 이곳으로 왔을 때 ‘대창’이라고 바꾼 건 고향에서 아버님의 어머니가 대창 냉면집을 했었다며 아버님이 그 간판을 쓰자고 했습니다.

함경조선소는 어떤 배를 만드셨으며, 1년에 몇 척이나 건조하셨나요?

목선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라 몇 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경조선소가 위치한 곳은 어디이며, 현재도 그 자리가 남아있나요?

청호동, 지금도 터는 있어요. 예전에 있던 주택에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함경조선소가 가장 큰 호황을 누리던 때는 언제인가요?

1990년대. 그때는 저인망 어선도 많았어요. 특히 1995년에는 고기가 많이 났었습니다.

함경조선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였고, 그분들은 모두 청호동 분이였나요?

6분 정도였어요. 외지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수, 철공, 페인트...

68해일과 관련하여 1972년 많은 배를 진수하였다는데 함경조선소도 그때 역할을 하셨나요?

우리는 수리만 했어요. 건조당이라고 구역을 나눠서 전국에서 배를 만드는 목수와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배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함경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은 언제이며,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악대교가 생기고 매패이 되면서 조선소에(수리를 위해) 배를 올릴 수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지금의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부친께서 사업하실 때 속초에 있던 다른 조선소의 이름과 위치 등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원풍조선소는 이마트 오른쪽 뒤, 부산조선소는 원풍조선소 부근, 칠성조선소, 인디안조선소는 칠성조선소 옆, 동명조선소도 칠성조선소 옆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속초의 조선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조선소는 어떤 것인가요?

칠성조선소

조선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1990년 중반 이후부터 ~ 2000년 초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함경조선소가 1997년 문을 닫을 때 원풍조선소도 문을 닫았어요.

박인순 65세

낙천회관 2022. 7. 7.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하셨나요?

1986년부터~~ 이전에는 낙천목욕탕이었고 후에 낙천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착 이후 지금까지 지내오신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시댁 어르신들이 낙천목욕탕을 하다가 1986년 7월 아시안게임을 할 때 낙천회관으로 오셨어요. 그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낙천면옥이 아니고 낙천회관입니다.

냉면 전에 이곳에 다른 상호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1983년도에 시집을 오니 어르신들이 낙천목욕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집을 와서 3년 동안은 낙천문구를 했고, 목욕탕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식당을 차렸어요.

낙천양조장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낙천목욕탕 전에 술을 만드는 낙천양조장을 하셨어요.

낙천양조장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장사를 하셨나요?

1955년부터 1967년(1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양조장이 성업할 때 사업 규모는 어떠했나요?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16때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걸린 것은 없지만 그때부터 내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천목욕탕으로 변경했네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청학사거리 주변의 풍경은 어떤 것인가요? 처음 보았을 당시 속초초등학교, 슴뜰집, 국숫집(보은상회), 문구사(한일, 어린이, 낙천), 한일약국, 동사무소 수선집, 슈퍼, 대성목재소 등이 있었어요.
이 모습들은 시집와서 본 것이고 처녀 때 본 것은 이곳이 신작로라고 해야하나.....

김상진 73세

청학동 육구시장 형제기름집 2022. 7. 7.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하셨나요?

13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정착 이후 지금까지 지내오신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역사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50년 동안 직업도 안 바꾸고 한 가지 일만 계속했어요.

육구시장은 언제 생겼고, 어디까지가 시장인가요?

글쎄, 오래되긴 했는데 속초시가 시로 승격되었을 때 생겨난 것 같아요. 지금의 네파에서 부둣가 전까지가 시장이었어요.

시장은 시에서 만든 건가요?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가요?

시장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예요. 육구시장이었다가 청학시장으로 되었다가 없어졌어요.

초창기에 세워진 가게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가게의 위치를 알고 계신가요?

초창기에 가게는 형제기름집, 부식가게, 육고점, 생선가게 등 한 10개 이상 정도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장사가 잘된 가게는 무엇이 있나요? 그 가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부식가게하고 생선가게가 잘 되었어요. 지금은 다 떠나고 개발되어서 없어졌지만 사실상 개발이 되어서 쫓겨난 것이예요.

어느 해에 장사가 제일 잘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정하게 장사가 잘되는 시기가 있다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다 이사갔어요. 우리 집 하나 남아있는데, 단골손님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육구시장이 생기기 전 이곳에 집들이 있었나요?

여기 집이 있긴 했는데 장사를 했던 집들은 아닙니다. 방 하나 아궁이 하나가 전부인 집들이 있었어요.

집들이 있었다면 대략 몇 채나 있었고, 그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15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 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고기 많이 났으니깐...

육구시장 생기기 전 건너편(산쪽)에는 집들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달동네였어요.

이곳에도 덕장이 많았나요? 어느 곳에 덕장이 있었나요?

신라예식장 앞쪽이 다 덕장이었어요.

이홍수 86세, 권순완

2022. 8. 5.

척산마을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금호콘도 다리에서부터 위로 다 척산 마을이에요.

어릴 때 마을은 몇 가구나 살고 있었나요? 집은 기와집이나 초가집 어떤 집이 있었나요?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 초가집이었고, 우리 집 한 채만 돌기와집이었어요.

척산마을 사람들의 생업은 농업이었나요? 농사는 아래 온천장 아래로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다 농업에 종사했고 사방이 다 논이 있었어요.

척산마을에서 신흥사로 넘어가는 길은 목우재 말고 무당골로 가는 길이 있었나요?

무당골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오솔길로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노적바우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무속인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척산온천장의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로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물줄기가 한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물줄기가 있었어요.

온천장에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같은 것이 있나요?

권)척산온천은 물을 데우지 않습니다. 지하의 물이 56도여서 물을 식혀서 내보냅니다. 수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척산에는 지금 온천장 자리에 따뜻한 물이 나왔나요?

이곳에 마을이 있었는데 10가구 정도 되었어요. 2000년도까지도 마을이 있었고 집을 짓

기 전에는 작은 우물가도 있어서 빨래도 하고, 온천도 했다고 해요.
우물가도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전설에는 상처 입은 두루미가 여기 온천에 와서 담그고 난 후에 치유받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온천물이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군철 69세, **차동준** 56세

노리 2022. 8. 5.

5대조 할아버님이 처음 이 마을에 정착하셨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정착하셨나요?

차) 1800년대 장천에서 살다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1850년 정도에 장천에서 노리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묘는 달마봉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땅이 2만여 평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지금 묘가 있는 달마봉 중턱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멀리 바다도 보이고 사는 곳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밖에 나가면 나쁜 행동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여기 토박이면서 18대째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이 이 마을 최초 정착자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살고 계시던 분들이 10여 가구가 있었어요. 집안 윗분, 형제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환경이 좋으니 장천에서 노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착하실 때 이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었나요?

화천민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름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씨가 제일 먼저 정착을 했고 그 다음 이씨, 정씨가 정착을 했어요. 그렇게 노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전 50년 전 연한 차씨 20여 가구 현재 5~6가구, 전주 이씨 10여 가구 현재 6~7가구, 초계 정씨 5~6가구 현재 4~5가구 살고 있어요.

정착하신 후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의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정확하게 노리는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온정초등학교 뒤가 중심이었고 초등학교 옆 4거리에 집들이 많고 오래되었습니다. 한전연수원 아래, 금호콘도 다리 아래, 동우대 입구까지가 노리입니다.

앞버덩은 갈대로 가득했다는데 언제 논이 되었나요?

10살 전후에는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놀았고 그 이후에 논으로 개간을 했어요. 30~40년 전에 제방을 쌓았고 50여 년 전에 논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논농사를 짓다가 시와 재판을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아 불하를 받았어요. 재판은 오랜 시간 걸렸는데 용담이 형이 춘천

까지 혼자 다니면서 애쓰셨습니다.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 몇 필지를 팔아서 마을 소유의 회관을 지었어요. 노인회관은 시 소유지만 마을회관은 마을 소유이고 마을회관의 아래층은 세를 졌습니다. 이 이율로 마을 운영도 하고 적십자회비도 내고 격년으로 어르신들 여행과 어버이날 잔치를 합니다. 지금은 적십자회비를 본인이 내게 시에서 권해서 오히려 마을운영비가 더 늘어 났어요. 속초시에서 유일하게 마을운영비가 넉넉한 곳이 우리 마을일 거예요.

소야평야라는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나요?

채용생 시장 때 소야빨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마 개발붐이 일면서 그렇게 불리웠을 거예요.

소야평야라고 하면 범위는 어디인가요?

경찰서 앞 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응골교 아래에서 청대초 뒤까지의 논, 옛날에는 도리원 앞 논을 도리원버덩, 청대리 앞 논은 청대리버덩이라고 했습니다.

앞버덩의 농사는 청초천의 물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학사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지었어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우리 동네로 오다 보면 약해집니다. 그럴 때 물에 낙차를 주면 또 떨어지는 물이 힘을 받아서 내려가요. 그런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뭄이 심했을 때는 저수지 물을 방류하면 갈골 앞 하천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하천은 빨이니까 자연스럽게 방류한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학사평저수지가 농사짓는 데는 큰일을 합니다.

노리에는 어떤 성씨들이 살고 계신가요?

연안 차씨, 전주 이씨, 초계 정씨. 그리고 창녕 김씨.

도리원에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노리가 커졌기 때문인가요?

여러 곳에서 왔어요. 도리원 산림지역이 서서히 개간되면서 영랑동 뭐 이런 곳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도리원은 이씨가 많았고 잘 살았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노리가 컸어요. 도리원은 30~40가구, 이목리는 10여 가구, 척산리는 20여 가구가 살았고 거의 90%가 초가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먹고살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나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생계유지가 되었어요. 60년, 70년대는 다들 어려웠어요. 나무를 해서 1구 영랑시장, 3구 중앙시장, 6구 청학동에 팔았는데 나라에서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지만 당장 어려우니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필요하면 밤에 싸리재의 나무를 베서 집을 지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나 보 같은 것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금호교에서 응골교는 상보, 응골교에서 철교는 중보, 그 이하를 하보라고 했습니다.

물레방아가 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도리원 앞, 철다리 앞

물레방아는 방아와 수차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디딜방아. 어른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예전 우리가 클 때는 청초천에서 목욕을 하고 고기도 잡아서 어죽탕도 끓여 먹었어요. 여름에 목욕을 할 때는 가족이 나와서 할 때도 있었는데 10여 미터씩 떨어져서 하곤 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네가 하고 있는지 다 알 정도였습니다. 목욕탕이 멀거나 없던 시절이었으니 예의상 한집이 하면 뚝 떨어져서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물이 참 깨끗하고 좋아서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서 끓여 먹곤 했지만, 온천이 개발된 후에는 물에서 냄새나고 고기를 잡아도 거기서 냄새가 났어요. 옛날 일입니다.

망우리 놀이도 많이 했고 하천에서 잡은 고기로 추어탕을 끓여 먹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전엔 도량도 풀이 있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 고기가 없습니다.

최종철 65세

청호동 건조인협회 회장 2022. 8. 12.

청호동 할복장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할복은 주로 중앙동 어판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청호동에서도 할복장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할복 작업을 하였나요? 할복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장소는 어디인가요?

할복장이 없었을 때는 각자 집에서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할복 작업을 하니 그 부산물이 호수로 혹은 바다로 들어가 오염시키니 할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할복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수거를 해갔어요. 오징어 내장이 화장품 만드는데 쓰였나봐요. 요즘은 강릉 현대특수산업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예전에는 할복을 하고 돈대신 부산물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명태는 부산물이 값이 비싸서 임금으로 주기도 했는데 오징어는 그렇지 않았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할복장에서는 대체로 어떤 종류의 고기들을 작업했나요?

오징어만 했어요.

할복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언제이고, 그때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었나요?

1990년대입니다. 10년~15년 정도, 오징어도 많이 잡혀서 활발했어요. 그때는 회원(조합원)이 150가구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11가구가 남았어요. 돌아가시고 사업을 접고....

할복장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할복장은 제작년부터 문을 닫았어요. 할복장을 운영하려면 한 가구당 1천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지금은 회원이 조금밖에 없으니 각자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더 많아져서 운영이 안 됩니다. 저 건물은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처리를 할 것이에요. 건물은 속초시의 재산이니까.....

할복장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복장 존립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 지었을 때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김진국(전, 청호동 시의원)이 할복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어요.

할복장은 1년 운영비가 1억 정도 듭니다. 예전에 활성화가 잘 될 때는 내장을 팔아서 운영비에 보탬이었는데 오징어가 많이 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운영이 어려워 졌어요. 할복장 문을 닫는데는 오징어가 안 난게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내장을 파는데 그 회사와 3년에 한 번 계약을 합니다. 내장의 가격은 1드럼당 4만원이고 작업을 한번 하면 3드럼 정도 나옵니다. 내장의 용도는 사료를 만들어요.

박대유 61세

만천동 2022. 8. 22.

만천동에 정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태어나서 45살까지 살았어요.

만천동에 정착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살고 계셨기에... 할아버지가 1901년생이신데 20대 때 오색에서 부모님과 속초 동명동 보광사 뒤쪽으로 정착을 하셨고 교동에서 잠시 살다가 만천동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은 무엇인가요?

농사도 지으시고 만화방도 하셨어요. 만화방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하셨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어요. 만화방과 텔레비전방을 같이했는데 텔레비전방은 만화를 보는 공간과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만화방에는 손님이 많았나요?

많았지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어떤 나이대가 많았나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속초에 10대 미만으로 있었을 거예요. 한 번 볼 때 가격은 20원, 30원, 나중엔 50원을 받았습시다. 레슬링 경기나 드라마 '전우'가 나왔을 때는 100명 정도가 보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동성당 아래서부터 도리원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봤으니까 그때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릴 때 주변에 집들은 얼마나 있었나요?

교동성당부터 구세군교회까지 100호가 좀 안 됐어요. 70년대는 스텝집과 양철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전에 있었던 집들은 초가집이 많았지요.

어릴 때 기억으로 주변에 공장이나 관공서 등이 있었나요?

전매청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배를 받아왔습니다. 기와공장(쌍골기와)이 있었고, 대한통운 정비소, 벽돌 공장이 2곳이 있었습시다. 벽돌 공장과 기와 공장의 물건을 노새로 날랐어요. 그래서 마부집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수집 공장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나요? 생활 정도는 어땠나요?

중하 정도, 하 정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력키목욕탕, 생활체육관자리가 다 밭이었고, 만천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리원 주민들도 그 논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80년대부터 유입된 주민들은 건설업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청초호에는 자주 나갔나요?

맞아요. 메워지기 전, 아남프라자 건너편 주유소 뒤도 청초호변이었는데 만천동에서 청초호가 멀지 않았어요.

청초호에 갔다면 어떤 목적으로 가셨나요?

낙시를 하러 갔어요. 그곳이 빨이어서 갯지렁이가 많았는데 지렁이를 잡아서 낙시를 했습니다.

교동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등학교 때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주공 1차 아파트가 들어서고 택지개발도 되었고 빌라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었던 것 같아요.

만천동에는 지형물에 이름이 있는 것이 별로 없던데, 바위나 땅에 이름이 있는 것은 없나요?

만천동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샘이 많아서 '천'을 썼고 이 말이 맞아요.

두 번째는 나중에 누군가 만호, 천호가 생겨서 동네가 크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일만만 일천천을 썼어요.

관음사 뒤에 산 주위로 바위가 둘러져 있는데 병풍바위라고 했어요.

기타 다른 말씀은 없나요?

수정장을 지은 분이 광산업을 했데요. 학사평 쪽에서 수정을 많이 캐서 사업을 했었데요.

이하용 86세

과수원 2022. 9. 12.

마을에서는 척산마을의 지명 유래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산이 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설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집안이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언제인가요? 내력을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살아오고 있어요. 아버님 대에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몇 살) 양지마을, 음지마을, 탄봉 마을에는 각각 몇 가구나 살고 있었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 양지마을 7가구, 음지마을 5~6가구, 탄봉마을 10가구 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 이 마을에는 어떤 집들이 있었나요? 기와집이나 초가집?

초가집이었고 음지마을에 돌기와집 한 채(이흥수), 양지마을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정확하게 양지마을의 범위, 음지마을의 범위, 탄봉마을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온천장 아래 개울 건너 저쪽이 양지마을, 아래쪽이 음지마을 지금 고속도로 아래를 탄봉마을 이라고 합니다.

척산마을에서 신흥사로 넘어가는 길은 목우재 말고 무당골로 가는 길이 있었나요?

없어요. 목우재를 넘어야 신흥사로 갈 수 있어요. 무당골로 가서 가자면 산을 헤치고 갈 수는 있겠으나 길은 없었어요.

이 동네의 대표적인 성씨들과 언제 그 집안들이 마을에 들어왔나요?

정씨, 언제 그 마을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당골로 들어가다 보면 탑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탑이 있는 곳이 탑상골이고 물 뜨던 곳이 무당골이 맞나요?

탑상골을 더 지나 올라가면 물 뜨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떠다 먹었어요. 어르신께

서 운동 삼아 올라가서 물을 떠 왔는데 그게 약수예요. 옛날에는 무당골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탐상골 가는 길에 노적바위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바위가 있어요. 6·25전쟁 때 그 바위 밑을 파고 45명 정도가 피란 생활을 했어요.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면 탐상골이 있고 6·25전쟁이 끝나고 무당들이 촛불을 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무당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놓았어요. 노적바위 밑 규모가 지금은 좀 메워졌을 거예요.

어느 날 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무당골이라고 지어놨더라고요. 원래 무당골이 아니라 탐상골이고, 탐상골로 바꾸어야 합니다.

노적바위 위쪽 골짜기를 암지동이라고 했나요? 암지동의 뜻은?

암자가 있는 골(골짜기)이다라는 뜻이에요. 탐상골이나 암지골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 동쪽 산기슭 별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되는 마치장이란 곳이 있다던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복만과수원 이곳을 마치장이라고 했어요. 금은 마치장을 과수원으로 일구었어요.

물안골은 어디인가요?

지금 이 동네 팬션이 있는 곳, 개(강아지) 카페도 있는 이곳이 물안골입니다. 물이 내려오는 골~이라고....

윤계선 82세

만천동 2022. 9. 14.

만천동에 정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81년 되었네요. 아기 때 왔어요. 이 집이 원래 친정집 터인데~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지어주셨어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팔게 되어 1974년도에 우리가 집을 사고 다시 지어서 이곳으로 왔지요.

정착할 때 만천동 주변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대우아파트 부근과 이 앞으로는 다 논이었고 집이 없었어요. 옆으로 몇 채뿐이고 뒤로는 산이었어요. 뒤에 있던 산, 나하나 아파트 앞이 6.25가 나고 나서 과수원이 되었어요. 6·25 때는 나하나 아파트 주변 앞으로 다 화장터였는데 군인들이 죽으면 그곳에다 묻었고 그곳을 일구어 과수원이 되었어요. 강릉까지 피란을 갔다는데 그때가 10살이었어요 성당 부근에 구호병원이라고 생겼는데 꽤 오래 하다가 없어졌고, 교동 초등학교 자리는 산이었는데 산을 깎아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만천교회 자리도 다 산에다가 다 밟이었어요. 여기에 집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우리 집이 마지막 집이고 저 옆으로 5~6집이 있었고, 지

금 구세군교회 옆에 집이 5~6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전쟁 나고 바로 이야기입니다. 영동병원 있는 자리까지 다 바다였는데 그곳에서 조개도 캐었어요.

정착 당시 만천동에 큰 공장이나 관공서 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물이 있었다. 지금은 덮고 집을 지었지만 지금 이 앞 파란 지붕이 그 자리다.

정착 후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슈퍼를 1974년 2월에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집 지으러 다니고 나는 이 슈퍼에서 부식 장사도 하고 30살에 자전거를 배워서 중앙시장에 가서 짐을 많이 싣고 다녔어요.

어릴 때 친구들과하고는 어떻게 놀고 하셨나요? 주로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지금 영동병원 근처에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바지락 캐러 다니기도 했지요.

청초호에는 자주 나왔나요?

자주 갔지요. 바지락 캐러 자주 나가고 목욕도 하고 청초천에서 물이 내려가 청초호에서 만나는 곳에 새들이 많았어요.

교동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언제쯤인가요?

어느 순간에 늘어났어요. 주공1차 아파트가 생기면서일 거예요.

전쟁 후 이곳에 이주하신 분들은 피란민이 많았나요? 아니면 조양동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나요?

다 피란민이었어요. 어머니는 원주민으로 양양 배말이라는 곳에서 애~기때 이곳으로 이사 오셨어요. 우리 신랑은 16살 때 고성 마달에서 피란나왔어요. 그래서 이곳 슈퍼 이름이 고성편의점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현 경찰서 앞쪽으로 물길이었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렀나요?

도랑, 개울이 있었어요. 주공 3차 앞, 대우아파트 앞, 홈마트 앞 그 큰 길이 다 물이 흐르는 개울이었어요. 그곳에서 빨래도 했고, 빨래를 삶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천동에는 지형물에 이름이 있는 것이 별로 없던데, 바위나 땅에 이름이 있는 것은 없나요?

관음사 절 뒤에 병풍바위가 있었고 성황당이 있었어요. 나하나 아파트 가는 곳에 올라서면 있었고 속초에서 배 타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일제 강점기나 인공 때 있었던 일을 들어 보신 것은 없나요?

사람 죽는 것을 많이 보았지요. 인민군들이 아군들을 세워서 총으로 죽이고 나서 옷을 벗겨서 입고 갔어요.

전쟁으로 이 마을은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은 없나요?

사람도 많이 죽고... 바로 이 밑에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지... 이 집에 피란을 갔는데 경찰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뒤란까지... 세포위원장 무법천지였어요. 가져오면 다 내꺼였던 세상이었어요.

안영순 85세

교동 2022. 9. 25.

쌍다리 마을에는 언제부터 살기 시작하셨고, 언제까지 사셨나요?

57년 전 28세 때부터 1993년도 중간 주공아파트 입주 전까지 살았어요.

정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남편이 재제소에서 일하시게 되면서부터 살게 되었어요.

동네를 부르던 이름이 쌍다리마을이라고 했나요?

그랬지요. 다리가 2개여서 쌍다리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다리가 하나였는데 그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잘 기억이 안나네요.

그곳에 정착하셨을 때 그 동네는 몇 집이나 살고 있었나요?

10채 조금 넘게 있었어요. 15채는 안되고, 집의 모양은 스텐트 한 사람도 있고, 기와 한 사람도 있고 집이 다 나지막했어요.

그 동네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였나요?

보험회사, 남의 집 식모살이... 야채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명태 활복.. 남자들은 놀다시피 하고.. 오징어 배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대체로 피란민인가요?

모르겠어요. 먼저 들어 온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온 것 같긴 했는데 나는 57년 전에는 송암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영감 큰외삼촌이 재제소를 해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작은아버지가 이쪽으로 오셔서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이 동네에는 어디까지 호수였나요?

안 메웠을 때~ 맨 끝 채마집밭 아래 거의 다였어요.

마을 주민들이 청초호에서 고기를 잡기도 했나요?

아니예요. 고기는 없었던 거 같아요.

현대제재소는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졌나요?

57년 전에 오니 있었어요. 여기가 외삼촌 댁이에요.

현대제재소는 규모가 얼마나 되었나요?

일하는 직원이 많았어요. 고기 상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직원 숙소도 있었고 입구에 숙직실도 있었어요. 큰 공장이었어요

청초천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인가요?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방이 없었어요. 낮은 뚝방길이 있었어요.

청초천에서 빨래하거나 목욕하거나 하던 일들 중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쪽으로 안갔어요. 재제소 뒤에 물이 흘러서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여름엔 밤에 목욕도 했어요.

철독길 주변에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집을 지었나요?

전쟁 후 었을거예요. 내가 살러 오니 집이 있었어요.

그 외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마을은 집단부락으로 여자들은 모두 나가서 명태 할복을 하고 남자들은 새벽에 와서 명태 창란을 추렸어요. 덕장이 있었는데 그랜드 약국집에서 덕장을 크게 하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고 덕장이 두 개였어요.

김순덕 85세

청학동 육구시장 2022. 9. 25.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하셨고 계기가 무엇인가요?

1965년도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어요.

육구시장은 언제 생겼고, 언제 없어졌나요?

6·25 끝나고 바로 생긴 거 같아요. 결혼을 해서 오니 육구시장이 있었어요. 길이 나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시장은 시에서 만든 건가요?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가요?

자발적으로 만들었지요.

육구시장에서는 건물 주변에 장이 췄나요?

항시, 매일 장이 서서 매일 장사했어요.

시장 건물에는 대부분이 술집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호황기를 누렸나요?

그땐 장사가 잘됐지요. 배가 많아 사람들이 북적거리니 음식점은 별로 없고 술집이 많았지요.

육구시장이 생기기 전 이곳에 집들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지요. 이 동네 전체가 다 집이 있었어요. 시장가는 길에도 다 집이 있었고, 우리 동네는 연탄집 사장, 버스 기사, 배 선주, 치과 의사, 경찰 아저씨, 배 타는 사람.....고루 고루 있었지요.

청초호를 연탄재가지고 매웠다고 들었는데 연탄재를 가져다 버렸나요? 아니면 메꾸기 위해 일부러 수집해서 가져다 땅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갔다가 버리기도 하고, 흙을 차로 실어다가 메꾸기도 했어요.

조선소 외에 큰 공장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쁜이 공장. 그리고는 공장이 없었어요.

이곳에도 덕장이 많았나요? 어느 곳에 덕장이 있었나요?

여기 청학동에는 없었어요. 저 쌍다리 쪽에는 많이 했지요.

서익달 92세

만천동 2022. 9. 25.

수정장 앞에 들어와 사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967년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차사업(마차운송업)을 하느라 왔지요.

벽돌 운송업은 언제 시작하셔서 언제까지 하셨나요?

1968년 정도 되어서 시작해서 내가 50세가 되기까지 했어요.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조랑말(제주말). 강릉에서 구했어요.

마차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셨고 어디 사셨나요?

최고 많을 때는 요 부근에 6명까지 있었어요. 지금 마을금고 주유소에 있었고(황씨네), 그리고 우리가 있었고, 이씨네가 있었고, 또 딴 집이 하나 있었고 지금 보광병원 주차장 옆으로 쫄로리 세 집이 있었어요.

마차 운송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피란민이신가요?

아니~ 피란민은 없었어요. 우리만 피란민이었지 아버지가 개성에서 왔지요.

마차 운송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그 일을 그만두신 후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는 철물점을 하고, 다른 이들은 노동을 하고... 벽돌공장도 다니고.

벽돌공장은 어디에 있었나요?

유일택시 밑에 저쪽으로 나가는데 현대기업사가 있었어요. 보광병원 자리에는 해동기업사가 있었지요. 아남프라자 조금 위는 광진기업사, 아남 바로 뒷집에는 조그마한 목재가 있었고, 목재소도 아니고 나무 갔다가 팔았지요. 그전에 해동기업사 뒤로 다 논이었잖아요. 아남프라자도 다 논이었어요. 대원기업사는 농협하나로마트 건너편 바다를 메워서 기업사를 했잖아요. 해동기업사는 덕장 하다가 기업사를 하고, 광진기업사도 해동기업사가 하던 그 무렵에 했어요. 광진기업사는 우리가 마차 시작할 때 생겼어요. 현대기업사는 소방서 길 건너서 그 무렵에 했고 대원기업사도 그 무렵 다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벽돌 공장이 많이 생길 때 속초에 집을 많이 짓기 시작했나요?

집을 많이 지었어요. 일거리가 많았었다구요.

벽돌 공장이 없어진 것은 언제이고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철물점을 할 때까지는 다 했어요. 그러다가 차차 없어지더라구요. 우리가 아버지 50대에 철물점을 차렸는데 차리고 나서 차차 없어지더라구요. 건축경기가 있었는데도 외상을 못받더라구요. 그래서 망하는 거지요. 업자들이 안주고.... 도망가고...

벽돌 공장 외에 다른 공장이나 관공서가 있었나요?

영동병원 옆쪽으로 보건소가 있었고, 아남 옆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수정장은 언제 생겼나요?

우리가 지금 보광병원 주차장으로 이사오고 나서 그때 지었어요. 1968년 정도 되었겠네요.

수정장 사장님이 수정을 캐서 팔아서 수정장을 지어 이름을 수정장이라 하였나요?

설악산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가공해서 판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캔 것을 받아서 장사했나 봐요.

수정장은 당시 속초에서 가장 좋은 여관이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좋으나마나야지요. 아마 테니스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착 당시 만천동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나요?

아니~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쪽이 골짜기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있고 다 밭이고요.

이곳에 정착하실 때 쌍다리, 육구시장에 마을이 있었나요?

육구시장에 마을이 있었어요. 속초중학교 건너편에는 피란민들 구호 주택이 있었어요. 쌍다리 건너가기 전에 왼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부락이 있었고 제재소도 있었어요.

황시영 62세

이목리 2022. 10. 1.

이목리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나요?

태어나서부터 거주했어요.

이목리에 들어오기 전 조상님들은 어디서 거주하셨고, 이곳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외가집은 이목리가 본토고 본가는 청대리였어요. 할아버지 때 이목리에 오셨어요.

이곳이 돌배나무골인데 돌배나무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목리가 돌배나무골이 아니고 이목리하고 동우대 사이의 골짜기가 돌배나무골이에요. 이목리는 배나무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집집마다 배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돌배나무도 좀 있고 우리 옆에 집에 가면 큰 돌배나무도 있었어요. 집에서 조금씩 지어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이 마을에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언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제 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마을이 많지 않았고 몇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목리는 양씨하고 강씨가 먼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에 조상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고 지금은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장재골(아랫골)이라는 골짜기에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납골당 비슷하게 해서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었죠. 동네 어르신 분들 것도 선산에 묻었다가 지금은 이장하거나 화장하거나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 이 마을에는 집들이 몇 채나 있었나요?

그 당시(12살 정도) 40가구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랫마을 윗마을을 1반 2반이라고 했어요.

집들은 어떤 집들이고 어디에 마을 어디에 있었나요?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기와집이 한두 집 있었나... 함석집이 5집 정도 나머지는 초가집이었어요. 움막집도 있었고 그러다가 새마을 사업으로 초가집들이 다 스텐트 집으로 바뀌었죠. 함석집이 아랫마을에 두 채, 마을에 두~세 채, 지금 남아있는 집은 우리 집하고 양씨네 집이 조금 남아있어요. 저쪽 윗마을에 있는 집도 꽤 컸는데 지금 남아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집도 많이 바뀌었죠. 함석집에서 스투트집으로 바뀌고 뒷마루도 없어지고 방이 넓어지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사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 마을의 생업은 무엇이며, 주로 어디서 농사를 지었나요?

다 농업이었죠. 농사는 그 동네에서 지었고, 지금 이목리 막국수 앞쪽이 다 논이었어요. 동네 들어가다 보면 길옆 오른쪽으로 지금은 메워졌지만 다 논이었어요. 아랫마을 윗마을 다 논이었고... 이목리 막국수 있는 데가 윗마을입니다. 이목리 막국수 골짜기가 장재골이고 아랫마을은 들어가는 입구라 아랫마을이지요.

어릴 때 이 마을의 생활 정도는 어떠했나요?

우리 집하고 몇 집은 잘살았고 나머지는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잘 살았던 집은 강씨, 양씨 두 집안하고 예비군 중대장 하던 집이 좀 살았어요.

이 동네에 과수원이 있었나요?

지금 농협 연수원, 박물관 앞 뒷버덩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고병철 60세

육구시장 2022. 11. 16.

육구시장의 생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너무 어렸을 때 얘기라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고, 어른들께 들은 얘기를 아는 범위 내에서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함경도 영흥 분이십니다. 함경도에서 지주였어요. 영흥 백도리라는 곳에 염전 밭을 2만 평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6·25전쟁 때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하고 금방 들어갈 줄 알고 배를 한 척씩 가지고 나왔어요. 소금을 만들어서 일본에도 갖다 팔고 해서 배는 여러 척 있었죠. 그래서 속초에 정착을 하게 되죠. 고모님은 청호동 넘어가서 첫 번째 조선소를 했어요. 그 옆에 작은아버지가 계셨고요.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밑에 삼촌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육구시장에 거의 선두주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쪽 박아가지고 그만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땅 주인이 없었으니까, 아버지는 뎨마가지구 덕장도 하고 했어요.

동네에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형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 “여기다 말뚝 박아라. 여기서 살아라.” 그게 이제 그 집꺼가 된 거고. 우리 누님이 68세인가 69세인가 되는데 누님이 어렸을 때 말뚝 박은 곳에서 한참 뛰어다녔다고 해요. 얼마나 넓은지. 그런 형식으로 마을이 조성되다가 육구시장이 시에서 와가지구 아버지가 돈도 안 받고, 시장이 생긴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준 땅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어시장이 생기고 옷집이 생기고 정육점이 생기고 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육구시장의 틀이었고 함경도 분들이 여러

분 와서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쁜이 젓갈 그분도 우리 아버지 후배였어요. 우리 집 방이 7칸이었어요. 반쪽을 쥐서 덕장도 만들고 젓갈을 만들고 명란, 창란을 만들어서 팔고 시작이 된 것이 속초의 명물 이쁜이젓갈이었어요.

시장 성립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얘기들이고, 또 기억나는 건 옛날에 서커스단들이 많이 왔었어요. 서커스단이 오면은 우리 집 앞에 부둣가, 거기 오징어 배가 불을 켜면 밤에 환해요. 거기서 천막을 치고 동춘서커스처럼... 우리 집이 방이 많아서 일부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다른 데서도 주무시고 그런 바람에 내가 서커스단장 아저씨 목마 타고 맨날 서커스 구경하던 생각이 나요.

형제 기름집 사장님이 62년도에 와서 건물을 짓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언제 들어오셨나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누님이 9년 위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53년 정도 돼요.

부둣가 쪽의 사정은 어떠했나요?

우리 집이 영춘식당이라는 냉면집을 했어요. 당시 속초에 냉면집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함흥냉면하구 우리 집 하구 두 군데가 있었어요. 뱃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냉면을 먹곤 하던 생각도 나고, 바쁠 때는 오봉 들고 심부름하던 생각도 납니다. 저녁만 되게 되면 배가 들어와 오징어를 작업하려고 집어등을 켜게 되면 그 동네 자체가 낮이었어요. 오징어배, 명태배가.....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7년 차인데 용돈이 모자르면 리어카에 명태를 싣고 가는 거 뒤에서 밀어주다가 명태를 뒤에서 몇 마리 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구 열댓 마리 팔아가지구 용돈으로 하고 그랬을 정도로 명태, 오징어, 도루묵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뱃사람들은 항상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술집이 많았어요. 부둣가 쪽으로요. 육구시장쪽으로 해가지구 시장안에도 선술집이 많았어요. 형제기름집 옆에도 다 선술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로 시퍼런 바닷가가서 돈벌어가지구 아가씨 있는 데 가서 술을 먹는 거야. 그 돈 다 쓸데까지. 그래서 집에 가서 맨날 다투구 그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요. 내가 그때 어렸으니까 부둣가가 엄청 넓게 생각되고, 서커스팀들도 와서 몇 번 서커스도 하고 그랬죠.

부둣가에 선착장이 있었나요?

선착장은 없었어요. 그냥 땅 위에 물을 접하는 지역이 선착장이예요. 거기다가 배를 연결 시켜놓고 배내리고... 물에 올라와서 작업을 했죠. 올라와서 풀어놓으면 삽으로 리어카에 담아 끌고 그랬죠.

옛날에 갈릴리교회 자리도 물이었어요. 그게 점점 땅을 매립해가지구 넓어지구 해가지고 시대가 발전하니까 콘크리트로 조성을 해가지고 물과 육지 간 경계선이 만들어졌지, 옛날에는 보트를 타고 들어와서 물에 올라오면 거기가 끝이었죠. 거기가 덩장이었고, 물내리고...

도로 건너편 사정은 어떠했나요?

속초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문구사만 있었어요. 학교가면서 문구류사고, 군것질거리...뻘데기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이런걸 팔면 컵에다가 넣어 10원씩 주구 사먹구, 1원짜리 눈깔사탕 사 먹던 생각이 납니다. 네 집이 문구사고 가정집들이 몇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골목 골목에 가정집들이었어요. 반대쪽(삼삼원 있던 곳)은 달동네였어요. 언덕빠기에 좁은 집들이 다닥다닥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땅을 다쳐가지고 가마니짓고 시작하든게 집을 저가지구 다락방 형식의 집들이 되었죠. 방한칸에 부엌 하나. 그때 방 한 칸에 식구 7명이 이불 덮고 잘 때 모습이죠.

6구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는 속초 바닷가 전체에 어물이었으니깐 고기는 많지 않고 쌀집, 옷집, 고깃집, 비닐, 장판집, 야채과일집, 기름집, 신발집 그런 정도였어요.

김덕수 79세

보관관 2022. 11. 24.

보관관 일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970년대 5년 정도 했어요.

보관관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논에 물을 대주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포크레인이 없어서 모든 일을 사람이 일일이 했어요. 논이 평수를 따져서 사람을 나오게 했어요. 1,000평이면 3명, 500평이면 2명 나와라 이런 식으로, 아마 300평마다 한 사람씩 불렀던 것 같아요.

흙을 소루지게(흙을 지게에 담아 날라야 하니 흘러지지 않게 소쿠리에 담아 지게에 얹었다)에 저서 독을 쌓았어요. (청초천의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작업) 물도 대고 보에 관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1년에 쌀 5가마 정도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었지만 주로 쌀로 받은 것 같아요. 모내기하기 전의 일이고 1년 농사의 첫 행사니 모내기보다 더 크게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떠들썩하게 먹고 일하고 그랬어요.

도리원은 하보에 속해요. 우리 보는 제방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보 중보는 온정리 청대리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도 컸어요.

보의 물은 어떻게 논으로 보냈나요?

소나무를 파서 물길을 보냈어요. 물이 많을 때는 보에서 물길을 터서 보냈지만 가물거나 물이 없을 때는 개울 바닥을 팠어요. 둥글게 많이 파면 물이 고여요. 그러면 그때 물을 논으로 보내요. 가래질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외카래(외가래)는 3명이 했고 쌍카래는 5명이 했어요. 가래질로 물을 논으로 보내는 일은 많이 힘들어요. 하보 쪽에서 너무 깊게 파면 중보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네도 물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깊게 파면 그쪽으로 다 가니까.

물길을 관리하는 일을 보매기라고 했다는데, 보매기를 하고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였나요?
 임금은 없어요. 보매기는 봄에 물을 대는 걸 보매기라고 해요. 물을 대야 모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논에 물을 대야 할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보관관이 시키는 대로 마을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보관관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물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돌로 쌓았는지, 구덩이를 팠는지...)

큰 소나무를 (소 구유처럼) 파서 물을 댔다. 생소나무는 물에 들어가도 천년을 버티니까.

청초천에 보는 언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보를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언제인가요?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속초시로 승격된 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었을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고 그걸 다시 쌓고 그랬겠죠. 보관관이 하는 일이 그랬어요. 보가 비에 허물어지면 (논이 있는)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다시 쌓는 일이에요. 비가 왔다 하면 명석, 가마때기 다 갖고 나가고 난리였어요.

현재 콘크리트 보는 원래 그 자리에 보가 있었나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상보, 중보도 거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보관관 일은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누구한테 배우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보가 망가지거나 터지거나 할 때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 안 할 거니까 너 해, 하고 그랬으니까요.

보관관 일을 하면서 보람되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6·25전쟁 후에 한 번 큰 홍수가 났었는데 그때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갔어요. 쓸려 내려가면서 모래가 논으로 들어가서 농사가 잘 안됐었어요. 모래땅에는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꼬챙이로 찔러서 구멍을 낸 다음에 모를 심었어요. 가을에 수확도 좋지 않았어요. 모래땅엔 논농사가 안되요. 몇 년을 모래 때문에 힘들었어요. 빨리 퍼낼 수 없어서 모래를 논 한쪽 옆으로 쌓아놓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밀가루를 내줬던 기억이 나요.

끝.

부록 3. 추억을 간직한 거리 /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 지역

이곳의 사진은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의 현재 모습을 남기고자 기록하였습니다.

사진은 박경심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제공해 주신 것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동>



교동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



교동 전경



교동 전경

교동 아남프라자 앞 삼거리



석봉미술관 앞

구 삼화제제소 앞





만천동 옛 우물터가 있던 자리



만천동



만천동

만천동 옛길



만천동 고성편의점 앞 일대

만천4거리





교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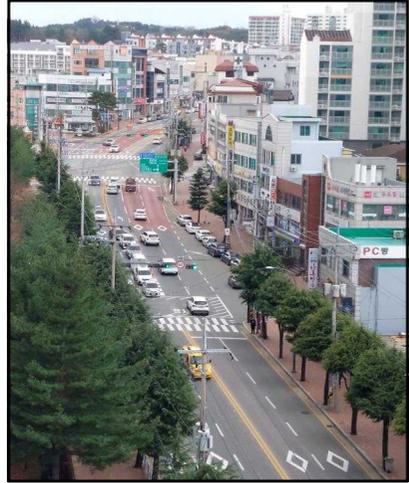


교동가로



교동 전경

교동 대우아파트 옆 도로 전경



교동 동아서점

교동 천일이용소



<청학동>



속초해랑중학교 앞에서 청학동 가는 도로



청학동 육구시장 앞 도로



청학동 여관골목

청학동 도로



청학동 도로



청학동 도로





청학동 옛 골목



청학동 경로당



청학동

청학동



청학동

청학동 육구시장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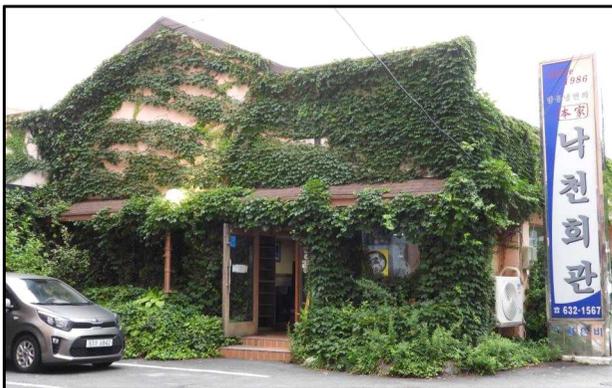




청학동 사십계단



청학동 사십계단 골목 수퍼



청학동 낙천회관

<청호동>

청호동 설악대교 아래 옛집 모습



청호동 해변에서 바라본 외옹치

청호동 구 청호문구사





설악대교에서 바라본 수협인근



청호동 마을 전경



청호동 마을 전경

청호동 마을 전경



청호동 마을 전경

청초호





옛 원풍조선소 자리



옛 원풍조선소 자리



수협 인근 전경

<노화동>

가마소 계곡



가마소 계곡

가마소 계곡 입구





속초경찰서 앞 도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먹거리 단지

목우재 가는 도로



설악문화센터

소야교





도리원 앞버딩



신흥리 과자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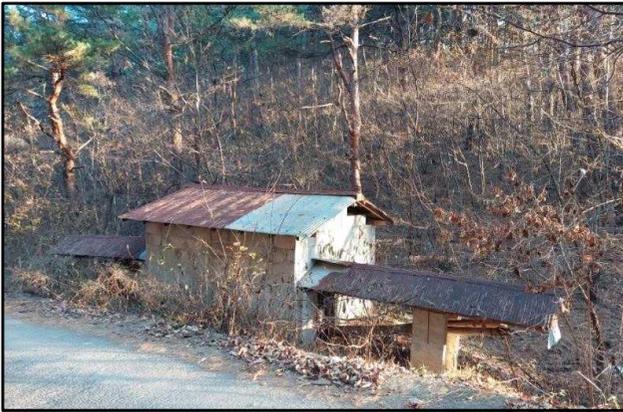


학사평 예비군훈련장

옛 동우대학 건물



이목리 상여보관소



척산 노적바위 아래에 있는 굴





적산 죽육공원



학사평 순두부 마을



청초천의 겨울 풍경

<기타>



만천동마을 전경



교동과 노학동 전경



청학동과 교동



청학동과 교동



척산마을과 노학동



노학동 전경

참/고/문/헌



【기본사료】

- 『관동읍지(關東邑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지리지자료-양양군(朝鮮地誌資料-襄陽郡)』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 강릉대학교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강원문화재단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속초시)』, 2004.
 고성군, 『고성군지(하)』, 2020.
 _____, 『사진으로 보는 고성』, 2020.
 국립민속박물관,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청호동』, 2014.
 국립민속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 『실향을 딛고 세운 도시, 속초』, 2017.
 김영건, 『속초』, 20세기 북스, 2019.
 김정우, 『내고향』, 강원일보사, 1997.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박명선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I』, 속초문화원, 2021.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1집)』, 1989.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_____, 『속초향토사 1차 자료』, 1981.
 _____,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면세일람, 읍세일람)』, 2008.
 _____, 『청호동에 가본적이 있는지』, 2017.
 속초시, 『속초시지』, 1991.
 _____, 『시정 30년사』, 1994.
 _____, 『시정 40년사』, 2004.
 _____, 『시정 50년사』, 2013.
 속초시·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2001.
 속초시립박물관, 『1950년대 속초리속으로』, 2011.
 _____, 『록웰 기증사진 전쟁이 멈춘 뒤, 속초』, 2021.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2006.
 속초읍, 『읍세일람』, 1955.
 엄경선,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속초문화원, 2017.
 이수영, 『속초, 그곳의 기억들』, 속초문화원, 2019.
 이수영·장재환 공저, 『길 위의 속초학 속초의 길』, 속초문화원, 2020.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정상철, 『속초의 역사와 이해』, 속초문화원, 2018.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최재도·이수영 공저,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속초문화원,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문화원형백과 전통고기잡이』, 200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도』, 1981.

【논문】

(재)에맥문화재연구원,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18.
 엄경선, 「분단시대 동해안 수복지구 주민 수난 이야기」, 『수복지구 문학으로 본 수복지구 이야기자료집』, 2022.

【시청각자료】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_____, 폴펜처 기증사진.

【웹사이트】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홈페이지(<http://m.misiryong.kr>)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아바이마을 홈페이지(<http://www.abai.co.kr>)
 천주교춘천교구 홈페이지(<http://www.cccatholic.or.kr>)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속초 도시변천사 Ⅲ

청학동 · 교동 · 청호동 · 노학동

펴낸이 / 김계남

엮은이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외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대진고등학교 교사,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정규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정종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영택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속초고등학교 교사,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창섭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대진고등학교 교사

박명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정 졸업
기린고등학교 교감

연구보조원 / 박경심 속초사진아카이브 회원

김선희 속초평생교육원 문해강사

기획 / 속초문화원 사무국 & 양용석(사무국장)

출판 / 씨엔씨디자인

발행 / 2022. 12.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 632-1231 / 전송 (033) 632-1241

전자우편 sc2439@kccf.or.kr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비매품]

ISBN 979-11-981312-0-1

◇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원 및 집필 저자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전제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속초 도시변천사

